



한국민속상징사전 • 卵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행일

2022년 11월 29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225

발행인

김종대

총괄

이관호

기획

백민영

편수원

백지연, 신다혜, 이란섭, 한승희, 한효주

윤문·교열

엄민용 유인선 박신영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김은정, 김유미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400-01

ISBN

978-89-289-0327-6: 비매품



한국민속상징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Rabbit



토끼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 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민속상징사전〉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민속에 담긴 문화적 상징을 조망하고 해설하는 사전으로 일상생활 속 민속 문화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설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민속상징사전〉‘호랑이 편’에 이어 〈한국민속상징사전〉‘토끼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토끼가 지닌 문화적 상징성과 더불어 현재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토끼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담았습니다. 토끼는 십이지 중 네 번째 동물이며 우리 민속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울러 민첩함과 영민함을 지녀 위기가 닥쳤을 때 지혜와 꾀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토끼의 생태부터 풍속·설화·노래·속담·유물 등에 관한 해설까지 풍성하게 수록하여 토끼의 상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민속상징사전〉은 앞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민속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창조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속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전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필자와 감수위원 및 자료를 협조해주신 관계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과 관심과 도움을 주신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중대

발간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상징사전〉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속한 것으로 2021년 첫 발간을 시작하였다. 올해 발간한 〈한국민속상징사전〉 ‘토끼 편’은 한국문화 속 토끼의 상징을 조명하였다.

표제어 78항목을 원고지 약 1천매의 원고와 200여장의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사진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집필자 제공 사진 및 타 기관의 소장 자료를 확보하여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전의 표제어는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를 기초로 관내·관의 민속 상징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적합성을 검증, 추가, 삭제를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제어의 원고는 32명의 해당 분야 연구자가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민속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국문학, 인류학, 생물학, 미술사, 복식사 등 인접 학문 필자들이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적합성 검수와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쳐 각 분야 전문 연구자의 감수를 받았으며, 감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토끼의 생태와 자연, 장수와 풍요의 토끼, 문학 속 토끼, 토끼가 깃든 물건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또한, 언어, 언론, 유물 등에 등장하는 토끼의 모습은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사전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 등으로 구성하면서 한글 자모순 목차, 필자별 목차, 색인 등을 추가하여 사전 본연의 찾기 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상징사전: 토끼 편〉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민속상징사전: 토끼 편〉에 독립 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토끼의 생태와 자연, 장수와 풍요의 토끼, 문학 속 토끼, 토끼가 깃든 물건, 속담 속 토끼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분야별로 하였고, 각 분야 내에서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추가로 가나다순 목차를 구성하여 분야별 목차 뒷부분에 배치하였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 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부록

부록에는 우리 문화에 반영된 토끼에 대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국립민속박물관 및 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토끼 관련 유물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2. 토끼 관련 설화를 지역별로 정리해 수록하였으며, 3. 토끼가 등장하는 속담, 속신, 고사성어를 수록하였다. 4. 또한 1920년대 이후의 신문에 등장하는 토끼 관련 소식을 정리·수록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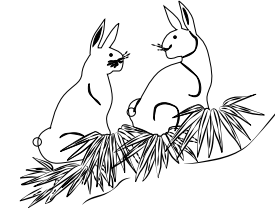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문위원 및 감수위원

자문위원은 강경표(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권태효(국립민속박물관), 김명자(안동대학교), 설성경(연세대학교), 엄소연(한국외국어대학교), 오세길(동의과학대학교), 윤열수(가회민화박물관), 이원복(사역사·여성·미래), 최은수(국립민속박물관)가 맡았다.

감수위원은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가 맡았다.



014

토끼의 생태와 자연

The Ecology and Nature of Rabbits

034

장수와 풍요의 토끼

The Rabbit of Longevity and Abundance

062

문학 속 토끼

The Rabbit in Literature

160

토끼가 깃든 물건

Objects with Rabbit Motifs

192

부록

Appendix

목 차

Contents

수 록 순

장수와 풍요의 토끼

The Rabbit of Longevity and Abundance

| | |
|--------------|-----|
| · 장수와 풍요의 토끼 | 037 |
| · 묘시 | 042 |
| · 묘신 | 042 |
| · 삼묘일 보기 | 044 |
| · 상묘일 | 046 |
| · 옥토끼 | 048 |
| · 옥토망월형 | 051 |
| · 월광보살 | 053 |
| · 털날 | 056 |
| · 토끼꿈 | 056 |
| · 토끼띠 | 058 |

문학 속 토끼

The Rabbit in Literature

| | |
|---------------|-----|
| · 문학 속 토끼 | 064 |
| · 속담 속 토끼 | 069 |
| · 고국산천 | 072 |
| · 꿈을 범한 토끼 | 074 |
| · 구토지설 | 075 |
| ·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 077 |
| · 꼬리 잘린 호랑이 | 079 |
| · 돌떡 먹는 호랑이 | 081 |
| · 동물 그리는 노래 | 083 |
| · 동물 나이 자랑 | 084 |
| · 문경 토끼비리 | 086 |
| · 반달 | 088 |
| · 범피종류 | 090 |

토끼의 생태와 자연

The Ecology and Nature of Rabbits

| | |
|--------------|-----|
| · 토끼의 생태와 자연 | 017 |
| · 굴토끼 | 022 |
| · 멧토끼 | 024 |
| · 우는토끼 | 025 |
| · 토끼사냥 | 027 |
| · 토끼자리 | 030 |
| · 토끼풀 | 032 |

| | |
|------------------------------|-----|
| ·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 092 |
| · 산토끼 | 094 |
| · 산토끼 | 096 |
| · 상좌다툼 | 097 |
| · 수궁가 | 100 |
| · 수궁가 | 106 |
| · 수궁풍류 | 111 |
| · 아이를 솔에 넣고 도망친 토끼 | 112 |
| · 웅달샘 | 113 |
| ·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 115 |
| · 토끼 눈이 빨갛게 된 유래 | 116 |
| · 토끼 배 가르는 대목 | 117 |
| · 토끼골 | 119 |
| · 토끼바위 | 121 |
| · 토끼봉 | 123 |
| · 토끼선생 | 124 |
| · 토끼섬 | 126 |
| · 토끼와 거북이 | 129 |
| · 토끼와 원숭이 | 130 |
| · 토끼육설 | 133 |
| · 토끼위기 | 136 |
| · 토끼의 간 | 138 |
| · 토끼의 보시행 | 140 |
| · 토끼의 재판 | 142 |
| · 토끼전 | 144 |
| · 토끼타령 | 146 |
| · 토끼화상 | 148 |
| · 토동 | 150 |
| · 토별문답 | 151 |
| · 토사호비 | 154 |
| · 토의간 | 155 |
| ·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 157 |

토끼가 깃든 물건

Objects with Rabbit Motifs

| | |
|-----------------|-----|
| · 토끼가 깃든 물건 | 163 |
| ·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 | 168 |
| ·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 169 |
| · 수월관음도 | 170 |
| · 쌍토도 | 172 |
| · 일월광첩 | 173 |
| ·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 175 |
| ·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 177 |
| · 토끼고기 | 178 |
| · 토끼무늬 | 180 |
| · 토끼부적 | 184 |
| · 토끼털 | 185 |
| · 토사자 | 188 |
| · 토해 | 189 |
| · 호응박토도 | 190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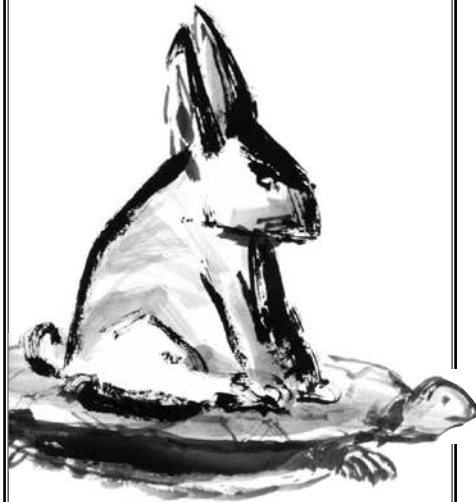
Appendix

| | |
|------------|-----|
| · 토끼 문화재 | 194 |
| · 우리말 속 토끼 | 224 |
| · 토끼 이야기 | 236 |
| · 토끼 소식 | 244 |
| · 색인 | 266 |
| · 필자 | 269 |

목 차

Contents

가
나
다
순



| | |
|----------------|-----|
| 기역 | |
| ㄱ | |
| 고국산천 | 072 |
| 곰을 범한 토끼 | 074 |
| 구토지설 | 075 |
| 굴토끼 | 022 |
|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 077 |
| 꼬리 잘린 호랑이 | 079 |
| 더글 | |
| ㄷ | |
|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 | 168 |
| 돌떡 먹는 호랑이 | 081 |
| 동물 그리는 노래 | 083 |
| 동물 나이 자랑 | 084 |
| 미음 | |
| ㅁ | |
| 멧토끼 | 024 |
| 묘시 | 042 |
| 묘신 | 042 |
| 문경 토끼비리 | 086 |
| 문학 속 토끼 | 064 |
| 비음 | |
| ㅂ | |
| 반달 | 088 |
|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 169 |
| 범피중류 | 090 |
|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 092 |
| 시옷 | |
| ㅅ | |
| 산토끼 | 094 |
| 산토끼 | 096 |
| 삼묘일 보기 | 044 |

| | | | |
|------------------|-----|-------------------------|-----|
| 상묘일 | 046 | 토끼고기 | 178 |
| 상좌다툼 | 097 | 토끼골 | 119 |
| 속담 속 토끼 | 069 | 토끼꿈 | 056 |
| 수궁가 | 100 | 토끼띠 | 058 |
| 수궁가 | 106 | 토끼무늬 | 180 |
| 수궁풍류 | 111 | 토끼바위 | 121 |
| 수월관음도 | 170 | 토끼봉 | 123 |
| 쌍토도 | 172 | 토끼부적 | 184 |
| | | 토끼사냥 | 027 |
| | | 토끼선생 | 124 |
| 이음 | | 토끼섬 | 126 |
| ㅇ | | 토끼와 거북이 | 129 |
|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 112 | 토끼와 원숭이 | 130 |
| 옥토끼 | 048 | 토끼육설 | 133 |
| 옥토망월형 | 051 | 토끼위기 | 136 |
| 옹달샘 | 113 | 토끼의 간 | 138 |
| 우는토끼 | 025 | 토끼의 보시행 | 140 |
| 월광보살 | 053 | 토끼의 생태와 자연 | 017 |
| 일월광첩 | 173 | 토끼의 재판 | 142 |
|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 175 | 토끼자리 | 030 |
| | | 토끼전 | 144 |
| | | 토끼타령 | 146 |
| 지읒 | | 토끼털 | 185 |
| ㅈ | | 토끼풀 | 032 |
| 장수와 풍요의 토끼 | 037 | 토끼화상 | 148 |
| | | 토동 | 150 |
| | | 토별문답 | 151 |
| 치읒 | | 토사자 | 188 |
| ㅊ | | 토사호비 | 154 |
|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 177 | 토의간 | 155 |
| | | 토해 | 189 |
| 티읒 | | | |
| ㅌ | | | |
| 털날 | 056 | 히읒 | |
|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 115 | ㅎ | |
| 토끼 눈이 빨강게 된 유래 | 116 |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 157 |
| 토끼 배 가르스 대목 | 117 | 호응박토도 | 190 |
| 토끼가 갖든 물건 | 163 | | |

토끼의 생태와 자연

The Ecology and Nature of Rabbits

고국산천
곰을 범한 토끼
구토지설
굴토끼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꼬리 잘린 호랑이
달과 토끼무늬 수막새
돌떡 먹는 호랑이
동물 그리는 노래
동물 나이 자랑
멧토끼
묘시
묘신
문경 토끼비리
문학 속 토끼
반달
백자 칠화 토끼모양 연적
범피종류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산토끼
산토끼
삼묘일보기
상묘일
상좌다툼
속담 속 토끼
수궁가
수궁가
수궁풍류
수월관음도
쌍토도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옥토끼
옥토망월형
옹달샘
우는토끼
월광보살
일월광첩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장수와 풍요의 토끼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털날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토끼 눈이 빨갛게 된 유래
토끼 배 가르는 대목
토끼가 갖든 물건
토끼고기
토끼골
토끼꿈
토끼띠
토끼무늬
토끼바위
토끼봉
토끼부적
토끼사냥
토끼선생
토끼섬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원숭이
토끼옥설
토끼위기
토끼의 간
토끼의 보시행
토끼의 생태와 자연
토끼의 재판
토끼자리
토끼전
토끼타령
토끼털
토끼풀
토끼화상
토동
토별문답
토사자
토사호비
토의간
토해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호응박토도



토끼의 생태와 자연

서문홍(국립생물자원관)

토끼목Order Lagomorpha은 남아메리카 남부, 서인도, 마다가스카르, 호주, 아시아 남동부의 섬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는 초식동물이다. 현존하는 토끼목은 우는토끼Pikas가 속한 우는토끼과Family Ochotonidae와 멧토끼Hares, 목화솜토끼Sylvilagus floridanus, cottontail rabbit, 잭래빗Lepus californicus, jack rabbit 등이 있는 토끼과Family Leporidae로 구분된다. 그중 우는토끼과 29종과 토끼과 63종 등 모두 2과 12속 9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굴토끼Oryctolagus cuniculus, European rabbit와 같은 종들은 털 없이 태어나고 태어나서도 눈을 바로 못 뜨는 등 발육이 덜 된 만성성altricial이다. 이 때문에 어미가 장기간 보호한다. 반면 멧토끼 같은 종들은 조성성precocial으로 태어날 때부터 털이 덮여 있고 몇 분 안에 눈을 뜨며 바로 뛰어다닐 수 있다. 또한 북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잭래빗은 몸통 길이 43~52cm, 꼬리 길이 6~12cm, 귀 길이 10~13cm, 무게 1.8~3.6kg으로 마치 여우만큼 큰 토끼이다. 잭래빗은 천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망갈 때 시속 55km로 달릴 수 있으며, 뛰는 도중 한 번에 6m 정도를 도약할 수 있다. 그 외 눈덧신토끼Lepus americanus, snowshoe hare는 ‘눈신토끼’라 불리기도 하는데, 북아메리카 북부에 서식하며 뒷발이 크고 발바닥에 털이 많아서 한겨울에도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고 눈 위를 뛰어다닐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몸통 털빛이 갈색을 띠지만 겨울철에는 흰색으로 바뀐다. 그러나 네 발은 항상 흰색인 것이 눈신토끼의 주요 특징이다. 목화솜토끼는 몸통 길이 31~40cm, 꼬리 길이 4~8cm, 귀 길이 6~8cm, 무게 0.8~1.5kg으로 꼬리가 마치 솜처럼 생겨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나무수피 갠아먹은 흔적 | 2013 | 서문홍

과거에는 토끼가 쥐처럼 앞니(절치)가 완전하게 에나멜로 덮여 있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토끼목을 설치목(Order Rodentia)에 속하는 한 아목(亞目)으로 두고 '이를 가는 동물'을 뜻하는 설치류(齧齒類)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형 초식동물의 생리생태적 습성에서 기인한 수렴 현상의 결과에 따라 형태가 닮은 것이라 하여 현재는 독립된 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토끼목과 쥐목의 큰 차이점은 토끼의 경우 위턱의 앞니가 두 쌍으로 숨겨진 정형치(peg teeth)가 있지만 설치목은 앞니 한 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토끼는 윗입술이 Y자로 찢어지고 두 쌍의 앞니를 이용하여 먹이를 씹을 때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쥐들은 아래턱을 앞뒤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토끼목 토끼는 멧토끼, 우는토끼, 북방토끼 등 3종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끼는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는토끼는 꼬리가 없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 우는토끼는 다른 토끼들과 달리 여름과 가을 부지런히 식물 등을 입으로 날라 건조시켜 굴 안 건조 더미에 보관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토끼는 인간과 긴 역사를 함께해 왔다. 인류가 번성하며 숲을 벌채하면서 토끼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초원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토끼 개체 수는 증가하였다. 5만 년 전 토끼는 이베리아반도에서 초기 인류의 사냥감으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목화슴토끼나 잭래빗을 사냥하였다.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토끼는 주요 사냥감 중 하나이다.

토끼는 번식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한 가지 예로 과거 포르투갈인들이 1420년대에 정주한 마데이라(Madeira) 제도의 포르토 산토섬(Porto Santo Island)에 암토끼 한 마리와 새끼를 풀어놓은 결과가 있다. 천적과 질병이 없는 섬에서 토끼는 거의 무제한으로 번식하여 온 섬에 넘쳐나 정착민들이 키우는 농작물을 모두 먹어 치웠다고 한다. 토끼에 대한 생태학적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본 거주민들은 결국 다른 섬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1455년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시 섬에 돌아온 뒤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토끼'가 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토끼들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갠아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 즉 섬 안의 나무를 비롯한 토착 식물들까지 훼손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토끼가 섬 안의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여 먹이와 은신처 등의 부족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어느 지역에 토착 토끼들이 서식하고 있으면 중간 경쟁과 기생충·질병 등으로 인하여 풀어놓은 토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북미 지역에는 28종의 토끼가 있고 남아프리카에는 8종의 자생 토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유럽산 토끼를 풀어 놓은 결과 자연에서 적응을 못 하고 폐사하였다. 반면 호주·뉴질랜드·칠레·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토착 토끼들이 없어서 유럽에서 도입한 굴토끼가 야생에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굴토끼 고기와 모피로 얻는 이익보다 생태학적으로 '외래종'이자 '침입종'인 굴토끼가 일으키는 서식지 교란과 농작물 피해, 다른 가축들의 먹이 감소 피해가 더 커지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토끼들은 사람들이 가꾸는 채소나 어린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



Y형 흔적을 남기는 토끼 발자국 | 2007 | 서문홍

인간은 식량과 털가죽을 얻기 위해 토끼를 사냥해 왔다. 이 중 굴토끼는 길 들여 가죽으로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토끼를 사냥할 때면 행동반경이 좁은 토끼의 회귀성^{回歸性} 특징을 이용하여 토끼의 주요 이동 길목에 '치'라고 부르는 울무를 설치해서 잡았다. 토끼는 일반적으로 눈발과 진흙 등에서 짱충 짱충 뛰어갈 때 큰 뒷발이 앞에, 작은 앞발이 뒤에 따르는 Y자형 발자국 흔적을 남겨 놓아 다른 동물들의 발걸음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 토끼는 풀과 줄기를 먹을 때 싹둑 잘라 먹기 때문에 식물의 잘린 흔적만 보고도 토끼가 먹었는지, 노루와 고라니 같은 사슴류가 먹었는지 알 수 있어 토끼가 서식하는 지역에 치를 놓았다. 또 다른 사냥법으로는 그물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테니스나 배구 네트 같은 그물(가로 길이 약 18m, 높이 약 0.6m)을 여러 개 연결하여 산에 친 뒤 사방에서 수십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산 아래로 토끼몰이를 하면 한꺼번에 토끼를 여러 마리 잡기도 하였다.

잡은 토끼는 가죽을 벗기고 고기도 먹었는데, 토끼 고기는 부드럽고 맛이 담백하며 영양이 풍부한 데다 한방의학적으로 해열작용^{解熱作用}이 있어 예로부터 아이들이 열병에 걸렸을 때 토끼 고기를 먹었다. 또 토끼 가죽은 약해서 털이 잘 빠지지만 가볍고 부드러워 아이들과 여성의 귀마개나 조끼 등 방한구^{芳韓具}로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번식력이 좋은 토끼를 실험동물과 애완동물로도 중시하고 있다.

토끼의 독특한 특징으로 먹이로부터 최대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기가 썩 똥을 다시 먹는 습성인 식분증^{coprophagy}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되씹듯이 토끼는 수분이 있는 부드러운 똥을 다시 먹어 미처 흡수하지 않은 영양분을 최대한 얻는다. 토끼는 소화가 어려운 거친 식물질(셀룰로스)을 분해하는, 길쭉하게 꼬여 있는 형태의 충양돌기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 먹이를 분해하여 동글 동글한 똥을 썩는다. 충양돌기에 있는 장 세균은 비타민B를 합성하는데, 부드러운 배설물에는 마른 배설물보다 5배 이상 많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토끼는 이처럼 몸 안에 필요한 비타민을 얻기 위해 자신이 썩 똥을 다시 먹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토끼에 관한 속설로 '토끼는 눈을 뜨고 자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토끼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중에 사람을 비롯하여 여우 등 천적이 근처로 다가오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멧토끼가 흔한 동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넓은 초원이 줄어들고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사냥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수렵 대상 중에서 해제되어 포획 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며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멧토끼를 시지 보호종으로 지정하였다.

참고문헌 야생동물(윤명희, 대원사, 1992), 야생동물 흔적도감(최태영·최현명, 돌베개, 2007), 저 푸름을 닮은 야생동물(유병호, 다른세상, 2000), 한국의 포유동물(윤명희 외, 동방미디어, 2004), Mammals of Korea(조영석 외, 국립생물자원관, 2018).

굴토끼

유럽에 서식하는 토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집토끼라 불리는 종.

내용 굴토끼(*Oryctolagus cuniculus*, European rabbit)는 오늘날 집토끼의 원조이다. 굴토끼의 학명을 풀이하자면 속명인 *Oryctos*는 그리스어로 ‘땅을 파다’라는 뜻이며, *lagos*는 ‘토끼’를 뜻한다. 종명인 *cuniculus* 역시 라틴어로 토끼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굴토끼는 멧토끼류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다. 굴토끼의 귀 끝은 갈색이며 꼬리 윗면은 흑갈색이고 꼬리 아랫면은 흰색이다. 그리고 꼬리를 위로 추켜세우고 뛰어가는 습성이 있다. 목 뒷덜미는 적갈색이며 배 아래는 흰색과 회색이다. 굴토끼와 멧토끼의 머리뼈를 비교하면 굴토끼의 뼈 입천장(bony palate)이 더욱 길쭉하고 비강 통로(nasal passage)가 좁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및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굴토끼는 가축용으로 도입되었으며 멧토끼와 달리 굴을 파는 습성이 있다. 굴토끼는 굴 안에서 번식하고, 갓 태어난 새끼는 털이 없고 눈을 뜨지 않은 상태이다. 새끼는 생후 2주 정도가 지나야 눈을 뜰 수 있으며 오랫동안 어미 토끼의 보호를 받고 자란다.

굴토끼는 연중 내내 번식하지만 새끼들은 대부분 2~8월 중 태어난다. 이른 봄에 태어난 암컷 굴토끼는 3.5개월이 지나면 성 성숙(sexual maturity)이 되며, 그해 번식이 가능하다. 굴토끼의 임신기간은 28~33일 정도로 짧으며 보통 3~1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어미 굴토끼는 새끼가 태어나고 약 28일간 새끼를 돌보는데, 천적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하루에 한 번 약 5분 동안만 새끼를 돌보는 습성이 있다.

굴토끼 굴은 워렌(warren)이라 불리며, 굴의 규모는 굴토끼 개체군 크기에 따라 다르다. 굴토끼 수가 많으면 굴은 ‘산실’과 ‘잠자리’ 등 더욱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수가 적으면 단조롭다. 굴 안의 번식장은 1~2m 길이로 굴토끼의 털과 마른 이끼로 덮인 보금자리가 있다. 워렌은 특히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거나 배수가 잘되는 지역을 이용하며, 굴 입구의 지름은 10~50c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굴토끼 수컷은 암컷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평균 0.004~0.02km²로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굴토끼들은 워렌에서 약 150~400m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식 환경에 따라 더 멀리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굴토끼 서식밀도는 서식지의 질에 따라 다르며 서식밀도가 낮은 지역은 1마리/0.01km²이며, 높은 지역은 10마리/0.01km² 정도로 밝혀졌다. 자연 상태에서 굴토끼 서식밀도가 25~100마리/0.01km² 정도가 되면 번식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식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 밖에 굴토끼들은 언덕 부근에 똥을 집중적으로 싸는 경향이 있다. 굴토끼 똥은 둥그랗고 검은빛의 어두운 갈색으로 지름이 약 0.7~1.2cm이다. 굴토끼는 멧토끼 등 다른 토끼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의 똥을 싸다. 첫 번째는 항문샘에서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영역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다. 두 번째는 영역표시 목적이 아닌 부드러운 똥으로 영양분을 얻고자 배설물을 다시 먹기 위한 것이다.



가축화된 굴토끼 | 2016 | 서문홍

특징 및 의의

굴토끼들은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토끼굴인 워렌을 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다. 워렌에서는 1~3마리의 성체 수컷과 1~5마리의 어른 암컷이 무리 지어 살며, 암수 모두 서열과 함께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컷 굴토끼는 새끼를 양육할 때 다른 암컷이 다가오면 자신의 어린 새끼를 공격하거나 해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습성이 있다.

한편 기원전 그리스에서는 하운드(Hound) 계통의 사냥개를 이용하여 토끼 사냥을 한 기록이 있다. 이후 프랑스어로 ‘작다’ 또는 ‘요란하게 짓는다’라는 뜻을 지닌 하운드 품종인 비글(Beagle)은 토끼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개로 개량되어 현재까지 토끼 사냥에 이용되고 있다. 굴토끼가 유럽 남부지역에서 넓게 퍼진 때는 15~16세기경으로 당시 여성들의 수렵용으로 정원 등에 방사한 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한국동식물도감7(원병희, 문교부, 1967), 한국의 포유동물(윤명희 외, 동방미디어, 2004), Mammals of Korea(조영석 외, 국립생물자원관, 2018), Mammals of Europe(David W. Macdonald·Priscilla Barret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필자 서문홍(西門洪)

멧토끼

현재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멧토끼속 *Lepus spp.* 의 하나.

내용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멧토끼 *Lepus coreana*, Korean hare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산토끼'라고도 하며, 초지·농경지·야산·산림·산악·해안가 등에 서식하고 있다. 멧토끼는 콧등이 넓고 이마에 하얀 작은 반점이 있어 다른 토끼들과 구분이 되며, 크기는 중소형이다. 멧토끼 눈은 빨간데, 그 이유는 망막에 색소가 없어 혈관 내 핏빛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여우·삿·담비 등 육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멧토끼는 큰 귀와 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소리를 잘 듣고, 빨리 달릴 수 있다. '도망간다'라는 말의 속어인 '토끼다'는 재빠른 습성의 토끼에서 파생된 말이다.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 굴토끼와 달리 멧토끼는 나뭇등걸 밑이나 관목, 풀숲이 우거진 곳을 보금자리로 이용한다. 멧토끼는 땅이 움푹 파인 곳에 새끼를 낳으며, 갓 태어난 새끼는 털이 있고 눈을 빨리 뜨고 바로 활동할 수 있다. 멧토끼는 천적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특히 천적으로부터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도록 진화하여 산속에서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멧토끼는 다른 야생동물에게 쫓겨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회귀성을 이용하여 과거에 수렵인들은 멧토끼가 다니는 주요 이동통로에 덫(올가미)을 놓아 포획하기도 하였다.

멧토끼의 '멧'은 산을 뜻하는 '뫼'의 사투리로, 멧토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토끼와 같은 종이지만 서식지로는 깊은 산보다 오히려 풀숲(초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서식 장소는 해발 500m 이하의 야산이며, 간혹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서도 서식하지만 서식밀도가 낮은 편이다.

겨울철 멧토끼 먹이와 번식지의 질은 멧토끼 개체군 유지에 중요하므로, 싸리나무·화살나무 등 목본식물과 다래·취 등 덩굴성식물을 관리하여 겨울철 먹이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새 등 덩불 식물은 우거진 정도를 50~70%로 유지하여 멧토끼 서식지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지면 멧토끼는 나무껍질과 나무뿌리까지 갉아 먹는 습성이 있어 눈이 쌓이거나 녹은 후 특정 높이에 따라 멧토끼가 나무껍질을 갉아 먹은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림造林 사업이 성공한 이후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숲이 우거졌으나, 관목이나 억새 울폐도鬱閉度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멧토끼 서식지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멧토끼는 산림이 지나치게 우거진 곳보다는 초지



풀 숲에 숨어있는 멧토끼 | 2022 | 이윤수



멧토끼 둥 | 2005 | 서문홍

와 같은 개활지에 서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휴경지를 활용하거나 멧토끼가 선호하는 초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멧토끼를 위해 산악 지형에 초지를 조성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과 스키장 부근에 초지가 발달하여 멧토끼가 서식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멧토끼는 1년에 2~3차례 번식한다. 번식기에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이 앞다리를 들고 권투 선수처럼 싸움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뒷발로 공격하기도 한다. 승리한 수컷은 여러 암컷과 짝짓기를 할 기회를 얻으며, 임신한 암컷 멧토끼는 보통 2~4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한편 멧토끼의 똥은 동글동글한데, 멧토끼는 자신이 싸 똥을 먹고 재소화시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야생동물 흔적도감(최태영·최현명, 돌베개, 2007), 저 푸름을 닮은 야생동물(유병호, 다른세상, 2000), 한국동식물도감7(원병희, 문교부, 1967), 한국의 포유동물(윤명희 외, 동방미디어, 2004), Mammals of Korea(조영석 외, 국립생물자원관, 2018).

필자 서문홍(西門洪)

우는토끼

현재 한반도에 서식하는 우는토끼속 *Ochotona spp.* 의 하나.

내용 우는토끼속은 유럽을 제외한 북반구에 총 29종이 있으며, 이 중 27종이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우는토끼 *Ochotona hyperborea*, Northern Pika는 꼬리가 거의 없고 몸체가 계란형인 토끼로,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며 겨울 동면을 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묘향산, 개마고원蓋馬高原, 부전고원赴戰高原 등 1,000~2,500m의



바위위 우는토끼 | 2013 | 최현명

높은 산 또는 고원지대에 서식한다. 다른 토끼들과 달리 ‘찍찍’ ‘키척키척’ 등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는 우는토끼는 귀가 둥글고 작으며 쥐처럼 생겨서 ‘쥐토끼’나 ‘찍쥐’라고도 불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생토끼’ ‘새앙토끼’ 등도 가지고 있다. 체구는 작아 몸통 길이가 127~186mm, 꼬리 길이가 5~12mm밖에 안 된다. 귀 길이는 15~20mm로 귓바퀴는 검은색이지만 귀 테두리는 하얀색이다. 우는토끼는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하는데 여름에는 붉은 갈색, 겨울에는 잿빛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을 띤다.

우는토끼는 주로 돌너덜과 바위 등 암석이 많은 산비탈에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서식지로 이용한다. 또한 다양한 식물을 먹이로 하며, 겨울에도 동면을 하지 않아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화본과禾本科와 사초과莎草科 등 식물성 먹이를 모아 햇볕에 말려 건초로 만들어 굴속에 저장한다. 이 외에도 버섯, 이끼류, 지의류를 먹이로 이용하여 겨울을 나는 습성이 있다.

우는토끼는 빙하기에 적응한 종으로 주로 아한대와 한대 기후 지역에 분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기온이 올라 체온보다 높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우는토끼의 짝짓기 시기는 5~7월이며, 새끼는 4~5마리를 낳고,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번식한다.

특징 및 의의

주로 북반구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우는토끼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는토끼의 주요 특징은 독특한 울음소리이다. 그리고 멧토끼와 달리

사회성이 매우 강하고 밤낮없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집단 내의 다른 토끼들과 끊임없이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무리의 상호 인식이나 천적 경보와 영역 방어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울음소리가 길거나 짧아지며, 번식기에는 소리를 더 길게 끌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우는토끼의 짧은 울음소리는 소리 영역대가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서식지 내에서 울음소리의 위치와 횟수를 기록해 우는토끼 개체군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

우는토끼는 산비탈 바위틈 사이 바위굴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초원지대에서는 땅을 파서 생활하기도 하고 간혹 울창한 숲속에서 서식하기도 한다. 보통 산비탈에 사는 우는토끼가 수명이 길지만 번식률은 낮고, 초원지대에서 땅굴을 파고 사는 우는토끼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지만 번식률이 높고 서식밀도도 높다. 유라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우는토끼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면서 먹이를 모으고 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지만, 개체들 사이에 영역을 확고하게 지키는 동물이다.

개마고원에 서식하는 우는토끼는 ‘백암쥐토끼’라 하며, 북한 천연기념물 제 364호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 양강도 백암군에 서식하는 이 토끼의 서식지에는 산비탈에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으며 바위와 돌들이 많다. 또한 서식지에는 주로 잎갈나무·벗나무·버드나무·진달래·매자나무·귀룽나무 등이 자라며, 우는토끼는 돌 사이 구멍이나 나무구멍 등에서 서식한다. 우는토끼는 언제나 일정한 길로 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등지에서는 검은담비 *Martes zibellina*가 우는토끼의 주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야생동물 흔적도감(최태영·최현명, 돌베개, 2007), 이야기 야생동물도감(한상훈 외, 교학사, 2015), 한국 동식물도감7(원병희, 문교부, 1967), 한국의 포유동물(윤영희 외, 동방미디어, 2004), Mammals of Korea(조영석 외, 국립생물자원관, 2018), Lagmorphs(Smith et al,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8).

필자 서문홍(西門洪)

토끼사냥

울무, 덧, 틀 따위로 토끼를 잡는 일.

내용 토끼사냥에는 매사냥, 울무사냥, 덧사냥, 외양틀사냥, 그물사냥, 추적사냥, 물이 사냥 등이 있다.

매사냥은 매를 날려서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첫 기록이 보인다. “진평왕眞平王이 매일 정신 나간 사냥꾼과 매와 개를 부려서 평과



토끼덫 | 가로66 세로7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토끼사냥을 하자 김후직金后稷이 중지를 호소하였다日興狂夫獵師放鷹犬”는 기사이다(『삼국사기』 권45 열전 제5). 이 때는 채래종인 보라매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검독수리로 보기도 한다. 한편 『태종실록太宗實錄』9년 12월 17일의 “강무講武 때 잡은 여우와 토끼를 태묘太廟에 제물로 올렸다”는 기사는 거의 정기적으로 같은 사냥을 해 온 것을 알려 준다.

울무사냥은 칩, 삼꾼, 철사 따위로 엮은 고리(울무)로 잡는 법이다. 토끼가 다니는 길목 양쪽에 길이 60~70cm의 말뚝을 박은 뒤 지름 15cm의 울무 서너 개를 붙박은 나무토막을 엮어둔다. 이것과 땅바닥과의 거리는 5~10cm가 알맞다. 말뚝 대신 울무를 붙박은 나무토막을 길옆에 두기도 한다. 이 밖에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는 눈이 내렸을 때 토끼의 길목을 잔 나뭇가지로 막은 다음, 가운데에 울무를 걸어두었다. 이에 걸린 토끼는 목을 흔들수록 울무가 좁혀져서 꼼짝 못 하게 된다.

덧사냥은 가을에 틀을 놓아 잡는 방법이다. 통나무로 짠 덮목 양쪽에 작대기를 놓고 끈으로 잡아맨 다음, 위에 통나무나 돌을 쌓아놓는다. 이어 후리채 앞쪽으로 울을 쳐서 토끼가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 이를 건드리면 후리채가 벗겨지면서 틀이 무너진다. 미끼는 칩이나 시래기를 쓴다.

외양틀사냥은 외양틀에 설치한 덮목의 한쪽(외양)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잡는 법이다. 토끼 따위가 다니는 길 양쪽에 말뚝으로 울을 치되, 앞쪽은 높게 뒤는 조금씩 낮추며, 너비는 토끼 몸보다 조금 너르게 잡는다. 이어 끝이 벌어진 가달목을 땅에 박은 다음 멍에를 걸어둔다. 짐승이 발판을 밟으면 후리채가 벗

겨지면서 덮목이 떨어진다. 덮목은 길이 4~5m에 굵기 20cm쯤이다.

그물사냥은 칩껍질을 벗겨서 엮은 너비 1.5m에 길이 15~20m쯤의 그물을 산등성이에 쳐서 잡는 방법이다. 양 끝을 나무나 땅에 박은 말뚝에 살짝 걸고 길이 1.5~2m의 작대기 서너 개로 받쳐둔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쫓기는 토끼는 반드시 제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므로, 발자국을 찾자마자 아래쪽에 그물을 친다. 10여 명이 여러 방향에서 팽과리 따위를 두드리며 몰아 내려가면,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서 비탈에서 뛰지 못하는 탓에 그물에 걸리고 만다. 또 그물을 짓히고 달아나려고 애써도 양쪽이 벗겨지면서 몸이 휘감긴다. 이렇게 몰이 사냥 한번에 5~6마리를 잡을 수 있다.

추적사냥은 토끼의 뒤를 따라가서 잡는 사냥법이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마을 근처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던 토끼의 뒤를 따르며, 앞발이 짧은 대신 뒷발이 긴 토끼는 산등성이로 달아난다. 이때 곳곳에 눈 오줌의 빛깔을 단서로 삼아 그 주위를 살펴서 잔솔밭이나 바위틈에 숨은 토끼를 찾아낸다.

몰이사냥은 여러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산 위로 몰아서 잡는 법이다. 산이 겹겹이 둘러선 깊은 골짜기보다 이러한 곳에서 푹 떨어진 언덕이 좋다. 토끼를 발견하면 여럿이 손에 든 몽둥이로 땅을 치는 외에 “우와와” 하는 고함을 지르면서 몰아 올라간다. 위로 올라갈수록 범위가 좁아지면서 거리가 3~4m로 가까워지면 토끼는 마침내 산꼭대기로 달아난다. 이때부터 속도를 맞추어가며 몰아서 정상에 이르렀을 때 두 겹으로 둘러싸고 잡는다. 토끼에게 다가가서 몽둥이로 앞다리를 비스듬히 치면 곧 주저앉고 만다. 이 밖에 정상에 미리 그물을 쳐두었다가 두서넛이 따라가서 거두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앞에서 든 여러 가지 사냥 방법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및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오랜 옛적부터 써 온 까닭에 지역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지역 가운데 가장 정교한 곳을 들자면 일본이 첫손에 꼽힌다. 울무가 다섯 가지에 이르는 것 외에 함정까지 이용한 점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사냥(김광연, 한국민속대관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야생동물기(이상오, 박우사, 1959), 한·일·동시베리아의 사냥(김광연, 민속원, 2007), 狩獵(直良信夫, 法政大學出版局, 1968), 狩獵と漁撈(小山修三, 雄山閣出版, 1992).
필자 김광연(金光彦)

토끼자리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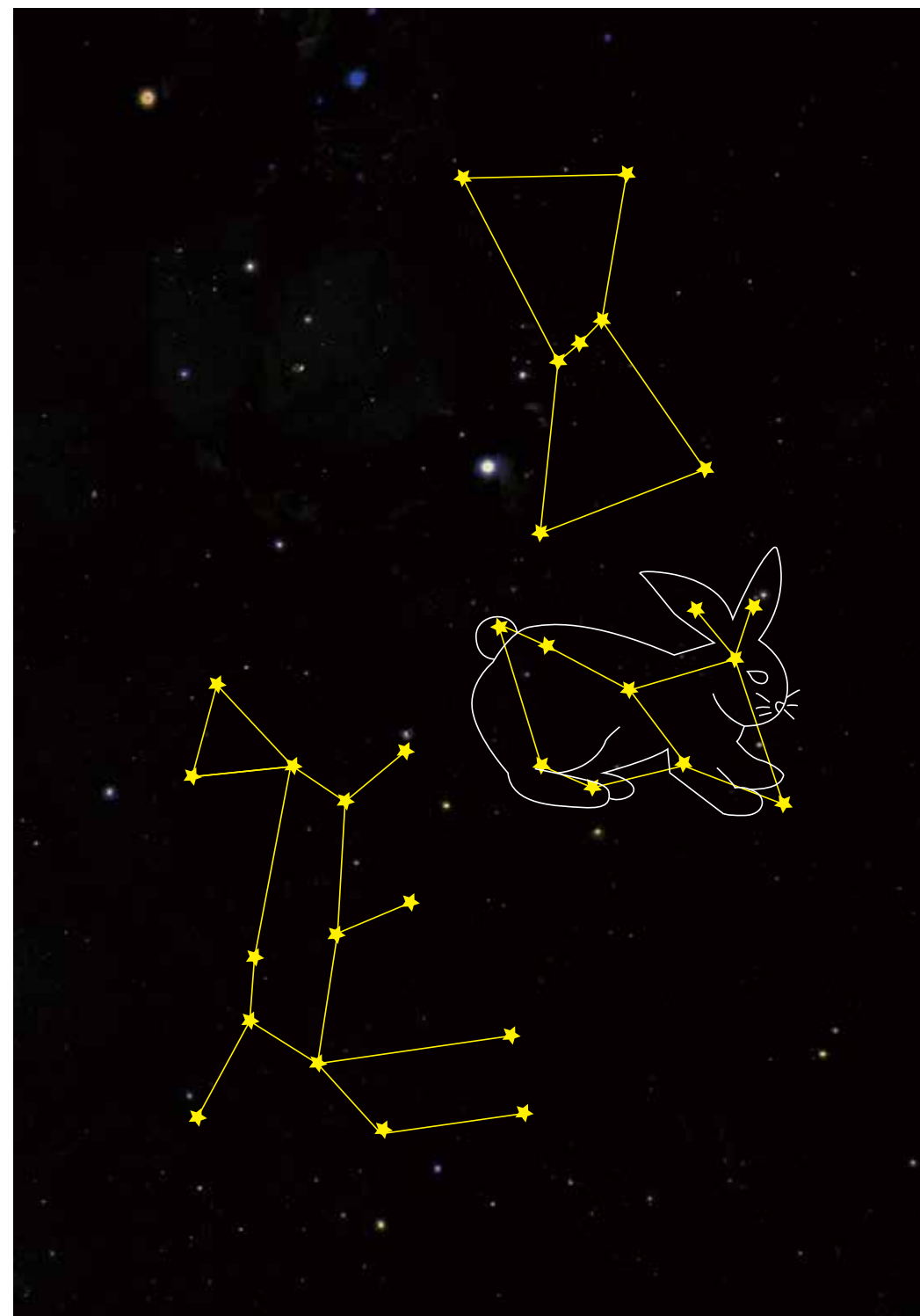
내용 적도 남쪽 하늘에 위치하며, 오리온자리 아래에 있다. 토끼자리는 라틴어 'Lepus'로 표기하며, 약어는 'Lep'이다. 북위 63°에서 남위 90°사이의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토끼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 오리온과 관련이 있다. 바다와 물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인 오리온은 키오스섬의 공주 메로페와 사랑에 빠졌는데, 오리온을 탐탁하지 않게 여긴 왕이 오리온을 장님으로 만들었다. 떠오르는 햇빛에 시력을 되찾은 오리온은 크레타섬으로 가서 사냥꾼이 되었다. 오리온이 사냥감으로 쫓는 것이 토끼로, 토끼자리는 오리온자리와 큰개자리의 사이에 있다.

동양에서는 오리온 머리에 해당하는 세 개의 별을 자수(獬豸), 오리온 몸에 해당하는 별을 삼수(參宿)라고 불렀는데 각각 백호(白虎)의 머리와 몸이며, 서양에서는 오리온 사냥꾼으로 상상하였다. 오리온자리 삼수 바로 아래에 서양에서 토끼자리라고 부르는 별이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토끼 대신에 뒷간 별자리라고 일컬었다. 측간 별자리 측(廁)으로 똥과 연관된다. 남쪽으로 눈을 옮기면 동양에서 '하늘나라 늑대별', 즉 천랑성(天狼星)이라고 부르는 별이 있다. 서양에서는 이 별을 큰개자리의 으뜸별인 시리우스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동양에서 토끼자리는 백호와 하늘늑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 사냥꾼인 오리온이 사냥감으로 토끼를 쫓는 것으로 보았다. 토끼자리는 오리온자리 남쪽에 있으며, 큰개자리 가까이에 있다.

참고문헌 우리 별자리(안상현, 현암사, 2003), 천문류초(이순지, 김수길·윤상철 역, 대유학당, 2001).
필자 김만태(金萬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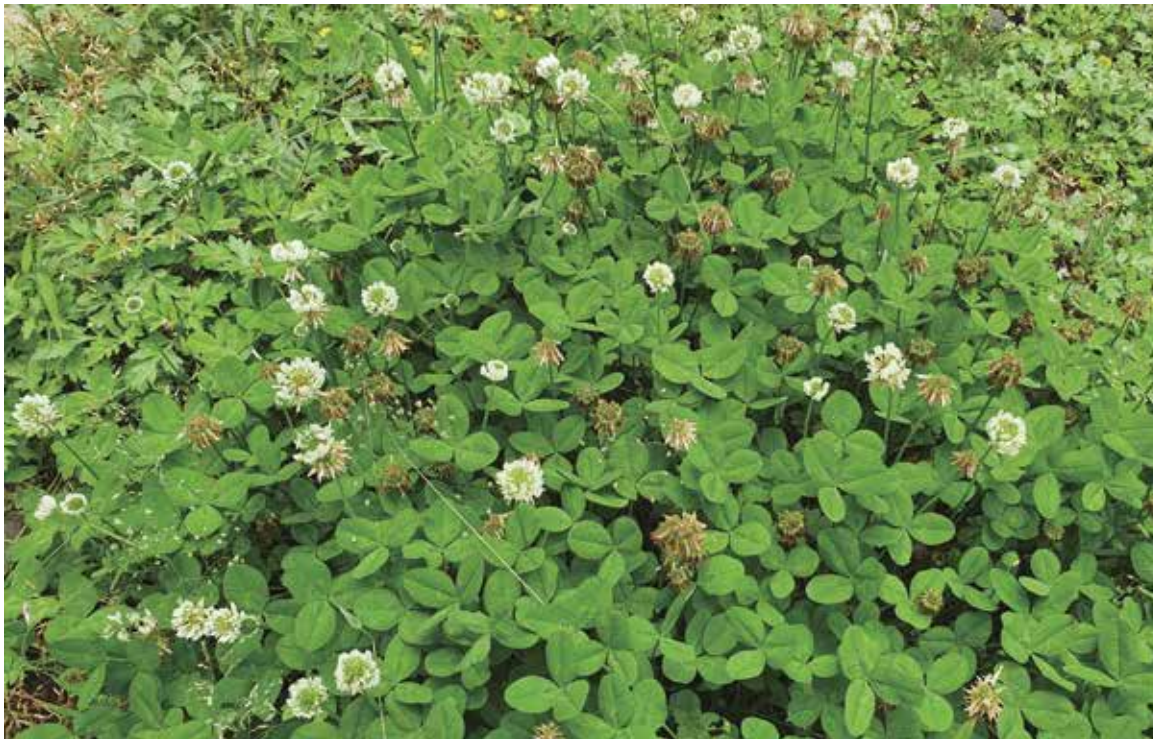
토끼자리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토끼풀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내용 토끼풀(*Trifolium repens*)은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원산의 콩과 토끼풀속 식물이다. 토끼풀은 잔디밭이나 산자락과 같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땅 위를 기면서 20~30cm 길이로 자라고, 마디마다 긴 잎자루를 가진 잎이 뻗는다. 토끼풀은 처음에는 목초牧草로 재배하는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자연에서 야생화로 자라고 있다. 줄기가 땅으로 뻗어 나가면서 엽병이 긴 잎이 나오고 줄기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잎은 어긋나게 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다.

토끼풀과 관련한 여러 일화가 전해진다. 그 중 하나는 5세기경 성 패트릭St. Patrick이 아일랜드에 가톨릭을 선교한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설을 세잎클로버에 비유하며 아일랜드 주민들을 설교했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세잎클로버가 희망·신앙·애정·행복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으로 통한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에 대한 이야기 중 나폴레옹과 관련된 친위불명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토끼풀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토끼풀’이라는 말은 토끼가 잘 먹는 다거나 하얀 색깔의 꽃봉오리가 토끼 꼬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토끼풀에 피는 하얀 풀꽃으로는 반지나 시계, 화관 등을 만든다. 토끼풀은 말려서 차로 마실 수 있으며, 잎은 샐러드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잎이나 꽃, 씨앗 등의 추출물은 기침이나 천식, 부기, 치질 등에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된다. 치질 출혈에는 약물 40g에 물과 술을 각각 20g씩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한약명은 ‘삼소초三消草’이며 봄부터 늦여름 사이에 전초를 뜯어 그늘에 말려 사용한다. 맛은 약간 달고 성질은 평하며 열을 내려준다. 발작성 뇌전증이나 치질, 이뇨, 부종, 황달 등에 효과가 있다. 신선한 잎은 지혈과 염증 질환에도 쓰는데, 다쳐서 피가 나는 상처와 부스럼·화상 등에 생초를 짓뭉어 붙인다.

특징 및 의의

토끼풀은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야생풀로 하얀 색깔의 풀꽃으로는 장식물을 만들고, 전초는 식료나 약재로 활용되는 등 일상생활에 친숙한 식물로 통한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꽃말은 시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상징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대한식물도감(이창복, 향문사, 1985), 한국본초도감(안덕균, 교학사, 1998),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natur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경웅(朴敬庸)

장수와 풍요의 토끼

The Rabbit of Longevity and Abundance

고국산천
곰을 범한 토끼
구토지설
굴토끼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꼬리 잘린 호랑이
달과 토끼무늬 수막새
돌떡 먹는 호랑이
동물 그리는 노래
동물 나이 자랑
멧토끼
묘시
묘신
문경 토끼비리
문학 속 토끼
반달
백자 칠화 토끼모양 연적
범피종류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산토끼
산토끼
삼묘일보기
상묘일
상좌다툼
속담 속 토끼
수궁가
수궁가
수궁풍류
수월관음도
쌍토도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옥토끼
옥토망월형
옹달샘
우는토끼
월광보살
일월광첩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장수와 풍요의 토끼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털날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토끼 눈이 빨강게 된 유래
토끼 배 가르는 대목
토끼가 갖든 물건
토끼고기
토끼골
토끼꿈
토끼띠
토끼무늬
토끼바위
토끼봉
토끼부적
토끼사냥
토끼선생
토끼섬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원숭이
토끼옥설
토끼위기
토끼의 간
토끼의 보시행
토끼의 생태와 자연
토끼의 재판
토끼자리
토끼전
토끼타령
토끼털
토끼풀
토끼화상
토동
토별문답
토사자
토사호비
토의간
토해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호응박토도



화조도 8쪽 병풍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장수와 풍요의 토끼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

장수의 상징 토끼

중국에서는 중추절이 되면 월병(月餅)을 절식으로 먹는다. 그런데 그 월병을 썬 포장지에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토끼가 달 속에서 약방아를 찧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한다. 과연 토끼는 달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 속의 두꺼비·옥토끼·계수 나무에 대한 옛 설화를 이해해야 한다. 달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한대(漢代)부터 당대(唐代)까지 여러 문헌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¹ 한대의 문헌에서 옥토끼는 대개 선약을 찧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옥토끼는 장생의 선약을 찧어 만드는 존재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천년을 사는 영물로 알려져 있다.²

항아(嫦娥)의 남편 예궤가 서왕모에게 얻은 불사약을 항아가 혼자 먹고 달로 도망쳐 두꺼비가 되었다는 중국의 옛 설화가 있다. 성인 대우(大禹)가 세운 하(夏)나라의 말기에 예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활쏘기의 명수였지만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예가 서왕모로부터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불사약을 받았기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부인인 항아가 그만 그 약을 몰래 훔쳐서 먹어 버렸다. 그래서 항아는 천벌을 피하고자 달 속으로 몸을 날려 뛰어 들었지만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달 속에 있게 되었고, 언제까지나 과부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³

- 토끼는 밝은 달의 정이다. (『免者明月之精』 『魏典略』)
 - 까마귀와 토끼가 해와 달에 틀어박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산다. (『籠鳥兔於日月 窮飛走之栖宿』 『三都賦』 『吳都賦』)
 - 달빛은 어떤 은덕이 있는가. 없어졌다가 또 자라나는가. 그 달이 이로운 것이 무엇이기에 돌아보는 토끼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인가. (『夜光何德 死即又有 厥利維何 而顧兔在腹』 『楚辭·天問』)
 - 달 속에 두꺼비가 있다. (『月中有蟾蜍』 『淮南子·精神訓』)
 - 달 속에 토끼와 두꺼비가 있다. (『月中有兔、蟾蜍』 『論衡·說日』)
 - 달 속에 계수나무와 두꺼비가 있다. (『月中有桂、蟾蜍』 『酉陽雜俎·天咫』)
- 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흰토끼가 약을 찧고 있다. (『月中何有 白兔搗藥』 『太平御覽』 卷四所引 傅元『擬天問』)
 - 신비스러운 약을 산 끝에서 채취하여 흰토끼가 찧어 하마환(蝦蟇丸)을 만들었네. (『採取神藥山之 白兔搗成蝦蟇丸』 『太平御覽』 卷九百七所引 『樂府詩歌』)
- 예는 서왕모에게 청하여 불사의 약을 구하였는데 항아가 이를 몰래 훔쳐 달로 도망가니 예는 항아가 달아난 것을 마음 아파했고, 다시는 불사약을 얻을 수 없었다.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姮娥竊以奔月 愴然有喪 無以束之』 『淮南子·覽冥訓』)
 - 항아는 예의 아내이다. 서왕모의 불사약을 훔쳐 먹고 달로 달아났는데 마침내 달에서 몸을 의지하니 두꺼비가 되었다. (『姮娥竊藥也 竊西王母不死之藥 服之奔月 遂托託身於月 是爲蟾蜍』 『初學記』 卷一所引 張衡『靈憲』)



문자도 8쪽 병풍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달 속에 계수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두꺼비와 옥토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 달 속의 계수나무는 선인(仙人)의 발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 열매에 대한 신화화 작업의 흔적도 있다.⁴ 계수나무는 불사목(不死木)이다. 계수나무의 어린 꺾질과 어린가지는 예로부터 혈액순환과 해열에 주요한 한약 재료로 취급되었다. 계수나무의 약제적 효능이 불로장생

의 관념과 연결되어 옥토끼가 쫓는 선약의 재료로, 나아가 달 속 불사목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토끼와 두꺼비, 계수나무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달과 연관된 신비로운 상징으로 여겨졌다. 계수나무의 약제적 가치는 계수나무를 불사목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달에서 계수나무를 쫓는 토끼도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존재이자 불로장생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다.

불로장생의 상징인 토끼는 묘방(卯方)인 동쪽을 수호하는 방위신으로 양(陽)의 세계인 태양에서 양기를 받아먹고, 음(陰)의 세계인 달에서 장생약인 음기를 받아먹는다. 그 음양의 기운이 간경에 들어 눈이 밝다고 여겨지며, 토끼의 간 또한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전해진다. <토끼전>에 나오는 토끼의 간도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여겨져 별주부가 목숨을 걸고 찾고 다녔다.

4. - 민간에 전해 내려오기를 달 속에 선인과 계수나무는 처음 생길 때 선인의 발을 보고 점점 그 형태를 이루었다. 계수나무는 나중에 생긴 것이다. (『俗傳月中仙人桂樹, 今時其初生, 見仙人之足, 漸已成形, 桂樹後生』 『初學記』 卷一所引, 虞喜『安天論』)
 - 계수나무 열매는 달빛 속에 떨어지고 하늘의 향기는 구름 밖에 나무진다. (『桂子月中落, 天香雲外飄』 宋之問『靈隱寺』)
 - (무축천) 수공 4년(688) 3월 계수나무 열매가 태주 임해현 경계에 내려오기를 10여 일에 이르렀다. (『武則天』 垂拱四年三月, 月桂子降於台州臨海縣界, 十餘日乃至』 『封氏見聞錄』 卷七『桂月子』)
 - 영은(靈隱)에 월계봉이 있는데 달 속의 계수나무 열매가 일찍이 이 봉우리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붉은색이다. (『靈隱有月桂峯, 月中桂子嘗墜此峯, 生成大樹, 其色丹』 『臨安志』)
 - 계수나무의 높이가 오백 장으로 밑에서 그것을 베었는데 계수나무가 베어진 곳을 따라 합쳐졌다. (『月桂高五百丈, 下有斫之, 樹創隨合』 『酉陽雜俎, 天咫』)

장수를 상징하는 토끼와 관련된 풍속으로 새해 들어 첫 토끼날(土卯日)에 장수를 비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이날 새로 뽑은 실을 토사(兔絲) (뚝실)라 한다. 이 실을 주머니 끝에 달아매어 재앙을 물리친다. 남의 식구를 집에 들이지 않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들이지 않는다. 특히 여자가 남의 집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라고 하였다. 이날은 남녀 할 것 없이 명실(명주실)을 청색으로 물들여서 팔에 감거나 옷고름에 매달거나 또는 문 돌쩌귀에 걸어 두는데, 그렇게 하면 명이 길어진다고 전해진다. 또 상묘일에 실을 짜거나 옷을 지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실을 짜고 옷을 지으며, 벼들이 있으면 한 번씩 올라가서 벼를 짜 보아야 장수한다고 전해진다.⁵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달 표면의 ‘달 토끼’ 모양은 39억 년 전 거대 운석과 충돌한 흔적이라는 우주과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달의 지구 측 표면에 있는 검은(토끼 모양의) ‘프로셀라룸(Procellarum 분지)’는 직경 300km의 거대한 운석과 충돌한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달 속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쫓던 이야기 속 토끼는 사라졌지만, 실제 토끼는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며 인간과 교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토끼는 생명공학을 위하여 희생되는 존재로 인간을 대신해 실험대 위에 오른다. 사육이 쉽고, 번식이 빨라 유전자 형질전환 분야의 실험동물로 쓰이며, 약품의 독성시험이나 면역학적 실험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현대의 토끼는 ‘용왕 구하기’ 대신 현대판 ‘인류 구하기’를 하고 있다.



토끼문양 선추 | 국립민속박물관



토끼와 거북이 | 목민박물관 목석원

5.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p.111~112.

풍요의 상징 토끼

토끼는 십이지 띠동물 가운데 넷째로 을묘乙卯·정묘丁卯·기묘己卯·신묘辛卯·계묘癸卯의 순으로 육십갑자가 순환한다. 십이지의 토끼卯는 방향으로는 정동正東이고,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달로는 음력 2월을 지키는 방위신方位神이자 시간신時間神이다.

『설문說文』에 이르기를 “卯는 덮어쓴다는 뜻이다. 2월은 만물이 흙을 덮어 쓰고 땅에서 나오는, 문을 연 형상이므로 2월을 천문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⁶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에서도 묘자卯字의 형상이 대문의 문짝을 좌우로 연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을 2월에 갖다 붙인 것은 만물이 땅을 밀치고 나오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진서晉書』 악지樂志 역시 “2월은 묘卯이며, 묘는 무성하다. 양기가 일어나서 번성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⁷

이처럼 십이지 묘(토끼)의 속성은 만물의 생장·번창·풍요의 상징을 의미하며,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한 해 농사의 본격적인 시작과 관련이 있다. 우리 세시에 2월 초하룻날은 농사 날로 며슴날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2월 초하룻날에 농꾼들은 썩은 새끼로 울타리 가지에 목매러 간다”라는 말이 있다. 가을 추수 후에 농한기로 농꾼들은 나무를 하러 다니거나 초당방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며 동지선달을 보내고, 정월 한 달은 ‘정월 노달기’라 하여 일을 별로 하지 않고 보낸다. 그러다가 2월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된다. 농꾼들은 좋은 시절이 지나간 것이 아쉬워 썩은 새끼로 썩은 울타리 가지에 목을 매러 간다는 것이다. 썩은 울타리 가지에 썩은 새끼로 목을 매어 봐야 죽을 리 만무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아쉬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풍속을 볼 때 분명히 2월 초하룻날은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고 농사일이 시작되는 날이며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다.

6. “卯冒也 二月萬物冒地而出 象開之形 故二月爲 天門”(『說文』)
7. “二月卯 卯茂也 陽氣生而孳茂”(『晉書』「樂志」)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묘卯(토끼)는 시간적으로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에 해당한다. 그래서 묘반卯飯·묘수卯睡·묘음卯飲(묘주卯酒) 등은 아침밥·새벽잠·아침술(식전 해장술)을 뜻하는 말이 된다. 여기에는 아침 또는 새벽이라는, 하루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의 묘시卯時라는 시간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10권에서 이규보는 아침 묘시에 마시는 해장술을 ‘묘음’이라고 읊고 있다.⁸

토끼는 다산의 동물이다. 번식력이 왕성한 토끼의 특성을 감안하였는지 모르지만 미국 유명 성인잡지 『플레이보이Playboy』의 로고는 ‘턱시도 타이를 매고 귀를 쫓긋 세운 토끼’이다. 이 플레이보이 토끼 로고는 디자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많은 로고 중 하나이다. 이처럼 토끼는 풍요의 상징으로 현대에도 여러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십이지신상 토끼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고구려 고분벽화의 해와 달(전호태, 미술자료50, 국립중앙박물관, 1992), 신재효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 집(신재효·강한영, 형설출판사, 1981), 십이지신 토끼(이어령 외, 생각의 나무, 2010),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 화상석 서왕모(전호태, 미술자료59, 국립중앙박물관, 1997),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한-당대 고분의 일상·월상(전호태, 미술자료48, 국립중앙박물관, 1991), Outlines of Chinese symbolism and art motives(C.A.S. Williams, Dover Publication, 1976).

8. 묘음(卯飲) 쌍문(雙韻)
오늘 아침 광약을 마셨더니 今朝飲狂藥
머리가 아파움을 깨닫겠네 顛覺頭岑岑
아직 박절하게 못 끊는 것은 尙難剛斷却
술술한 마음을 달래려는 걸세 輒欲緩愁心

묘신

卯時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

내용 동아시아에선 고대부터 하루를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십이지十二支는 십이지와 연결지어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기원전 104년 한 무제漢武帝 대에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면서 십이시로 시간대를 구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후한後漢 초 광무제光武帝 시기부터 십이지가 배정되면서 비로소 간지干支紀時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십이시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야반夜半은 자시子時의 이칭으로 오늘날의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를 말한다. 계명鷄鳴은 축시丑時로 오전 1시~3시를 말하며, 평단平旦은 인시寅時로 오전 3시~5시를 가리킨다. 일출日出은 묘시卯時로 오전 5시~7시, 식시食時는 진시辰時로 오전 7시~9시, 우중禺中은 사시巳時로 오전 9시~11시, 일중日中은 오시午時로 오전 11시~오후 1시, 일질日昃은 미시未時로 오후 1시~3시, 보시晡時는 신시申時는 오후 3시~5시, 일입日入은 유시酉時로 오후 5시~7시, 황혼黃昏은 술시戌時로 오후 7시~9시, 인정人定은 해시亥時로 오후 9시~11시를 말한다. 이렇게 각 시간대의 명칭을 정하여 하루의 시간을 구분하였다.

특징 및 의의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로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하루(24시간, 1주야)를 십이시로 배속한 것은 등분의 시간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명리학에서 시간에 관한 논점 고찰(김만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정선명리학강론(김만태, 지식의 통섭, 2022), 한국 사주명리 연구(김만태, 민속원, 2011).

필자 김만태(金萬泰)

묘신

卯神

십이지신 중 네 번째인 토끼신을 지칭함.

내용 우리나라에서 십이지는 날짜·방위·색상·운수·동물·띠 등과 연계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일생의례와 민속신앙 등에서 나타났다. 묘신은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네 번째로서 정묘신丁卯神을 말하며, 정동방正東方 방위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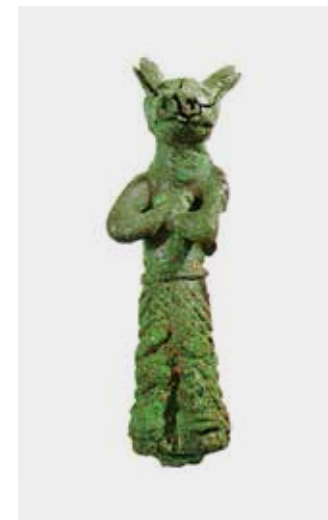
신 역할을 한다. 십이생초十二生肖가 신격화된 것이 십이지신이다. 간지干支로 연年的 차례를 매기는 간지干支紀年과는 다른 것으로, 열두 띠 동물로 알려진 십이생초는 일종의 동물기년動物紀年이다. 정묘신은 십이지 중에서 네 번째卯와 토끼인 묘卯를 말한다. 특히 정묘는 민간에서 계수나무卯杣가 있는 달을 상징하기도 하여, 풍수지리설의 옥토망월형玉兔望月形과도 연관된다.

십이지는 각자의 시간과 방향에 배정되었다. 한국에서 십이지의 열두 동물은 자신이 주관하는 방향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주 성덕왕릉聖德王陵과 김유신묘 金庾信墓 둘레돌에 조각된 십이지신상이 있다. 신라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용강동 고분慶州 龍江洞 古墳 안에서 출토된 청동제 십이지신상도 정북방의 자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무덤 주인을 열두 방위에서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고분의 둘레돌에 새겨진 십이지신상은 현재까지는 통일신라시대 왕릉에서 나타나며 중국의 것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주명리학에서 토끼卯는 열두 방위 중에서 정동방을 맡고 오행으로는 나무木에 해당한다. 2월에 문門이 열리는 형상이므로 천문天門이 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묘신은 정동방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문헌에서는 토끼의 성정을 “무성하다는 뜻으로 만물이 무성한 것을 말한다”(『사기史記』 율서律書), “무성하며 우거지고”(『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 “2월에 만물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으로 문이 열린 형상을 본땀다”(『설문해자說文解字』), “역易에서는 진震괘가 되는데 2월에 비로소 우레가 울리는 것이다”(『석명釋名』) 등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토끼는 만물이 땅을 뚫고 나와서 무성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토끼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에 대해 살펴보면, 토끼는 외유내강의 음목이고 해가 뜨는 정동방을 주관한다. 이를 해석하면 강한 생명력이 땅을 뚫고 나와서 움트고 무성하게 자라나서 번성



묘신 안저라대장 | 가로70 세로136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청동십이지상 중 토끼 | 높이8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하는 품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십이지는 열두 띠 동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보다 깊고 근원적인 우주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우주의 근본 질서와 법칙을 따름으로써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속적인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그 현실적 방법의 하나가 십이지신을 각각 특정 공간에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인간 편에서서 피안에 존재하는 신의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특징 및 의의

열두 띠 동물이 신격화된 것이 십이지신이다. 묘신은 십이지신 중 네 번째로 정묘신을 의미하고, 열두 방위 중에서 정동방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십이지신은 단순히 열두 띠 동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보다 깊고 근원적인 우주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십이지의 문화사(허균, 돌베개, 2010), 정선명리학강론(김만태, 지식의 통섭, 2022), 토끼설화에 나타난 동물담의 형태 고찰(이종관·김만태, 인문사회21 9-5,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4), 한국문화상징사전1(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996).

필자 김만태(金萬泰)

삼묘일 보기

음력 2월에 묘일이 세 번 들면 목화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속신.

내용

삼묘일은 음력 2월에 토끼날인 묘일卯日이 세 번 드는 것을 말하는데, 목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삼묘일이 들면 목화가 잘 된다고 믿는다.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과 무안군 일대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2월에 삼묘일이 들면 그해 목화가 잘 된다고 하여 목화 농사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속신과 유사한 사례로는 음력 정초 십이지일十二支日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과 일상의 길흉을 점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십이지일 가운데 털이 있는 동물인 쥐날子日·소날丑日·호랑이날寅日·토끼날卯日·말날午日·양날未日·원숭이날申日·닭날酉日·개날戌日·돼지날亥日은 유모일有毛日이라 하고, 털이 없는 동물인 용날辰日과 뱀날巳日을 무모일無毛日이라 한다. 설날이 유모일이면 오곡이 잘 익어 풍년이 들고, 무모일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정초에 모일日을 보고서 길흉을 판단하는데, 유모일은 길하고 무모일은 불길한 것으로 여겼다. 특히 소날, 토끼날, 호랑이날이 좋다고 한다. 예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일寅日이 좋다고 하여 정초에 쉬었다가 인일에 개점開店 혹은

개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유모일 중에서도 인일을 가장 길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음력 정월 첫 묘일을 상묘일上卯日 또는 토끼날이라 부르는 데, 이날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대문을 열면 일 년 동안 가운家運이 융성한다는 속신을 들 수 있다. 또한 토끼날은 장수를 비는 날이기도 하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날 실을 짜거나 옷을 지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실을 짜고 옷을 짓거나 베틀이 있으면 한 번씩 올라가서 베를 짜 보기도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털 있는 짐승 중에서도 토끼는 유독 털이 많아서 토끼날이 정초에 들면 그해 목화가 잘 된다는 속신이 전해진다. 전남 진도에서도 십이지일 가운데 유모일이 먼저 들면 면화棉花가 잘 되고, 무모일이 먼저 들면 면화가 피지 않는다는 속신이 전한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속신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유모일과 토끼날은 길하고 풍년이 든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목화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목화풍년놀이’를 들 수 있는데, 음력 2월 초하루에 목화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살맹이나무(땃대추나무) 가지에 목화송이를 많이 꽂아 놓고 여인 형상의 인형을 몇 개 만들어 매달아 두던 풍속을 말한다. 평안남도 성천군·순천군·강동군 일대에서 이러한 풍속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집 뒤뜰에 면화가 만발한 모양의 나뭇가지를 세워 놓는 것으로, 특히 여인 형상의 인형을 매달아 놓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여인들이 풍성한 목화밭에서 목화를 수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풍속은 대추나무 시집보내기와 유사한데, 둘 모두 풍요로운 결실을 기원하는 감염 주술 행위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작물 중 하나인 목화는 고려 말 문익점文益漸에 의해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된 이후 의복과 침구의 긴요한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 목화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 및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방에서 재배되었는데, 특히 전남과 경상북도·평안남도·황해도가 주산지였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목화의 풍년을 점치는 속신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삼묘일 보기는 십이지 동물 가운데 유독 털이 많은 토끼와 목화를 연상시켜 풍년을 기원하던 것으로, ‘유모일 보기’ ‘삼묘일 보기’ ‘목화풍년놀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잡풍속祈蠶風俗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4-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남도편(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85),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서해숙(徐海淑)

상묘일

上卯日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토끼날.

내용 정초 십이지날의 하나이며 유모일有毛日에 속한다. 첫 토끼날 또는 툽날·툽날·갯날(제주도)이라고도 한다. 상묘일의 풍속은 여자가 조심하는 날이라 하여 특히 여자와 관련된 금기가 많다.

상묘일에 관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이 날 새로 뽑은 실을 토사兔絲(툽실)라 한다. 이 실을 차고 다니며 재앙을 물리친다. 남의 식구를 집에 들이지 않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들이지 않는다. 특히 여자가 남의 집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고 하였다. 이 날 여자들이 남의 집을 방문하면 재수가 없어 그 집에 우환이 잦거나 또는 초상이 난다고 꺼렸다. 토끼는 방정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여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남의 집에 갈 사정이 생기더라도 오후에 가거나 또는 남자가 먼저 대문을 들어선 후 여자가 따라 들어간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가더라도 소변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정초 또는 정월 대보름 안에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삼가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특히 토끼날을 가리는 것은 이 날 대문을 여자가 먼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 토끼날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일어나 대문을 열어야 그 해 가운家運이 좋다고 한다. 가장家長이나 웃어른이 열면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남자가 먼저 열어야 한다. 만일 여자가 먼저 대문을 열면 일년 내내 불길하다고 한다. 경상도에서는 대문뿐만 아니라 부엌의 솥뚜껑도 남자가 먼저 연 후에야 비로소 여자들이 거동을 하였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보이듯이 여자뿐만 아니라 집안에 남의 식구나 나무로 만든 그릇도 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토끼날에 사기그릇·뚝그릇·옹기그릇을 새로 사서 들여오면 실수해서 깨지므로 사지 않으며, 이 날 머슴이나 식모를 구해서 두면 경망하고 방정맞은 사람을 두게 된다고 해서 사람 두는 일도 삼갔다.

그리고 이 날은 정초 십이지일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칼질이나 가위질, 쟁기질을 하면 토끼가 곡식을 갠아먹는다거나 짐승들이 산밭의 곡식을 쓴다고 하여 하지 않았다. 어촌에서 토끼는 방정맞은 짐승이라 하여 이 날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다.

한편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보이듯이 이 날 새로 뽑은 실을 툽실 또는 명실[命絲]이라고 한다. 여자들은 이 날 바느질을 하였으며 베틀에 앉아 조금씩이라

도 베를 짰는데, 이러한 풍속은 화전火田을 했던 강원도에 많이 나타난다. 이 실을 차고 다니거나 옷을 지어 입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여 남녀 모두 명주실을 청색으로 물들여 팔에 감거나 옷고름에 달았으며, 돌찌귀에 걸어두기도 하였다.

정초 십이지일은 유모일과 무모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유모일을 좋은 날로 여기고 있다. 토끼는 털이 많은 짐승이라 유모일에 속한다. 상묘일이 정초에 들어 있으면 그 해에는 목화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지역사례

정월 첫 토끼날에 대한 풍속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현지조사자료 중 전라도의 경우는 자료가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토끼날에는 해서 좋은 일보다는 가리는 일이 많다. 경기도 수원·강화도에서는 토끼날과 호랑이날은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지 않는데, 강화의 경우 이 날 부득이하게 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면 주인이 손님을 거꾸로 자게 하여 주인집의 해를 피했다. 경북 고령에서는 첫 토끼날 여자가 먼저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들끼리 서로 자기 집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하여 품앗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남 통영에서는 정초에 작대기를 대문 앞에 걸어 놓아 외부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경북 달성에서는 남자들이 남의 집 대문뿐만 아니라 남의 집 솥뚜껑도 열어 주면 좋다고 하여 솥뚜껑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는 이 날 여자들이 동쪽을 향해 일을 하거나 소변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금했다. 그러나 특이하게 제주도에서는 이 날을 좋은 날이라 하여 당당히 간다고 한다.

의의

상묘일의 금기는 토끼의 방정맞고 경망스런 모습과 관련된 생태적인 속성과 함께 십이지의 넷째 지지地支인 묘卯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묘의 방위는 정동正東, 시간으로는 오전 5~7시, 음양으로는 음, 오행으로는 목木, 색으로는 청색에 해당한다. ‘남자가 먼저 대문 열기’ ‘동쪽을 향해 일을 하거나 소변을 보지 않는 일’ ‘나무로 만든 그릇을 들이지 않는 일’ ‘처음 짠 베를 청색으로 물들이는 일’ 등이 묘의 속성과 관계있는 예들이다. 특히 가리는 일 중 ‘남자가 먼저 대문을 열어야 그 해 가운家運이 번창한다.’는 것은 ‘묘卯’자 상형이 ‘개문開門의 형상’, 곧 대문을 좌우로 연 모양을 나타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정不淨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여자가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대문을 열면 한 해가 불길하다고 믿어 특히 금기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서 좋은 일로 첫 토끼날에 툽실 또는 명실을 짜는 것은 토끼와 실이 일반적으로 수명 장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월 첫 토끼날의

풍속은 현재 거의 지켜지지 않으나, 여자의 출입을 꺼리는 일은 아직까지 일부 지방에서 지켜지고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歲時風俗(任東權著, 瑞文堂, 1973),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토끼띠의 민속과 상징 (김이숙, 中央民俗學6, 中央大學校韓國民俗學研究所, 1994),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김이숙(金利淑)

옥토끼

달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하얀 토끼.

내용 한국과 중국에서는 달 속에 ‘옥토끼’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그러나 사실 최초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옥토끼’가 아니라 그냥 ‘토끼’이다. 2,300여 년 전인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是 자신의 작품『초사楚辭』〈천문天問〉에서 세상의 시작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달은 무슨 덕이 있기에, 이지러졌다가 다시 둥그렇게 되는 것일까? 달은 무슨 이로움이 있기에, 두꺼비와 토끼를 품고 있는 것일까(夜光何德, 死則又育? 厥利維何, 而顧菴在腹)?”라고 자문하였는데, 바로 이 문장 속에 ‘달 속의 두꺼비와 토끼’가 나타난다.

특히 이 구절에 등장하는 ‘고토(顧菴·顧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역대로 수많은 주석이 달렸다. 〈천문〉에 대한 최초의 주석자인 동한東漢의 왕일王逸이 “달 속에 토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익을 탐내어, 달의 뱃속에 살면서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言月中有兔, 何所貪利, 居月之腹而顧望呼)?”라고 해석한 이후 ‘달 속에서 사는 토끼’ ‘두꺼비’ ‘큰 토끼’ ‘호랑이’ ‘토끼를 돌보다’ 등등 여러 학자에게서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그러나 신화학자 샤오빙蕭兵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가 주장한 대로 ‘고토’는 ‘두꺼비와 토끼’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것은 초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이은 것으로 여겨지는 서한西漢 시대 초기(기원전 186년경) 장사국長沙國 승상 이창利蒼의 부인 신추辛追의 무덤에서 나온 ‘달 속의 토끼와 두꺼비’ 도상圖像으로도 확인된다.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 마왕두이馬王堆 한묘漢墓(1호 묘)에서 발굴된 ‘T형 비단 그림帛畫’이 그것을 대표하는데, 그림의 상단부에 묘사된 천상세계의 장면 가운데 달 속에 토끼와 두꺼비가 있는 것이 보인다. 물론 이 그림 속의 토끼는 절구질하는 토끼가 아니라 그냥 달리는 모습이지만 이 그림이 발굴된 이후 〈천

문〉의 ‘고토’가 토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거나, 한나라 이전에는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기록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전국시대 초나라 영역이었던 지역에서 출토된 한나라 초기 무덤에서 달 속에 토끼가 그려진 실물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동한東漢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나라 사람들의 무덤을 장식한 화상석畫像石 도상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두꺼비와 토끼가 자주 등장한다. 허난성河南省 난양南陽이나 쉬창許昌에서 출토된 동한시대 화상석에는 두꺼비와 함께 달러가는 형태의 토끼가 달 속에 나타난다. 산둥성山東省 지남濟南의 창칭長清 샤오탕산孝堂山을 비롯해 산둥 지역의 동한 초기 화상석에는 달러가는 토끼와 두꺼비의 도상이 보이고, 동한 중기와 후기의 화상석에는 절구질하는 토끼의 모습이 보인다. 안후이성安徽省이나 산시성陝西省 지역의 화상석 도상도 마찬가지이다. 동한 중후기 이후의 화상석 도상에 등장하는 토끼는 마왕두이 무덤에서 나온 도상처럼 달러가는 형태가 아니라 절구공이를 들고 절구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마왕두이 무덤의 도상에서 토끼는 두꺼비와 함께 달에 있을 뿐이지만, 이후 한나라 무덤 화상석에 묘사된 토끼와 두꺼비는 대부분 여신 서왕모西王母와 함께 등장한다.

중국 신화에서 서왕모는 불사약과 관련된 여신이다. 원래 『산해경山海經』 서산경西山經에 등장하는 서왕모는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지닌, 남녀의 성별조차 불분명한 신으로 묘사되지만 이후 점차 불사약을 가진 여신의 이미지로 변화한다. 『회남자淮南子』 남명훈覽冥訓의 “예가 서왕모에게서 불사약을 얻어왔는데, 항아가 그것을 먹고 달로 날아갔다(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姮娥竊以奔月)”는 구절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후 중국의 신화와 전설 속에서 항아는 달의 여신으로, 서왕모는 머나먼 서쪽 곤륜산의 요지璠池에 거하는, 불사약을 가진 여신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런 서왕모가 한나라 화상석에서 해의 상징인 까마귀, 달의 상징인 토끼와 두꺼비, 상서로움의 상징인 구미호를 거느린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꺼비는 춤을 추고 토끼는 절구질하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보통 토끼 두 마리가 함께 절구질하고 있지만 때로는 토끼가 두꺼비와 함께 절구질하기도 한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토끼가 언제나 절구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서왕모가 불사不死를 관장한다고 믿었기에 그 곁에서 절구질하는 토끼



문자도 8쪽 병풍 부분
가로32 세로98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절구 찧는 토끼 | 이재걸 | 가로25 세로33 | 광복 이후 | 원주시역사박물관

는 불사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인용된 『악부시집樂府詩集』〈상화가사相和歌辭·동도행董逃行〉에 “약목 끝에서 신약을 채취하여 하얀 토끼가 무릎 꿇고 앉아 하마환을 만드네(採取神藥若木端, 白兔長跪搗藥蝦蟆丸)”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송나라 때 나온 『태평어람』에 인용된 것이기에 한나라 때 사람들이 달 속의 토끼를 ‘하얀 토끼’라고 여겼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즉 한나라 때 화상석에 나타나는 토끼는 서왕모나 불사약과 관련된

뿐 ‘하얀 토끼[白兔]’나 ‘옥토끼[玉兔]’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동한시대 왕충王充이 쓴 『논형論衡』 설일설日에도 “달 속에 토끼와 두꺼비가 있다月中有兔蟾蜍”라는 구절만 있을 뿐, 그것이 ‘하얀 토끼’나 ‘옥토끼’라고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하얀 토끼’나 ‘옥토끼’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적어도 한나라 때 사람들이 달 속에 두꺼비와 토끼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달 속의 그 ‘토끼’를 ‘하얀 토끼’라고 묘사한 최초의 문헌 자료는 서진의 부현傅玄(217~278)이 쓴 『예문유취藝文類聚』이다. 권1의 천문擬天問에 나오는 “달 속에 무엇이 있나. 하얀 토끼가 약을 찧고 있지(月中何有, 白兔搗藥)”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달 속의 토끼가 ‘하얀 토끼’이며 ‘약을 찧는다’라는 내용이 마침내 나타난다. 물론 부현의 시를 인용한 『예문유취』가 당나라 때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토끼가 서왕모의 불사약과 결합한 도상들이 나타난 이후에야 ‘하얀 토끼’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당나라 때 이백李白(701~762)의 〈잔 들어 달에 묻노니把酒問月〉에 “가을 가고 봄이 와도 하얀 토끼는 약을 찧는데, 항아는 홀로 외로이 누구와 함께할까(白兔搗藥秋復春, 嫦娥孤棲與誰隣)?”라는 구절이 나오고, 가도賈島(779~843)의 시 〈병골음病鶻音〉에 ‘옥토’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 시인들의 작품에 ‘옥토끼’와 ‘항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당나라 때 이미 ‘백토’ ‘옥토’ ‘항아’ 등 달과 관련된 신화나 전설이 보편적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때에 이르면 중추절을 노래한 신기질辛棄質의 사詞인 〈만강홍滿江紅〉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을 “옥토를 바라본다(瞻玉兔)”라고 묘사한 구절이 나온다.

달 속에서 절구질하며 불사의 영약을 찧는 하얀 토끼를 한나라 이후 사람들이 ‘옥토끼’라고 부른 것이니 이후 옥토끼는 장수와 상서로움을 의미하면서 밤하늘에 하얗게 빛나는 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였다.



존재 필 월하백도 | 가로30 세로36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앞의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한나라 때에도 달 속에 두꺼비와 토끼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고 화상석에도 토끼 도상이 자주 나타났다. 한나라 초기의 화상석 도상에 토끼가 주로 달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면 후기로 들어가면서 절구질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토끼가 서왕모와 연관되면서 불사약을 찧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진 것인데, 그것은 장생불사를 추구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린다. 특히 그 토끼가 ‘백토’가 된 것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의 환한 빛이 상서로움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옥’이 가진 불멸의 상징성이 덧붙여지면서 장수와 상서로움의 상징으로서 ‘하얀색 옥토끼’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참고문헌 唐詩中的日月神話論考(高磊,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20.6.), 天問論叢(林庚, 人民文學出版社, 1983), 天問疏證(聞一多, 北京三聯書店, 1980), 天問研究(孫作雲, 中華書局, 1989), 楚辭補注(洪興祖, 藝文印書館, 1977), 楚辭的文化破譯(蕭兵, 湖北人民出版社, 1991), 漢代月亮神話的圖像研究(朱鵬,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7.5.).

필자 김선자(金善子)

옥토망월형

玉兔望月形

옥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태의 지형.

내용

풍수지리에서 산수山水의 모양을 어떤 동물이나 식물 등 물체에 비유하여 혈을 찾거나 설명하는 이론을 형국론形局論 또는 물형론物形論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국은 산을 보는 위치와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토끼는 예로부터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달 속의 계수나무 밑에서 떡방아

를 쫓는 토끼 모습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려온 토끼상이다. 옥토망월형(玉兔望月形)은 암토끼인 옥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양의 형국을 말한다. 달 속에는 수토끼가 있고 옥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것은 수토끼에 의해 잉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끼는 달과 여성·다산·번성·불로장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옥토망월형에서는 앞에 달 모양을 닮은 바위(岫)가 있으면 길지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옥토(玉兔)는 암토끼이고, 달 속에는 수토끼가 있어서 옥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것은 수토끼에 의해 잉태되기를 원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끼와 달이 한 몸을 이루는 터를 길지로 여긴다.

옥토망월형은 형국의 주체가 토끼이므로 산은 크지 않고 아담하여야 한다. 혈처(穴處) 주변에 토끼를 닮은 바위가 있는 경우에도 토끼와 관련된 형국이 된다. 그리고 앞쪽의 산에 달 모양과 같은 바위가 있어야 한다. 산이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솟아 있고, 달처럼 둥글게 생긴 암석 봉우리를 주위에 아우르고 있는 것이 옥토망월형의 특징이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풍수(朝鮮의風水)』(1931)에서는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보은, 경기도 연천, 충청남도 금산 등지에서 옥토망월형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였다. 방위별 형국론에서는 묘좌(卯坐)를 옥토망월형이라고 본다.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望月寺)는 대웅전 옆에 토끼 모양의 바위가 있고 정면에는 달 모양의 봉우리가 있어 옥토망월형의 길지(吉地)이다. 이러한 형국을 본떠 망월사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과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도 옥토망월의 형국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토끼와 관련된 지명은 158여 곳이다. 이 중 21여 곳은 그 지명의 유래가 옥토망월형과 관련이 있다. 풍요와 번창함을 상징하는 옥토끼가 보름달을 바라본다는 옥토망월형은 명당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의 '토산',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의 '토갓',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의 '퇴산'이 있다. '토산'은 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가 토끼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토갓'은 토끼가 달을 보고 절을 하는 지형이라 붙여진 지명이며, '퇴산'은 지형이 옥토끼가 보름달을 바라보는 형국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옥토망월형과 연관한 산세는 낮고 부드러운 야산 숲속을 말하기도 한다. 혈은 토끼의 이마나 복부에 있으며, 안산은 달과 같은 사격이나 반월성과 같은 지명이 있어야 한다. 토끼 형국의 명당은 마음이 온순하고 온화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배출한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성품의 사람은 양순하고 지혜로우니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그 덕으로 부귀를 얻는다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민간에서 토끼는 달과 여성·다산·불로장생·재물·번성 등을 상징한다. 옥토망월형국에서는 산이 토끼처럼 크지 않고 아담하여야 하며, 앞에는 달 모양의 바위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옥토인 암토끼가 달에 있는 수토끼와 한 몸을 이루어 잉태되어야 길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정통풍수지리(정경연, 평단문화사, 2004), 조선의 풍수(村山智順, 최길성 역, 민음사, 1990), 풍수의 정석(조남선, 청어람M&B, 2010), 풍수지리학연구(천인호, 한국학술정보, 2012), 삼척·안동·벌교 '옥토망월형' 명당(김초희, 민주신문, 2011.1.10.),
필자 김만태(金萬泰)

월광보살

月光菩薩

달의 원만하고 자비로운 덕(德)을 나타내는 보살.

내용

월광보살(月光菩薩)은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짝을 이루어 약사불(藥師佛)을 협시(夾侍·脇侍)하는 보살로 많이 등장하며, 부처님이 과거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국왕으로 살던 때의 이름이기도 하다. 『약사여래본원경(藥師如來本願經)』에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동방 유리광정토에서 약사불을 협시하여 그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다. 월광보살은 약사불의 우측으로 서쪽에 해당하고, 좌측의 일광보살은 동쪽에 해당한다. 해는 양(陽)이고 달은 음(陰)이니 음양의 원리를 적용하여 동과 서에 각각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배치하는 것이다.

약사불은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으로부터 구제하는 성격을 지녀 손에 약기(藥器)를 든 모습으로 표현되며,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각기 붉은 해와 흰 달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龍珠寺 大雄殿 後佛幀畫)에는 두 보살의 머리에 쓴 보관에 해와 달을 그렸고, 범어사 대웅전(梵魚寺 大雄殿) 벽화에는 각자 들고 있는 연꽃 위로 해와 달이 떠오른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동학사 삼성각(東鶴寺 三聖閣) <칠성도(七星圖)의 두 보살은 해와 달을 두 손으로 안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특히 동물 가운데 토끼는 달과 깊은 관련을 지녀, 달 속의 토끼가 방아를 쫓고 있는 문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월광보살을 그린 불화 가운데 머리에 쓴 보관 안에 방아 쫓는 토끼를 담기도 한다. 또한 승려의 가사(袈裟)에 해와 달을 나타내는 일월광첩(日月光貼)을 부착하는데, 이때 달의 상징으로 토끼를 표현하게 된다. 토끼가 달에서 살게 된 유래는 인도와 중국 등 동아시아에 다양한 민담으로 널리 퍼져 있다.



약사삼존도 속 월광보살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부처님의 전생을 다룬 ‘본생담本生譚’에는 토끼가 수행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한 존재로 등장하며, 이러한 공덕을 영원히 남기고자 달에 토끼의 형상을 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고대신화에는 서왕모의 불사약을 몰래 먹고 승천하려다 실패한 항이媧가 달에 머물게 되었고, 토끼로 변신하여 불사약을 만들기 위해 약방아를 찧으며 살아간다고 전한다. 이처럼 한자문화권의 토끼는 달에 살면서 불사약을 만드는 존재로 여겨져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의미하기도 한다. 월광보살과 토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약사보살의 협시로 달이 지닌 상징성을 강화하는 요소라 하겠다.

약사신앙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성행하여 약사불과 일광보살·월광보살이 짝을 이룬 ‘약사삼존藥師三尊’이 조각과 그림 등으로 조성되었다.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것은 9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울산광역시 어물동마애여래좌상於勿洞磨崖如來坐像으로, 협시보살의 보관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 원을 표현하여 일광보살·월광보살임을 드러내었다. 불화 가운데 〈약사삼존도藥師三尊圖〉는 고려시대 작품이 전하며,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배치의 불화가 많이 조성되었다. 12명의 신장이 둘러싼 〈약사십이신장도藥師十二神將圖〉, 약사전의 후불탱화로 수많은 보살과 십대제자 신장이 둘러싼 군도 형식의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 등에도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약사불의 협시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일광보살·월광보살은 복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의 좌우 협시보살로도 자리한다. 〈칠성도〉와 〈치성광여래도熾盛光如來圖〉에는 치성광여래를 주불로 하여 북두칠성을 칠여래, 해와 달을 일광보살·월광보살로 표현하여 불교적으로 수용한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세계를 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일광보살·월광보살은 자연신을 불교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약사불이 중생의 병고에서 구제하는 성격을 지닌 점을 생각할 때, 해와 달을 협시로 삼은 까닭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느 곳이나 고루 비추어 어둠을 밝혀 주는 햇빛과 달빛이 중생을 어루만지는 존재로 더없이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해와 달은 불교의 신앙체계 속에서 불보살의 화신이나 불법을 수호하는 자연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져 그 상징성이 더욱 깊고 풍요로워졌다.

참고문헌 藥師如來本願經, 불화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김정희, 돌베개, 2009),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교보문고, 1991), 울산의 마애불 연구(이승희, 문화사학53, 한국문화사학회, 2020).

필자 구미래(具美來)

털날

설날부터 12일 동안을 십이지의 일진으로 따져서 털 있는 짐승에 해당하는 날.

내용 십이지 열두 동물 중에서 털 있는 10종의 동물인 쥐·소·호랑이·토끼·말·염소·원숭이·닭·개·돼지의 날들은 유모일(有毛日)이고, 털 없는 2종의 동물인 용·뱀의 날은 무모일(無毛日)이 된다. 이 날들의 길흉 판단은 대체로 그 짐승들의 성격에서 오는 이로운 점, 해로운 점들로 기준을 삼으나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모일은 길한 날로, 무모일은 흉한 날로 쳤다. 설날이 유모일이면 그해는 오곡이 잘 되고 풍년이며, 무모일이면 반대로 흉년이 들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초 10일 이내에 유모일이 많이 들면 풍년이고 무모일이 많으면 흉년이 들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에서는 정초에 유모일이 많으면 목화 농사가 잘 되고, 네발 짐승의 가축도 번성하는데, 무모일이 많으면 반대로 목화 농사나 네발 짐승의 가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털날[유모일] 중에서도 소·토끼·호랑이 날이 좋고, 특히 호랑이 날이 제일 좋다고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설날부터 상점들이 문을 닫고 쉬다가 날짜를 잡아서 문을 여는데, 반드시 모충 일(毛蟲日)에 연다. 이는 그 모충들의 번성하는 솜털의 뜻을 취하여 상업의 번창을 바라는 것으로 인일(寅日)에 문을 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민속 조사에서 유모일·무모일을 따지는 풍속에 관한 보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관습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원, 집문당, 1985),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필자 천진기(千鎭基)

토끼꿈

토끼가 등장하는 꿈.

내용 민간에서는 꿈에 등장하는 토끼를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나약한 사람에 빗대어 본다. 또한 꿈에서 등장하는 토끼는 교육자, 성직자, 종업원, 고용인, 가정부, 어린이, 귀염둥이, 물질적 이득, 재물 등으로 풀이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꿈에서 토끼를 보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런데 꿈에서 흰색이나 누런색 토끼를 보면 행운이 찾아오지만, 붉은색 토끼를 보

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속설도 있다.

토끼꿈은 민간의 여러 속설과 문화적 상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먼저, 토끼는 재물을 상징한다. 토끼를 기르는 꿈은 재물이 불어나는 꿈으로 여겨진다. 이때 꿈속에서 토끼가 많이 번식할수록 재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끼를 토끼장에서 기르는 꿈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재물이나 생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 꿈에서 기르던 토끼가 도망을 가면 재물을 잃거나 실직을 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꿈에서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예시하기도 한다. 혹은 토끼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뜻밖의 재물이 생기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토끼털을 깎거나 얻는 꿈은 깎은 털의 양에 비례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에서 토끼를 발견하고 잡으려는데 어딘가로 숨어 버려 잡지 못하는 꿈은 큰 돈이 생길 뻔하다가 아쉽게도 놓치고 말 것을 뜻하지만 만약 꿈속에서 그 토끼를 찾아내어 잡았다면 계획이 성취되거나 큰 재물을 얻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토끼들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나무·바위 위로 뛰어 올라가는 꿈은 운이 상승하여 재물이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며 걱정거리가 없고 집안에 경사가 겹칠 징조로 여겼다.

다른 한편, 민간에서는 토끼가 가진 문화적 의미를 사람에 빗대거나 행위와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는 꿈은 혼담이 성사되거나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게 될 징조로 여겨졌다. 만약 혼인을 앞둔 미혼 남자가 아니라면 귀인을 만나 좋은 세월을 함께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태몽으로도 보았다. 토끼들이 숲속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꿈은 좋은 뜻을 가진 사업가를 만나거나 인기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꿈을 꾸는 주체에 따라서, 임신부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출산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토끼와 다른 짐승이 함께 꿈에 등장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산토끼가 다른 짐승에게 쫓기는 꿈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곳에서 떠나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토끼가 다른 동물과 싸우거나 장난을 치는 꿈은 신앙·사상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꿈을 꾸 사람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충고를 건네기도 한다. 토끼인가 하고 바라보았더니 사자인 꿈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토끼가 자유롭게 놀고 있는 것을 보는 꿈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지원하여 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진행 중인 일을 의욕적으로 빠르게 추진하여 나가게 됨을 암시한다. 토끼가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꿈은 우

연히 자신을 이끌어주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협조로 원하던 일을 쉽게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토끼가 토끼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꿈은 종업원이나 가정부 등 고용인이 나가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한다. 토끼가 방안에 들어와 앉는 꿈은 집안에 근심이나 우환이 생길 징조로 보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토끼는 몸이 작고 힘이 약하지만 민첩하며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토끼가 나오는 꿈에서 토끼를 어질고 착한 사람, 어린이, 종업원, 가정부, 고용인에 대입하여 보거나 재물, 경제적 이득, 번성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주로 꿈에서 토끼를 보거나 토끼가 늘어나면 좋은 징조이고, 토끼가 도망가거나 숨어 버리면 나쁜 징조로 해몽한다.

참고문헌 21세기 신 꿈 해몽(정용금, 브라운 힐, 2011), 꿈 미래의 열쇠(현오, 대유학당, 2006), 꿈보다 해몽(오재연, 동학사, 2004), 꿈풀이 신풀이(심진송, 백승, 1998).

필자 김만태(金萬泰)

토끼띠

열두 띠 중 네 번째의 띠.

내용 토끼띠는 묘卯년생을 뜻하며, 육십갑자의 순서상 을묘乙卯·정묘丁卯·기묘己卯·신묘辛卯·계묘癸卯로 다섯 가지가 있다. 띠 동물의 외형·성격·습성 등의 특성과 연관지어 그해 출생자의 성격과 능력을 점쳐 보는 민간풍속이 있다. 민간에서는 토끼를 오행 중 음적陰의인 것으로 보기도 하고 토끼띠의 성정을 섬세하며 신중하고 선량하며 지혜가 많은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사주명리학에서 묘卯는 무성하다는 뜻으로 만물이 무성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방위는 해가 뜨는 정동방正東方이다. 토끼띠인 사람의 오행을 음적인 것으로 보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의 품성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섬세하며 신중하고 선량하며 평생 재물이 풍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체로 을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외유내강형이며 끈기가 있고 한 분야의 전문가 성향이 강한 것'으로, 정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술성과 감수성이 뛰어나며 신앙심도 깊은 것'으로, 기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먼저 생각하며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신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천성이 맑고 우아하여 섬세하고 깔끔하며 손재주가 있는 것'으로, 계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정다감하며 총명

하고 창의성·창작성이 뛰어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토끼와 관련된 문화적 상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지혜

자라의 뿔에 빠져 경황없이 용궁에 따라갔다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의 간을 꺼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빠져나오는 대목은 토끼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해도 정신만 잘 차리면 위기를 모면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토끼의 지혜와 꾀를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토끼를 꾀보·꾀쟁이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설화에서는 약자인 토끼를 지혜로운 동물로 내세우는 반면 강자인 호랑이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형화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에 널리 알려진 '꾀보 토끼와 어리석은 호랑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2. 풍요

토끼는 예로부터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민화에서는 흔히 토끼가 달에서 방아를 찧는 장면이 묘사된다. 토끼와 달이 관련된 설화 중 대표적인 것이 <제석천 설화>이다. 제석천이 자신을 위해 소신燒身공양을 서슴지 않은 토끼를 가혹하게 여겨 만인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토끼를 달에 올려 두었다는 내용이다. 달의 이칭인 토월兔月은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민간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달에 있는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달과 토끼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 달은 차서 기울고, 기울었다가 다시 차기 때문에 달은 끊임없는 재생과 영생을 상징한다. 토끼가 산다는 달의 삭망朔望 주기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 비슷하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달의 속성이 여성과 닮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토끼의 윗입술 모양이 여음女陰과 비슷하다는 점 역시 토끼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된 또 하나의 이유이다. 한편, 토끼는 수컷이 없어서 암토끼가 달을 바라보고 달 속의 수컷과 교합한다고도 믿었다.

3. 민첩

토끼는 재빠름을 상징한다. 속어 '토끼다'는 '도망가다'의 뜻인데, '토끼'가 동사로 바뀌었다. '토끼같이 재빨리 도망가다'에서 연상되어 생겼다는 설도 있다. 행동이 민첩하고 재빠른 토끼는 체구가 크고 힘은 강하지만 우둔한 동물들을 속이는 꾀 많은 동물 구실을 도맡고 있다.



십이지신 목판-토끼 | 가로36 세로18 두께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4. 소심

토끼의 행동에서 파생된 말로 “놀란 토끼 같다” “놀란 토끼 눈을 하다”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등의 말이 있다. 행동의 경망함이나 스스로 지레 겁을 집어먹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때문에 토끼를 순박하고 착한 심성 때문에 곧잘 평범한 서민이나 백성들로 비유하기도 한다.

5. 충성

토끼는 민첩한 특성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심부름꾼이나 전령 등의 역할을 자주 맡는다. 이러한 역할이 유교적 측면에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나타난다. 경상북도 문경의 토천兔遷이라는 곳은 길을 잃은 고려 태조를 토끼가 벼랑을 따라 뛰어가면서 길을 안내하였다는 전설에서 생긴 지명이다.

6. 장수

설화에서 토끼는 달에 살면서 불사약을 찢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토끼는 도교적으로 장생불사를 표상한다. 남편 예궤가 서왕모西王母에게서 받은 불사약을 항아瓊蟻가 혼자 먹고 달로 가서 두꺼비가 되었다는 신화도 달과 토끼, 두꺼비, 불사약을 동일시하여 장생불사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학적 상징과 함께 사주명리학에서도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의 성정을 평가하기도 한다. 토끼해에 태어난 사람을 성급하지만 잘 화해하고 유순

하며 너그러운 성정을 가진 편으로 여기거나 인정이 많고 신의를 잘 지킨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지혜와 계교는 있으나 매사에 유시무중有始無終하는 편이어서 큰 문을 열고 나가기가 힘들 때가 있다고 한다. 의심이 많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성향이지만 이성 간의 문제에서는 실패수가 있다고도 한다.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궁지에 빠지는 일이 적으며 풍족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한편, 토끼띠인 사람은 착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으며 이상주의자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감수성이 뛰어나고 유머가 풍부하여 예능 계통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한다. 또한 민첩성이나 지혜를 발휘하는 토끼에 대한 인식처럼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간단히 뛰어넘으며 순발력을 통해 곤경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사주명리학에서는 십이지 동물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띠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끼와 화합하는 띠는 돼지띠, 양띠, 개띠이고, 충돌하는 띠는 닭띠이며, 애증이 교차하는 원진살怨嘖이 되는 띠는 원숭이띠이다. 원진怨嘖은 서로 충돌衝動하는 지지의 바로 앞뒤 지지이므로 싸움을 하고 나서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뜻이다. 원진살은 궁합合婚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민간에서는 토끼띠를 토끼의 성정을 닮아 선량하고 착하며 지혜롭고 영리하며 재물이 풍부하고 명예운이 좋으며 민첩하나 신중하기도 하며 충성스럽고 무병장수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사주명리학에서 묘는 음목陰木으로 방위는 해가 뜨는 정동방을 의미하므로 생명력이 땅을 뚫고 나와서 무성하게 자라나서 번성하는 성정을 갖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십이지의 문화사(허균, 돌베개, 2010), 정선명리학강론(김만태, 지식의 통섭, 2022), 토끼설화에 나타난 동물담의 행태고찰(이종관·김만태, 인문사회21 9-5,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문화상징사전1(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996).

필자 김만태(金萬泰)

문학 속 토끼

The Rabbit in Literature

고국산천
곰을 범한 토끼
구토지설
굴토끼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꼬리 잘린 호랑이
달과 토끼무늬 수막새
돌떡 먹는 호랑이
동물 그리는 노래
동물 나이 자랑
멧토끼
묘시
묘신
문경 토끼비리
문학 속 토끼
반달
백자 칠화 토끼모양 연적
범피종류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산토끼
산토끼
삼묘일보기
삼묘일
상좌다툼
속담 속 토끼
수궁가
수궁가
수궁풍류
수월관음도
쌍토도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옥토끼
옥토망월형
옹달샘
우는토끼
월광보살
일월광첩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장수와 풍요의 토끼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털날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토끼 눈이 빨강게 된 유래
토끼 배 가르느 대목
토끼가 갖든 물건
토끼고기
토끼골
토끼꿈
토끼띠
토끼무늬
토끼바위
토끼봉
토끼부적
토끼사냥
토끼선생
토끼섬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원숭이
토끼육설
토끼위기
토끼의 간
토끼의 보시행
토끼의 생태와 자연
토끼의 재판
토끼자리
토끼전
토끼타령
토끼털
토끼풀
토끼화상
토동
토별문답
토사자
토사호비
토의간
토해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호응박토도

문학 속 토끼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토끼는 호랑이와 함께 우리나라 문학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동물이다. 호랑이와 함께 다양한 갈래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설·민담·관소리 등 여러 갈래의 문학에서 호랑이가 힘센 동물의 상징이라면 토끼는 약한 동물의 상징이고, 호랑이가 영험한 동물이라면 토끼는 피·지혜·간계 등을 임기응변으로 사용하여 위기를 곤잘 벗어나는 동물로 등장한다. 이처럼 토끼는 우리나라 문학에서 호랑이와 서로 대척점을 이루는 대표적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이는 토끼가 우리나라 문학에서 중요한 문학적 소재로 취급되었음을 말해 준다.

전설에서는 대체로 토끼가 신비한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옥토끼 전설’과 <토끼 전설>이 이에 해당한다. ‘옥토끼 전설’은 설화 형태로 전승된 것은 없고, 고려 말 이후 여러 문인의 한시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다. 고려 말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오작교 빌려 월궁으로 들어가서想借銀橋入, 옥토끼로 계수나무 다듬고 싶지만期將玉斧修”, 고려 말 이색(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에 “옥토끼는 나의 세 번 탄식을 몰래 엿보는 듯玉兔似窺三歎息”, 조선 초기 문신 경섭(1562~1620)의 『해사록海槎錄』에 “항아의 거울은 내 품 안에 들고娥鏡入我懷, 옥토끼가 짙은 약 내 술잔에 넘치니兔藥盈我卮”,

조선 후기 문신 윤기(1741~1826)의 『무명자집無名子集』에 “항아가 영약을 훔쳐婦娥竊靈藥, 광한궁에 숨어드니逃入廣寒宮” 등의 시구詩句가 나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들 시구에서 옥토끼는 광한궁에서 장생불사의 약을 짚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5세기 고구려의 개마총鎧馬塚 고분벽화에 이러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꽤 이른 시기부터 ‘옥토끼 전설’이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토끼 전설>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9권 문경현聞慶縣 편에서 확인된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백두대간을 넘었다. 그런데 관감천串岬遷에 이르자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절벽이 가로막았다.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토끼 한



토끼전 | 국립중앙박물관

마리가 벼랑을 타고 달아났다. 왕건은 그것을 보고 군사들을 이끌고 토끼가 간 길을 따라 진군하여 무사히 관감천을 지날 수 있었다. 이후 토끼가 지난 그 길은 ‘토끼길’이라는 뜻의 ‘토끼’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길은 ‘토끼비리’라고 불리는데, ‘토끼낭떠러지’란 뜻이다. 관감천에서 갈 곳을 잃은 왕건을 토끼가 안내해 주었으니, 여기에서의 토끼 역시 신비한 동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토끼바위>라는 전설에서는 토끼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영약靈藥으로 묘사된다. 경상북도 상주읍에 사는 이경대李敬大라는 효자가 꿈속에 나타난 백발노인이 이르는 대로 찾아가 토끼를 얻어 위중한 상태의 아버지를 구원하였다는 내용이다. ‘옥토끼 전설’에서 토끼에게 부여된 ‘불사약’의 상징적 의미가 효자 전설로까지 확대되어 만들어진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전설에서와는 달리 민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의미를 드러내는 토끼가 등장한다.

첫째, 임기응변의 꾀를 부리는 동물인 토끼이다.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된 설화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1 열전 김유신金庾信 상상에 실려 있는 <구토지설龜兔之說>이다. <구토지설>의 근원설화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자타카jataka』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원왕본생담猿王本生譚>은 한역불전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으로, <악본생담鰐本生譚>은 한역불전 『육도집경六度集經』과 『생경生經』으로 그 이야기의 계통이 이어졌다. <구토지설>은 이 중에서 후자 계통을 이어받은 설화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전하는 <구토지설>의 내용이 한역불전의 이야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오랫동안 민간에서 구전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토지설>에 의하면, 김춘추金春秋가 고구려에 청병하러 갔다가 잡혀 죽게 되었을 때, 고구려왕의 총신寵臣 선도해先道解에게 이 설화를 듣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선도해가 김춘추에게 말해 주었다는 설화는 ‘토끼가 자라의 뱀에 넘어가 용궁에 갔다가 꿈쩍없이 죽게 생겼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용궁을 탈출하여 목숨을 보전한다’는 내용인데, 김춘추도 이 설화를 듣고 토끼처럼 꾀를 부려 고구려를 탈출해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설화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탈신지계脫身之計’라는 주제로 절묘하게 부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끼의 재판>과 <꼬리 잘린 호랑이> 등도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이다. <토끼의 재판>에서 토끼는 자신을 함정에서 구출해 준 은혜를 저버리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한 호랑이를 기지를 발휘한 재판으로 다시 함정에 빠뜨린다. <꼬리 잘린 호랑이>는 호랑이가 동지선달에 토끼를 사냥해 잡아먹으려고 하였다

가 배불리 먹여 주겠다는 토끼의 제안에 속아 최후에는 꼬리까지 잘려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두 설화 모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임기응변의 기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보전하는 토끼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바, 이는 <구토지설>에서 마련된 토끼의 형상이 일찍이 정착·유전되어 왔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설화에서 토끼는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이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강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임기응변의 꾀와 기지가 토끼 같은 약자가 호랑이 같은 강자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임을 알려 준다.

둘째, 간계奸計를 부리는 동물로서의 토끼 유형은 임기응변의 꾀를 부리는 동물로 등장하는 유형에 비해 소략하다. <곰을 범한 토끼>와 <아이를 숲에 넣고 도망친 토끼> 등이 이에 속한다. <곰을 범한 토끼>에서 토끼는 곰을 범할 목적으로 치밀한 간계를 꾸며내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토끼는 곰을 범한 후 능욕의 말을 하던 중 독수리에게 채여 간다든지, 사람이 설치한 올가미에 걸려든다든지 하여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즉 토끼는 지나치게 자기 꾀만 믿고 방자하게 날뛰다가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꾀를 부리는 것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자신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대목이다.

<아이를 숲에 넣고 도망친 토끼>에서 토끼는 녹두침지에게 붙잡혀 산 채로 숲에 넣어지지만, 녹두침지 아내가 불을 빌리러 간 사이 숲에서 나와 녹두침지 부부의 아기를 대신 숲에 넣고 안방에서 아기처럼 누워 있다가, 녹두침지 부부가 고기를 다 먹자 “자기 새끼 잡아먹고 자기마저 잡아먹으려 한다”라고 소리치며 도망친다. 각편에 따라서는 자신을 붙잡은 노부부를 죽이고 도망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보통은 죽을 위기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설화에서 토끼는 간계를 내어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잔혹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담에서의 두 유형은 토끼가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①꾀를 내어 도망쳐 목숨을 보전하는 것과 ②자기의 꾀를 과신하여 스스로 위기에 처하거나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간계를 내어 잔혹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등 두 가지 극단적 형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학 속에 나타나는 토끼 형상의 주류는 전자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판소리 <수궁가>이다. <구토지설>에서 암시되었을 뿐인 육지 세계와 용궁 세계의 대결 양상이 첨예하게 전개되면서, 개인적 문제보다는 두 세계 간 대결이 더 문제적 상황임을 부각시킨다. 즉 ‘수궁—육지’의 공간 이동과 전환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그 공간에서의 서사가 점차 확장되는데, 이러한 공간을 통한 서사의 확장은 청자로 하여금 문



토끼왕국과 사냥개 바푸 | 한국민화박물관

옥토끼 어린이 동화집 | 국립한글박물관

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폭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토끼가 꾀를 부려 위기를 벗어나는 게 개인의 문제에서 세계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설·민담·판소리 등 구비문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동요 <반달>과 <산토끼> 등에서도 토끼가 등장한다. 윤극영尹克榮(1903~1988)이 1924년에 작사·작곡한 <반달>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뚝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라는 노랫말로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한 ‘옥토끼 전설’을 소재로 한 것이다. <산토끼>는 이일래李一來(1903~1979)가 1928년에 작사·작곡한 동요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울테야”라는 노랫말로 되어 있는데, 토끼처럼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을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단순한 멜로디, 재미있는 노랫말 때문에 항왜抗倭 정신이 담긴 노랫말로 쉽게 바뀌어 부른 사람들이 많아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토끼는 전설·민담·판소리·동요 등 여러 문학 갈래에서 다양한 형상과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토끼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문학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한국 구비문학과 아동문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 왔다.

참고문헌 설화학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십이지신 토끼(이어령 외, 생각의 나무, 2010), 이일래 동요 연구(김봉희, 지역문화연구3, 경남부산지역문화회, 1998), 토끼전 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 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문화포털(culture.go.kr).



토끼가 나타난 민화 | 가로4 세로4 | 국립민속박물관

속담 속 토끼

오세길(동의과학대학교)

속담은 교훈이나 풍자를 위해 어떤 사실을 비유적이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관용어구이다. 이는 서민들의 일상 경험을 통해 관습적으로 형성되며, 시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다. 그렇기에 속담에는 서민들의 고유한 사회적·문화적 관념이 응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토끼와 관련한 속담이나 속신은 대개 토끼의 생태적·외형적 특징을 소재로 삼고 있다. 초식동물로 생태계 먹이사슬의 하위 구조에 속하는 토끼의 생태적 특성과 연약해 보이는 외형에 근거를 둔 속담의 형성 및 전승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토끼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진 양가적 존재로 묘사한다.

1. 긍정적인 인식

설화에서 토끼는 지혜의 상징, 악의 퇴치자, 정의를 수호하는 심판관 등으로 형상화되는 반면 속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면모를 찾기 어렵다.

• 지혜로움

속담에서 토끼는 지혜를 갖춘 대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춘 동물로 묘사되며, 이는 토끼의 실제 생태를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토끼는 굴을 셋 판다’ ‘교활한 토끼는 굴이 셋이다’ 등의 속담은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상용 굴을 만들듯이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칠 불운을 막기 위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민화(토끼그림) | 가로33 세로75 | 광복 이후 | 삼척시립박물관

• 동류의식

속담에서 토끼는 동류애를 지닌 동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중국의 고사성어인 호사토비狐死兔悲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와 같이 실제 현실에서 토끼는 여우와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더 강한 포식자 앞에서는 같은 처지이기에 여우의 불행에 동병상련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편 속신에서 '토끼의 왼쪽 다리를 가지고 다니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민첩하게 도망가는 토끼의 대응 능력이 강한 다리에서 비롯되었기에 이것을 소지하면 인간 사회에서의 위기 또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유감주술적 믿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적 인식

속담에 나타난 토끼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더 많다. 대개 토끼의 서식 환경에서 비롯된 행동 양식을 인간에 비유한 것이며, 토끼가 실생활에서 가지는 유용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 나약함

토끼는 모든 육식동물의 먹잇감으로 먹이사슬 구조의 가장 하위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약한 토끼는 자신을 노리는 육식동물을 피하기 위해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행동하여야 한다. 속담에서는 이러한 토끼의 모습을 인간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는데,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놀란 토끼 뛰듯 한다' '놀란 토끼 눈을 한다' 등은 경계심이 많고 나약한 인간을 의미한다.

• 보잘것없음

이는 토끼가 가지는 실제적 유용성이 다른 가축이나 동물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생활에서 토끼의 털이나 가죽은 방한용으로 쓰이기도 하나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는 덜하다. 그렇기에 '노루 잡는 사람에게 토끼가 보이냐'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토끼를 잡는다' 등에서처럼 토끼는 노루나 호랑이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다.

• 교활함

속담에서 토끼는 여우와 함께 교활한 성정性情을 지닌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토끼의 지혜로움이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혜는 자칫 교만함을 부르고, 이는 결국 교활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범 없는 골에는 토끼가 스승이라'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사자 없는 산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임신 중에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언청이가 된다'와 같이 토끼의 외형이 부정적으로 인식된 속신도 있다.

토끼의 생태적·외형적 특징은 양가적 의미로 인식되어 교훈과 풍자를 담은 속담이나 속신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들이 가지는 구전성과 적층성으로 인해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 시대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토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과거에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라는 속담처럼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성취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와 같이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변하고 있다.



방아 찧는 토끼 | 가로32 세로82 | 광복 이후 | 삼척시립박물관

참고문헌 열두 띠 이야기(김선풍 외, 집문당, 1995), 한국과 중국의 동물속담 비교(김미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고국산천

故國山川

〈수궁가(水宮歌)〉에서 토끼가 별주부 등을 타고 수궁에서 육지로 귀환하면서 살아나온 것을 기뻐하며 풍경을 나열하는 소리 대목.

개관 〈고국산천(故國山川)〉은 〈소지노화(笑指蘆花)〉 〈노화월〉 〈백로횡강(白鷺橫江)〉 〈객래아문흥망사〉 〈가자 어서 가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사설의 한 마디를 따서 붙인 명칭이다.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 용궁에 잡혀갔던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죽을 고비를 벗어나 육지로 향하는 기쁨을 표현한 대목이다. 단가 〈고고천변(高阜天邊)〉의 도입부에서 불리기도 하는 이 대목은 독립하여 부르기도 하고, 〈혼령상봉〉과 〈고국산천〉을 결합하여 부르기도 한다.

〈고국산천〉은 토끼가 용궁에서 벗어나 살아 돌아옴을 기뻐하는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으로 독립된 단가로도 불렸다. 전기 팔명창의 한 사람으로 수궁가에 능하였다는 신만엽의 〈소지노화〉가 주요 더듬으로 전한다. 중중모리장단의 석화제 가야금병창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국산천〉은 칠중·고중 때 서편제 명창으로 이름을 떨쳤던 백경순의 단가로도 전한다.

내용 〈고국산천〉과 유사한 대목이 〈고고천변〉과 〈범피중류(泛彼中流)〉이다. 〈고고천변〉은 별주부가 토끼를 잡기 위해 육지로 나올 때, 〈범피중류〉는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용궁으로 향하는 대목에, 〈고국산천〉은 토끼가 용궁에서의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육지로 나오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이들 대목은 노정기 방식으로 전개되며, 바다가 배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국산천〉은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먼저 신만엽제 〈고국산천〉이다. 신만엽제 〈고국산천〉은 수궁에서 살아나오는 토끼의 기쁨 심정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신만엽의 〈고국산천〉은 송홍록의 단가 〈만학천봉가(萬壑千峯歌)〉를 수용한 수궁가의 〈고고천변〉과 거의 같다. 심상건이 가야금병창으로 부른 단가 〈노화월〉도 뒷부분의 극히 일부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다. 수궁가의 〈고고천변〉은 별주부가 수궁에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토끼를 만나기 위해 육지로 향하는 대목이다. 별주부가 바다 위로 떠올라 육지라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때의 정서와 감흥을 풍경의 나열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만엽제 〈고국산천〉은 자신이 살던 낯익은 육지로 돌아온 토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수록된 백경순의 〈고국산천〉은 신만엽

제 〈고국산천〉과는 다르다. 백경순의 〈고국산천〉은 토끼가 사지에서 벗어나 육지로 살아 돌아오는 기쁨을 드러내는 기능에 충실하며, 살아 돌아오는 토끼의 심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성준제 수궁가를 계승한 창자나 송만갑제 수궁가를 계승한 박봉술, 강산제의 정권진 등은 동일한 〈고국산천〉을 부르지만 뒷부분을 삭제하여 부른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가 방정을 떨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면에 맞지 않은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세 유형의 〈고국산천〉은 신만엽제—백경순제—유성준제의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상호 경쟁 관계에서 취사선택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개작의 변—새타령’으로 짜인 신재효본과 〈혼령상봉〉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이선유창본, 〈혼령상봉〉 대목이 앞에 놓인 심정순 창본, 개작의 변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김연수 창본을 제외한 모든 창본은 〈혼령상봉〉과 〈고국산천〉이 결합된 형태로 진양조장단과 중중모리장단으로 불린다. 이 대목은 토끼가 육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풍경을 파노라마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서사적인 구조와는 관계가 없는데, 수사학적으로 익숙한 중국의 고사와 풍경을 가락에 얹어 부름으로써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고국산천〉은 신재효의 개작의 변으로 보아 19세기 중반 이전부터 불렸던 것으로 〈심청가(沈淸歌)〉에서 생생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국산천〉은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면서 이비, 오자서, 굴원 등의 혼령과 만나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혼령상봉〉 대목에서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이다. 심청가의 〈혼령상봉〉은 죽음을 앞둔 심청의 억울한 심정을 역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사연을 들으며 슬픔을 심화시킨다. 이에 비해 수궁가의 〈고국산천〉은 토끼가 기쁜 심정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대목에 등장한다. 〈고국산천〉의 근원이 되는 〈혼령상봉〉 대목이 토끼가 살아나오는 대목에 등장하는 것은 수궁가의 서사구조와 큰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고국산천〉은 수궁가의 주요한 삽입가요로 사용되었다. 이런 형성과정을 통해 풍경을 묘사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중국의 고사와 인물, 시 구절을 나열하여 소리 대목을 만들어 가던 당대의 연행 관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수궁가 범피중류 대목의 변모 양상(김석배, 수궁가 연구, 민속원, 2001), 수궁가 소재 노정기의 종립과 변이(류수열,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2002),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민속원,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필자 이기형(李起衡)

꿈을 범한 토끼

간교한 토끼가 꾀를 써서 꿈을 범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토끼의 꾀와 기지 등은 고대 설화 <귀토지설龜兔之說>에서부터 확인된다. 토끼의 정신적 특징을 형상화하는 요소로 꾀와 기지 등이 꽤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꿈을 범한 토끼>는 구전뿐만 아니라 문헌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문헌으로는 조선시대 설화집 『기문奇聞』의 <교토탈화狡兔脫禍>에서 처음 확인된다.

내용 동물우화 중 동물지략담에 속한다. 옛날에 수토끼 한 마리가 꿈이 사는 동굴에 우연히 들어가 보니 어미 꿈은 없고 새끼 꿈들만 남아 있었다. 호기를 낸 토끼는 새끼 꿈들에게 “너희의 어미가 있었다면 내가 한 번 범해 볼 것인데, 마침 없는 게 애석하다”라고 말하고는 가 버렸다. 어미 꿈이 돌아오자 새끼 꿈들이 토끼의 말을 전하였다. 어미 꿈은 감히 토끼 따위가 자신을 능욕하였다고 화를 내며 다시 온다면 삼켜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숨어서 토끼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토끼가 다시 찾아와서는 새끼 꿈에게 다가와 이전과 같은 말을 하자 어미 꿈이 달려와 토끼를 잡으려고 하였다. 깜짝 놀란 토끼는 재빨리 도망쳐서 덤불 속으로 작은 몸을 숨겼다. 그러나 몸집이 큰 꿈은 토끼를 쫓아서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칠푼쿨에 몸이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본 토끼가 즉시 달려 나와 꿈을 범한 후 달아나며 “그래, 내가 뭐라더냐?” 하고 놀려댔다.

<교토탈화>에는 이러한 삽화에 이어 토끼가 위기에 처하였다가 그것을 모면하는 삽화들이 연속되어 있다. 큰 독수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 토끼를 낚아채어 가자 꿈이 토끼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토끼는 천제天帝가 자신을 약으로 쓰기 위해 독수리를 보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독수리는 토끼의 그 말에 겁도 나고 화가 나서 토끼를 모래와 돌만 있는 섬에다가 던져 버렸다. 섬 한 가운데에 떨어진 토끼는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그때 마침 자라가 물 위에 나와 놓고 있는 게 보였다. 토끼는 화난 얼굴로 숫자를 헤아리면서 “외로운 무족無族의 자라가 어찌 이곳에서 머무느냐”라고 물었다. 자라는 “고기와 자라가 모두 나의 족속인데, 어찌 외롭단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토끼가 “네 동족을 다 불러 바다를 덮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도발하자 자라는 무리를 모두 불러 바다를 차례로 덮었다. 그러자 토끼는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겠다고 하면서 자라의 등에 올라 차례로 뛰어다니며 “한 자라, 두 자라, 천 자라, 만 자라” 하며 물가에 이르러 모래밭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토끼는 사냥꾼이 쳐놓

은 덫에 걸려 그만 움썩달썩 못 하게 되었다. 그때 머리가 빨간 커다란 모기 한 마리가 옆에 와서 앉자 토끼는 또 화를 내며 “자손도 없는 네가 감히 나를 침해하려고 하느냐”라고 도발하였다. 모기는 화를 내며 자신의 자손은 수레에 가득 찰 만큼 많으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응수하였다. 토끼가 짐짓 놀란 체를 하며 “그렇게 많다면 모두 불러 모아서 내 몸의 털 하나마다 알을 낳아 보라”라고 도발하였다. 이에 모기가 즉시 모여들어 토끼의 털에다 알을 낳으니, 벌레와 구더기들이 토끼의 몸에 가득 차서 토끼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사냥꾼이 와서 토끼를 보고는 이미 썩은 줄 알고, 토끼를 풀어서 산 쪽으로 던져 버렸다. 토끼는 뛰어 도망치면서 “달리는 자라가 토끼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외쳤다.

특징 및 의의 토끼가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꿈을 범하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외설담적 요소가 매우 농후한 설화이다. 이러한 내용상 특징에서 전승층이 성인들로 제한되었을 것이라는 점, 교훈성보다는 오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일반 동물담에 비해 다소 특이한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 등이 파악된다. 또한 미련한 꿈의 용력과 토끼의 임기응변적 술수를 대비함으로써 육체적 힘보다는 정신적 지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된다.

참고문헌 고금소총(민속학술자료간행회, 1958),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필자 최원오(崔元午)

구토지설

龜兔之說

조선 후기 판소리 <수궁가>와 고전소설 『토끼전』의 근원설화로 여겨지는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

개관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김유신 조에 따르면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에게 대패하여 수세에 몰린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김춘추는 고구려 보장왕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이때 이미 김춘추에게 뇌물을 받은 바 있었던 보장왕의 충신 선도해가 김춘추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준다.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이 들자 의원 말이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거북이가 육지로 나아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가던 중 바다 한가운데 쪼에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토끼가 “마침 간을 셋어 말리려고 바위

에 넣어두었으니 용궁에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는 수 없이 간을 가지러 육지로 돌아오자 토끼는 거북이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달아나 버렸다.

선도해가 전한 이야기의 뜻을 이해한 김춘추는 고구려에 돌아가 왕에게 허락을 받겠노라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신라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 선도해가 김춘추에게 해 준 이 이야기가 바로 ‘구토지설’이다. 귀토지설龜兔之說이나 구토설화龜兔說話라고도 한다.

내용 구토지설은 고대 인도의 우화가 인도의 석가모니 본생담本生談, jātaka에 불전설화로 기록되고 중국의 『육도집경六度集經』 같은 불경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전승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구토지설은 토착화 과정에서 인도의 본생설화나 중국의 불전설화 등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설화의 구조와 형식을 보면 석가모니 본생설화와 한역 경전은 현재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야기의 인물과 과거 이야기의 주인공을 연결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구토지설에서는 이러한 종교 설화로서의 형식은 완전히 탈각된 채 과거의 이야기만 남아 우화와 지략담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등장인물이나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인도 본생설화에서는 악어의 부인이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다고 하고, 중국의 불전설화에서는 자라의 아내가 병이 들거나 임신을 하여 원숭이의 간을 원한다. 이들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관계는 주로 우정과 애정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갈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구토지설에서는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이 들어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토끼와 거북이가 등장하면서도 용왕과 용왕의 딸이라는 새로운 대립적 존재가 등장하여 차이를 보인다. 즉 용왕·거북이·토끼는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구토지설은 고대 인도 설화에서부터 비롯된 오랜 연원을 가진 우화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맞게 토착화·한국화한 설화이다.

지역사례 『판차탄트라Pañcatantra』를 비롯한 인도의 설화집에서 구토지설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발견된다. 중국·몽골·아이누와 일본 등지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아랍권의 고전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세계적 광포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 외에도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 축약된 형태의 설화가 실려 있으며, ‘토끼의 간’과 ‘토끼바위 전설’ 등 다양한 설화로 파생

되면서 현재까지 구전·전승되어 오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구토지설은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의 근원설화이자 트릭스터인 토끼의 지혜를 핵심으로 하는 지략담이며, 『화왕계』와 더불어 우언문학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서도 의의가 크다. 『토끼전』이 조선 후기 정치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이 가능하였던 것도 구토지설의 지략담적 성격과 우의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귀토지설과 화왕계의 대비적 고찰(윤주필,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삼국사기 김유신 조 구토지설의 독법과 맥락(정충권, 한국문학논총52, 한국문학회, 2009), 토끼전 근원설화 연구(인권환, 아시아연구10-1,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67), 토끼전의 사실확장 양상(김동건, 인문학연구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한·몽 설화의 비교(윤승준, 비교민속학22, 비교민속학회, 2002).

필자 김동건(金東建)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까치의 새끼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죽게 만드는 설화

개관 호랑이와 토끼는 우리나라의 민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 설화의 동물담에서도 가장 흔히 보이는 짝패이다. 설화에는 트릭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이야기군을 ‘속이고 속기’라는 큰 범주에 분류하면서 흔히 ‘트릭스터담’이라고 한다. 그중에 이 설화는 특히 동물트릭스터담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만하다.

줄거리 까치가 새끼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호랑이가 와서 새끼를 안 주면 모두 잡아먹겠다고 하였다. 까치가 새끼를 한 마리 내줬지만 호랑이는 계속 찾아와 새끼를 한 마리씩 더 요구하였다. 마지막 새끼만 남게 되자 까치는 슬피 울었다. 지나가던 토끼가 까치의 사연을 듣고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지 못하니 새끼를 주지 말라”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또 찾아오자 까치는 토끼가 일러준 대로 하였고 누가 가르쳐 줬는지를 묻는 호랑이에게 사실대로 알려줬다.

화가 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토끼는 자신을 살려주면 새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호랑이는 그렇게 하자며 토끼를 살려줬다. 토끼는 호랑이를 역새발으로 데리고 가서 한가운데 앉혀 놓고 “여기서 눈을 감고 입을 썩 벌리고 있으면 내가 새들을 몰아서 입으로 다 넣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토끼는 역새발에 불을 질렀다. 역새 타는 소리가 나자 호

랑이는 새들이 잔뜩 날아오는 줄 알고 입을 더욱 크게 벌렸다. 결국 역새발이 모 두 불에 타면서 호랑이도 죽고 말았다.

토끼가 죽은 호랑이 고기를 먹으려는데 칼과 도마가 없어서 이웃 노인에게 “호랑이 고기를 주겠다”라며 칼과 도마를 빌렸다. 하지만 토끼는 호랑이 고기를 다 먹고 노인에게는 줄 게 없어서 이에 낀 고기를 모아 노인에게 주었다. 노인이 고마워하며 먹는 것을 본 토끼는 “이에 낀 고기를 먹는다”라며 웃었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토끼에게 칼을 던졌는데 토끼의 꼬리에 맞아 꼬리가 끊 어졌다. 이때부터 토끼 꼬리가 없어졌다고 한다.

변이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설화는 까치를 도와준 토끼에게 앙심을 품은 호랑이를 토끼가 피를 써서 죽게 만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형은 토끼 꼬리가 없어진 이유, 매추라기의 꼬리가 짧아진 이유, 여우의 콧잔등이 하얀 이유처럼 대개 동물들의 생김새 유래담으로 끝맺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새 끼를 잡아먹히는 동물로 까마귀가 등장하기도 하고, 거북이가 등장하는 이야기 에서는 처음에 토끼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거북이가 직접 호랑이를 퇴치하기도 한다. 또한 호랑이 대신 여우와 솔개가 위협하는 동물로, 왜가리·매 추라기·학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등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때로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된 토끼가 돌떡·물고기·새를 먹게 해주겠다고 속여 결국 호랑이를 죽게 만드는 <호랑이와 토끼> 설화 유형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부분적으로 결합 되기도 한다.

분석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설화는 트릭스터로서 토끼가 지닌 진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토끼의 속임수에 당하는 존재는 호랑이와 노인인데, 그 양상은 사뭇 다르다. 위기에 처한 까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였기 때문에 토끼에게 호랑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에 비해 노인은 자신 을 도와준 존재임에도 토끼는 그에게까지 속임수를 쓰다가 꼬리가 잘리는 결말 을 맞이한다. 이는 토끼가 지혜로운 동물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트릭 자체 를 즐기는 동물임을 알려주고, 의도가 불순한 기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온 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설화에서 토끼와 호랑이는 대부분 ‘트릭스터(trickster)’와 ‘듀프(dupe)’의 관 계로 설정되는데, 이를 통해 피쟁이 토끼는 어리석은 호랑이를 속여 끊임없이 꿀탕을 먹인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지혜 와 슬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연약한 토끼에 대비되는 사나운 호랑이와의 대결

에서 항상 승리를 차지하는 토끼를 통해 설화 향유자들은 이 이야기를 현실에 서의 불합리한 사회구조 혹은 강자에 대한 승리로 치환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 낄 수 있다.

참고문헌 토끼설화에 나타난 동물담의 행태고찰(이종관·김만태, 인문사회21 9,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트릭스 터 토끼 설화군의 계통(김기호, 한국사상과 문화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 류의 기본 원리(조동일, 정신문화연구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구전설화1(임석재, 평민사, 1993), 한국설 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이홍우(李洪雨)

꼬리 잘린 호랑이

토끼의 꼬임에 빠져 엄동설한에 꼬리를 냇가에 넣었다가 꼬리가 잘린 바보 호랑이에 관한 설화.

역사 생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설화가 인도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본의 원숭이와 곰 이야기가 이 설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일 설화가 서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호랑이가 동지선달에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토끼를 만난 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가재를 배불리 먹여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한다. 호랑 이는 토끼와 냇가로 가서 토끼가 하라는 대로 꼬리를 물속에 넣는다. 토끼가 가 재를 몰아오는 시늉을 하는 동안 호랑이는 포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이 앉아 기다린다. 아침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자 호랑이는 동지선달에 꼬리 가 퐁퐁 얼어붙은 것도 모르고 도망가기 위해 황급히 일어선다. 그 순간 물속에 퐁퐁 언 꼬리가 잘려나간다.

변이 이 이야기는 단독보다는 다른 일화들과 결합하는 예가 더 많다. 호랑이가 토끼 에게 속아 밧갈게 단 돌덩어리를 먹는 일화와 호랑이가 토끼의 꼬임에 빠져 숲 에 앉아 새고기를 공짜로 먹으려 하다가 불에 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현명한 재판관 토끼 이야기나 교활하고 잔인한 토끼와 할머니 이야기가 차례로 결합하기도 한다.

분석 호랑이와 토끼는 늘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등장한다. 연구자들은 토끼를 트릭 스텐터로 상대역인 호랑이를 바보 듀프(Dupe(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로 본다. 연구 자에 따라서는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보는 예도 있다. 한편, 호랑이를 치자(治者



호랑이와 토끼 삽화 | 20세기 전반 | 국립민속박물관

혹은 권력자, 토끼를 피치자 혹은 민중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호랑이에 대한 토끼의 승리를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민중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여 풍자적 웃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바보 호랑이 이야기들과 같다. 한편, 호랑이와 토끼 둘만을 등장시켜 호랑이의 어리석음과 토끼의 사술(詐術)을 극단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호랑이설화와 구별된다. 이러한 대비는 호랑이의 원초적 본능과 어리석음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은 융(Jung)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화가 고등화하면서 내면에 억압해 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된다. 또한, 피아제(Piaget)의 아동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조작기의 인지적·정서적 수준과 일치한다. 한편, 사회학적으로는 호랑이를 힘없는 민중의 착취자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6, 616; 5-4, 492; 5-5, 248.
참고문헌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열,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화학 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한국문학통사(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82),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돌떡 먹는 호랑이

호랑이가 토끼에게 속아 빨강게 달궈진 돌을 떡으로 먹고 죽은 바보 호랑이 설화.

역사 바보 호랑이와 피돌이 토끼가 주인공이 되어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호랑이는 토끼만 만나면 위장의 욕구에 굴복하고 마는 존재이다. 이것을 간파한 토끼는 피를 내서 역으로 호랑이 위장의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 토끼의 역할에 따라 매력적인 에피소드들이 다수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돌떡 먹는 호랑이> <꼬리 잘린 호랑이>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등이다. <돌떡 먹는 호랑이>는 호랑이 대 토끼의 속고 속이는 에피소드를 대표하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줄거리 어느 숲에 배가 고프기만 하면 정신이 아뜩해지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 그날도 호랑이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에 꿈쩍없이 게으른 몸을 일으켜 세워 길을 나선다. 그때 딱 토끼를 만난다. 호랑이가 “토끼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한다. 토끼가 그 말에 똑바로 서서 이웃의 도리를 저버린 호랑이의 눈을 본다. 토끼는 매우 신뢰할 만한 목소리로 “형님, 살려만 주시면 떡을 배블리 먹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호랑이는 ‘배블리’라는 말에 순간 모든 판단능력을 상실한다. 토끼가 호랑이를 앞에 앉혀놓고 차돌멩이 열한 개를 불에 달군다. 돌이 빨강게 달궈지자 토끼가 태평스럽게 “형님, 소금과 도마를 가지고 올 테니 그사이 열 개 중 하나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난다. 토끼가 떠난 것을 확인한 순간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쥔다. 그러고는 돌이 열 개가 아니라 열한 개임을 확인한다. 호랑이는 한 개가 더 많다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호랑이는 토끼가 없는 틈을 타서 빨강게 달궈진 돌 한 개를 얼른 삼킨다. 호랑이는 돌에 내장이 타서 죽는다.

변이 <돌떡 먹는 호랑이>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의 이야기이다. 미련한 호랑이와 약은 토끼의 만남, 빨강게 달궈진 돌과 빨강게 익은 떡의 조작, 속이기와 속기, 생명 살리기와 생명 죽이기, 강자의 어리석음과 약자의 똑똑함 등 이항 대립적 구조는 매우 논리적으로 탄탄히 결속되어 있다. 다만 이 에피소드는 독립적으로 전승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다른 에피소드와 옴니버스식으로 연결되어 전승되기도 한다. 순차적으로 앞뒤 구분 없이 결합되는 에피소드로는 <꼬리 잘린 호랑이>와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등이 있다. 이처럼 다른 에피소드들과 결합되지만 <돌떡 먹는 호랑이> 에피소드 그 자체는 완결된 구조로서 구조적으로는

어떠한 개방적 변이성도 보이지 않는다.

분석 <돌떡 먹는 호랑이>는 호랑이의 경직된 정신을 겨냥해서 풍자한 전형적인 해학적 오락물이다. 웃음은 호랑이의 경직된 정신에서 나온다. 그의 정신은 한마디로 미련함이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민첩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이다. 이 말 그대로 호랑이의 정신세계는 어리석고 둔하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작은 부분은 알고 더 큰 부분은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 것은 돌의 숫자가 열한 개라는 사실적 의미이고, 모르는 것은 토끼가 도망가기 위해 자신을 속인다는 맥락적 의미이다. 작은 부분은 사실적 의미이고, 더 큰 부분은 맥락적 의미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적 의미는 알고 맥락적 의미를 모르는 것을 미련함이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호랑이의 자기중심적 정신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다. 정신화에 도달함으로써 <돌떡 먹는 호랑이> 이야기는 마침내 아동의 정신 성장을 돕는 예술성 높은 동화가 된다.

특징 및 의의 <돌떡 먹는 호랑이> 에피소드는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에피소드나 <꼬리 잘린 호랑이> 에피소드와 함께 삼각구조를 이루면서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가운데 결국은 이들과 한 세트로 전승되는 에피소드이다. 세 개의 에피소드가 섞이지 않고 각자 완결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전승되는 것은 에피소드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두 에피소드와의 관계에서 <돌떡 먹는 호랑이>의 특징은 빨강계 달궈진 돌을 앞에 두고 혼자가 된 호랑이가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토끼가 설정한 상황 논리에 굴복하여 거둬 속는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한 개인의 자기중심적 정신성을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중적 논리 설정을 통해 보여준다. 중심성과 해체의 개념은 이 이야기의 의의가 권선징악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개념이 해체적이고 포스트모던한 현대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돌떡 먹는 호랑이> 민담은 오늘날 개념 동화 창작을 위한 예술적 원천으로서 그리고 현대인의 자기중심성 해체와 치유를 위한 치유의 원천으로서 그 가치와 의의가 인정된다.

참고문헌 토끼와 호랑이(이현진, 사계절, 2013), 한국 호랑이(김호근·윤열수, 열화당,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4, 942,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김기호(金基鎬)

동물 그리는 노래

어린이들이 동물 모양의 세부를 하나씩 차례대로 그리면서 그에 알맞은 노랫말을 붙여 부르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노래.

개관 <동물 그리는 노래>의 형식적 유형은 기능 민요로서 조형유희요 중 어린이들이 혼자서 하는 개인 놀이 손 유희에 속한다. 조형유희요에는 얼굴·사람·짐을 포함한 사물을 그리는 놀이 노래와 더불어 새·닭·곰·토끼·돼지·송아지·개구리·오징어·게·물고기·뱀·달팽이 등 다양한 동물을 그리는 놀이 노래가 있다.

내용 <동물 그리는 노래>는 동물의 모양에 따라 노랫말이 달라지며 놀이 주체인 어린이의 선호, 개인적인 차이, 시대와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동물 모양·노랫말·노래가 차이난다. <사람 그리는 노래>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얼굴만 묘사하는 것과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대별된다. 곰의 몸 전체를 묘사하는 놀이는 사람과 같이 팔·다리 묘사에 공통적으로 숫자 6을 사용하고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동물 그리는 노래> 중 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새>(노랫말: “조그만 뱀비에



콩을 볶아서 엄마는 두 그릇 아빠는 세 그릇 입으로 먹었더니 배가 볼록 앞다리가 뽕뽕 뒷다리가 뽕뽕”, 변형인 <새> <유치원 가는 참새>가 있으며 병아리·닭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고 소금쟁이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다리를 그리니 닭이 되었네”)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곰> (“요만한 봉지에 빵이 세 개 있고 아빠 찾아주세요 엄마 찾아주세요 육육에 삼십육 육육에 백두산”)과 변형인 <곰2>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네 보름달이 떴다 송편을 먹자 6월 6일은 피자 먹는 날 6월 6일은 산에 가는 날 곰이 되었네”), <곰돌이>가 있으며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와 <토끼1> (동요 <학교중> 개사곡) 및 <토끼얼굴> (동요 <산토끼> 개사곡: “동그런 접시에 기다란 귀 두 개 까만 콩 두 알 예쁜 토끼 얼굴”, <토끼누나> (동요 <풍당풍당>), <오징어> (“삼각산 밑에 우물이 두 개 두레박이 하나 ‘톡’ 두 개 ‘톡’ 울타리를 두러 말뚝을 박으니 오징어라네”), <개구리>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등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곰을 그리는 것이 널리 알려졌고 그 변형이 다수이다. <새>와 <병아리> 및 <닭>은 노랫말이 유사한 점이 특징이다. <토끼얼굴>은 창작 동요 <산토끼>의 개사곡으로 모양이 달라진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좋아하는 동물들이 묘사 대상으로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그림노래놀이 연구(조효임, 한국초등교육20-2, 서울교육대학교, 2010), 빼앗긴 정서·빼앗긴 문화·우리 놀이와 노래를 찾아서(홍양자, 다림, 2000), 표현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손유희 101가지(이승은, 동심, 2007),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박경수, 국학자료원, 1998), 한국 어린이가 부르고 있는 일본의 와라베우타(좌혜경,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좌혜경, 푸른세상, 2000),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3(박경수·서대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필자 조효임(曹孝姪)

동물 나이 자랑

동물들의 나이 자랑에서 두꺼비가 지혜로 승리했다는 내용의 동물우화(動物寓話) 성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토끼, 거북이, 두꺼비가 서로 만나서 나이 자랑을 했다. 제일 먼저 토끼가 자신은 천황씨(天皇氏) 때에 이 세상에 나왔다고 자랑을 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거북이는 자신은 천황씨보다 더 먼저인 반고(盤固) 때에 이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두 동물이 서로 나이 자랑을 하는 것을 듣고 두꺼비는 영영 울기 시작했

다. 토끼와 거북이가 우는 이유를 묻자 두꺼비는 한참 울다가 천황씨와 반고라는 말을 들으니 반고 때 죽은 아들과 천황씨 때 죽은 손자 생각이 나서 슬피서 그런다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크게 동물들이 하나의 내기만을 하는 기본형과 내기가 두세 번 반복되는 확장형으로 나누어진다. 확장형에서는 나이 자랑 말고 ‘언덕에서 떡시루 굴리고 아래에서 먼저 받기’ ‘키 자랑’ ‘술 못 마시기’ ‘햇빛 먼저 보기’ ‘강 건너기’ ‘달리기’ 같은 여러 가지 대결이 더해진다. 비록 기본형과 확장형을 통해 다툼의 방식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첨가되더라도 이야기의 초점은 변함없이 지혜를 이용한 약자의 승리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이 설화에 등장하는 동물은 대부분 셋이고 변이에 따라서는 둘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두꺼비, 토끼, 여우가 등장하여 대결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확장형에서는 변이에 따라 이야기 끝에 두꺼비의 생김새와 관련된 유래담이 덧붙이기도 한다.

분석

설화에서는 반복과 대립의 형식이 자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흔히 ‘3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의 반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 설화에서도 보통 세 동물이 등장하고 세 번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항상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존재는 마지막 동물이며 주로 두꺼비이다. 이는 대결에서 먼저 말한 동물보다 나중에 말한 동물이 앞에서 한 말을 듣고 유리한 조건에서 지혜를 발휘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인 두꺼비를 승리자로, 강자인 동물들을 패배자로 설정하여 꾀와 힘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 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권34 십송률(十誦律)』에서 제일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코끼리, 원숭이, 사막새가 등장하는데, 몽골이나 한국은 각각 그 민족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동물들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게다가 동물들이 다투는 음식도 한국은 떡인데, 몽골은 버터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불전(佛典)에서 기원한 동일한 설화가 한국과 몽골에서 어떻게 변이 전승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설화는 약자인 두꺼비가 지혜를 발휘해 강자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동물우화의 교훈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전소설인 <두견전>의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4, 490; 6-5, 45; 8-4, 49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95; 12, 56.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두껍전 연구(이성우,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몽 설화의 비교(윤승준, 비교민속학회, 2002),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이홍우(李洪雨)

문경 토끼비리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의 영강과 문경새재의 조령천이 만나 협곡을 돌아 흐르며 형성된 벼랑을 깎아 만든 길로 명승 제31호.

개관 문경 토끼비리는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오정산이 영강(潁江)과 연결하는 일대에 구불구불하게 6~7리나 이어져 있는 험한 벼랑의 석회암 암석을 인위로 절단하여 선반처럼 파낸 뒤에 조성한 길로, 500m가량의 인공 천도(遷道)이다. 비리는 벼랑의 사투리인데, 토끼비리는 토끼가 뛰어간 벼랑이라는 의미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험한 길이다. 현재의 지리관으로 보자면 문경 토끼비리는 문경새재를 넘어 조선시대의 문경읍내를 지나 현재의 문경시청 소재지로 가는 길에 위치하여 있다.

문경 토끼비리의 이칭으로는 관감천잔도(串岬遷棧道)와 토천(兔遷)이 있다. 전자의 관감천잔도는 관감(串岬), 즉 오늘날 문경시 마성면의 병풍바위를 가리키는 꼬지곶(串岬)의 벼랑(遷) 위에 조성해 놓은 사다리길(棧道)이라는 의미로, 단어의 표층적 의미로는 토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 후자의 토천은 토끼가 다니는 벼랑의 암석을 깎아 개설한 ‘토끼벼랑길’이라는 의미로, 단어의 표층적 의미부터 토끼와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내용 문경 토끼비리 유래담은 엄밀히 말해서 문경 토천 유래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29 문경현(聞慶縣) 관감천·토천(串岬遷·兔遷) 조를 참조하면 고려의 시조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진군하는 도중에 현재의 문경 토끼비리 때문에 길이 막혔는데, 때마침 토끼가 벼랑을 타고 달아나면서 행로를 열어준 덕에 진군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데서 토천이란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역사 영남대로 옛길 가운데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 문경 토끼비리는 길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경 토끼비리는 경북 8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경북 문경시 마성면 진남교반의 일부분으로, 주변 수림이 울창하고 봄이 되면 철쭉·진달래가 만발하여 ‘문경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의 명



문경 토끼비리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승지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주변에는 고모산성·고부산성·신현리고분군 등의 유적지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경현 관감천·토천 조를 보면 문경 토끼비리는 용연(龍淵)의 동쪽 언덕으로 토천(兔遷)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용연은 속리산·대야산·회양산 등지에서 발원한 가은천과 주흥산·조령산·대미산 등에서 발원한 조령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있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 『해동지도(海東地圖)』 『청구도(靑邱圖)』를 참조하면 토천의 이칭인 관감천잔도는 용연에서 발원한 영강의 이칭인 관천(串川)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확인된다.

문경 토끼비리의 이칭인 토천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로는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있다. 1801년 정약용이 유배지인 장기로 가는 도중에 문경 토끼비리에 이르러 영남 방어 요충지로서 토천이 지니는 지리적 중요성을 읊은 오언고시(五言古詩) 〈토천(兔遷)〉이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권4에 실려 있다. 〈토천〉의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험준한 지세가 문희까지 와서야(崎嶇抵聞喜/ 활짝 트여 평지가 나타나네(開豁見平地/ 산 나무들 검푸른 떨기에 가려 있고(山水隱叢黛/ 시내 새들 푸른 산 푸른 물에 떠 있구나(溪禽泛雙翠/ 누가 알랴 솜씨 좋은 조물주가(誰知大匠作/ 실컷 겹겹으로 늘어놓을 줄을(不厭重鋪置/ 깎아지른 절벽은 굽어 나가는 시내를 내려보고(截壁臨廻谿/ 아슬아슬 바위는 사람 위로 떨어질 듯(危石向人墜/ 하늘과 땅은 정오에도

캄캄해서二儀亭午黑/ 도끼비들 때를 지어 장난하네鬼魅森相戲/ 영남 칠십 고을을
 죽 벌여 놓되開張七十州/ 이곳은 단단하게 열쇠로 채워 두었구나管籥此嚴籴/ 옛
 날 삼국이 세발솔처럼 겨루다가三邦舊鼎足/ 신라가 끝내 뜻 이룬 것은雞林竟得志
 / 그 어찌 하늘과 사람만 도와서라豈唯天人助/ 좋은 지세를 아울러 차지했기 때
 문이었지重因獲地利

특징 및 의의 원래 '토끼비리'로 불리던 지명과 관련된 문경 토끼비리 유래담이 고려 태조 왕건의 인물담과 결합하였다.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며 한자 지명인 토천으로 지칭되었다. 이 결과가 문헌으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문경 토천 유래담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與猶堂全書, 靑邱圖, 海東地圖,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문화재청, 2009), 한국지명총람1~20(한글학회, 1966~1986), 한·중·일 명승 보존과 활용방안 자료집(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필자 권도경(權都京)

반달

윤극영이 작사·작곡한 동요.

개관 〈반달〉은 1924년 8월 어린이합창단 다알리아회 활동 시절 윤극영의 만누이 정순의 죽음과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한 동요로, 1924년 『어린이』 제2권 제11호에 처음 발표된 작품이다. 이후 〈반달〉은 독창회·강연·어린이라디오 등에 소개되었으며 『초등국어교본中』(1946)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제4차 교육과정 국어 및 음악 교과서 등에 실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되었다.

내용 윤극영尹克榮(1903~1988)은 1921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동양음악학교와 도쿄음악학교에서 작곡과 성악을 공부하게 된다. 그는 1923년 3월 방정환方定煥과의 만남 이후 어린이 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하였다. 같은 해 9월 관동대지진 이후 윤극영은 소격동 자택으로 돌아와 '일성당-聲堂'을 짓고, 그동안 창가만 부르던 어린이들을 위해 동요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초의 창작동요인 〈설날〉(『어린이』 1924년 제2권 1호)은 당시에 탄생한 노래이다. 1924년 8월에는 어린이합창단인 '다알리아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동요 창작 및 작곡을 시작하였다. 다알리아회 활동 당시 윤극영은 〈반달〉을 비롯해 〈고드름〉(작사

유지영), 〈따오기〉(작사 한정동) 등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이후 1926년에는 동요작곡집 『반달』을 발간하였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뭇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건/ 셋별 등 대란다 길을 찾아라”

윤극영의 회고에 의하면 서른여섯에 죽은 만누이의 슬픈 소식을 듣고 일성당에 있을 당시 오전에 하얀 조각달이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는 누이의 죽음과 대낮의 달과 나라 잃은 슬픔에 착안하여 〈반달〉을 창작하게 되었다. 당시 다알리아회 회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으며, 이후 악보를 인쇄하여 서울의 초등학교 선생들에게 부쳤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오늘날까지 대중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어린이』에 처음 실린 〈반달〉은 7·5조 2연 8행의 노랫말을 8분의 6박자로 천천히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 외로움의 매개물인 외판배, 계수나무, 토끼 등은 죽은 누이와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 윤극영은 〈반달〉을 통해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등대라는 희망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나라 잃은 시대의 질곡 속에서 한평생 어린이 문화운동과 동요 창작 보급에 생을 바쳤다. 스무 살에 색동회를 시작으로 다알리아회와 노래동무회 등에서 활동하며 1988년 작곡할 때까지 그가 남긴 동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삶의 위안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반달〉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온 민족의 동요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어린이(개벽사, 1924), 윤극영 전집1·2(윤극영·이향지, 현대문학, 2004), 초등국어교본-중(조선어학회, 군정청학무국, 1946), 한국 동요·동시 정전화 연구(최은경,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반달과 소파상 소파묘에서 제일회 시상을 마치고(경향신문, 1957.6.29.).
필자 정진현(鄭震憲)

범피중류

泛彼中流

〈심청가沈淸歌〉중 심청이 배를 타고 인당수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소리 대목.

개관 〈범피중류泛彼中流〉는 심청을 실은 배가 망망한 바다를 유유히 떠나가는데 해안의 절경이 펼쳐지는 내용이다. 송광록宋光祿과 전도성全道成의 더듬으로 알려져 있고, 고종 때의 서편제 명창 배희근도 잘 불렀다. 〈범피중류〉란 배가 물 한가운데로 떠간다는 말이다. 심청이 배를 타고 인당수로 가면서 지나가는 소상팔경 등의 장면과 이비 등 여러 혼령과 만나는 〈혼령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본에 따라 〈범피중류〉 다음에 소상팔경을 둘러보는 〈소상팔경가瀟湘八景歌〉가 나오는 것도 있다.

내용 김창룡金昌龍 명창에 의하면 〈범피중류〉는 송광록이 5년간 제주도에서 소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만경창과를 바라보며 감개무량한 회포를 진양조장단으로 읊은 것이라고 하며, 진양조장단은 이로부터 유명해졌다고 한다.

현재의 창본은 진양 우조로 부르지만 초기 심청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범피중류〉의 초기 형태는 박순호 28장본과 같이 ‘강상풍경—심청의 탄식—갈까마귀와 귀족도의 심청 위로—기러기와 청조에게 하는 심청의 부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순호 19장본과 박순호 48장본도 이와 유사하다. 후대에 형성된 〈소상팔경〉이나 〈범피중류〉와 달리 〈강상풍경〉은 간략하고, 오히려 갈까마귀와 귀족도가 나타나 심청의 죽음을 위로하며, 심청은 기러기와 청조에게 죽은 딸을 생각 말고 만세무량과 안향장수를 부친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길게 부연되어 있다. 특히 새들이 등장하여 심청의 비극적 처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어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사재동 44장본, 박순호 57장본, 완판 71장본과 같이 일부 심청가에는 초기 심청가와 현재 부르고 있는 〈범피중류〉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소상팔경가〉가 존재하고 있다. 〈소상팔경가〉는 김종철 낙장 53장본, 완판 41장본, 완판 71장본에 〈범피중류〉에 이어 나오므로 19세기 중엽에 소리 대목으로 불렸던 것이 분명하다. 소상야우瀟湘夜雨, 동정추월洞庭秋月, 원포귀범遠浦歸帆, 평사낙안平沙落雁, 강천모설江天暮雪, 산시청랍山市晴嵐, 어촌낙조漁村落照, 연사만종煙寺晚鍾 등 소상팔경을 묘사하고 있다. 〈소상팔경가〉는 심청이 유람을 나와 사방의 경치를 완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심청가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데, 〈범피중류〉와 한동안 경쟁하다가 일부 혼적만 남기고 소리 대목에서 탈락하였다. 뒤에 정춘풍에 의해 다듬어져 단가〈소상팔경가〉로 널리 불렸다.

〈범피중류〉는 배의 출발과 물결치는 장면, 백빈주 갈매기와 삼강의 기러기, 노 젓는 소리에서 느끼는 수심, 가태부(장사)·굴원(떡라수), 최호(황학루)·이백(봉황대)·백낙천(심양강)·소동파와 조조(적벽강)의 회상, 한산사의 종소리, 상녀들의 후정화, 소상강의 악양루·동정호·황릉묘·삼협의 풍경 등으로 짜여져 있다. 문학적으로 세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청가의 문맥에 잘 어울린다. 현재의 창본에서는 모두 진양조장단으로 부른다. 〈소상팔경가〉의 정지된 공간과는 달리 ‘지내가니’, ‘당도하니’ 등의 서술어를 통해 공간의 이동이 확연하게 이루어졌고, 유명한 한시 구절을 인용하여 옛 시인들의 무상한 자취를 심청의 눈을 통해 더듬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죽음을 앞둔 심청의 수심을 응축적으로 형상화하여 높은 서정성을 획득하였다. 적절한 한시구의 인용을 통해 심청의 수심을 객관화함으로써 지나치게 애상적인 분위기를 완화한 것이 양반층의 기호에 부합되어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혼령대목〉은 심청이 인당수로 가는 길목에서 한을 품고 죽은 이비·오자서·초희왕·굴원의 혼령을 만나 그들의 원정을 듣고, 효성에 대해 칭송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박순호 19장본과 박순호 48장본처럼 초기 심청가에서는 심청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이본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의 수가 다른데, 김종철 낙장 54장본·완판 71장본·김연수 창본·정권진 창본 등에서는 이비·오자서·초희왕·굴원이 등장하고 이선유 창본은 이비만 등장하여 가장 간략하다. 김종철 낙장 54장본에는 진양조장단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창본에는 모두 중머리장단으로 되어 있다.

〈혼령대목〉에 이비·오자서·초희왕·굴원의 혼령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죽음이 대부분 물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당수에서 죽어야 하는 심청의 처지와 동일하고 혼령들이 보인 생전의 열렬과 충성이 심청의 효행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령대목〉은 원혼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초기 심청가와 같이 심청의 환세 장면에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대의 심청가에서 인당수 투신 직전으로 옮겨지고 혼령들의 호소 내용도 다소 달라진 것은 모두 심청의 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신재효申在孝는 〈혼령대목〉을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 이비·굴원·오자서의 혼령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심청에게 황후가 될 것이니 황후가 된 후에 훌륭하게 내조하여 이 세상을 태평성대가 되게 하고, 간신의 참소를 듣지 말고 충신을 잘 거두어 만세기업을 누리라고 한다. 신재효의 개작은 임금의 실덕失德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황후가 될 심청에게 부탁할 법한 것이므로 내용상 합리성을 획득하였다.

특징 및 의의 <범피중류>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대목으로 인식되어 있을 만큼 판소리의 기교적인 음악 어법이 망라되어 있어 심청가의 눈대목으로 꼽히고, 토막소리로 부를 때에 자주 선택되는 대표적인 레퍼토리이다. 초기 심청가에서는 <범피중류> 자리에 갈까마귀, 귀촉도, 기러기, 청조 등이 등장하여 심청이 인당수의 제수로 가는 비극적인 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혼령대목>은 초기 심청가에서는 심청이 용궁에서 세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나오는데, 후대의 심청가에는 심청이 인당수로 가는 도중에 나온다. 신재효는 심청이 용궁에서 세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나오는 것으로 개작하였다.

심청가의 <범피중류>와 <혼령대목>은 수궁가에 수용되었는데, <범피중류>는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수용되어 있고, <혼령대목>은 의 토끼가 용궁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대목에 수용되어 있다.

심청가의 <범피중류>와 <혼령대목>은 수궁가에 수용되었다. 수궁가에 두 대목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라는 공간적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범피중류>는 별주부가 토끼를 피어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목에 나온다. <혼령대목>은 토끼가 용궁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육지로 돌아오는 장면에 나오는데, 이병기본처럼 심청가의 <혼령대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궁가의 맥락에 맞게 간략하게 축약하고 있다. 신재효는 “특기가 나올 적의 이비 숨여 보단 말은 아마도 망발인게 김싱은 김싱끼리 스람 말을 비러다가 서로 문답하려니와 스람이야 김싱 보고 무슨 말을 하겠나냐.”라고 선행 이본의 지평을 비판하고, 새타령으로 개작하여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참고문헌 수궁가의 범피중류 연구(김석배, 문학과학어15, 문학과학어연구회, 1994), 심청가 강상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박일용, 판소리연구8, 판소리학회, 1997), 심청가의 범피중류 연구(김석배, 문학과학어14, 문학과학어연구회, 1993), 심청전 연구(유영대, 문학아카데미, 1989), 심청전 전집1~3(김진영 외, 박이정, 1997), 조선창극사(정노식,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필자 김석배(金奭培)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탐욕적인 호랑이가 피돌이 토끼에게 속아 불에 타 죽는 바보 호랑이 설화.

역사 한국 상징문화에서 호랑이와 토끼는 대표적으로 짝을 이루는 대상이다. 민화 <이묘봉인도二卯奉眞圖>에서는 토끼가 담배 피우는 호랑이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이는 첫째 달을 차지한 호랑이를 둘째 달이 된 토끼가 축하해 주는 것이다. 이때의 호랑이와 토끼는 호혜적인 짝을 이룬다. 반면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

이> 민담에서 호랑이는 듀프Dupe이고 토끼는 트릭스터Trickster이다. 둘의 관계는 적대적이다. 신화적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역사적 전개에서 민담은 민화와 달리 이 둘의 피바름과 어리석음의 선명한 대비와 관계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성장을 돕는 깨달음의 동화로서 위상을 획득한다.

줄거리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야기의 시작점을 이루는 단초는 호랑이의 ‘배고픔’이다. 호랑이가 숲에서 친구 토끼를 보는 순간 우정이 아닌 배고픔을 먼저 떠올리고 그와 동시에 평화롭던 이 숲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호랑이는 토끼를 보고 막무가내로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한다. 토끼는 같은 숲에 사는 이웃이니 호랑이에게 우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순간만은 불한당의 협박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사실 토끼는 호랑이가 배고픔의 집착에 빠지면 모든 사리분별력을 잃고 마는 바보가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만큼 이 위기가 사실은 위기가 아닌 또 다른 놀이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직감한다. 토끼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매우 매혹적인 제안을 한다. “나는 작아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니 새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이다. 이 말에 호랑이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가 마비된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눈을 딱 감고 덩불 속에 앉아 곧 입으로 들어올 새를 상상한다. 그 사이 토끼는 호랑이가 앉아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빙 둘러 불을 지른다. 토끼는 새를 모는 척하면서 “우여우여” 하고 소리친다. 불은 거침없이 숲을 태우고 “탁탁” 타는 소리를 낸다. 바람은 새를 호랑이가 앉아 있는 곳으로 날려 보낸다. 호랑이는 “탁탁” 타는 소리를 새가 자기 입으로 날아오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또 바람을 타고 온 새를 느끼는 순간 드디어 새가 자기 곁으로 날아온다고 상상한다. 호랑이는 큰 입을 더욱 크게 벌리고 작지만 큰 행복감에 젖어 곧 새가 입속으로 속속 들어올 것을 기대한다. 숲의 불이 호랑이를 곧 덮치는 순간에도 호랑이의 기대는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 호랑이는 마침내 불에 타 죽는다.

변이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바보 호랑이와 피돌이 토끼의 만남, 바보 호랑이의 속기와 피돌이 토끼의 속이기, 불을 이용한 토끼의 위기 탈출과 과한 욕망으로 인해 불에 타 죽는 호랑이의 비극 등으로 이루어진 이항 대립적 구조는 매우 논리적으로 탄탄히 결속되어 있다. 다만 이 에피소드가 다른 에피소드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변이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돌떡 먹는 호랑이> 에피소드나 <꼬리 잘린 호랑이> 에피소드와 일정한 순서 없이 결합되는 양상이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호랑이

를 불고기로 만들어 버린 토끼가 이웃집 할머니를 속여 칼과 도마를 빌려서 호랑이 고기를 먹는 에피소드이다. 후자의 에피소드는 또 하나의 완성도 높은 트릭스터 토끼 이야기로 발전한 예이다.

분석 바보 호랑이의 경직된 정신세계의 해체를 겨냥한 전형적인 풍자적 웃음의 오락물이다. 호랑이가 배고픔 해소라는 달콤한 유혹의 상자에 갇히는 순간 그의 모든 판단은 경화된다. 호랑이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외부의 정보를 배고픔 해소의 기호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호랑이와 토끼 캐릭터의 개별성은 꾀돌이와 바보의 개념으로 선명하게 수렴된다. 모든 시간과 공간도 일반성으로 추상화된다. 마침내 모든 개별성은 사라지고 호랑이의 자기중심적 정신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정신화에 도달함으로써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이야기는 마침내 아동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예술성 높은 동화가 된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가 불을 무서워하게 된 에피소드는 호랑이가 불에 타 죽는 것으로 완결된 닫힌 구조이다. 이 구조의 의미는 호랑이의 어리석은 정신세계와 이것의 비극적 결말과 관련된다. 고착된 정신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이것이 또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과 연결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정신세계의 연성화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을 넘어 해체적이고 포스트모던한 사유와 맞닿는다. 이 이야기는 아동 동화이자 성인 동화로서 현대 예술적 재해석의 보고가 된다.

참고문헌 토끼와 호랑이(이현진, 사계절, 2013), 한국 구전설화-경상남도1(임석재, 평민사, 1993), 한국 호랑이(김호근·윤영수, 열화당, 1995),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묘봉인도 이야기(세계일보, 2011.1.7.),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김기호(金基鎬)

산토끼

강소천이 작사하고 권길상이 작곡한 동요.

개관 <산토끼>는 1950년대 후반 강소천姜小泉(1915~1963)이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 심의 및 편찬위원으로 있던 시기에 작사한 동요로 추정된다. 1960년 권길상權吉相(1927~2015)이 곡을 붙인 이후 제3차 교육과정(1973.3.~1981.1.) 1학년 음

악 교과서와 국어 교과서에 실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되었다. 강소천 전집과 권길상 동요곡에는 <산토끼>로, 제3차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에는 <토끼야>로 소개되었다.

내용 강소천은 1931년 『신소년』을 비롯한 아동잡지에 동요·동시를 발표하면서 아동 문단에 발을 디게 된다. 1941년에는 그간의 작품을 모아 첫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을 발간한다. 1951년 월남 이후 1963년 작고하기까지 동요 및 동화 창작 외에도 1951년 문교부文敎部 편수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 및 심사위원, 1952년 월간 『어린이 다이제스트』의 주관을 맡았다. 그리고 1953년 한국문학가협회 아동문학분과위원장, 1959년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 심의위원과 국정교과서 편찬위원, 1960년 아동문학연구회 회장, 1961년 문교부 우량 아동도서 선정위원, 1962년 한국문학가 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아동문학의 성장과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토끼야, 토끼야, 산 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며는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며는 무얼 먹고 사느냐?/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 놓/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강소천 아동문학 전집 『조그만 하늘』

강소천이 처음 발표한 <산토끼>의 실증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1960년 9월 음악예술사에서 발간한 권길상의 동요곡 제3집 『봉숭아』에 수록된 <산토끼>가 최초이다. 또한 강소천 사후 1963년 8월 배영사에서 발간한 강소천 아동문학 전집 『조그만 하늘』에 두 번째로 실려 있다. 작곡가 권길상은 안길상과 함께 1945년 12월 ‘봉선화동요회’를 만들고, 무학여고와 이화여중에서 교편을 잡은 1958년에 ‘진달래회’를 만들어 동요를 보급하고 음악을 가르친 음악교육자로, 강소천의 <스승의 은혜> 또한 작곡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산토끼>는 겨울날 먹을 것이 없는 토끼를 걱정하는 화자의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 놓은 먹이가 있어 걱정이 없다고 토끼가 응답하는 문답법 형식으로, 아이들의 물활론적 사고物活論的思考를 사랑과 동심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산토끼>는 4분의 4박자로 아이들이 경쾌하고 발랄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강소천은 나라 잃은 시기를 거쳐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말과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하였다. 자연에 대한 애정과 밝음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알려주고 순수한 동심을 심어주고자 하였

다. 권길상 또한 평생 동요를 작곡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한글 교육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들의 노고로 <산토끼>는 오늘날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930년대 강소천의 동요·동시에 나타난 동심성(강정구·김중희, 현대문학의 연구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강소천 아동문학 전집 조그만 하늘(강소천, 배영사, 1963), 봉숭아 권길상 동요곡 제3집(권길상, 음악예술사, 1960), 한국 동요·동시 정전화 연구(최은경,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맑고 푸른 꿈의 선율 강소천 저 아동문학전집(경향신문, 1964.12.9.), 아동문학계의 거목 심혈 기울인 선집도 못 본 채 강소천씨 별세(경향신문, 1963.5.7.).

필자 정진현(鄭震憲)

산토끼

이일래가 작사·작곡한 동요.

개관 1925년부터 경상남도 마산 창신보통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일래(1903~1979)가 1928년 경남 창녕군 이방공립보통학교 훈도교사로 발령 받은 후 지은 동요로, 1938년 『조선동요작곡집』에 처음 실렸다. 1975년 조선동요작곡집이 발견되기 전까지 작가 미상으로 교수요목기와 1차 교육과정(1954.4.~1963.2.) 1학년 음악 교과서 그리고 이후 국어·음악 교과서에 실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되었다.

내용 이일래는 나라를 잃은 시기에 창가 교육을 받던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동요를 작사·작곡하여 가르쳤다. <산토끼>도 이방공립보통학교 어린이들에게 직접 풍금을 치면서 가르친 동요 중 하나이다. 동요 창작 배경과 관련하여 작가에 따르면 1928년 어느 가을날 어린 딸 명주를 안고 고장산(高長山) 기슭에 누워 하늘을 보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겁 없이 숲속에서 뛰어나왔다고 한다. 이 토끼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동요를 지었고, 이를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산토끼 토끼야 너 어디로 가나/ 깡충깡충 뛰어서 너 어디로 가나/ 산고개 고개를 나 넘어서/ 토실토실 밤송이 주우러 간단다” 『조선동요작곡집』

1938년 이일래의 첫 작곡집인 『조선동요작곡집』이 출간되자 12월 27일에는 마산교회 기독교청년면려회와 마산음악협회 주최로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산토끼>의 가사 중 ‘밤송이’는 ‘알밤’으로 개사가 되어 현재까지 어린이들에게

불리고 있다. 이는 1920년대 후반 동요의 성장기 및 나라를 잃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대중화되었다. 이일래가 작곡하기 전인 1978년 12월 창녕군 이방초등학교에 산토끼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산토끼>는 4분의 2박자 곡으로 천진스럽게 부르도록 작곡되었다. 또한 문답법 형식과 음성상징어 등 재미있는 표현과 평이한 멜로디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일래의 『조선동요작곡집』을 통해 나라를 잃은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을 알리고 순수한 동심을 심어주고자 한 그의 노고와 동요관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일래 동요 연구(김봉희, 지역문학연구3,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8), 이일래의 조선동요작곡집 연구(이지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선동요작곡집(이일래, 조선기독교서관, 1938), 한국 동요·동시 정전화 연구(최은경,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일래 작곡 기념식 마산지청·음협 주최로(동아일보, 1938.12.28.), 조선동요작곡집(동아일보, 1975.6.13.).

필자 정진현(鄭震憲)

상좌다툼

〈수궁가(水宮歌)중 온갖 짐승들이 상좌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대목.〉

내용

〈상좌다툼〉 대목은 ‘날짐승 상좌다툼—길짐승 상좌다툼—호랑이 횡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짐승 상좌다툼〉 대목은 이후 전개되는 〈길짐승 상좌다툼〉 대목과 의미상으로 중복되는 대목으로, 현전 판소리 사설 중 임방울·김연수·정광수·박초월·정권진·박동진 창본에서만 나타난다. 판각본이나 필사본에서도 이 대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극히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성준제 수궁가를 계승한 정광수 창본은 ‘봉황의 어른 자랑(중모리장단)—까마귀의 어른 자랑(엇중모리장단)—부엉이의 까마귀 힐난(늦은자진모리장단)’으로 짜여 있으며, 다른 이본들도 구성이나 사설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날짐승 상좌다툼〉에서는 상좌(上座)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상좌를 다투기 때문에 다툼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조선 후기 우화소설이 쟁년형(爭年型)과 송사형(訟事型)으로 나뉘는 것으로 볼 때, ‘상좌다툼’이라고 하는 소재는 조선 후기 소설에서 흥미 요소 중 하나였다. 수궁가 역시 이러한 흥미 요소를 받아들여 사설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날짐승 상좌다툼〉은 우화 소설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인 『장끼전』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

이다. 장끼전에는 홀로된 까투리를 두고 많은 날짐승들이 구혼하며 다툼을 벌이는데, 부엉이·까마귀 등은 『장끼전』에 등장하는 동물과 동일하고 사설 역시 매우 유사하다.

‘모족회의毛族會議’라고도 불리면서 <상좌다툼> 대목의 핵심에 해당하는 <길짐승 상좌다툼>은 현전하는 모든 창본에 들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길짐승 상좌다툼>은 두꺼비가 상좌를 차지하는 계열과 호랑이가 상좌를 차지하는 계열로 나뉜다. 이선유 창본은 너구리(늦은중모리장단)—멧돼지(중중모리장단)—토끼(늦은중모리장단) 순으로 나이 자랑이 전개되고 호랑이가 등장하기는 하나 호랑이의 나이 자랑이 나타나지 않는 등 비교적 소략하다. 정광수 창본은 노루(평중모리장단)—너구리(진양조장단)—멧돼지(중중모리장단)—토끼(중중모리장단)—호랑이(중모리장단)의 나이 자랑으로 짜여 있으며, 박봉술·박동진·정권진 창본 등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김연수 창본은 나이 자랑 뒤에 신재효 개작본의 <사냥개 대책 회의의 사실>이 거의 그대로 삽입되어 있다. 임방울 창본은 <노루와 너구리의 나이 자랑>이 중중모리장단 하나로 되어 있고, 이선유 창본과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등장하기는 하나 호랑이의 나이 자랑은 보이지 않는다. 박초월 창본은 다른 창본들과는 달리 ‘노루—너구리—토끼—멧돼지’ 순으로 나이 자랑이 전개되고 호랑이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신재효 개작본은 기린의 양보로 호랑이가 당연히 상좌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길짐승 상좌다툼>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사냥개 대책 회의’가 들어 있다.

두꺼비가 상좌를 차지하는 이본은 현전 판소리 사설에서 심정순 창본뿐인데, 호랑이와 두꺼비의 상좌다툼이라는 상황은 조선 후기 우화 소설인 『두껍전』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껍전』에서는 이러한 대결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여우와 두꺼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반해, 심정순 창본에서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산군山君인 호랑이와 두꺼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두껍전』의 상좌다툼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같은 동질 집단 내의 갈등이라면, 심정순 본에서는 계급 간의 상하 갈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자인 두꺼비가 지혜로 호랑이를 이긴다는 것은 지혜담의 대표적인 구도로서 현실적인 질서를 부정하고 약자인 피지배 계층 나름의 기준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모족들이 상좌를 정하고 하는 이유는 모임의 질서를 찾기 위한 것으로 거의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모임의 성격은 ‘회의’인 경우와 ‘잔치’인 경우로 나뉜다. 가람본 『별토가豨兔歌』에서 모임의 이유가 ‘회의’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모임의 성격이 후대로 올수록 ‘회의’에서 ‘잔치’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다. “옹구지게 논다.”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걸판지게 놀아보자는 축제적 분위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으며, 수궁가가 흥미 위주로 사실이 변개되어 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아니리로 전개되는 <호랑이 횡포>는 호랑이의 횡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길짐승 상좌다툼>에서 호랑이가 위용으로 다른 짐승들을 겁주어 상좌를 차지하는 것도 일종의 횡포라 할 수 있지만, <호랑이 횡포>에서는 다른 짐승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더 심각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신재효 개작본에서는 이 부분이 구체성을 띠면서 대폭 확장되어 있다. “시속에 비하면 산군은 수령 같고 여우는 간물출패, 사냥개는 세도아전, 너구리 멧돼지며 쥐와 다람쥐는 굶지 않는 백성이라.”라는 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산군인 호랑이가 직접 나서서 다른 동물들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가 중간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꿈은 호랑이의 횡포와 수탈을 인간사에 직접 비유하고 있는데, 산군인 호랑이는 부정한 수령의 모습으로, 여우는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못살게 구는 아전의 모습으로, 다람쥐와 쥐 등은 당대 수탈의 대상이었던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다.

김연수 창본은 신재효 개작본의 사실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이 대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심정순 창본처럼 두꺼비에게 상좌를 빼앗긴 호랑이가 상좌를 못할 바에 있는 것이 망신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선유 창본과 정권진 창본처럼 호랑이가 횡포를 부리는 구체적인 모습 없이 호랑이가 요깃감을 찾는다는 간략한 서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박봉술 창본은 호랑이가 다른 짐승들을 희생하여 자신의 구복을 채우려는 모습과 희생당하는 동물들이 한탄하는 모습이 대화로 전개되는데, 임방울 창본과 박동진 창본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박초월 창본은 멧돼지의 나이 자랑으로 <길짐승 상좌다툼>이 끝나고 있어 아예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정광수 창본은 “내가 먹고 싶은 입맛을 좀 참으면 아니 좋으랴.”로 호랑이를 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상좌다툼> 대목은 이후에 전개되는 토끼의 수난과 극복이 토끼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대목이 없다면 토끼의 수난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만, 상좌다툼과 함께 다른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고난의 대상은 호랑이에게 수탈당하는 동물들로 확대된다. 토끼가 당하는 수난은 곧 약한 동물들이 당하는 수난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써 호랑이의 위협과 핍박은 토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 전체의 문제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다.

수궁가에서 대립과 갈등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은 <어족회의>

대목과 <상좌다툼> 대목이다. ‘어족회의’와 짝을 맞추어 ‘모족회의’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족회의>에서는 지배층의 무능과 지배층 내부의 알력과 갈등을 드러내어 분열된 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상좌다툼>에서는 중세 지배 질서의 혼란과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성장한 서민 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 난亂을 거치면서 당대를 지배하던 체제의 허구성 드러나고 그러한 불평등 체제가 서민들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지배 계층의 차별과 횡포에 반발하게 된다. 즉 작품에서 지혜 대결을 통하여 지배 계층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여태까지는 당연한 틀로 여겨왔던 지배 체제에 ‘연치’라는 서민들 나름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지배층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치를 중시하던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상좌다툼>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당대 사회의 인물형을 대변함으로써 수탈과 억압이 가득 찬 사회 현실 고발과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부정을 통해 지배층에 대한 대결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편, 민속원,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필자 김동건(金東建)

수궁가

水宮歌

토끼와 별주부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 하나.

개관 <수궁가(水宮歌)>는 <구토지설(龜兔之說)>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 청병을 하러 간 김춘추가 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마목령(麻木嶺)과 죽령(竹嶺)을 둘러달라는 보장왕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신하가 국가의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때 보장왕이 총애하는 선도해라는 사람이 김춘추를 찾아온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착하였을 때, 선도해에게 청포(靑布) 삼백 필을 바친 바 있었던 것이다. 선도해가 술을 마시면서 해 준 이야기를 듣고 김춘추는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고구려를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도해가 김춘추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구토지설>이다.

수궁가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구토지설>은 인도 본생설화(本生說話, Jātaka)나 『육

도집경(六度集經) 등의 불전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던 때의 이야기인 본생설화는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 그 기원이 소급될 수 있는데, 이후 불교의 전파와 함께 많은 불교 정전이 한역된다. 이들 불전설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구토지설> 같이 문헌설화로 정착되거나 구비설화로 구전되다가 판소리 수궁가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궁가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발생 및 형성기로 잡는다. 초기 수궁가는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 채 여러 민간 연회 속에 혼재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내용도 단순·간결한 토끼의 지략담 위주였을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르면 수궁가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광대로 꼽히던 송흥록과 염계달은 <토끼 배 가르는 대목>과 <토끼가 별주부에게 욕하는 대목>을 각각 잘 불렀다고 하는데, 이들이 수궁가에 특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수궁가가 인기 있는 판소리 레퍼토리의 하나로 널리 불렸음을 시사한다. 판소리가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어 음악적으로 세련되어 갔으며 지식층의 참여로 내용적 주제적 변화를 급격히 가져온 것도 이 시기였다. 19세기 중엽에서 말엽, 신재효(申在孝)는 <토별가(兔龜歌)>라는 이름으로 수궁가를 개작하지만 신재효의 사설 개작은 지나치게 음악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제 창으로는 불리지 못하였고 전래의 수궁가가 거의 그대로 전승되었다. 20세기에 넘어와 이선유(李善有)는 신재효의 여섯마당에서 <변강쇠타령>을 제외한 다섯마당만을 전하면서 수궁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정리기 또는 보존기라 할 수 있다. 수궁가는 특정한 창자 계열의 고정된 창본으로 화석화되어 가는 한편, 방각되거나 혹은 한문본화되면서 독서물로서도 독자층을 확대함으로써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현재까지 전하는 수궁가(『토끼전』) 이본은 창본, 판각본, 필사본, 활자본을 망라하여 약 12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명칭도 수궁가, 『토끼전』 『별주부전』 『토의간』 『불로초』 『토별산수록』 『별토문답』 『수궁용왕전』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본간의 편차 역시 다른 판소리 작품에 비해 큰 편이다.

가람본 『별토가』 계열은 전 시기 창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중산망월전』 계열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데, 『중산망월전』 계열은 ‘우생원 만남’ ‘암자라 동침’ 등의 삽화가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궁가 계열은 현재 판소리로 연행되는 수궁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신재효본 계열은 신재효에 의한 개작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작품군이다. 경판본 계열은 매우 간략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암토끼 등장’ 등 독특한 삽화가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전 수궁가 사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가람본 『토끼전』 계열은 주로 한문본과 활자본이 이에 속한다.

여섯 계열 가운데 가람본 『별토가』·신재효본 계열 『수궁가』 계열은 창본이거나 창본에 밀착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경판본 계열 『중산망월전』 계열·가람본 『토끼전』 계열은 소설본에 밀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수궁가는 송흥록에서 비롯되는 동편제와 박유전으로 시작되는 강산제 두 계열로 전승되고 있다. 송흥록으로부터 비롯되는 동편제 수궁가는 이선유제·송만갑제·유성준제가 있는데, 이 중 이선유제는 현재 전승이 끊어진 상태이다. 송만갑제는 박봉래—박봉술을 거쳐 송순섭 명창에게 전승되고 있고, 유성준제에는 정광수바디, 임방울바디, 김연수바디, 박동진바디가 있다. 정광수바디는 박초월을 거쳐 남해성, 최난수, 김수연으로 전승되고 있고, 임방울바디는 강도근, 조통달로 전승되고 있다. 김연수바디는 김연수·오정숙을 거쳐 고향임, 이일주로, 박동진바디는 김양숙에게 전승되고 있다. 박유전부터 시작되는 강산제 수궁가는 정재근—정응민—정권진을 거쳐 정희석에게 전승되고 있다.

내용 수궁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해 용왕이 갑자기 병이 나 백약이 무효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중,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일러준다. 용왕은 수궁 대신을 모아놓고 육지에 나갈 사자使者를 고르는데 서로 다투기만 할 뿐 약을 구하러 가겠다는 신하가 없다. 이때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여 별주부는 토끼화상을 가지고 육지에 이르게 된다. 자라가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하자 여기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가게 된다.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 앞에서 그제야 속은 것을 안 토끼는 피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토끼를 크게 환대하면서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자라는 토끼똥을 약으로 가져가 용왕을 살리고, 토끼는 그물 위기·독수리 위기를 차례로 극복하고 육지에서의 삶을 영위한다.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실려 있는 송흥록宋興祿의 일화에는 수궁가의 성격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송흥록의 연인이었던 맹렬이 진주 병사 이경하에게 가버리자, 송흥록은 맹렬을 찾아 진주로 갔다가 이경하의 부름을 받고 소리를 하게 된다. 이때에 맹렬은 송흥록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여 이경하에게 “송씨를 불러 소리를 시키되 분부하시기를 너는 본래 명창이니 네가 소리를 하는데 능히 나를 한번 웃게 하고 또 한 번 울게 하면 상급을 후히 하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네 목숨을 바치리라 하시고 소리를 맛삭 마른 토별가를 시키라.”라고 하였다. 이에 송흥록은 목숨을 걸고 소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진주 병사 이경하를 한번 웃게 하고 한 번 울게 하여 맹렬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판소리의 묘미는 창자로 하여금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이었으나, 수궁가는 능히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맛삭 마른’ 어려운 소리였다. 즉 수궁가는 다소 메마른 듯하면서도 진중하고 음악성이 뛰어난 대목이 많아, 경지에 이른 창자들이라야 소화할 수 있는 까다로운 소리이며, 이로 인하여 수궁가는 〈소적벽가小赤壁歌〉라는 이름을 얻고 있기도 하다.

수궁가의 두드러지는 구조적 특징으로 반복 구조와 대립 구조를 들 수 있다. 작품의 공간은 ‘수궁→육지→수궁→육지’로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공간의 변화와 함께 사건 전개 또한 위기와 극복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용왕과 자라로 대표되는 세계는 강자, 즉 통치자·지배자의 세계이고, 토끼와 여우로 대표되는 육지 세계는 약자, 즉 서민층·피지배층의 세계로, 수궁가의 인물(동물)과 그 동물이 의미하는 세계 또한 ‘강자’와 ‘약자’의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북이·고래 등 어류와 패류들이 등장하는 어족회의와 호랑이를 비롯한 너구리·다람쥐 등 짐승들이 등장하는 모족회의는 각각 관료 사회와 향촌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조선 후기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대립 구조의 중심에는 지략담이 자리하고 있다. 위기 극복 지략담, 유혹 지략담, 쟁장 지략담과 같은 무수한 지략담이 반복되면서 반전을 거듭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작품 전체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대립과 반복 구조는 긴장의 고조와 흥미의 유발, 그리고 쾌감 충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작품의 극적 효과를 점층적으로 고양시키고 있다.

수궁가의 대립 구조는 작품의 갈등을 심화시켜 긴장을 강화함으로써, 풍자와 해학이라는 미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수궁가는 비장미가 다른 판소리 작품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 대신 그 자리에 날카로운 풍자와 골계가 놓여 있다. 병든 용왕과 어족회의의 무능한 신하들을 통하여 봉건 질서를 비판하고 있으며, 약한 백성을 희생시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려는 용왕의 추한 모습과 부패한 권력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어리석은 별주부를 통해서도 정치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용왕의 약을 구하는 장면에서 “양기가 부족헌가 해구신도 권해보고”라고 한다든지, 용왕이 만조 입시하는 광경을 보고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 도물주가 되얏구나.”라고 한다든지, 주부가 마누라를 하직할 때 충신의 부인됨을 한참 칭찬한 뒤에 “그 의뭉한 남생이란 놈이 염려되네. 그렇지만 남생이가 생기기는 나하고 똑같지만 거드랑이에서 노랑내가 나. 그러니 부디 조심허소.”라고 하는 등 작품 전반에 골계미를 배치해 놓고 있다. 이처럼 수궁가는 작품 전반에 걸쳐 해학과 함께 풍자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봉건국가의 통치 질서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수궁가는 조선 후기 서민 의식의 성장과 함께 용왕과 자라가 대변하는 봉건

제도와 유교 이념을 부정·비판하는 한편 토끼로 대변되는 서민(민중)들이 봉건적 억압에 대처하면서 개인과 자유를 발견하고 있는 근대 지향적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수궁가에는 충에 대한 권장이나 찬양, 봉건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에 대한 풍자 외에 다양한 결말을 보여주며, 국가에 대한 충과 풍자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작품도 많다. 18세기 중엽, 이유원李裕元은 어족회의를 어리석은 것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같은 시기의 송만재宋晩載는 자라의 충을 강조하고 토끼의 지략을 '요설'로 깎아내리면서 '용왕을 우롱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궁가는 당대에도 한 방향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작품이다.

조선 후기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이행기적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별주부는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용왕과 함께 매도되는 부정적 인물이 아니라 당대인들에게는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받던 존재이다. 별주부와 토끼의 대립은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국가에 대한 충과 개인의 자유라는 봉건적 이념과 근대적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중세 봉건 해체기에 몸담고 있던 두 인물이 각각 선택한 서로 다른 방향의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토끼와 별주부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이라는 이념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혁신과 보수라고 하는 두 이념의 갈등과 양가적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등장인물

수궁가는 용왕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두 인물, 즉 토끼와 별주부의 대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갖 병에 걸린 용왕이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국가,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별주부와 토끼의 대립은 무너지가는 봉건국가를 바라보는 상반된 태도를 우언적寓言的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허황된 꿈을 꾸다든가, 용궁에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 등에서 토끼는 경박하고 유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토끼가 수궁행을 결심하는 것은 고난에 찬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용왕의 요구를 거부하고 용왕을 조롱하여 희화화시키고 있는 토끼는 용왕으로 표상되는 봉건 체제를 부정하고 인간성의 해방, 개인의 자유를 꿈꾸는 근대적인 시민 의식의 성장을 대변하고 있다. 즉, 토끼는 조선 후기 서민의 고난에 찬 삶과 의식의 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왕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육지행을 단행하는 별주부는 자신의安危만 생각하는 무능한 신하들과 대비되는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토끼를 놓친 후에도 용왕의 암혼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충성이 부족함을 원망하고, 용왕과 사직의安危를 걱정한다. 이 때문에 우매한 인물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으나, 유교 사회의 전통 규범인 '충'을 드러내고 정당화하는 존재인 별주부는 용왕으

로 표상되는 봉건 체제를 신봉하고 이를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이념을 현시하고 있는 인물이다.

창본

수궁가 창본으로는 이선유 창본, 박봉술 창본, 임방울 창본, 김연수 창본, 정광수 창본, 박초월 창본, 박동진 창본, 정권진 창본 등이 있다. 정권진 창본을 제외한 모든 창본은 동편제에 속하는데, 이 가운데 이선유 창본과 송만갑제인 박봉술 창본을 제외하면 모두 유성준제에 속한다.

이선유 창본은 비교적 고풍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송만갑제에 속하는 박봉술 창본은 이선유 창본보다는 후대, 유성준제 수궁가보다는 앞선 시기의 창본으로 보인다.

유성준제 창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창본은 정광수 창본이다. 신재효 개작본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정광수 창본은 폭군의 모습을 띤 호랑이가 미화되어 나타나는 등 지배층에 대한 대결 의식은 희석되고 문제의식은 사라진 반면 오락성이 강화되고 있다.

임방울 창본은 토끼가 육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작품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동진 창본은 아니리가 상당히 부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 특징적이다. 한편 김연수 창본은 여타 창본에 비해 대단히 확장되어 있는데, 이는 정광수 창본의 사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재효에 의해 개작된 사설 또한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산제에 속하는 정권진 창본은 작품의 말미에 용왕이 산신에게 이문을 보내 다시 토끼를 잡아와 토끼의 간을 먹고 병이 낫는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 외의 대목에서는 유성준제 수궁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특징 및 의의

용왕의 득병에서부터 시작되는 수궁가는 당대인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의식과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병사설>과 <용왕탄식>에서는 용왕의 무능과 부패가 드러나며, 그러한 용왕에 대한 인물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국가나 정치 현실에 대한 당대인들의 의식을 보여준다. 토끼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용왕을 통해서만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입각한 차별적 인간관이 드러나고 있으며, 토끼는 이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성장하는 서민 의식의 각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어족회의를 통해서만 부패한 정치와 책임자들의 모습이 고발되면서 정치 현실을 드러내는 등 수궁가는 무너지가는 봉건 질서와 거기에 대처하는 서민과 성장하는 서민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예리한 풍자와 비판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궁가가 우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토지설〉이라는 짙막한 지략담을 바탕으로 〈용궁설화〉와 〈쟁장설화〉〈고토탈화설화〉 등 구전·문헌설화를 고루 삼입하면서 당대의 우화 문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은 수궁가는 조선 후기의 정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적 서민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대표적 풍자 문학으로 손꼽힌다. 현재에도 판소리·소설·전래동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마당극이나 창무극(唱舞劇)으로도 계속 공연되고 있는 수궁가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고전이다.

참고문헌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편, 민속원,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필자 김동건(金東建)

수궁가

水宮歌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

역사 〈수궁가〉는 적어도 영·정조 무렵부터 판소리로 불렸을 것으로 추측되며, 송만재의 〈관우회〉, 이유원의 〈관극팔령〉과 같은 문헌에도 기록이 있다. 〈수궁가〉를 잘 불렀던 역대 명창들로는 순조 때의 신만엽·염계달, 철종 때의 송우룡·김거복·김수영, 고종 때의 김찬엽·유성준, 일제강점기의 임방울·김연수 등이 있다.

내용 〈수궁가〉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라가 토끼를 찢어 용궁으로 데리고 가지만, 토끼가 도리어 찢을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전체 연주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다. 〈수궁가〉의 대표적인 대목은 용왕 탄식(진양조), 약성가(자진모리), 토끼화상(중중모리), 고고천변(중중모리), 토끼와 자라(중중모리), 토끼기변(중모리), 가자가자(진양조), 토끼 욕하는 대목(중모리, 추천목) 등을 들 수 있다. 또 수궁가의 알려진 더듬으로는 신만엽의 토끼기변, 소지노화가 있다.

1. 전승 계보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수궁가〉는 송흥록—송광록—송우룡—유성준—김연수—임방울—정광수—박동진을 거쳐 박초월·오정숙 등으로 이어지는 유성준계, 송만갑—박봉래—박봉술로 이어지는 송만갑계, 정응민—정권진—조상현으로 이어지는 정응민계가 있다. 이 외에 경기·충청에서 전승되던 중고계 수궁가는 김창

♩.=88

고고천변(수정문밖씩나서)

수정 문 밖씩나서 고고 천 변인류 흥
 부 상의 둥 둥 높 이 떠 양 곡 의 짓 은 안 개
 월 봉 으 로 돌 고 어 장 촌 안 개 질 고
 회 안 봉 구 름 이 떠 노 화 눈 되 고
 부 평 은 물 에 둥 실 어 룡 은 잠 자 고
 잘 새 는 필 필 날 아 둥 정 여 천 의 파 시 주
 금 성 추 파 가 여 긴 테 앞 밭 로 벽 파 를 찍 어 당 겨
 뒷 밭 로 창 랑 을 탕 탕 요 리 조 리 조 리 요 리
 앙 금 둥 실 높 이 떠 사 면 바라 봐
 지 광 은 칠 백 리 요 파 광 은 천 일 색 인 디

를 끝으로 전승이 끊어졌고, 정창업에서 김창환·김봉학으로 전승되던 서편제의 수궁가도 전승이 끊어졌다. 그리고 이날치에서 김채만으로 내려오던 수궁가도 거의 전승이 끊어졌다. 현재 불리는 수궁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바디는 유성준의 것이다. 유성준 바디 수궁가를 배운 제자들은 김연수·임방울·박초월·박동진·정광수 등인데, 모두 스승의 소리를 자기화하였으므로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띤다. 현재는 박초월의 제자인 남해성이 〈수궁가〉의 보유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초월은 유성준제 〈수궁가〉를 이어받았으며, 정광수를 비롯한 김정문·송만갑 등 쟁쟁한 동편제 명창들에게 소리를 배웠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편제 명창인 김창환의 제자 오수암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때문에 박초월의 소리를 동편으로 보는 이도 있고, 서편의 소리로 보는 이도 있다.

2. 사설 구성

〈수궁가〉의 사설 구성은 바디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바디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수궁의 만조백관들을 나열하는 대목과 들짐승 상좌 다툼 대목, 수궁에서 살아나간 토끼의 일화 대목 등이다. 유성준 바디를 이은 정광수는 수궁 만조백관으로 방게와 방침사·물메기가 등장하며, 박초월은 미역·방게만이 등장한다. 강산제의 정권진은 물메기·방게 등이 한 대목에 함께 그려지며, 동초제의 김연수는 물메기·조개·벌떡게·민어 등 많은 신하들이 등장하고 있다. 들짐승 상좌 다툼 대목에서 정광수와 박초월은 노루·너구리·멧돼지(멧돼지)·토끼·호랑이를 노래하며, 강산제의 정권진은 노루·너구리·호랑이를, 그리고 동초제의 김연수는 노루·너구리·멧돼지·토끼·호랑이·사슴·사냥개 등 다양한 동물과 에피소드 등을 노래한다. 정광수 창본에 있는 별주부 모친의 탄식 대목과 마누라 이별 대목이 박봉술 창본과 정권진 창본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날짐승 상좌 다툼 대목은 박봉술 창본에는 없다. 정광수 창본과 정권진 창본이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나 박봉술 창본은 새로 짠 소리를 하고 있다.

수궁에서 살아나간 토끼의 후일담으로 정광수와 박초월·김연수는 토끼가 사람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난 후 탄식하면서 종료하지만, 강산제의 정권진은 산신이 보내 준 나이 많은 토끼의 간을 먹은 용왕이 건강을 되찾는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 후반부 내용에서는 특히 강산제의 정권진 창본이 색다른데, 다른 창본에 비해 장면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자라가 토끼 피는 대목·간이 없다고 아되는 대목·세상에 나오는 대목도 확대되어 나타나며, 독수리가 좋아하는 대목·토끼가 〈태평가〉를 부르며 좋아하는 대목이 추가되어 있다.

박초월의 〈수궁가〉는 스승인 정광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양이 적은 편이다. 아니리가 모두 짧아 재담이 적고, 없는 대목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방침사조개가 아되는 대목과 상소 읽는 대목, 호랑이 말하는 대목, 호랑이 도망가는 대목 등이 그렇다. 박초월의 〈수궁가〉는 본래 유성준바디의 동편 소리였지만 박초월에 의해 전형적인 계면성음이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박초월의 소리는 당대 암울했던 민족적 정서를 담아낸 것이었다고 평가받는다.

3. 악조

〈수궁가〉는 음악적으로 다양한 악조의 사용을 보여 준다. 정광수의 수궁가의 경우 전체 47개 대목 가운데 계면조만 사용한 대목은 12대목, 계면조와 우조 등 여타 악조를 섞어 사용한 대목은 15대목, 우조 계열의 악조만 사용한 대목은 20대목으로 전체적인 비중이 계면조보다는 우조 계열의 악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면조가 많은 〈심청가〉나 〈춘향가〉보다 수궁가가 짐작고 무게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다.

계면조는 용왕 탄식 대목과 주부 모친 통곡 대목, 주부 마누라 통곡 대목, 주부 통곡 대목, 별주부 탄식 대목, 토끼 탄식 대목과 같이 슬피 울거나 탄식하는 슬픈 분위기에 부르기도 하고, 토끼화상 대목과 토끼 춤추는 대목, 수궁 풍류 대목과 같이 오히려 즐거운 장면에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도—시’의 꺾는 음을 강조하여 사용하며 진양조와 중모리와 같이 느린 장단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래의 계면조에 ‘솔’ 음을 더 많이 추가하여 사용하며 중중모리나 엇모리 등의 빠른 장단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다.

우조는 약성가, 도사 맥 보는 대목, 방침사 조개 대목, 주부 들어오는 대목, 상소 읽는 대목, 상좌다툼 중 노루·너구리·멧돼지·토끼, 산신제 지내는 대목, 범피중류 등의 여러 대목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권삼득이 가마꾼의 소리를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 설령제는 방게 아되는 대목과 주부 보고 범이 좋아하는 대목에서 활용되었다. 또 경기민요를 판소리화하여 수용한 경드름 계열의 악조들도 사용되고 있다. ‘솔·라·도·레·미’의 창부타령토리를 수용한 진경드름은 상좌 다툼의 가마귀 대목에 사용된다. 반경드름은 서도 소리체인 수심가토리를 수용한 것으로 토끼 욕하는 대목에 사용되며, 특별히 김연수 창 토끼 욕하는 대목이 서도소리의 맛을 제대로 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경드름의 일종인 추천목은 토끼 춤추는 대목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상당히 계면화되어 있으며 임방울창이 유명하다. 경상도 지역의 음악어법을 판소리화하여 수용한 악조로 메나리조가 있으며, 수궁가 가운데 초동패의 길소리에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 산신제 대목에서는 축문을 읽는 장면에서는 실제 축문 읽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좌 다툼 대목 안에서는 시조의 초장 부분을 부르기도 하는 등 타 장르의 음악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궁가는 다양한 악조를 활용하여 이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장단

〈수궁가〉에 사용된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엇중모리, 휘모리의 일곱 가지이다. 진양조장단은 용왕의 탄식 대목, 주부 들어오는 대목과 주부 모친 통곡 대목, 산신제 대목과 수궁 풍경 대목, 범피종류 등에서 사용되어 귀인의 슬픈 탄식과 장엄한 광경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모리장단은 주부와 토끼의 탄식 대목과 상좌 다툼과 같은 대목에서 쓰이고 있어서 진양조에 비해 가벼운 탄식과 대화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중모리장단은 토끼화상·고고천변·수궁 풍류와 토끼 춤추는 대목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여러 사실을 나열하는 대목이나, 흥겨운 대목이 많다. 자진모리장단은 약성가·수궁 만조백관·일개한퇴·사람 내력과 같이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호랑이 물리치는 대목과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처럼 급박한 상황 전개에도 사용되었다. 휘모리장단은 호랑이 물리치는 대목의 끝 부분에서 한 번 사용되었는데, 역시 급박한 상황 묘사에 이용되었다. 엇모리장단은 도사 내려오는 대목과 범 내려오는 대목, 수궁풍류 대목에서 사용되었다. 흔히 엇모리장단은 무가에서 왔다고 하며, 계면조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지만 정광수 창 〈수궁가〉에서는 도사 내려오는 대목과 범 내려오는 대목의 일부에서 우조가 쓰이고 있다. 엇중모리장단은 판소리 맨 마지막의 마무리 대목에 사용되는 장단인데 〈수궁가〉에서는 날짐승 상좌 다툼 중 까마귀 부분에서도 경드름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경드름이 경기도 민요조이며, 엇중모리가 경기도의 잡가에서 나온 것을 볼 때 두 가지의 조합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19세기 양반 향유층들은 〈수궁가〉를 ‘소적벽가’로 일컬을 정도로 〈적벽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소리로 평가하였다. 양반들이 수궁가를 높이 평가했던 것에는 용왕에 대한 자라의 충성을 소재로 다루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격조와 음악적 짜임새 덕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궁가〉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우화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재치 있고 아기자기한 기지와 해학적인 맛이 있으며,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악조와 장단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성이 탄탄하다. 〈수궁가〉에는 판소리의 모든 악조와 장단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불입세의 기교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음악적 재

료들이 모두 이면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드름의 성립과 전개(김혜정, 경기전통예술연구시리즈1-경기판소리, 경기도국악당, 2005),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사실집(최동현, 민속원, 2008), 정광수창 수궁가의 장단 구조와 악조 유형(김혜정, 남도민속연구5, 남도민속학회, 1999),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김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토끼전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판소리 다섯마당(이보형, 한국브리태니커, 1988).

필자 김혜정(金惠貞)

수궁풍류

水宮風流

〈수궁가(水宮歌)〉중에서 간을 산중에 놓고 왔다는 토끼의 거짓말에 속은 용왕이 토끼를 위로하려고 수궁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고 노는 대목.

내용 〈수궁풍류(水宮風流)〉는 토끼에게 속은 용왕이 토끼를 위로하려고 술을 대접하고 농을 서로 주고 받다가 토끼가 ‘수궁풍류’를 청하자 나오는 대목이다. 봉피리·죽장고·거문고·옥통소·해금 등 연주 악기를 소개하며, 각 악기의 소리를 구연하는 10여 장단의 짧은 소리로 짜여 있다. 이어서 신명이 난 토끼가 염계달의 추천목으로 노는 장면인 ‘앞내 버들은 청포장 두르고, 뒷내 버들은 초록장草綠帳 둘러…….’ 부분이 중중모리장단으로 이어지는데, 역시 10여 장단의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1년 근대 오명창의 한 사람인 김창룡(金昌龍)이 취입한 심청가 〈수정궁 들어가는데〉(REGAL C154-B) 음반에서 이 대목이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정춘풍의 더듬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오래된 소리로 보인다.

현전하는 수궁가 창본은 유성준제인 임방울본·정광수본·강도근본이 전하고, 유성준제를 근간으로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김연수본(오정숙 전수), 송만갑제로 보이는 박봉술본, 정응민제인 정권진본, 임방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박초월본(조통달 전수), 충청 지방의 중고제를 전승했다는 박동진본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수궁풍류〉는 〈심청가(沈淸歌)〉에도 나오는데, 사해 용왕의 명을 받은 용궁의 시녀들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을 모시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궁풍류—수궁 궁궐의 위용—갖가지 술과 음식’의 순으로 사설이 엮여져 있어, 하나의 완성된 더듬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수궁가에선 심청가의 〈수궁풍류〉 중 앞부분인 악기 연주하는 대목만으로 짜여 있어서, 심청가의 더듬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토끼가 수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궁 풍광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고, <수궁풍류> 바로 전 장면에서 토끼가 술과 음식을 대접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심청가의 <수궁풍류>에 나오는 수궁 공필의 위용이나 갖가지 술과 음식을 부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궁풍류>는 엇모리장단으로 짜여 있다. 엇모리장단은 2박과 3박이 섞여 있는 혼합 장단으로, 어칠비칠한 느낌을 주는 이질적인 장단이다. 이런 이질감 때문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건이 전개될 때 간혹 쓰이는데, <수궁풍류>에서도 수궁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이질적인 느낌의 이 엇모리장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내 버들은……” 대목은 소위 추천목이라고 하는 선율로 부르는 것이다. 추천목은 중중모리장단 12박을 3박으로 한 묶음으로 하여 한 장단을 네 걸음으로 짜서, 흔들흔들 그네 뛰는 정경을 느끼게 하는 선법을 가리키는데, 여유있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참고문헌 김창룡제 심청가 수궁풍류의 선율적 거시구조(이보형, 한국음반학21, 한국고음반학회, 2011), 동편제 명창 정춘풍의 더늠 연구(김석배, 문학과언어17, 문학과 언어학회, 1996).
필자 이규호(李揆昊)

아이를 숲에 넣고 도망친 토끼

자기를 잡은 사람의 아기를 꿩의 숲에 넣고 도망친 잔혹한 토끼에 대한 설화.

역사 설화에서 토끼는 꾀 많은 인물이거나 잔혹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중 잔혹한 토끼는 자기중심성과 그로 인한 부도덕성 때문에 설화에서 제한적으로 전승됐다.

줄거리 녹두침지는 자꾸 녹두를 뜯어 먹는 토끼를 잡기 위해 녹두밭에 죽은 척 누워 토끼를 기다린다. 한 무리의 토끼가 나타나 녹두침지를 장사지내는 놀이를 하는 사이에 녹두침지는 가장 큰 토끼를 사로잡는다. 녹두침지는 토끼를 아내에게 건네고 장작을 켜다. 토끼를 건네받은 침지의 아내는 산 채로 숲에 넣는다. 아내가 이웃집에 불을 빌리러 간 사이, 토끼는 숲에서 나와 아기를 대신 넣고 안방에 들어가 아기처럼 눕는다. 녹두영감 내외는 삶은 고기를 먹으면서 토끼 고기가 제 아기를 닮았다고 한다. 노부부가 고기를 다 먹자 안방에서 토끼가 툭 튀어나 오면서 자기 새끼 잡아먹고 자기마저 잡아먹으려 한다고 소리친다. 도망갈 치며 햇대에 불을 지르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여 노부부가 불을 지르자,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에 불 지르면 자기는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자 뒷산으

로 도망치면서 자기 새끼 잡아먹고 자기마저 잡아먹으려 한다고 소리친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간다.

변이 각편에 따라 토끼가 호랑이를 속여서 죽이고 노부부에게서 칼과 도마를 빌려 호랑이 고기를 먹는 내용이 도입부에 추가된다. 결말부에는 연쇄적으로 노부부의 살림살이를 망치고 끝내 노부부마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하지만 토끼의 잔혹성을 기본 축으로 하므로 변이가 크지 않다.

분석 토끼를 지혜로운 트릭스터 범주로 보면 잔혹한 토끼는 의외의 캐릭터이다. 그러나 토끼의 이러한 잔혹성, 자기중심성, 놀이성은 오히려 지혜로운 토끼보다 더 트릭스터에 가깝다. 왜냐하면, 트릭스터는 인류의 초기 모습 혹은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의 투사이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꾀 많은 토끼 이야기와 잔혹한 토끼 이야기는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대비된다. 꾀 많은 토끼가 다소간의 영웅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질서에 관여한다면, 잔혹한 토끼는 인간의 무의식에 깊이 억눌린 요소를 투영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잔혹한 토끼와 꾀 많은 토끼는 아동의 발달 단계와 대비된다. 특히 전자는 자기중심성에 갇힌 전조작기의 아동 발달 단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잔혹한 토끼 이야기는 인류의 진화 혹은 인간의 성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0, 870; 8-5, 93.
참고문헌 설화학 강요(조희용, 새문사, 1989), 속임·속음의 서사구조(이한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트릭스터담의 문화기호학적 연구(류정월,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문학통사(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옹달샘

윤석중이 작사한 후 외국곡을 붙인 동요.

개관 <옹달샘>은 1958년 3월 24일 『동아일보』에 처음 발표된 작품으로, 조병덕 화가가 삽화를 그렸다. 윤석중尹石重(1911~2003)이 독일민요 곡을 참고하여 작곡한 연도는 확인할 수 없고, 1차 교육과정(1954.4.~1963.2.) 6학년 음악 교과서(1961)에 실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되었다.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호랑이 꼬리와 함께 묶었다가 떨어져 나가서 토끼 꼬리가 짧아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유래담.

내용 토끼 꼬리가 짧아지게 된 유래는 호랑이와 관련한 서사에서 비롯된다. 우리 설화에서 토끼는 피가 많고 재치 있는 캐릭터로 종종 등장하는데, 동물 중 가장 무섭고 힘이 센 호랑이를 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이 이야기도 그러한 서사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또는 유명한 포수가) 호랑이가 엿듣는 줄 알고 일부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올랑새’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잠든 호랑이 꼬리에 몰래 방울을 달아놓았다. 잠에서 깬 호랑이는 방울이 “올랑올랑” 울리자 그것이 올랑새인 줄 알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가시덤불에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던 호랑이는 마침 토끼와 마주쳤고, 배가 고파진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였다. 이때 토끼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며 호랑이의 관심을 돌렸다. 호랑이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기 전에 우선 올랑새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러 같이 가 보자고 호랑이를 꾀었고, 호랑이가 거절하자 토끼는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서로 꼬리를 묶은 뒤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그렇게 꼬리를 묶고 올랑새를 찾아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가시덤불을 뒤적이다가 방울이 어디선가 “올랑올랑” 울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냅다 튀었고,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몽땅 잘리면서 토끼 꼬리는 짧아지고 호랑이 꼬리는 토끼 꼬리까지 붙어 길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올랑새 대신 수달이 등장하기도 한다. 수달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마치 산신령인 것처럼 호령해서 호랑이가 지레 겁을 먹었다. 여기에서도 토끼가 꼬리를 묶고 그 장소로 다시 가 보자고 호랑이를 꾀고, 함께 그 장소를 다시 찾는다. 호랑이가 오는 것을 보고 수달이 또 몸을 숨기고 산신령처럼 우렁차게 호령을 하자 호랑이가 놀라서 겁싸게 도망쳤고, 그 바람에 서로 붙었던 꼬리가 떨어져 토끼 꼬리는 짧아지고 호랑이 꼬리는 토끼 꼬리까지 더해져 길어졌다는 내용이다.

올랑새든 수달이든 이는 ‘호랑이와 꽃감’류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자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에 호랑이가 지레 겁을 먹은 데서 시작된다. 여기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토끼가 꾀를 내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다만 토끼가 꾀로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올랑새와 수달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활용해 겁에 질린 호랑이가 갑자기 도망을 쳐서 토끼 꼬리가 짧아지게 되었다는 유래담으로 끝을 맺는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와 토끼’ ‘호랑이 꼬

내용 윤석중은 1924년에 소년문에 조직인 ‘깃뵘사’가 창립된 후 동인지를 발간하고, 『어린이』(1924)에 〈웃독이〉가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아동문단에 참여했다. 특히 1926년 ‘조선물산장려가’ 모집에 1등으로 당선되면서 ‘천재의 어린 예술가’라는 상찬과 함께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이후 윤석중은 이광수李光秀·정지용鄭芝潐 등 기성문인들과 교류하며 아동 잡지와 신문 편집 일을 하고, 여러 작품 창작과 기고를 통해 아동문학가로서의 성장을 꾀한다.

윤석중은 『윤석중 동요집』(1932)을 비롯하여 『깊은 산 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1999) 등 다수의 동요집을 출간하고 교가를 작사하였으며, 『어린이』 『소년』 『유년』 『소년조선일보』 등의 편집을 주관하였다. 특히 1947년에는 노래동무회를 창립하는 등 작고하기 전까지 동요 보급 및 어린이 문화운동에 헌신하였다. 또한 그는 800편이 넘는 동요·동시에 곡을 붙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라면서 불렀던 동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다.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맑고 맑은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박꼭질 하다가,/ 목 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동아일보』 1958.3.24.

〈웅달샘〉은 1958년 발표 이후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81년 12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엄마·아빠가 뽑은 동요 베스트 10에 들기도 하였다. 윤석중의 〈웅달샘〉은 아름다운 우리말과 명량성·공상성 등을 통해 동심을 잘 구현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웅달샘〉은 산속에 사는 토끼와 노루가 웅달샘을 찾아와 물을 먹고 가는 동시적 상상력과 순수한 동물들의 모습을 대구 형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또한 4분의 3박자 리듬으로 밝고 가볍게 부르도록 하였다. 윤석중은 한평생을 어린이 문화운동과 동요·동시 창작 및 작곡 활동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동심을 잃지 않고 아동을 위한 동요·동시 창작의 선구자로 아동문학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문헌 윤석중 연구(김제근,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국 동요·동시 정전화 연구(최은경,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가장 좋아하는 동요 과수원길 KBS라디오 국교생 대상조사(동아일보, 1981.12.29.), 웅달샘(동아일보, 1958.3.24.).

필자 정진현(鄭震憲)

리와 토끼 꼬리' 등으로도 전하여진다.

특징 및 의의 동물 유래담은 동물이 지닌 종種으로서의 생김새나 특성 등에 대해 그것이 생겨나게 된 연유를 밝힌 이야기를 말한다. 우리 설화에는 약한 동물인 토끼가 동물 중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골려서 약자의 통쾌함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토끼와 호랑이를 대결 구도로만 두지 않고 호랑이가 꼬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토끼 꼬리가 짧아지게 된 연유로 풀어냈다. 덩치만 컸지 겁이 많은 호랑이였기에 상대적으로 긴 꼬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해학으로 풀어낸 것이다. 동물설화에서 동물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은유로서 동물의 행동은 곧 사람의 행동을 의미한다. 즉 이 이야기는 힘이 센 강한 세력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통쾌함을 느끼고자 한 설화 향유층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한국구비문학대계8-2, 8-10, 8-14(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4), 한국구전설화1·3·5·6·9·10(임석재, 평민사, 1987~1993),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한국의 동물담(민찬, 설화문학연구-상, 화경전문학연구회,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조선영(曹善映)

토끼 눈이 빨강게 된 유래

토끼의 눈이 빨간 이유를 설명하는 동물 유래담.

내용 토끼 눈이 빨강게 된 유래는 호랑이와 토끼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옛날에는 토끼 꼬리가 길고 호랑이 꼬리는 짧았다고 한다. 토끼가 호랑이 앞에서 긴 꼬리를 자랑하니 호랑이가 꼬리를 나누어 달라고 졸랐고, 이에 토끼는 차라리 꼬리를 서로 묶어 다니자고 하였다. 그 뒤로 둘은 꼬리를 묶고 함께 다녔는데, 한 번은 토끼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호랑이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다. 토끼는 억지로 힘을 주며 호랑이를 끌었고, 그러다가 눈이 빨개지고 꼬리가 몽땅 빠져 토끼의 꼬리가 짧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꼬리가 빠지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바윗돌에 얼굴을 부딪쳐 토끼의 입이 세 갈래로 찢어지고 말았다. 이후부터 호랑이는 토끼의 꼬리가 붙어 길어졌다고 한다.

우리 설화에서는 몸집이 작고 나약해 보이는 토끼가 힘이 세고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꾀로 골려 먹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토끼는 약자를 대표하는 동물로, 토끼가 호랑이로 대표되는 '힘을 지닌 세력'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통쾌함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존의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꼬리 짧은 호랑이가 꼬리가 유독 긴 토끼에게 꼬리를 나누어 달라고 졸랐다는 것으로 보아, 긴 꼬리가 동물들에게는 힘을 상징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꼬리를 묶었다고 해서 호랑이가 토끼의 말을 잘 따랐던 것은 아니다. 토끼가 어딘가로 가자고 해도 호랑이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힘이 센 호랑이를 어찌지 못하고 토끼 혼자 안간힘을 쓰다가 꼬리도 잃고 눈도 빨개지고 말았는데, 이때 빨간 눈은 힘을 지닌 세력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약자의 무력함과 울분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동물담 중에서 유래담은 생김새에 대한 유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징적인 생김새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연유를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이 이야기는 호랑이와 토끼의 꼬리는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토끼의 눈이 유독 빨강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꼬리'가 현실에서 긴 꼬리를 자랑하는 호랑이에게 중점을 둔 것이라면, 토끼의 '빨간 눈'은 호랑이보다는 토끼에 중점을 둔 이야기이다.

동물설화에서 동물이 사람에 대한 은유라고 본다면, 동물의 행동은 실상 사람의 행동을 의미한다. 토끼가 호랑이를 이기지 못하고 꼬리도 빼앗기고 그를 움직여 보려다가 눈까지 빨강게 된 것은, 지니고 있던 것마저 빼앗아가는 권력층(힘을 지닌 세력)에 대한 설화 향유층의 울분과 무력한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한국구전설화3(임석재, 평민사, 1988),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조선영(曹善映)

토끼 배 가르느 대목

〈수궁가(水宮歌)〉 중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 수궁에 들어간 토끼가 간을 산중에 내놓고 왔으며 용왕을 속이는 대목.

내용 자신의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어쩔 것이냐는 토끼의 주장에 용왕은 토끼의 말이 당치 않다고 꾸짖는다. 토끼가 얼토당토않은 꾀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비하여 용왕은 의서나 만물의 이치를 근거로 하여 토끼의 꾀변을 공박하는 내용이 이 대목의 주를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략의 문제이다. 미천하고 무식한 토끼를 깨우쳐 주려던 용왕은 토끼의 꾀변이

계속되자, 토끼가 자신을 기롱하고 있노라고 노여워하며 당장 토끼 배를 가르라며 호령을 한다. 그러나 토끼는 여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색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세 구멍 설'을 설파하여 결국 용왕을 속이기에 이른다. 미천하고 무식한 토끼의 지략이 고귀한 용왕의 풍부한 지식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사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현, 의서, 토끼 간, 밀궁기 내력, 별주부의 미련함을 비난하는 것으로 모든 창본이 대동소이하다. 토끼 간의 약효와 효험을 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설은 임방울·박봉술·박동진 창본에만 들어 있다.

장단은 중모리장단으로 되어 있고, 악조는 우조와 계면조가 섞여 있다. 대개 왕이 말하는 부분은 우조로 하고 토끼가 말하는 부분은 계면조로 불러 입체감을 살리면서 이면을 표현하고 있다.

현전하는 수궁가 창본은 유성준제인 임방울본·정광수본·강도근본이 전하고, 유성준제를 근간으로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김연수본(오정숙 전수), 송만갑제로 보이는 박봉술본, 정응민제인 정권진본, 임방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박초월본(조통달 전수), 충청 지방의 중고제를 전승했다는 박동진본 등이 있다.



수궁가 | 2005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특징 및 의의

수궁가는 한 편의 우화로서, 풍자적 골계가 두드러지고, 설화의 틀 속에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담아낸 작품이다. 여타 판소리와 달리 삼입가요가 그리 많지 않은 대신 등장인물들의 언변 대결이 장황히 구사된 대목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언변 대결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이다.

수궁가의 언변 대결은 회의와 논쟁의 형식을 지니는데, 반드시 뒤에 발화를 하는 後話(後話)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패배자는 그 자신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세운 근거들 역시 모두 관념에 치우친 허위의식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허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바, 결국 수궁가의 언변 대결은 기존 관념에 의지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들을 풍자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수궁가의 언변에 활용되는 고사나 고급사의 지식은 당시 문화적 상승을 의도한 중간층 부류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수궁가의 언변 대결에서는 신분 문제는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 출신 성분이 어떠한 관계없이 쌍방이 대등한 자격으로 근거를 내세워 겨를 뿐이다. 또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도 그때마다 달라진다. 승자가 패자가 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며 패자라고 해서 끝없이 전략하는 것으로만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수궁가의 언변 대결은 수평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모색으로서의 형식이라는 당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성준제 수궁가의 전승과 변이—토끼 껍 내는 대목의 음악적 존재양상을 중심으로(김혜정, 판소리연구 13, 판소리학회, 2002), 토끼전 언변 대결의 양상과 의미(정충권, 판소리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토끼전의 인물형상과 풍자(권순궁,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2002).
필자 이규호(李揆昊)

토끼골

토끼의 형상이나 생태적 환경, 생산적인 의미를 근거로 형성된 지명.

개관

토끼골은 생태적이거나 달과 연관된 토끼의 민속적 의미를 원초적인 근거로 삼아 형성된 골짜기 이름을 말한다. 골짜기는 음적(陰的)인 장소로 여성과 관련되며, 달과 연관된 계곡이다. 다시 말하면 토끼골은 여성의 생산적인 의미와 달의 상

정적인 의미가 결합된 지역을 가리킨다. 강원도 통천군 화통리를 비롯하여 강원도 일대의 지명에서 보이는 토끼골은 과거 산토끼가 많이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곳은 토끼의 생태적인 환경에 근거하여 붙여진 명칭이지만, 토끼골은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풍수적 공간원리에 근거하여 개념화되고 형성된 기표적 명칭으로서 땅이 갖는 공간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끼골은 달과 관련된 토끼의 상징적인 의미를 근거로 인간의 삶의 지혜나 희망을 갈망하는 의미가 개념화되어 형성된 지명인 것이다. 이러한 지명은 해당 지역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장소성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용 달과 관련된 토끼에 관한 기록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두꺼비와 함께 등장한 달 그림이 있다. 이러한 기록에는 토끼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이 투영되어 있다. 토끼는 생태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 귀가 길고 크며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잘 발달되어 있고, 번식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토끼는 작으며 귀여운 생김새에 근거하여 약하고 선한 동물로, 한편으로는 재빠르고 기민한 행동에 근거하여 영특하고 번식력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열두 동물로서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 풍요와 다산 등 농경사회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달 그림 속에 등장한 토끼는 달의 상징 동물이 되었으며, 달과 관련되어 여성 원리에 속하는 동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묘일卯日에 남의 집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토끼가 월궁月宮으로 상징되는 이상세계의 길상동물이라는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태양이 세 발 달린 까마귀인 삼족오三足鳥로 비유되는 것처럼 토끼는 달의 대명사인 것이다. 달이 재생을 상징하듯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 달 속의 토끼도 재생과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 농경사회에서 달이 풍요의 대상이듯 토끼 또한 번창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마을신앙이나 무속신앙·가택신앙 등의 민속신앙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속신俗信과 금기禁忌 그리고 주술적 행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토끼골은 토끼의 형상이나 생태적 환경 그리고 생산적인 의미를 근거로 형성된 지명으로, 농경사회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재생과 번창, 풍요와 다산 등의 생산적인 의미를 담아 토끼와 연관된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명은 한국인의 삶의 태도와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학 혹은 문화자료로서 가치가 크고, 언어문화자료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생태적·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근거로 형

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토끼골처럼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비롯한 사물의 역사문화적인 의미와 풍수적인 조건이 바탕이 되어 지명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참고문헌 열두 띠 이야기(김선풍 외, 집문당, 1995), 한국 띠 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표인주(表仁柱)

토끼바위

토끼의 외형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암석지물의 이름.

개관 토끼바위는 오늘날의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에서 공히 나타난다. 북한 지역에서는 북한 쪽 강원도 금강산 외금강 구룡연 구역 옥류동 세존봉, 함경북도 명천군 보춘리 칠보산 등지에서 확인된다. 또 남한 지역에서는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용소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경기도 의정부시 수락산,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백석읍 불곡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삼성산과 종로구·서대문구 인왕산,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영산리·월정리 원통산과 괴산군 청천면 가령산·무영봉·낙영산·도명산,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과 밀양시 내이동 신촌사거리 등지에서 확인되는 지명이다.

줄거리 토끼바위 유래담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특정 바위의 모양이 토끼 외형을 띠고 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변이 토끼바위 유래담의 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확인된다. 하나는 경남 밀양시 내이동 신촌사거리의 토끼바위 유래담으로, 옛날에 선녀가 천태산에서 바위 두 개를 토끼 등에 싣고 다녔다는 데서 토끼바위의 지명이 유래하였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쪽 강원도 금강산 외금강 구룡연 구역 옥류동 세존봉의 토끼바위 유래담인데,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의 변이담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하늘의 선녀들이 금강산 팔담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가면서부터 금강산에 대한 소문이 하늘세상에까지 널리 퍼졌는데, 소문을 들은 성미가 급한 달나라 토끼가 안달이 나서 절구질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옥황상제를 찾아가 간절한

토끼봉

토끼의 생태적이거나 양적인 의미가 투사되어 형성된 지명.

개관 토끼봉은 토끼의 생태적이거나 민속의 양적陽的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원초적인 근거로 삼아 형성된 봉우리 이름을 말한다. 강원도 판교군 경도리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는 봉우리가 토끼처럼 생겼다고 하여 토끼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풍수에서 봉우리는 골짜기에 비해 양적인 장소이고, 골짜기는 음적陰的 의미가 강한 경우가 많다. 음기陰氣가 강한 여근곡女根谷은 있어도 여근봉女根峰은 없으며, 다만 여성을 상징하는 봉우리로 옥녀봉이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음기가 강한 곳에는 양기를 보충하기 위한 입석, 조탑, 나무숲, 짐대 등 액막이 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토끼봉은 토끼의 긍정적인 의미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토끼섬·토끼봉·토끼산 등으로 불리는 지명이 그러한 예로, 이곳의 땅이름은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풍수적 공간원리에 근거하여 개념화되고 형성된 기표적 명칭으로서 땅이 갖는 공간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토끼봉은 토끼가 갖는 지혜로움, 예지능력, 불로장생, 벽사능력, 생산능력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근거로 인간의 삶의 지혜나 희망을 갈망하는 의미가 개념화되어 형성된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은 문화적 공간으로서 장소성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용 토끼의 생태적이거나 양적인 의미가 반영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한 여러 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토끼의 생태적인 기민함과 민첩함이 토끼가 예지능력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의 토천兔遷 지명 전설에서는 “고려 태조가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이곳에 이르니 길이 없었는데,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길을 열어 주어 갈 수가 있었으므로 토천이라 불렀다”라는 유래가 전해진다. 여기서 토끼는 막힌 길을 열어 줌으로써 예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고려 태조 왕건이 토끼가 안내한 길을 따라 신라군을 공격하였다고 하며, 이 전설은 <토천갑兔遷岬>이라는 설화로 전승되고 있다.

열두 동물 중에서도 토끼는 만물의 생장과 번창, 풍요와 다산 등 농경사회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사에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토끼를 불로장생의 표상으로 삼으면서 토끼의 간을 영약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는 고소설

소원을 이야기한다. 이에 옥황상제가 허락을 하면서 보름달이 되기 전에 꼭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으로 내려온 토끼는 황홀경에 빠져 그만 세월이 흘러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금강산의 절승경개絶勝景概를 구경하다가 그 모습대로 굳어져 토끼바위를 이루었다는 변이 형태이다.

두 번째는 옛날 달나라의 토끼가 천하절승天下絶勝 금강산을 구경하게 해 달라고 옥황상제에게 간절히 빌었다. 옥황상제는 토끼에게 보름달이 뜨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는데, 세존봉을 지나 옥류동에 이른 토끼는 경치가 하도 좋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고서야 옥황상제의 명령을 기억해 냈다. 부랴부랴 돌아가려고 헤뭇비는 토끼를 보고 노기가 오른 옥황상제가 ‘지난번 달리기경주에서도 거북이에게 졌고 오늘은 또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으니 이제부터 너는 거북이로 행세해야겠다’라고 꾸짖었고, 옥황상제의 명령을 어긴 토끼는 달나라에 못 가고 몸뚱이가 거북이로 변한 채 이곳에서 바위로 굳어졌다는 변이 형태이다.

분석 토끼바위 유래담은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토끼바위라는 지명이 토끼 외형을 닮은 특정 암석지물의 형상에서 유래하였다는 기본적인 전승 유형이다. 북한 쪽 강원도 금강산 외금강 구룡연 구역 옥류동 세존봉의 토끼바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토끼바위 유래담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토끼바위 지명이 토끼 외형을 닮은 지형에서 따왔다는 단순한 유래담을 선녀·옥황상제·토끼·거북이 등과 엮어서 확장한 변이 유형이다. 토끼바위 지명 유래담의 변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토끼 외형을 닮은 지형의 유래에 선녀를 개입시켜 설명한 하위유형으로, 경남 밀양시 내이동 신촌사거리의 토끼바위 유래담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토끼 외형을 닮은 지형에 대한 유래의 서사 주체로 토끼가 직접 등장하여 선녀가 아닌 옥황상제와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하위유형으로, 북한 쪽 강원도 금강산 외금강 구룡연 구역 옥류동 세존봉의 토끼바위 유래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토끼가 토끼바위 지명 유래의 서사 주체로 출연하는 세존봉 토끼바위의 유래담은 토끼의 비교 대상으로 거북이가 등장하는 패턴과 거북이가 등장하지 않는 패턴이 각기 개별적인 세부 변이 패턴으로 병립하여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참고문헌 조선향토대백과(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2005), 한국지명총람 1~20(한글학회, 1966~1986).

필자 권도경(權都京)

古小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토설화>를 비롯하여 <곰을 범한 토끼>와 <죽은 채 하는 토끼> 등에서는 토끼를 지혜가 많은 동물로 그리기도 한다. 이처럼 설화에 나타난 토끼는 지혜와 재치를 발휘하여 속임수로 위기의 상황을 잘 벗어나는 동물로 묘사되어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혜와 재치의 대결은 의로움과 선함 그리고 약자의 승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끼는 민속신앙에서 십이지신의 하나로 방위수호方位守護와 축귀逐鬼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호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었다. 특히 세시풍속에서는 음력 정월의 첫 묘일을 상묘일上卯日이라 하여 수명장수를 비는 날로 여겼다. ‘토끼날’로도 불리는 이날은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적 의미와 번창의 의미를 지닌 날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토끼봉은 토끼의 생태적이거나 양적인 의미를 근거로 형성된 땅이름으로, 토끼를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의 토천兔遷이라는 지명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상주시 상주읍 토암兔岾전설에서는 토끼가 영약의 상징으로 재생과 번창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끼의 기호적 의미가 작용하여 땅이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에 대한 한국인의 삶의 태도와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학 및 문화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고, 언어문화자료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생태적 또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근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는 토끼봉처럼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비롯한 사물의 문화적인 의미와 풍수적인 조건이 바탕이 되어 지명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참고문헌 열두띠 이야기(김선홍 외, 집문당, 1995),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표인주(表仁柱)

토끼선생

토끼선생이 옥황상제의 아들과의 목숨 내기에서 이기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는 내용의 설화.

개관

토끼선생은 『제주설화집성1』에 수록된 설화이다. 198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채록된 이야기로, 구연자 박인주는 1940~1980년대까지 구좌읍과 조천읍 등지에서 활발하게 무업巫業 활동을 벌였던 이름난 큰심방이다. 그간 수집된 제주설화 가운데 유일하게 토끼가 등장하는 이야기이자 토끼

선생이 용왕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매우 특별한 각편이다.

줄거리

옛날 주나라 무왕 시절에 7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 용왕의 아들인 토끼선생은 모레가 되면 인간 세상에 큰비가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샷샷을 쓰고 나막신을 신은 채 눈에 모종을 심고 있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옥황상제의 아들이 미련한 짓을 한다며 “아이, 멍청한 양반아, 이 양반아! 왜 잘 키워 놓은 푸싯새(초목)를 죽이려 드느냐?”라고 토끼선생을 나무랐다. 하지만 토끼선생은 비가 내릴 것을 호언장담하며 옥황상제의 아들에게 “우리 염라대왕에게 목숨을 바치는 내기를 하자”라고 제안한다. 이틀 뒤 토끼선생의 말처럼 인간 세상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 옥황상제의 아들이 비를 막고자 급히 용왕국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비가 될 물은 용왕국에서 하늘로 올려진 뒤였다. 옥황상제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른다. 옥황상제는 “만민백성들을 살려야지 너 하나 살리고자 비를 거둘 수는 없다. 약조를 하였으면 죽어야 한다”라며 아들의 요청을 거절한다. 옥황상제의 아들은 “목숨은 바치겠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섭섭할 수 있으니 우리 관계를 먼저 알아보자”라고 토끼선생을 설득한다. 용왕국에 가서 둘 사이를 따져 보니 처남 매부 간이었다. 사돈 간에 목숨을 뺏을 수 없는 일인 지라 둘의 내기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변이

<토끼선생>은 토끼선생과 옥황상제 아들 간의 목숨 내기가 서사 골자인 내기담이다. 대부분의 내기담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 승자와 패자의 결말이 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유형담에 등장하는 토끼는 약자이지만 지략智略을 발휘하여 결국 승자가 되는 동물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토끼는 드물게 신수神獸와 같은 속성을 띤다. 토끼선생과 옥황상제의 아들이 알고 보니 처남 매부 간이었다는 결말에서는 승리자는 대가를 획득하고 패배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내기담의 일반적인 공식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분석

<토끼선생>은 유희적 의도가 깔린 내기담이자 동물담이다. 목숨을 건 대립과 갈등이 종국에는 생각지 못한 결말로 가닿으며 희화적 웃음을 자아낸다. 옥황상제마저도 ‘내기의 약조는 지켜야 한다’라며 아들의 애원을 물리치는 장면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토끼선생과 옥황상제의 아들이 처남 매부 간이면서도 서로 알지 못한 채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하는 실없는 행동을 벌였다는 다소 엉뚱한 반전을 통해 긴장을 웃음으로 치환시킨다.

특징 및 의의

설화에서 주로 토끼는 약하지만 지혜와 꾀를 내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

하는 영리한 동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제주설화 <토끼선생>에는 지략가 토끼, 민중을 대변하는 토끼보다는 신성 존재 또는 강자인 토끼가 등장하여 각별하다. 특히 이런 유형의 설화에서 주로 용왕은 토끼와 갈등 관계에 놓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혈연관계로서 토끼선생의 위상과 권위를 담보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새롭다. 한편 토끼는 예로부터 장수, 생산성과 풍요 등을 상징하여 왔다. 토끼선생이 목숨 내기에서 이긴다거나 7년간의 가뭄을 끝낼 비 소식을 접한 뒤 인간 세상으로 나와 농사를 짓는 모습 등은 이러한 상징성이 투영된 것일 여지가 크다.

참고문헌 제주설화집성1(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현정(李炫靜)

토끼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85번지에 소재한 960여 평의 작은 섬.

개관 토끼섬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Crinum asiaticum L. Varjaponicum* 자생지로 '난도 蘭島' '난섬' '난들여' 등으로도 불린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문주란 꽃이 피면 섬 자체가 흰 토끼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토끼섬이라고 부른다는 일설과 마을 주민이 이곳에 방사한 토끼가 많이 번식하여 토끼섬이라 불렀다는 일설이 있다.

내용 토끼섬은 구좌읍 하도리 소재 문주란 자생지인 '난도'의 이칭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기후적으로 문주란의 분포 북한대北限帶로 알려져 있으며,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달리 '난섬'이나 '난들여'라 부르기도 한다. '난도'나 '난섬'이라는 명명은 문주란을 의미하는 한자어 난蘭과 관련이 있는 반면 '난들여'는 난드리어醎라는 옛 지명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섬은 현무암 암반을 백사장이 덮고 있는 형태를 띤다. 이 때문에 위로 솟은 현무암 동산과 백사장이 분리되어 보이기도 한다. 하도리 굴동 해안의 암반 조간대에서 약 50m 떨어져 있어서 만조 시에는 육지부와 분리된다.

문주란은 수선화과의 상록 다년생 상록초본이며 열대성의 해안 식물이다. 문주란의 열매껍질은 해면질로 둘러싸여 바닷물에 잘 뜨는 성질을 지녔는데, 본래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던 종이 토끼섬을 비롯하여 일본·말레이시아·인도 등



토끼섬 | 제주관광공사

지에 해류를 타고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끼섬에 자생하는 문주란은 가뭄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커서 모래밭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발육력을 쉽게 잃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잎과 키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생육한계선은 일반적으로 연평균 섭씨 15도, 최저 온도 영하 3.5도이다. 7~9월에 이르면 문주란이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이때 토끼섬 전체가 절경을 이룬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제주도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토끼섬을 찾는다.

광복 후 1950년대 혼란기에 토끼섬의 문주란이 도채盜採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하도리 굴동에서 '문주란 4-H'라는 자생민간단체를 조직하고 각 가정에 있는 문주란을 수집하여 이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한때 문주란 도채 감시원으로 마을 청년들이 돌아가며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문주란이 해수와 바람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자생지 주변에 약 1.5m 높이의 돌담 보호시설을 세워 관리한다.

토끼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첫 번째는 문주란 꽃이 섬을 뒤덮으면 그 모습이 마치 흰 토끼와 같아서 토끼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20년경에 하도리 신동 출신 윤○○ 씨가 섬에 토끼를 방사하여 많이 번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후에 토도兔島 또는 토끼섬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토끼섬에는 난드리할미당이라는 생업 수호당이 있다. 잠수(해녀)와 어부들이 다녔던 해신당이다. 특별한 구색을 갖추지 않고 썰물 때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는 바위인 여巖 자체가 신당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단골들이 다니며 영등손맛이 정도를 간단히 벌이거나 바람과 관련된 산算을 받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영기가 꽤 좋은 신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래 잠수곳과 영등곳 등을 벌이던 유력한 신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난드리할미당본풀이>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실려 있다.

특징 및 의의

토끼섬은 생태적·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난드리할미당의 존재로 미루어 볼 때 민속적 가치 역시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토끼섬은 마을 주민들과 역사를 함께해 왔기에 지금 하도리의 랜드마크와 같은 위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하도리 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7), 하도향토지(하도향토지발전위원회, 2006), 국가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필자 이현정(李炫靜)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였는데, 앞서가던 토끼가 경기 도중 낮잠을 자는 바람에 느린 거북이가 부지런히 달려 경주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교훈담.

개관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Aesop's Fables』라고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아이소포스(이솝)가 지은 우화寓話 가운데 하나이다. 우화란 동물을 의인화하여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로, 이솝 우화의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소학교 교과서였던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1896)에 게재되며 교육의 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솝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신정심상소학』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대한국민교육회에서 발간한 민간단체 발행 교과서인 『초등소학初等小學』(1906)에 처음 등장하였다.

내용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라는 동물의 생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방심한 토끼가 낮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긴다는 반전의 재미를 주는 이야기이다.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자만해서는 안 되며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여느 이솝 우화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거나 재창작되기도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역시 그러하다. 오늘날에는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의 경주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경기였다고 보기도 하고, 토끼가 낮잠을 자



토끼와 거북이 | 김백석 | 가로51 세로60 | 2000년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토끼와 거북이 | 가로32 세로32 지름30 | 광복 이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는데 거북이가 깨우지 않고 혼자 경기를 계속한 것은 비겁한 행위였다고 보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한다. 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재창작해 성실함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끌어내 보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우화란 동물이나 식물, 사물 등을 의인화하여 그 행동 속에서 풍자와 교훈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말한다. ‘토끼와 거북이’ 역시 우화로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자만심에 빠진 사람과 좀 부족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각각 토끼와 거북이에 빗대어 언제 어디서나 자만을 경계하고 성실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근대 초기 이습우화가 갖는 의의(정혜원, 한국아동문학연구21,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설화에서 공유된 자연생명의 생태학적 재해석과 재창작(임재해, 남도민속연구41, 남도민속학회, 2020), 한국구비문학대계7-8(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필자 조선영(曹善映)

토끼와 원숭이

1946년 5월 1일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발행한 마해송의 원작을 김용환이 옮긴 만화책.

개관 만화가 김용환(1912~1998)은 한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민족말살정책을 펼친 일본을 비판한 마해송(1905~1966)의 「토끼와 원숭이」를 ‘그림이야기’ 형식의 만화 단행본으로 옮겼다. 마해송은 일본을 원숭이나라, 한국을 토끼나라로 비유하였다. 김용환은 이 이야기를 옮기면서 그림과 글을 분리한 형식을 택하였고, 한 쪽에 세 컷을 실었다. 조선아동문화협회는 『토끼와 원숭이』를 32쪽 분량의 고급 단행본으로 출간하였고, 이후 같은 형식을 지닌 ‘그림애기책’ 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내용 마해송 원작의 「토끼와 원숭이」는 1931년 잡지 『어린이』 8월호에 1화가, 1933년 1월호에 2화가 연재되었지만, 후속편은 김열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월 1일 『자유신문自由新聞』 신년호에 전편이, 1947년 1월 1일부터 8일자에 후편이 발표되었다. 광복 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민족적 관심이 커지며 한글 매체도 속속 복간되거나 창간되었다. 이에 시급해진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이었다. 민병도, 정진숙, 윤석중, 조풍연이 1945년 12월 설립한 을유문화사는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조선아동문화협회(이하 ‘아협’)를

조직하였다. 아협은 1946년 2월 11일부터 주간잡지 『주간 소학생』을 발행하며 여러 편의 만화를 연재하였다. 그리고 1946년 5월 1일 김용환이 만화로 옮긴 단행본 『토끼와 원숭이』를 출간하였다.

『토끼와 원숭이』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로 시작되는 우화이다. 큰 강을 끼고 동쪽에는 원숭이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북에서부터 뚱쇠나라, 토끼나라, 셴이리나라가 있다. 넓은 강으로 대치되었지만, 원숭이와 토끼는 바다 건너 마주한 일본과 한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을 토끼로 상징하는 일은 고토 분지로小藤次郎가 『조선산맥론朝鮮山脈論』(1903)에서 언급한 이후 꾸준히 반복되었다. 원숭이나라는 싸움 잘하는 무사 원숭이가 세력을 잡았다. 이들은 농사짓는 원숭이를 부려 먹지만 가난한 원숭이는 당연한 듯 종노릇을 한다. 까까, 끼끼, 꼬꼬 세 마리 원숭이는 양반 몰래 배를 꺼내 강을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 토끼나라에 도착한다. 토끼 형제 시시, 사사, 소소는 바닷가에 기절해 있는 원숭이를 구해준다. 토끼 형제는 원숭이 형제의 초청을 받아 원숭이나라에 구경을 간다.

호전적인 무사 원숭이가 지배하는 원숭이나라는 지리적 위치나 성격 묘사 등이 모두 한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모습이다. 토끼 형제를 초청한 원숭이 형제는 여흥으로 원숭이나라의 춤을 보여주고, 노래를 들려준다. 그리고 일본 전통 악기 샤미센三味線을 연주하고 전통 춤을 춘다. 한참 놀고 있는 토끼 형제를 잡으러 온 병정 원숭이의 모자나 복식, 대검을 꽂은 총(만화에서는 ‘탕’이라고 부름)은 모두 구 일본 군인을 연상시킨다. 반면 토끼나라는 팔월 한가위를 맞이해 추석 놀이를 하고 있다.



토끼와 원숭이 | 광복 이후 | 한국만화박물관



토끼와 원숭이 | 광복 이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무력으로 토끼나라를 침략한 원숭이 군대는 토끼의 집을 빼앗고, 토끼를 하인으로 부리며, 학교를 빼앗아 ‘원숭이가 세상에 제일가는 짐승’이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원숭이가 되기 위해 토끼 귀를 자르고, 얼굴과 엉덩이의 털을 깎고, 흰 털은 검게 염색한다. 이는 식민지 침탈, 조선어 말살, 황국신민화 교육에 대한 풍자이다. 토끼나라를 지배하던 원숭이 군대가 쳐들어간 똥쇠(하마)나라는 미국, 북쪽에 있는 셴이리나라는 소련을 상징한다. 셴이리가 약품을 먹고 독한 연기를 내뿜자 원숭이는 무조건 항복하게 되고, 싸움이 끝난다. 싸움이 끝난 뒤 강제로 귀를 잘리고, 검은 칠을 하여 원숭이처럼 꾸민 토끼들은 두 패로 갈려 한 쪽은 똥쇠를, 다른 한쪽은 셴이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화책 한 권에서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광복 이후 좌우 대립의 문제를 모두 풍자한다.

『토끼와 원숭이』는 한 쪽에 그림 세 컷과 글이 병기된 형태로 구성되었고, 컷 안에 말풍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형식적 특징으로 인해 ‘그림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아협은 『토끼와 원숭이』 출간 이후 같은 형식의 시리즈를 ‘그림애기책’으로 명명하였다. 아협은 제1집 김용환·김의환의 『흥부와 놀부』(1946.9.1.)를 시작으로 제13집 『린큰』(1949.3.27.)까지 총 13권의 ‘그림애기책’ 시리즈를 출간하였다. 『토끼와 원숭이』는 2013년 2월 21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는데 ‘만화 단행본으로는 가장 시대적으로 앞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토끼와 원숭이』는 사실적인 삽화를 많이 사용하는 ‘그림애기책’과 비교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정돈된 선으로 대상의 형태를 재현한다. 같은 크기로 칸을 잘라 마치 애니메이션 필름 북을 보는 것 같다.

『토끼와 원숭이』의 작가 김용환은 1912년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나 동래 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가와바다三端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데이코쿠帝國 미술학교를 다녔다. 1930년대 중반부터 ‘기타 고지北宏二’라는 필명으로 『니혼소년日本少年』 등 여러 잡지에서 삽화가로 활동하였다. 2차 대전 말기 잡지사들이 폐간하자 영화사 쇼치쿠松竹로 옮겨 일본 해군성의 선전 애니메이션 <모모타로 바다의 신병桃太郎海の神兵>(1945) 제작에 참여하였고, 애니메이션 연출 기법을 배웠다. 주로 삽화작업을 하던 김용환은 애니메이션 연출 기법을 익혀 『토끼와 원숭이』의 작화와 연출에 적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광복 이후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 어린이 출판물이 출간되었다. 『토끼와 원숭이』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로 이어지는 시대를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로, 짧은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당대의 다른 만화와 달리 애니메이션 작화 기법을 활용한 정돈된 선으로 캐릭터를 완성하였으며, 클로즈업이나 롱샷 등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를 보여주

며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토끼와 원숭이』의 성공은 이후 아협의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나오게 된 밑바탕이 되었다. 『토끼와 원숭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만화박물관 소장본이 2013년 2월 21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관계와 계보로 읽는 한국만화역사(박인하, 이련책, 2021), 아시아재단 지원을 통한 김용환의 미국 기행과 기행 만화(공영민, 한국학연구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한·중 동화의 일제에 대한 알레고리 연구(두전하, 아동청소년문학연구23, 한국아동청소년문화학회, 2018), 해방 직후의 그림책 토끼와 원숭이 연구(오성순, 아동청소년문학연구18, 한국아동청소년문화학회, 2016), 해방기 출간 아협 그림애기책에 관한 연구(진나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9-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

필자 박인하(朴仁河)

토끼옥설

〈수궁가*水宮歌〉중 토끼가 육지로 탈출한 후 간을 달리는 별주부에게 옥을 하는 소리 대목.

개관

〈토끼 육하는 대목〉 또는 〈토끼옥설〉은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따르면 염계달과 유성준의 더듬으로 알려진 사설 단위다. 〈토끼옥설〉은 박동진 창본에서 “이 조는 누구 조냐 허면 옛날 경기도 진의읍에 사시던 염계달 씨라고 하는 이가 이 곡을 만들었던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김연수 완창 사설집에서는 “옥을 어떻게 하는고 허니, 옛날 우리나라 팔명창八名唱 선생님 중에 염계달 명창 선생님이 계셨는데, 토끼란 놈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든지, 그 염계달 명창 선생님이 더듬으로 옥을 허는데, 이 더듬은 이미 고인이 되신 유성준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도저히 저희 선생님같이 할 수는 없지마는, 되든지 안 되든지 흉내라도 한 번 내보든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끼옥설〉 부분이 염계달의 더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염계달은 현재 전승되지 않은 중고제의 명창이었으므로 이들 사설을 통해 중고제 수궁가의 존재와 계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모든 창자가 스승의 업적을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부른다. 추천목으로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19세기 전반 팔명창 시대에 만들어져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토끼 육하는 대목〉은 유성준제에 속하는 김연수·임방울·박초월·정광수바디의 창본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 중에서 김연수 창본에서는 토끼가 약을 일러주고 노닐고, 박초월 창본에서는 약을 일러주고, 정광수 창본에서는 별주부의 탄식과 토끼 노닐이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수궁가 | 2005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한국민속성서사진

내용 <토끼 욕하는 대목>은 용왕의 약제로 쓰일 간을 욕지에 빼 놓고 왔다고 용왕을 속이고 욕지에 온 토끼가 별주부에게 욕하며 산 속으로 도망가는 부분이다. 수궁가의 결말 부분에 나타나며, 이분마다 줄거리가 약간씩 다르다. 이 대목에서 토끼는 병든 용왕 살리자고 성한 토끼인 자신이 죽을 수는 없다며, 용왕이 미련 하다고 비웃고 밀구멍이 세 개라며 빠져 나온 자신의 지락을 자화자찬한다.

김연수 창본에서 토끼는 별주부가 쫓아오지 못할 절벽으로 도망간 후 별주부를 끌어 올려 주겠다고 목을 매달아 놓고 위협하다 별주부가 충성심에 통곡 하자 불쌍히 여겨 이를 풀어준다. 그리고 나서 토분兔糞이 약이 될 것이라고 주는데, 별주부가 그래도 간을 달라며 붙잡자 “네기 붙고 발기를 갈 녀석……”이라며 비속어를 섞어 욕을 한다. 박동진 창본에서는 토끼가 상륙하자마자 욕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별주부를 매단다. 별주부는 스스로 빠져 나온 후, 토분을 발견하고 이를 싸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맺는다.

특징 및 의의 <토끼 욕하는 대목>에서 토끼는 맹목적인 충성심에 사로잡힌 별주부를 욕하면서, 동시에 평범한 백성에 해당하는 자신에게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용왕의 불민함을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맹목적인 충성심의 자라와 권위를 잃은 용왕을 동시에 비판한다는 점에서 수궁가의 주제 의식이 함축되어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대목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횡재를 노렸던 자신의 허영심을 스스로의 입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 의식의 한 축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문체적인 측면에서 이 대목에 접근한다면, 상층 지향적인 전아한 문체와 하층 취향의 비속한 문체가 공존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의 일반적인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빠뜨렸던 별주부와 용왕에 대한 분노가 비속한 욕설을 통해 분출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짐작은 말투를 통해 별주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사설집(최동현, 민속원, 2008), 동초제 수궁가의 유파적 특성과 전승 양상(최혜진, 공연문화연구24, 한국공연문화학회, 2012), 수궁가의 설화적 구성과 사설의 양상(인권환, 어문논집27, 안암어문학회, 1987), 수궁가의 형성과 창자의 전승계보(인권환, 배달말11, 배달말학회, 1986), 토끼전 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필자 류수열(柳洙烈)

토끼위기

판소리 <수궁가(水宮歌)>에서 수궁에서 빠져 나와 달아나던 토끼가 초동들이 쳐 놓은 그물(땃)에 걸려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살아나고, 다시 독수리의 발톱에 채여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피를 써서 살아나는 대목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안 수궁에서 다시 토끼를 잡을 방책을 찾는다는 내용을 서술한 소리 대목.

개관 <토끼위기>와 <토끼포획> 대목은 수궁가의 결말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토끼위기>는 ‘수궁위기’와 ‘육지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수궁위기’는 토끼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궁에서 용왕(수궁)과 벌이는 대결에서 비롯된 위기라면, ‘육지위기’는 수궁에서 살아나온 토끼가 육지에서 그물(땃)에 걸리거나 독수리의 발톱에 채여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가 살아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토끼위기>는 ‘육지위기’를 지칭한다. <토끼포획>은 토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수궁의 대신들이 토끼를 다시 잡아들일 방책을 논의하는 경우와 군사를 보내 육지에 쳐들어와 토끼를 잡으려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궁가 | 2005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내용 수궁가에서 토끼가 수궁에서 탈출한 후에 겪는 고난은 토끼의 거듭되는 위기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아니면 수궁에서 토끼를 다시 포획하자는 논의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 구조가 달라진다. 전자는 <토끼위기>, 후자는 <토끼포획>이라 한다.

<토끼위기>는 토끼가 그물에 걸리고, 독수리에 잡히는 등의 거듭되는 위기를 지략으로 극복하는 내용이다. <토끼위기>는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토끼 팔난(八難) 가운데 그물 위기, 독수리 위기를 선택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토끼가 그물을 벗어나기 위해 쉬파리에게 쉬를 슬게 하고 방귀를 끼는 것, 독수리에게 의사춤치를 주겠다고 유혹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지략담의 일종이다. 토끼의 <육지위기>는 토끼와 수궁과의 대결이 종료되고 토끼와 초동, 토끼와 독수리와의 새로운 대결로 전환되는 것이다. 수궁가에서 토끼와 용왕의 갈등이 주된 대립 관계라면 <토끼위기>는 작품의 주변적인 대립으로 작품의 구조적 통일성을 느슨하게 한다. <토끼위기>는 중모리장단·중중모리장단·아니리가 교체되면서 불리는데 이는 연행물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끼포획>은 토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궁에서 토끼를 다시 잡아들이려는 논의를 하는 내용이다. <토끼포획>은 수궁에서 전개되던 토끼와 용왕의 대결이 공간을 이동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토끼위기>보다는 구조적 통일성이 긴밀하여 연행물보다는 독서물적 지향을 나타낸다. 또한 창보다는 아니리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징 및 의의 수궁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으로 볼 때 <토끼위기>가 먼저 생성되고, <토끼포획>이 후대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이 대목들이 초기 수궁가가 간단한 창 위주의 <토끼타령>에서 다른 작품의 인기 있는 사설을 차용하거나 확장하여 판소리 수궁가를 구성하고, 다시 독서물로 전환해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토끼위기> 및 <토끼포획> 대목은 19세기 초·중엽 수궁가가 인기를 얻어 내용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연행물로의 확장, 독서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토끼전 결말구조의 두 양상과 그 성격(최광석, 선주논총3,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2000), 토끼전군 결말부의 변화양상과 의미(인권환, 정신문화연구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토끼전에서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의 공존과 그 의의(최광석, 판소리연구29, 판소리학회, 2010),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토끼 포획 계열 연구(최광석,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필자 이기형(李起衡)

토끼의 간

동물담으로 토끼가 피를 내어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인도의 본생설화本生說話, Jataka 중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근원설화로 하며 중국『육도집경六度集經』 같은 불경을 거쳐서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1 「열전」 김유신金庾信 상에 실린 것이다. 그 이후로 판소리〈수궁가〉와 판소리계 소설〈토끼전〉의 삼입설화가 되기도 하였으며 토끼의 지혜를 보여 주는 한 일화로 구비전승되기도 했다.

줄거리 용왕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여 신하 중에 자라를 보내 토끼를 데려오게 한다. 자라가 산으로 가 토끼를 만나서는 수궁에 가면 대단한 벼슬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꾀다. 토끼는 자라의 꾀에 넘어가 자라의 등에 업혀 수궁으로 간다. 수궁에 도착하자 용왕의 신하들이 토끼를 잡아 간을 꺼내려 한다.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자라가 처음부터 자신의 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더라면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두고 왔다고 대답한다. 용왕이 그 말을 믿지 않자 자신의 밑을 보여 주면서 “하나는 오줌 싸는 구멍, 하나는 똥 싸는 구멍, 하나는 간을 뺏다 들었다 하는 구멍”이라고 대답한다. 용왕은 구멍이 셋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의 말을 믿고 간을 가져오라며 자라와 함께 육지로 돌려보낸다. 자라 등에 업혀 육지에 돌아온 토끼는 자라에게 간을 넣었다 뺏다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자신을 속인 자라에게 욕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간다.

변이 관련 설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예는 『삼국사기』의 〈구토지설龜兔之說〉 혹은 〈구토설화龜兔說話〉인데 후대의 설화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용왕이 아닌 용왕의 딸이 심장병에 걸린다. 둘째, 거북이가 토끼를 속이기 위해 하는 말이 수궁에는 자원이 풍부한데다가 매나 독수리와 같은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거북이가 용궁에 도착하기 전에 토끼를 데려가는 이유를 미리 말해 버려서 토끼가 간을 두고 왔으니 돌아가자고 한다. 특히 용왕 자신의 건강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고 결국 토끼와 용왕이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구토지설〉에서는 거북이와 토끼의 대결이라 상하 관계가 없으나 후대 설화에서는 적대자가 용왕이 되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 된다. 또한 〈구토지설〉은 거북이가 토끼를 설득하는 내용이 동물로서 토끼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물우화의 성격이 강하나 자라가 벼슬을 주겠다고 토끼를

설득하는 후대의 판소리나 설화는 오히려 봉건사회를 상징하는 등장인물 관계가 설정된다. 판소리인 〈수궁가〉나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과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설화를 비교하면 줄거리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무척 정교하고 등장인물 묘사나 그들의 대화가 매우 상세히 서술된다. 반면에 구전설화는 삽화적이며 보다 간략한 이야기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장르 차이로 볼 수 있다. 판소리에서는 토끼의 간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그물에 걸렸을 때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쉬파리에게 자신의 몸에 알을 낳아 달라고 해 죽은 척하여 살아남는 등 흥미를 돋우기 위한 삽화插話가 추가된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민담에서도 이 삽화가 토끼의 간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판소리와 소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상서로운 동물 그림 병풍 | 온양민속박물관

분석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는 대체로 힘은 없지만 피가 많아서 호랑이나 인간 같은 강자들의 위협을 기지로 이기고 위기를 모면한다. 〈토끼의 간〉 역시 권력이 있는 강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피로 위기를 모면하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용왕, 자라, 토끼와 같은 동물이나 상상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봉건사회의 인물에 해당한다. 즉, 용왕은 통치자, 자라는 신하, 토끼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에서 반영되는 사회상은 국왕이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 신하가 백성을 돕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통치자가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신하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 착취에 직접 나서서 역기능 사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봉건체제를 제 기능을 못 하는 사회로 인식한 데에서 유래하며 그 체제를 비판하고 붕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토끼의 간>은 인도의 설화가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설화인데, 근원 설화와 차이점이 있다. 인도 설화는 악어 부부가 원숭이의 심장을 노리는 것이고, 중국 설화는 자라 부부나 규룡虯龍 부부가 원숭이의 간 혹은 심장을 노린다. 이처럼 등장인물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간이나 심장을 노리는 이유도 부인의 필요 때문에 남편이 나서서 표적의 장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들 설화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토끼의 간>은 부부가 아닌 용왕과 자라라는 임금과 신하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에서 한 사회의 문제로 이야기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화는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이것이 봉건사회에 제한되었다면 지금까지 구전설화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봉건 군주나 신하가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강자의 변덕에 따라 약자가 이용당하거나 휘둘리는 사회인연 변함이 없다. 약자가 강자와 강자의 앞잡이를 바보로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를 유발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끼가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인물이라 <토끼의 간>은 사회체제에 맞서서 이기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토끼전 전집(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298: 7-4, 167.
참고문헌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설,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트릭스터 토끼 설화군의 계통(김기동, 한국사상문화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나수호(那秀昊)

토끼의 보시행

토끼가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보시하는 내용의 설화.

내용 부처님의 전생을 다룬 『본생경本生經』 등에 전하는 설화로, 토끼가 자신의 몸을 공양으로 보시하는 이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설화는 유사한 전개 속에서 경전에 따라 조금씩 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공통점은 보시하는 토끼가 부처님의 전신이라는 사실이다.

『본생경』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숲속에서 함께 수행하며 살던 여우·원숭이·토끼가 자신들의 공부를 겨루어 보고자 제석천帝釋天을 찾아갔다. 제석천이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이 몹시 시장하다고 하자 여우는 즉시 잉어를 물어오고, 원숭이는 나무 열매를 따왔다. 하지만 구할 것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온 토끼

는 제석천 앞에 불을 피워 놓고 불 속으로 몸을 던지며 자신을 공양으로 올렸다. 토끼의 진심이 감동한 제석천은 그 보시행布施行을 널리 알리고자 토끼를 달에 옮겨놓았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제석천이 먼저 세 동물의 보살행을 알아보고자 노인(로)으로 변하여 이들에게 음식을 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후대에 형성된 『잡보장경雜寶藏經』 『찬집백연경撰集百緣經』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등에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전개된다. 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림과 기갈로 고통받던 무렵, 숲속의 한 수행자를 위해 토끼가 공양할 음식을 드리겠노라 약속한다. 이어 토끼는 불을 피운 뒤 자신의 고기가 익거든 먹으라고 하며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늘에서 이를 내려다본 제석천이 수행자의 득도를 위한 토끼의 희생에 곧 비를 내리고 토끼의 뼈를 거두어 탑을 세웠으며, 깊이 발심한 수행자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오신통五神通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보살본연경』의 토끼는 지혜를 성취하여 무리를 모아놓고 설법하는 토끼 왕으로 등장하며, 수행자 또한 멀리서 토끼 왕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행자 또한 죽은 토끼를 안고 자신도 불구덩이로 뛰어들며 내세에 토끼 왕의 제자로 태어나기를 발원하기에 이른다. 보시행의 대상이 제석천에서 수행자로 바뀌고, 토끼의 법력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

아울러 토끼를 달에 옮겨놓은 『본생경』의 내용과 함께 인도에서는 ‘토끼를 품었다’는 뜻으로 달을 회토懷兔라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달에 사는 토끼’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유하는 관념으로, 토끼가 달에서 살게 된 유래 또한 다양한 유형의 민담이 전한다. 중국의 『산해경山海經』 『회남자淮南子』 『초사楚辭』 등에 따르면, 서왕모의 불사약을 몰래 먹고 승천하려다 실패한 항아嫫娥는 달에 머물게 되고, 두꺼비 또는 토끼로 변신하여 불사약을 만들고자 약방아를 찼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끼가 달에서 산다는 속신이 민간과 불교에 널리 공유되며 다양한 문양으로도 전한다. 특히 승려의 가사袈裟에 부착하는 일월광첩日月光貼에 달의 상징으로 토끼를 표현하는데, 이때의 토끼는 대개 방아를 찼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달 속의 토끼는 부처님 전생이 담긴 『본생경』의 보시행 설화, 불사약과 관련된 중국의 설화가 결합한 산물이라 하겠다.

특징 및 의의 토끼의 보시행 설화는 부처님의 전생을 다룬 본생담 특유의 내용이 잘 녹아들어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존재가 되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수행과 선업善業 공덕을 쌓은 존재로, 전생에 인간은 물론 천신·동물·조류·물고기·곤충 등으로 태어나면서 어떤 몸을 받았을 때도 갖가지 선행을 닦았다. 이에

생태계의 가장 미약한 초식동물 토끼가 보여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보시는 이윽고 부처를 이룬 선업선과(善業善果)의 원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나더라도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과 함께, 현생에 어떤 몸을 받았더라도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그러한 존재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설화이다.

참고문헌 菩薩本緣經, 山海經, 雜寶藏經, 본생경(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8),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허균, 들베개, 2000), 흥가사의 형태와 부착물에 대한 고찰(심상현, 한국의 원형을 찾아서-불교의례, 열화당, 2015).
필자 구미래(具美來)

토끼의 재판

은혜 잊은 호랑이를 꾀 많은 재판으로 다시 함정에 빠뜨린 토끼에 대한 설화.

역사 꾀 많고 지혜로운 토끼의 형상은 일찍이 인도의 불경 『본생경(本生經)』에 실린 <용원설화(龍猿說話)의 원숭이와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신 조에 나오는 <구토지설(구토지설)의 토끼, 판소리 <수궁가>와 고전소설 <토끼전>의 토끼와 닮았다.

줄거리 옛날 어떤 사람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난다. 호랑이는 그를 보자 살려만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한다. 그 사람은 함정의 문을 열어 호랑이를 구해주지만, 함정에서 나온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억울하니 재판을 해 보자고 호랑이에게 제안한다. 호랑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 줄 곳만 찾아간다. 먼저 바위에게 가서 부탁하는데, 평소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바위는 호랑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다음으로 토끼한테 가서 재판을 부탁하자 토끼는 호랑이가 빠졌던 함정으로 가 보자고 한다. 함정에 도착하자 토끼가 호랑이에게 함정에 어떻게 빠졌는지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한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따라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본 토끼는 사람에게 함정의 문을 닫게 한다. 이렇게 토끼는 사람을 위해 현명한 재판을 해 주고는 떠난다.

변이 <토끼의 재판>은 각 인물에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여 각편에 따른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람이 사냥꾼이나 중으로 바뀌는데, 그 역할에도 차이가 없다. 보조 재판관 역시 바위, 나무, 가재로 바뀌며 등장하지만, 사람에게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역할은 같다.



영모도 | 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이 이야기는 자기중심성에 빠진 호랑이의 비극적 결말과 토끼의 탈중심화된 행동을 보여 주어 성장기 아동들에게 탈중심화를 자극할 만한 문학적 도구로 이해된다. 한편,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착취자로, 약하지만 지혜로운 토끼를 민중으로 보아 착취자에 대한 민중의 승리로도 해석한다.

특징 및 의의 설화에서 토끼는 약자를 대변하는 지혜로운 인물이기도 하지만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토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고, 후자는 원초적이고 유년기적인 심성을 반영한 트릭스터적인 토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토끼는 약자이지만, 부당한 상황에서 강자에게 지혜로써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자이다. 또한, 아동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꽤 많은 토끼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아동에게 발달론적 자극을 제공하여 탈중심화를 이끄는 문학적·교육적 상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2, 706; 7-16, 359.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열,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화문학개설(장덕순, 이우, 1975), 한국의 호랑이 민담 연구(황정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토끼전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이자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소설.

개관 ‘구토지설’이라는 짧은 이야기에서 출발한 『토끼전』은 다양한 설화를 수용하면서 부연·변용·창작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 판소리 〈수궁가水宮歌〉로 발전하였고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으로 성립·확장되었다. 현재까지 전하는 『토끼전』은 판각본, 필자본(국문, 국한문혼용, 한문), 활자본, 창본을 총망라하여 120여 종에 이른다. 경화수궁전瓊華水宮傳·별주부전龍主簿傳·별토기龜兔歌·별토문답龜兔問答·불로초不老草·수궁가·수궁록水宮錄·수륙문답水陸問答·옥토전玉兔傳·중산망월전中山望月傳·토공전兔公傳·토끼타령·토별가龜兔歌·토별산수록龜兔山水錄·토생전兔生傳·토선생전兔先生傳·토의간·토처사전兔處士傳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 토끼전은 용왕과 별주부 그리고 토끼가 펼치는 속고 속이는 이야기로, 조선 후기의 모순된 현실과 당대인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우연적으로



토끼전 | 가로20 세로30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그러진 작품이다. ‘병사설’과 ‘용왕탄식’에서는 용왕의 무능과 부패가, 병든 용왕에 대한 인물들의 냉소적인 태도에서는 국가나 정치 현실에 대한 당대인의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며, ‘어족회의’와 ‘모족회의’에서는 각각 관료 사회와 향촌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조선 후기 부패한 정치와 무너져가는 봉건질서를 신랄하게 드러낸다.

토끼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용왕은 지배와 종속 관계에 기반한 차별적 인간관을 지닌 봉건적 인물이다. 별주부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여타 수궁 인물들과는 달리 목숨을 건 육지행을 자처함으로써 용왕으로 표상되는 봉건체제를 신봉하고 이를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이념을 현시하고 있으며 이들과 대립하는 토끼는 용왕의 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롱함으로써 서민의 식의 각성을 보여준다.

『토끼전』 인물들의 대립은 ‘수궁—육지—수궁—육지’로 반복되는 공간의 변화와 맞물려 ‘위기—극복’이 반복되는 서사구조를 보이는데, 여기에 ‘위기 극복 지략담’ ‘유혹 지략담’ ‘쟁쟁 지략담’과 같은 무수한 지략담이 대립 관계의 반전을 거듭하며 『토끼전』 서사의 긴장과 극적 효과를 점층적으로 고양시킨다.

『토끼전』은 120여 종에 이르는 이본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본 간의 편차 또한 크다. 이본에 따라 토끼는 경박하게, 별주부의 충성은 어리석게 풍자되기도 하면서 상반된 주제의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특히 결말 부분은 매우 다양하여 용왕이나 별주부가 죽는 이본도 있고 사는 이본도 있으며 심지어 토끼가 죽는 이본도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도 다양하여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달아나는 데서 작품이 끝나기도 하지만 별주부가 자결을 하는 이본, 토끼가 별주부에게 토끼똥을 약으로 주는 이본, 남

해관음 등의 신령스러운 존재가 나타나 선약을 주는 이본, 용왕의 아들이 육지 정벌을 나서기도 하는 이본 등 다양한 결말부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 작품이 주제나 결말부에 대한 일정한 합의 없이 다양·다기한 시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라는 이행기적 상황과 다양한 관점들이 혼란을 겪고 있던 시대적 특성이 우의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판소리적 특징에서 비롯된 양반문학과 서민문학의 혼용과 향유층의 다양한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구토지설’이라는 짧은 지략담에서 출발한 토끼전은 쟁쟁 설화, 교토탈화 설화 등 조선 후기 우화와 지략담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설화가 삽입되어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자문학이다. 판소리 <수궁가>와 함께 토끼전이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예리한 풍자와 비판이 가능하였던 것도 우화라는 특징 때문이다. 『토끼전』은 일제강점기 판소리가 전래동화로 개작될 때 『심청전』과 함께 제일 먼저 전래동화화하였으며, 설화·고전소설·판소리·마당극·창무극과 어린이 문학 등 우리 민족의 살아 있는 고전으로 현재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향유되고 있다.

참고문헌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민속원, 2001), 조선 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정출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정충권, 새국어교육7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전집 1~6(김진영 외, 박이정, 1997~2003).
필자 김동건(金東建)

토끼타령

<수궁가>의 <토끼화상> 대목을 노래하는 경기잡가.

개관

화공¹⁾을 불러 토끼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장면을 노래한 곡으로 경기의 기타잡가나 잡잡가로 분류된다. 용왕의 병에 토끼 간이 특효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자라가 토끼를 잡으러 육지에 나가겠다고 자처하였으나 토끼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자라를 위해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다. 여러 화공이 그리는 토끼의 이목구비·발·털·배·꼬리의 생김새를 온갖 형용사를 덧붙여 가며 익살스럽고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는 판소리 <수궁가(水宮歌)>로 널리 알려졌지만 경기 소리꾼들에 의해 경기식의 잡가로 노래한 것이 <토끼타령>이다.

<토끼타령>의 장단은 굿거리장단(12/8, 4/1.)이지만, 맨 마지막 ‘네가 가지고 가거라’의 종지 부분은 민요 <노랫가락> 선율로 노래하기 때문에 8(3+2+3)+5(3+2)소박 구조의 박자가 사용된다. 선율은 경토리(솔—라—도—레—미)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경토리와 달리 ‘솔’보다 더 아래의 ‘미’ 음을 자주 사용한다. 대체로 2장단이나 3장단 단위의 악구를 반복하여 노래하며, 각 악구의 종지는 ‘솔’로 하되 마지막 <노랫가락> 종지는 ‘도’로 하여 확실한 차이를 주고 있다. 박자와 선율이 다른 <노랫가락>을 종지에만 활용하는 방식은 경기 잡잡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

판소리 <수궁가>의 <토끼화상> 대목과 내용이 같지만, 실제 가사의 표현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기잡가 <토끼화상>에는 여러 환쟁이가 등장하지만, 판소리에는 해당 부분이 없다. 또 토끼를 그리는 부분에서 경기잡가에는 토끼의 배와 꼬리를 그리고, 가창자에 따라 등을 그리기도 하면서 판소리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

경기잡가 <토끼화상>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토끼 화상²⁾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릴 적에 어떤 화공³⁾ 불렀소. 이적선李適仙 봉황대鳳凰臺 봉⁴⁾ 그리는 환쟁이, 난국천자鸞國天子 능허대凌壙臺에 일월日月 그리던 환쟁이, 연소왕燕昭王의 황금대黃金臺에 면면 그리던 환쟁이, 갓은 화공이 다 모여서 토끼 화상을 그릴 적에 동정유리洞庭琉璃 청흥연靑紅硯 금수추파錦水秋波 거북 연적硯滴 오징어 불러 먹 갈아 양두화필兩頭畫筆 덤석 풀어 백릉설화간지상白綾雪花簡紙上에 이리저리 그릴 제, 천하명산승지간天下名山勝地間에 경개景概보던 눈[目] 그리고, 앵무공작鸚鵡孔雀 지저귓 제 소리 들던 귀[耳] 그리고, 봉래방장운무중蓬萊方丈雲霧中에 내 잘 말던 코[鼻] 그리고, 난초지초蘭草芝草 온갖 향초香草 따 먹던 입[口]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萬和方暢花林中에 펄펄 뛰는 발[足] 그리고, 관등화류 입고대에 사면 보살 장안사 아가리 병실 잉어등에 허저 걸린 등 그리고, 대한엄동설한풍大寒嚴冬雪寒風에 방풍防風하던 털 그리고, 만경창파지수중萬頃滄波池水中에 등실 뒀다 배[腹] 그리고, 신농씨상백초神農氏嘗百草에 이슬 주던 꼬리[尾] 그려, 우편右便은 청산靑山 좌편左便은 녹수綠水 녹수청산綠水靑山 깊은 곳 계수桂樹나무 그늘 속에 어린 새끼 품에 품고 앙금조춤 펄펄 뛰어 두 귀는 쫓곳 두 눈은 도리 허리는 잘록 꼬지[尾]는 몽록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어 강총강총 뛰어가는 아미산월반륜토峨嵋山月半輪兔⁵⁾ 들 이에서 더 할소냐. 아나 옛다 별주부鬚主簿야 네가 가지고 가거라.

특징 및 의의 <토끼타령>은 판소리 <수궁가>의 내용을 경기화한 곡이지만 마찬가지로 판소리를 수용한 <소춘향가> <십장가> <집장가> <형장가> <제비가> <적벽가> 등처럼 경기 긴잡가에는 들지 못하였다. <토끼타령>은 <변강쇠타령>과 함께 기타 잡가 또는 잡잡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궁거리장단의 <창부타령> 계열 민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기 잡잡가의 음악적 연구(노경미,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한국가창대계(이창배, 흥인문화사, 1976), 김옥심제 남해속 잡잡가(남해속, 악당이반, 2018), 잊힌소리 경기잡잡가(노경미, RIAK, 2019).
필자 김혜정(金惠貞)

토끼화상

<수궁가(水宮歌)> 중 토끼를 잡으러 육지에 나가는 자라에게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는 대목.

개관 <토끼화상>은 일명 <토끼타령>이라고도 하는데, 토끼 잡으러 육지에 가면서 토끼 형용을 모른다는 별주부의 요구에 따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는 대목이다. 가야금병창으로도 불리는 이 대목은 단가로 많이 불러 잡가 집에도 많이 실려 있고, 창본 수궁가에도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빠짐없이 들어 있다.

<토끼화상>은 판소리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8세기 중엽에 그 첫 모습이 나타났다가 팔명창(八名唱)이 활약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19세기 말에는 <토끼화상>이 광대의 더듬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부분창으로 자주 불린 끝에 판소리와 분리되어 잡가화되기도 했다.

<토끼화상>은 김찬엽과 이선유의 더듬이 전해지고 있는데, 김찬엽은 스승 박만제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과거 수궁가의 더듬을 가지고 있던 창자는 송홍록, 염계달, 신만엽, 송우룡, 김거복, 김수영, 백경순, 김찬엽, 신학준, 유성준, 이선유 등이다. 이 중 <토끼화상>의 전승은 ‘송홍록→박만순→김찬엽→신명학, 전도성’ ‘송만갑과 송홍록→송우룡→이선유’, 유성준의 두 갈래로 이어져 왔다.

내용 <토끼화상>은 소설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본에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단일하지가 않다. <토끼화상>은 유형에 따라 크게 기준형과 변이형으로 나누어진다. 기준형은 모든 이본에 동일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본형 또는 중심형이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전체 이본의 약 70%에

나타난다. 주로 판소리 창본에 나타나는데, 여러 유형 중 내용이 가장 정제되어 있고, 표현과 묘사도 잘 다듬어져 있다. <토끼화상>을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화가의 초빙, 지필량(紙筆量)과 벼루 등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끼의 모양을 그리는 부분은 토끼의 눈·코·귀·발·털·꼬리 등을 차례로 그리고 난 후 토끼의 절묘한 형용과 배경 설명 및 토끼화상을 별주부에게 주면서 끝을 맺는다.

변이형은 다시 축약형, 부연형, 특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축약형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기본형 전체를 고루 축약한 신재효본 수궁가와, 토끼화상을 그리기 이전의 준비 과정 묘사에서 그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그린 형상과 배경 묘사가 나타나는 경우다. 부연형은 여러 화공을 불러 문방사우와 각종 채색 물감을 준비하는 과정을 장황하게 서술한 다음, 귀·눈·코·입·발의 순서에 따라 그리는 과정을 서술하는데, 반복적인 나열로 인해 길고 장황하다. 특이형에는 여러 화공들이 나와서 토끼의 눈·귀·입·코·털·발의 순서로 각각 분담하여 그리는 경우와 토끼화상만이 아니라 호랑이화상까지 그리는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토끼 | 김유신묘 심이지 호석 탁본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토끼화상>은 기준형을 바탕으로 창본 사설의 소설화 단계에서 축약형과 부연형이 이루어졌으며, 토끼화상과 호랑이화상이 함께 나오는 특이형이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화상은 뒤에 전개되는 별주부의 호난 극복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화 과정에서 작품의 유기적 구성을 위하여 첨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창본을 중심으로 한 기준형은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동편제의 명창 김찬엽의 더듬으로 소개되어 있는 <토끼화상>과 유사하다. 기준형을 중심으로 보면, 토끼화상을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 토끼의 형상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토끼의 절묘한 형용과 배경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어휘 변화나 용어의 출입, 그리고 표현 순서만 뒤바뀌는 정도의 차이만 드러날 뿐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세부적인 항목을 나열하면서 수사적 표현을 첨가하는 식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판소리적 진술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주본 수궁가(최동현·최혜진, 민속원, 2005), 수궁가의 설화적 구성과 사설의 양상(인권환, 어문논집27, 인암어문학회, 1987),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류수열(柳洙烈)

토동

兔洞

주변의 지형 및 자연지물이 토끼처럼 생겨거나
예로부터 토끼가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의 이름.

개관 토동은 토끼골·토골·퇴골·토끼울·토실·토곡이라고도 하는 지명이다. 토동 관련 지명은 기본적으로 토끼를 닮은 자연지세·자연지형과 관련되거나 토끼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생겨난 지명이다. 특히 오늘날의 북한 지역인 평안도·황해도·양강도·강원도·평양시에 밀집되어 나타나며, 남한 지역에서는 경기도·충청도·경상도·부산광역시에서 일부 토동 관련 지명이 확인된다. 이 중 토동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지역은 북한 지역의 자연지세·자연지형이 직접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강원도이다.

토동은 원래 토끼골·토골·퇴골·토끼울 등 순우리말 지명이었던 것이 한자 전래와 함께 병행된 중앙행정 지배체제의 정비 및 일제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마을 지명이 한자어로 바뀌게 되면서 토동 혹은 토실·토곡 등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골이나 울·동·실·곡·곡이 모두 마을을 일컫는 순우리말 혹은 한자어라는 점에서 토끼골·토골·토끼울·토실·토곡은 토동과 동일 지명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토끼골·토골·퇴골·토끼울·토실·토곡은 같은 마을 지명을 일컫는 이칭으로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

토동은 평양시 상원군 식송리·장리,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에서 보이는 마을 이름으로 토끼울이라고도 한다. 토동의 이칭인 토끼실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귀면 팔성3리 마을 이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토실兔室·토곡兔谷이라 불리기도 한다. 토동의 또 다른 이칭인 토곡과 토끼울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을 비롯하여 부산시 동래구 연산9동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에서 각각 발견된다. 토동의 이칭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끼골·토골·퇴골·토끼장골·토끼바위골·토끼재골·토끼산골·노토골·깡충골 등은 평양시 순안구역 구서리 임촌, 평양시 순안구역 안흥리, 평양시 상원군 은구리, 평양시 용성구역 어은동, 평안북도 구성시 남흥리·운양동·중방리, 평북 대관군 신운리, 평북 동림군 마성리, 평북 동창군 신안리, 평북 벽동군 송련리·용평리, 평북 삭주군 내옥리, 평북 선천군 수청리, 평북 운산군 마상리·이답리·조양리, 평북 천마군 일녕리, 평북 태천군 송원리, 평북 피현군 성동리·화삼리, 평북 향산군 운봉리, 평안남도 개천시 강철동·용진동, 평남 대흥군 대흥읍, 평남 덕천시 운흥리, 평남 맹산군 용암리, 평남 북창군 관하노동자구·수옥리, 평남 성천군 성천읍, 평남 안주시 용흥리, 평남 영원군 승통리, 평남 온천군 보림노동자구, 평남 회창군 신성리·정

산리, 황해북도 개풍군 신흥리·영정리, 황북 곡산군 용암리, 황북 봉산군 관정리, 황북 신계군 사정리, 황북 은파군 전산리, 황북 장풍군 고읍리, 황북 토산군 송천리, 황해남도 강령군 평화리, 황남 배천군 화양리, 황남 장연군 박산리, 양강도 김정숙군 강하리·도룡덕리·황철리, 양강도 김형직군 남사노동자구, 강원도 고산군 연호리, 강원도 김화군 초서리, 강원도 세포군 장촌노동자구, 강원도 안변군 모풍리, 강원도 이천군 신흥리 신흥본동, 강원도 창도군 성도리·장현리, 강원도 통천군 화통리, 강원도 회양군 금철리 등에서 보인다.

내용 토동 관련 유래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마을 주변 산세·지세·지형·지물 등이 토끼 혹은 토끼우리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서 토동 관련 지명이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옛날부터 실제 토끼가 많이 서식하였고, 토끼장을 치거나 토끼우리가 있었다는 데서 토동 관련 지명이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토동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 성리학자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의 생가지이자 뇌룡정雷龍亭이 위치한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에도 존재하는 지명이다. 조식 외가의 세거지였던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토동은 명당지로, 조식의 탄생이 토동의 풍수명당 길지로부터 기원한다는 인식이 당대 이후로 지속되고 있음이 외토리 토동에 위치한 조식의 생가지 표지판에 적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남명 조식의 문화유산으로서 뇌룡정 연구(박용국, 남명학20, 남명학연구원, 2015), 남명선생편년(최해갑, 논문집16-1, 진주교육대학교, 1978), 조선향토대백과(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2005), 한국지명총람1~20(한글학회, 1966~1986).

필자 권도경(權都京)

토별문답

兔龜問答

〈수궁가水宮歌〉중 별주부가 토끼를 수궁水宮으로 유인하는 내용의 대목.

내용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의하면, 〈토별문답兔龜問答〉 대목은 유성준劉成俊 명창의 더늠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창극사』에 실려 있는 〈토별문답〉은 현재 불리는 유성준제 창본과 다르며 신명균본과 신재효 개작본이 교묘하게 조합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선창극사』의 〈토별문답〉을 유성준 더늠의 사실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유성준제 수궁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광수 창본은 ‘별주부와 토끼의 만남 장면(중중모리장단)—토끼의 세상 자랑 장면(중모리장단)—별주부의 팔난 세계 장면(늦은자진모리장단)—별주부의 수궁 자랑 장면(진양조장단)’으로 짜여 있다. ‘팔난 세계’만 창본에 따라 다소 장단 변화를 보일 뿐, 여타 창본들도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토끼를 찾으러 육지에 간 별주부는 모족회의, 호랑이 만남 등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토끼를 만난다. 별주부는 먼저 토끼와 통성명을 하는데, 격에 맞지 않은 문자,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자 등을 써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언변 대결을 통해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대목은 토끼의 허세와 허위의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토끼는 자신의 궁핍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문자 겨룸’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토끼의 허세와 허위의식은 세상 자랑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내 호강이 어떠한가.”라고 끝을 맺는 토끼의 세상 자랑은 피지배 계층인 토끼의 실제 삶은 아니며, 자신의 계급에 반하는 허위의식의 소산이다.

별주부는 “토 서방의 얼굴을 보니 단정한 선비라.”라고 하면서 토끼를 추어주는 듯하지만 ‘팔난 세계’를 통해 서민적 삶의 고단함 폭로하면서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뉘 이르며 무삼 정으로 유산 무삼 정으로 완월하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부렁이를 뉘 앞에서 내어 씹나.”라며 실제로는 조롱을 하고 있다. 토끼의 약점을 간파한 별주부는 수궁의 풍경 자랑과 함께 “원컨대 토 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 저 풍골에 좋은 벼슬을 헐 것이요 미인 미색을 밤낮이로 다리고 만세동락을 헐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를 갑세.”라고 하면서 토끼의 속물스럽고 허황된 탐욕을 부추겨 토끼로 하여금 수궁행을 결심하도록 만든다.

특징 및 의의

토끼와 별주부의 문답은 별주부가 토끼를 유혹하는 부분으로서 유혹과 극복이라고 하는 수궁가의 큰 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신재효 개작본의 경우에는 ‘별주부의 수궁 자랑’이 없는 대신 ‘수궁 인물에 대한 문답’, ‘타국인 천대에 대한 문답’, ‘친구 하직에 대한 문답’, ‘아내 하직에 대한 문답’ 등 별주부의 토끼 유혹 과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단계적 유혹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우문답’ 자체가 주는 흥미적 요소와 함께 유혹의 과정에서 긴장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위기 극복 부분에서 토끼의 지략이 발휘되고 토끼가 긍정적으로 서술된다면, 위기 부분에 해당하는 <토별문답>에서는 토끼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토끼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별주부의 팔난 세계’



토끼 | 수궁가 | 2005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에서 드러나듯이 토끼는 어느 계절, 어느 곳에서든지 고난과 위험에 처해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토끼는 허세와 자기기만에 빠진 어리석은 존재로 문자와 고사를 늘어놓으며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 자랑에서는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한다. 요컨대 <토별문답>은 우문답을 통하여 해학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팔난 세계를 통해서 고난에 찬 민중적 삶을 고발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허위의식을 가지고 기존 관념에 의지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토끼로 대변되는 자들을 풍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참고문헌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편, 민속원, 2001),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필자 김동건(金東建)

토사호비

兔死狐悲

〈수궁가(水宮歌)〉중 별주부의 꿈에 빠져 수궁에 가려는 토끼를 여우가 만류하자, 별주부가 여우와 토끼를 이간하여 결국 토끼를 데리고 수궁으로 간다는 내용의 대목.

내용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의하면, 〈토사호비(兔死狐悲)〉는 김수영(金壽永) 명창의 더늠이다. 김수영은 진북 흥덕 사람으로 현종·철종·고종 삼대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다. 중모리를 잘하였다고 하며 서편제에 속한다. 그의 사승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의 아들인 김찬업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전을 신재효(申在孝)가 윤색한 것이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김수영의 더늠은 신재효 개작본의 사실과 동일하다.

〈토사호비〉는 ‘여우가 토끼의 수궁행을 만류하는 장면’ ‘토끼가 변심하여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장면’ ‘별주부가 여우와 토끼의 사이를 이간하여 결국 함께 수궁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우가 토끼의 수궁행을 만류하는 장면’만 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장면은 아니리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창본에서는 여우가 토끼의 수궁행을 만류하는데 반해, 이선유 창본에는 수궁행을 방해하는 인물이 너구리로 되어 있다. 수궁가(『토끼전』) 판각본이나 필사본이 이선유 창본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선유 창본의 모습이 고행태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선유 창본은 형가·초희왕의 고사를 들며 토끼의 수궁행을 만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재효 개작본은 여우가 타국에 벼슬하러 갔다가 죽은 이사·오기의 고사를 들며 토끼의 수궁행을 만류한다. 정광수 창본은 방해자는 여우로 되어 있으나 고사를 들며 만류하는 내용은 이선유 창본과 같고, 이선유 창본에 비해 사실은 상당히 확장되어 있다. 박초월 창본, 정권진 창본, 박동진 창본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김연수 창본은 정광수 창본과 신재효 개작본의 사실이 결합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임방울 창본은 타국에 가 죽은 사람들의 고사를 들며 만류하는 사실이 없다. 이 장면이 가장 확장되어 있는 창본은 박봉술 창본이다. 박봉술 창본은 형가·초희왕의 고사 외에 굴원·강의·아황·여영 등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상주·진시황·한신 등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고사를 열거하며, 토끼의 수궁행을 만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선유 창본과 정권진 창본만 중중모리장단이고, 나머지 창본들은 모두 중모리장단이다.

특징 및 의의 〈토사호비〉는 별주부의 언변에 속아 수궁행을 결심한 토끼를 사이에 두고 별주부와 여우가 다시 언변 대결을 펼치는 부분이다. 토끼는 이미 별주부의 유혹에

넘어가 수궁행을 결심한 상태이므로, 여우의 등장과 유혹은 서사 진행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별주부와 여우의 언변의 전개 양상에 따라 번덕을 부리는 토끼 때문에 별주부의 토끼 유혹 과정은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토끼의 변심과 별주부의 유혹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별주부의 지략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이미 작품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는 독자들은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에 가느냐 마느냐보다는 여우의 등장과 함께 별주부와 토끼의 지략 다툼을 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즐기게 되는 것이다.

수궁가에는 이처럼 등장인물들이 언변 대결을 벌이는 장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우화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언변의 이면에는 문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위상도 상승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궁가의 언변에 활용되는 고사나 고금사의 지식 또한 당시 문화적 상층을 시도한 중간층 부류의 계층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편, 민속원, 2001), 토끼전·수궁가 연구(인권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토끼전 언변 대결의 양상과 의미(정충권, 판소리연구20, 판소리학회, 2005),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필자 김동건(金東建)

토의간

이해조가 판소리 〈수궁가〉를 가다듬고 각색하여 1912년 6월 9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28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작품.

개관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李海朝)(1869~1927)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적벽가(赤壁歌)〉를 제외한 네 작품을 산정(刪正)하고 각색하여 일간지 『매일신보(每日新報)』에 연재하였다. 〈춘향가(春香歌)〉를 각색한 「옥중화(獄中花)」, 〈심청가(沈淸歌)〉를 각색한 「강상련(江上蓮)」, 〈홍부기(興夫歌)〉를 각색한 「연의각(燕의脚)」, 그리고 〈수궁가(水宮歌)〉를 각색한 「토의간(兔의肝)」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줄거리를 골격으로 하는 판소리계 우화 소설 〈토끼전〉의 여러 이본 가운데 하나이다.

줄거리 남해를 관장하는 해신 광리왕(廣利王)이 궁전을 새로 짓고서 동·서·북 삼해 용왕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잔치가 끝난 후 광리왕은 갑자기

줄거리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산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무언가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야, 이놈아! 호랑아! 죽은 호랑이 가죽 300장을 벗겨서 바치라고 했는데, 네 이놈! 산 호랑이를 바치러 왔느냐!”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식겁해서 산 아래로 도망쳐서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딸그락 딸그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니 토끼가 가재를 잡아먹으려고 도랑에서 돌맹이를 뒤집고 있었다. 호랑이가 토끼에게 뭐하냐고 물으니 깜짝 놀란 토끼는 “아이고! 아주버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라며 아부를 떨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내가 배가 고파서 뭘 잡아먹으려고 산 위로 올라갔는데 절벽 위에 빨간 놈이 앉아서 호통을 치기에 도망왔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토끼가 자신에 찬 소리로 “아, 아주버님은 끈달지 그놈을 겁냅니까! 그럼 나하고 둘이 올라가서 잡아먹읍시다”라고 말하였다. 혼쫓이 난 터라 호랑이가 안 가려고 떼를 쓰자 토끼는 “그러면 아주버님 꼬리와 내 꼬리를 함께 흘쳐매고 나란히 올라갑시다”라고 하였고, 그제야 호랑이가 그러자고 해서 토끼는 호랑이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갔다. 산 위에 다다르자 또다시 “야, 이놈아! 호랑아! 죽은 호랑이 가죽 300장을 벗겨서 바치라 하였는데, 네 이놈! 산 호랑이를 바치러 왔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토끼를 매달고 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토끼의 두 앞발이 청미래 덩굴 가시에 걸렸다. 호랑이는 도망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는데 그러다가 그만 토끼 꼬리가 흘랑 빠져서 호랑이 꼬리에 붙었다. 그래서 호랑이는 꼬리가 길어져서 땅에 끌고 다니고, 토끼는 꼬리가 없어졌다.

변이 이 설화는 산 위에서 호통치는 끈달지의 존재에 놀라 도망 온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 사연을 말하자, 그 존재를 눈치챈 토끼가 호랑이와 꼬리를 묶고 다시 찾아가지만, 호랑이가 다시 속아 달아나게 되면서 토끼 꼬리가 끊어져 둘의 꼬리가 지금처럼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에 따라 토끼 꼬리의 유래뿐만 아니라 토끼의 눈이 빨강게 된 이유나 입과 항문 모양의 유래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호랑이를 속이는 대상으로 당나귀나 수달 등의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소도둑이나 포수·소금장수 등의 인간이 등장해 노인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잡아먹는 호랑이의 존재를 알아채고 호랑이에게 방울을 달아 속이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끈달지’의 정체는 작품 속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유사한 이야기와 설화 내용 속 ‘빨간 놈’이라는 정보를 통해, 월경 중인 여자가 호랑이를 보고 급히 피하였는데 호랑이가 치마에 묻은 붉은 피를 보고 착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설화는 호랑이 꼬리와 토끼 꼬리가 왜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동물유래담인 동시에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호랑이와 맞닥뜨린 위기를 모면하는 지략담이자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대립구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트릭스터(trickster)담이기도 하다. 두 번씩이나 호랑이를 속여서 줄행랑치게 하는 여인의 천연덕스러운 태도와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무서운 존재로 착각하여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모습,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토끼마저 갑작스러운 상황에 휘말려 꼬리가 짧아지게 되는 내용 전개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설화에서 토끼는 서양의 지혜로운 여우와 유사한 캐릭터로, 대개는 강자인 호랑이를 퇴치하는 동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설화는 인간이 기존의 토끼 역할을 대체하고 있고, 비록 실패로 끝나지만 토끼가 호랑이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동물들의 습성이나 형상에 대한 민중들의 세밀한 관찰력에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이 설화는 약함과 강함,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대립을 통한 교훈성도 설화 향유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참고문헌 트릭스터담 연구(조희웅,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 트릭스터담의 유형 및 성격 연구(임주영,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2, 499,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이홍우(李洪雨)

토끼가 깃든 물건

Objects with Rabbit Motifs

고국산천
곰을 범한 토끼
구토지설
굴토끼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꼬리 잘린 호랑이
달과 토끼무늬 수막새
돌떡 먹는 호랑이
동물 그리는 노래
동물 나이 자랑
멧토끼
묘시
묘신
문경 토끼비리
문학 속 토끼
반달
백자 칠화 토끼모양 연적
범피종류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산토끼
산토끼
삼묘일보기
삼묘일
상좌다툼
속담 속 토끼
수궁가
수궁가
수궁풍류
수월관음도
쌍토도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옥토끼
옥토망월형
옹달샘
우는토끼
월광보살
일월광첩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장수와 풍요의 토끼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털날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토끼 눈이 빨강게 된 유래
토끼 배 가르는 대목
토끼가 깃든 물건
토끼고기
토끼골
토끼꿈
토끼띠
토끼무늬
토끼바위
토끼봉
토끼부적
토끼사냥
토끼선생
토끼섬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원숭이
토끼옥설
토끼위기
토끼의 간
토끼의 보시행
토끼의 생태와 자연
토끼의 재판
토끼자리
토끼전
토끼타령
토끼털
토끼풀
토끼화상
토동
토별문답
토사자
토사호비
토의간
토해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호응박토도



화조도 8쪽 병풍 부분 | 전체가로364 세로18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토끼가 깃든 물건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

토끼는 장수의 상징(an emblem of longevity)이자 달의 정령(the vital essence of the Moon)이다.¹ 조그맣고 귀여운 생김새, 놀란 듯이 쭉긋 세운 양쪽 귀로 인해 연약하고 선한 동물로 보이지만, 토끼는 영특하고 슬기로운 꾀보, 꾀쟁이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 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理想世界)를 꿈꾸어 왔다. 옛이야기나 동요·민화·동시 등에서 토끼는 조그맣고 귀여운 생김새와 놀란 듯한 표정을 지닌 약하고 선한 동물이자 재빠르게 움직이는 영특한 동물로 묘사된다. 호랑이나 매 등 맹수 또는 맹금류에 비하면 분명 약한 동물이지만, 꾀보 토끼는 결코 지거나 굴욕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골탕 먹인다.

이 글에서는 토끼가 어떤 기물(器物)에 어떤 양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의미와 상징을 규명하여 본다.

달·여성·불로장생의 상징

토끼는 예로부터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달 속의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 찧는 토끼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그려온 토끼상이다. 한자문화권에서 달은 토끼로, 해는 세 발 달린 까마귀로 비유된다. 해에는 까마귀가 살고,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달의 이칭(異稱)인 토월(兔月)은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전래의 민간 사교에서 유래되었다. 달을 자세히 보면 거무스레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달 속의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는 형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끼는 달과 연관된 달의 동물, 즉 여성 원리에 속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달의 주기와 여성의 생리 현상, 달의 차가움과 음(陰)과의 관련 등으로 달

1. Outlines of Chinese symbolism and art motives(C.A.S. Williams, Dover Publication, 1976), p.220~221.



수막새 | 국립중앙박물관

과 여성을 묶을 수 있고, 또 달과 토끼를 묶을 수 있으므로 결국 달·여성·토끼는 같은 문화적 고리를 이룬다.

토끼는 '달 속의 동물'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에서 표현되고 있다. 통일신라의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지어진 창덕궁 대조전 뒤뜰의 굴뚝에도 토끼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특히 대조전 굴뚝의 토끼는 영생하는 삶의 공간을 현실의 일상 생활공간으로 형상화한 기발한 착상이다. 경복궁 교태전 뒤뜰의 석련지에도 두꺼비와 함께 토끼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생활 공간에 달—월궁 月宮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달 속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선 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은 여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실 공간의 토끼 장식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장수와 불로장생의 상징인 토끼는 만병통치의 약인 '토끼 간'으로 그 관념과 의미가 더해졌다. 판소리 <토별가兔歌>에서 토끼의 특성을 묘사한 대목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퇴끼라 하난 것이 묘방卯方을 맡았기로, 부상扶桑의 금계金鷄 울어, 날빛이 처음 날 제, 양기를 받아먹고, 월궁月宮에 들어가서, 계수나무 그늘 속의 장생약을 찢을 적의, 음약陰藥을 받아먹고, 일정월화日精月華 음양기운陰陽氣運 간경肝經이 들었기로, 퇴끼가 눈이 밝아, 별호別號를 명시明視라 하옵기를, 목속간目屬肝을 하였으니, 간경이 좋은 고로, 눈이 그리 밝사오니, 퇴간 곧 먹사오면, 병환이 직차하고, 장생불로할 것이요, 만일 그 약 아니오면, 화타華陀와 편작扁鵲이, 좌우의 모셨어도, 회춘을 못할 터니, 극력구지極力救之 하옵소서.²

<토별가>에 따르면 토끼는 묘방인 동쪽을 맡은 방위신으로, 양陽의 세계인 해에서 양기를 받아먹고 음陰의 세계인 달에서 장생약인 음약陰藥을 받아먹어 그 음양기운이 간경에 들어 눈이 밝은 동물이기에 간 또한 불로장생의 영약靈藥이다.

2. 신재효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집(신재효·강한영, 형설출판사, 1981), p.305.

장수와 불로장생의 상징을 바탕으로 토끼는 토해兔醜, 토끼탕, 토끼고기 등 의례 세시 음식이나 약재 등의 재료가 되었다. 토끼털은 겨울철 추위를 막는 방한 의류의 안감이나 가장자리에 덧대어 사용하였다. 추위를 막기 위하여 팔에 끼우는 토시, 겨울 방한용 여성 모자인 풍차, 남바위, 목도리, 소매 없는 여성용 겨울 상의上衣 배자 등은 토끼털을 사용하여 보온을 유지하고 추위를 막았다.



토끼털 남바위 | 국립민속박물관

불사不死와 공쪽의 상징, 토보살

한대漢代 이전부터 토끼는 달 표면에서 살고 있다고 일컬어졌다. 후대 도교에서는 달토끼를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을 만들기 위해 절구질하는 옥토끼玉兔로 불렀다.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달과 토끼의 관계는 인도 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불교 설화에 따르면 토끼는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보답으로 달로 올라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

토끼는 보살행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천제天帝가 이를 시험하였다. 고기를 찾아서 먹고자 하자 토끼가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생명을 바쳤다. 천제가 이를 위로하여 불에 탄 토끼를 달 속에 두어서 미래의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우러러보게 하였다.³

인도의 달에 대한 설화는 후에 불교 설화의 하나로 정리되어 민간 교화의 수단으로 쓰였다. 이처럼 불교에서 토끼는 상서로운 짐승이다. 토끼의 장한 행동에 감동한 수호신은 불 속 토끼를 안고 달에 올라간다. 토끼의 모습이 달 속에 있는 것은 몸을 던져 보살의 도를 행하는 토끼의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토끼가 불로장생의 의미를 갖는 것 또한 토끼를 다른 동물과는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으로, 달을 보고 자연스레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신성시된 토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회색 장삼에 밤색빛 가사袈裟는 한국 스님들의 가장 익숙한 복식이며, 가사

3. “有免行菩薩行，天帝試之，索肉欲食，捨身火中，天帝慰之，取其焦兔，置於月內，令未來一切衆生學目瞻之。”(『法苑珠林』卷七「日月篇」所引「喻伽論」注引「西國傳」)



토끼문일월연 | 원주시역사박물관

의 문양 역시 다양하다. 특히 삼죽오의 태양과 토끼의 달 등을 수 놓은 것이 한국적인 가사의 모습이 다. 불교의 신장탱화에서 까마귀(해)와 토끼(달)를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있는 일월성신도日月星辰圖, 거북이 등에 실려 용궁으로 향하는 토끼 모습을 그린 양산 통도사와 수원 팔달사 등의 사찰벽화도 있다.

민화, 벽화, 와전, 벼루 등에 등장하는 토끼는 대부분 달과 관련되어 있다. 달이 신성시되듯 달 속의 토끼도 신성시되며, 불로장생의 상징성까지 띠고 있다. 선비의 문방구 벼루에도 토끼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토끼문 벼루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절구질하는 토끼의 모습과 물집(鰓)을 원형으로 깊이 파서 달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 효자문·열녀문·산신각 등 옛 건축에는 기둥과 서까래 사이에 거북이를 타고 있는 토끼를 조각하였는데, 이는 그 건물이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초가나 목조로 이루어진 건물은 불에 굉장히 취약하다. 용궁으로 가는 토끼와 거북이 조각과 그림은 불교적이면서 교훈적인 내용과 함께 용궁·바다·물의 의미로 불을 제압하려는 의도이다.

문화영웅적 속임수의 명수, 꾀보 토끼

토끼는 천성이 귀엽고, 지혜로우며 재빠르다는 점에서 우리 민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토끼는 세계 여러 나라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세계의 창세기적인 인물이자 인류에게 문화 제도를 마련하여 주는 인물, 즉 문화영웅 또는 그에 버금가는 동물이 그렇듯 ‘속임수의 명수’로 자리한다. 자라를 속이는 토끼는 물론 심지어 호랑이를 속여 응징하는 토끼의 신화적 원형성은, 우리 신화의 해모수나 석탈해가 그렇듯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속임수의 재주’를 상징하고 있다.

토끼는 영원한 꾀보이자 꾀쟁이다. 토끼가 한국문화 속에서 어떤 존재로 상징화되든 그 바탕에는 ‘꾀가 많고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성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끼는 힘이 약하고 몸집이 작은 것에 반비례하여 매우 영특하고 착한 동물로 그려진다. 또는 토끼는 체구가 크고 힘은 강하나 우둔한 동물들에게 저항하는 의롭고 꾀 많은 동물 구실을 도맡아 한다. 즉 토끼는 꾀보이자 꾀쟁이이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이다.

토끼는 귀가 종긋하고, 입은 쪼갠으며, 꼬리가 짧고, 깡충깡충 뛰는 뽀박질은 경쾌하고 빠르다. 귀여움, 영리함, 신속함이 토끼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 때문에 토끼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이고 일찍부터 각국의 캐릭터로 사랑받아 왔다. 동화·만화·애니메이션 등에서도 단골 캐릭터로 토끼가 등장한다.

어린 시절 부르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의 동요 ‘반달’에 투영된 토끼의 모습이 현대에는 유아용품이나 초등학교 학용품의 토끼 캐릭터로 나타난다. 귀엽고 깜찍한 토끼는 특성상 여자 캐릭터로 많이 묘사된다.

달, 여성, 장수와 불로장생,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귀엽고 깜찍함 등 토끼에 대한 관념은 한국문화 속에서 종교, 의례, 건축물, 문방구, 복식, 음식과 약재, 캐릭터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토끼의 간 우표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신재효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집(신재효·강한영, 형실출판사, 1981), 십이지신 토끼(이아령 외, 생각의 나무, 2010),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Outlines of Chinese symbolism and art motives(C.A.S. Williams, Dover Publication, 1976).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토끼와 두꺼비가 뚜껑을 열려는 모습이 새겨진 수막새 기와.

내용 달(月)은 해(日)와 달리, 차오르고 이지러지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존재이다. 영원을 상징하는 달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과 유물은 제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토끼, 두꺼비, 계수나무 등이다. 예를 들어 낙랑의 칠진통(漆箭筒)과 신토도약전(仙兔搗藥傳)의 그림 벽돌에 선약(仙藥)을 짓는 토끼가 표현되어 있다. 고구려 벽화 고분의 달 속에는 토끼·두꺼비·계수나무 등이 등장한다. 신라 토우에서 발견되는 토끼는 자기 몸집보다 큰 것 같은 크고 길게 다듬어진 귀에 뛰어오르려는 듯 긴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신화에 따르면 옥토끼는 장생의 선약을 짓는 존재일 뿐 아니라 스스로 천년을 사는 영물로 알려져 있다. 두꺼비는 남편 예뻐가 서왕모에게 얻은 불사약을 혼자 먹고 달로 도망간 항아가 변한 모습이다. 달 속의 계수나무는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란다. 계수나무의 약재 기능은 불로장생의 관념과 연결되어 옥토끼가 짓는 선약의 재료로, 나아가 달 속 불사목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통일신라의 수막새에도 토끼가 등장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는 막새면에 뚜껑이 닫힌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토끼가, 왼쪽에는 두꺼비가 뚜껑을 여는 형상을 하고 있다. 수막새는 원형으로 그 자체가 달을 상징하고, 토끼와 두꺼비는 달을 표상하는 동물이다. 항아리는 불로장생의 약 항아리일 것이다.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는 ‘점토문원와당(蟾兔文圓瓦當)’ 또는 ‘두꺼비와 토끼 무늬 수막새’로도 불린다.



달과 토끼무늬 수막새
지름 13 두께 2 | 통일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역사 기록과 유물 속에서 토끼는 달의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들고 있다. 토끼는 장수의 상징(an emblem of longevity)이며, 달의 정령(the vital essence of the Moon)이다. 토끼와 함께 두꺼비, 항아리가 그려진 통일신라시대의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이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십이지신 토끼(이여령 외, 생각의 나무, 2010),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토기 토우 와전(진홍섭, 동화출판공사, 1974),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백자로 만들어진 토끼 모양의 연적.

내용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은 앞발을 가지런히 모아 웅크리고 있는 토끼 모습의 백자 연적이다. 특 튀어나온 이빨과 커다란 귀가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토끼의 눈과 입술, 목에 달린 방울에는 산화철 안료를 칠해 입체감을 주었다. 살짝 들린 머리와 바짝 누운 귀, 꿈무늬에 올려붙인 꼬리, 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듯한 방울 등이 토끼의 친근함을 더하여 준다.

연적은 먹을 갈 때 벼루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의 문방구이다. 조선시대 연적 중 동물형은 주로 개구리나 두꺼비·닭·해태·잉어 등으로 제작되었고, 토끼 모양 연적은 매우 드물다. 조선 후기에 <토끼전>이나 <수궁가> 등의 소설이나 판소리·민화 등에 토끼가 등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피가 많은 동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仁)과 의(義)를 중시하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애호하던 소재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문물과 고증학 등이 경화사족(京華士族)과 중인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된다. 이들은 중국 사행 참여와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물품과 취미를 즐김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채워 나갔다. 특히 이들이 관요(官窯) 백자의 주요 수요층으로 나서면서 문인의 필수품인 연적과 필통 등 자기로 만들어진 문방구가 많이 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연적은 문방구라는 기능성과 더불어 완상(玩賞)물로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바닥지름 9 높이 6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친근한 토끼의 모습으로 제작된 백자 철화 연적이다. 조선 후기의 백자 연적 중에서도 그 예가 매우 드물다.

참고문헌 19세기 백자 문방구 연구(곽종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조선후기 백자연적 연구(최정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필자 강경남(姜京男)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불교에서 중생의 갖은 고통을 구하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취하는 33응신應身의 모습 가운데 한 형태인 수월관음을 그린 불화.

내용 불화는 불상과 마찬가지로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교육적 기능은 물론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사찰 안팎의 장엄을 위한 가시적인 조형예술인 종교미술이다. 수월관음도는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도상이다. 847년 장언원張彦遠이 펴낸 현존 중국 최고의 회화사 저술인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선 8세기의 당나라 궁정화가 주방周昉이 수월관음도를 창안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10세기 후반 송나라 문인화가 이공린李公麟은 산수인물 외에 말 그림으로 유명하며 불화佛畫에도 능하였는데, 수월관음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수월관음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중앙아시아 돈황燉煌 벽화에서 확인된다. 화면 내에 수월관음도라는 명칭과 함께 943년과 968년 등 간기가 있어 그려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그 형태가 독존獨尊인 도상의 경우 정면상은 윤왕좌輪王坐 또는 유희좌遊戲坐, 측면상은 반가부좌半跏趺坐로 부르는 등 차이가 있다. 이들 돈황 벽화에서는 도상이 조금 달라도 수월관음이라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원元·명명으로 이어지며,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본에서도 즐겨 그려졌다. 수월관음의 명칭은 『법화경法華經』과 『화엄경華嚴經』 등 불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러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관음보살의 자비는 마치 맑은 물에 두루 비치는 하늘의 달과 같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수월관음도를 비롯한 고려 불화에 대한 조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8년 10월 일본 나라 야마토분가간大和文華館의 ‘고려 불화 특별전’을 통해서였다. 이 전시는 고려 불화가 이룩한 예술적인 성취, 위상과 특징, 독자성 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십수 년이 지나 국내 호암미술관에서 ‘대고려 국보전’이 열리고 호암갤러리에서 ‘고려불화’가 개최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동일 주제로 종합적인 대규모 기획전이 열렸다.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에서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보살도의 선지식善知識을 구하러 찾아간 보타락가산普陀洛伽山의 관음보살인 수월관음을 도상화한 불화이다. 수월관음도 도상圖像의 특징은 주로 좌안 7분면左顔七分面 위주로 바닷가 괴석怪石 위 동굴에 반가부좌한 형태로 등장하며, 두 원형의 두광과 신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음보살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달에 토끼를 함께 그린 것들이 있

어 동아시아 문화에서 공유하는 토끼 상징을 파악할 수 있다. 달토끼는 고려 수월관음도에 앞서 일본에 있는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繪>과 불상을 모시는 불감佛龕인 다마무시노즈시玉蟲廚子에서 살필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쇼토쿠태자聖德太子的 명복을 빌기 위해 7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고구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다.

특징 및 의의

고려 수월관음도의 특징은 고려 불화 전체가 그러하듯이 화려한 채색과 섬세한 필치 그리고 독특한 문양 등을 들게 된다. 관료적 귀족국가인 고려의 회화 기량과 수준을 대변한다.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에 있는 수월관음도처럼 길이가 4m 이상인 대작도 있으나 대부분은 세로 200cm, 가로 100cm 내외의 정형화된 크기이다. 이들 작품은 홍紅과 청록색靑綠色의 조화로운 설채에다 유려하고 섬세한 필선이 돋보이고, 금박金箔과 금니金泥를 사용하여 화려함과 고귀함을 드러낸다. 화면에 등장하는 소재로는 버드나무 가지가 꽃힌 청자나 금속제 정병淨瓶, 무너로는 섬세한 귀갑문龜甲文과 원형으로 된 연화·연당초·보상화·운봉문 등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그림 뒷면에 색을 입혀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배채背彩기법을 이용하여 안면을 비롯해 손과 발 그리고 투명한 사리紗羅 안쪽으로 노출된 피부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차분하며 맑고 밝은 색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14세기 초부터 그려진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 관음보살 도상 중 주류主流로, 작품의 완성도 등 미적 성취에서 동아시아 삼국 중 단연 두드러진다. 고려 후반 관음신앙의 큰 융성을 시사하는 수월관음도는 동아시아 회화사에서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이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래된 화적이 드문 시기에 그려진 수월관음도를 비롯한 일련의 불화는 우리나라 중세 회화의 보고寶庫로 불릴 만하다.

참고문헌 고려 1310년 수월관음도-가라쓰 가가미진자(정우택, 한국미술연구소, 2021), 고려불화(중앙일보사, 1981),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김정희, 돌베개, 2009), 수월관음의 탄생(강우방, 글항아리, 2013), 일본 속의 한화(이동주, 서문당, 1974), 한국의 불화(문명대, 1977, 열화당), 高麗佛畫展圖錄(大和文華館, 19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원복(李源福)

쌍토도 雙兔圖

한 쌍, 즉 두 마리 토끼를 그린 그림.

내용 각종 동식물에 대한 인식과 상징은 민족별로 다르지만 외형과 생태적 특징에서 비롯한 공통점과 보편성을 지닌다. 토끼 역시 겁 많고 약하나 지혜로운 꾀보의 이미지가 이솝 우화를 비롯해 범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서구에서는 토끼를 다산 多産의 상징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바람둥이 남성을 의미하는 동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신화神話에 나타난 토끼의 보편적 상징을 공유하며, 이와 다른 나름의 특징적 상징을 지니기도 한다.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등장시킨 쌍토도는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감상화 영역에서 두루 살필 수 있다. 토끼는 서구에서도 즐겨 그려진 동물 소재 중 하나이다. 회화와 조각 그리고 공예 등 인류가 남긴 조형미술 전반에서 살필 수 있는 토끼의 등장은 기원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강토에서 출토된 토끼 도상 중에서는 쌍은 아니지만 평양 석암리 219호 낙랑시대 고분석실 출토 화살통(칠전통漆箭筒)에 보이는 두꺼비와 토끼가 가장 이른다. 고대 회화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이후 고려 불화〈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내 월상月像에 토끼가 나타난다. 공예로는 신라 토우土偶를 비롯해 잘 알려진 고려시대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와 ‘청자 토끼형 연적’ 같은 상형 청자가 있다. 그리고 매우 드문 예이나 화금청자 내 상감문과 통일신라 이후 무덤 주위를 두른 12지 호석護石 등에서 토끼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토끼 그림은 송나라 휘종徽宗의 그림 소장 목록인 『선화화보宣和畫譜』 등에 나타나 있다. 오대五代(907~960) 때 화가 조박문趙博文이 개와 같이 그린 〈토견도兔犬圖〉, 여귀진厲歸眞이 죽순 아래 어린 토끼를 그린 〈죽순유토도竹筍乳兔圖〉 등의 작품명이 보이나, 현존하는 작품 중에는 화조화가 크게 발전한 북송 때 그린 최백崔白의 〈쌍희도雙喜圖〉와 마찬가지로 쌍토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요遼 고분인 요령성 범고대 7호분에서 산수도와 함께 발굴된 〈죽작쌍토도竹雀雙兔圖〉(10세기 후반)에는 작품명이 알려주듯이 두 마리의 토끼가 등장한다. 이 외에 일본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청나라의 심전沈鈺은 화조화 영역에서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배경으로 토끼를 즐겨 그렸고, 그의 쌍토도도 전한다.



쌍토도 | 마군후 | 가로23 세로27 | 조선 | 서울대학교 박물관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선鄭敼과 정홍래鄭弘來 등 화가 9명의 영모화翎毛畫 30점으로 이루어진 『제가화첩諸家畫帖』에 17세기 이정李澄이 그린 토끼 그림이 3점이 전해진다. 각기 쌍토도는 아니나 현존하는 조선시대 감상화 토끼 그림 중 시대가 가장 이른다. 사실적인 화조화와 영모화가 크게 발전해 한 가지 소재로 명성을 얻은 조선 후기 화단의 심사정沈師正, 최북崔北, 마군후馬君厚, 김홍도金弘道, 김득신金得臣 등의 토끼 그림이 전한다. 특히 마군후의 소품과 김득신의 2폭 대련에 등장한 토끼는 각기 한 쌍으로 사실적인 묘사력에 기량이 돋보이는 명품들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감상화로 그려진 토끼 그림은 이정의 유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7세기까지 소급된다. 하지만 쌍토도는 18세기부터 일련의 화조·영모화 범주에서 이름난 화가들의 그림이 전한다. 이어 조선 말 민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들 민화에선 떡방아를 찧는 한 쌍의 토끼, 호랑이와 함께 등장한 익살 넘치는 장면 등 정감이 가는 따듯한 그림들이 주류를 이룬다.

참고문헌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세상, 2001), 다정한 벗 든든한 수호신(이원복, 보림출판사, 2007), 십이지신 토끼(이여령 외, 생각의 나무, 2010), 열두 띠 이야기(김선풍 외, 집문당, 1995), 중국문화 중국정신(C.A.S Williams, 이용찬 외 역, 대원사, 1987),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이원복(李源福)

일월광첩 日月光貼

승려의 가사(歌辭)에 부착하는 해와 달 상징의 문양 장식.

내용

일월광첩日月光貼은 일광첩日光貼과 월광첩月光貼을 따로 만들며, 해를 상징하는 까마귀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를 중심으로 여러 문양을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해와 달을 불보살의 화신이나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로 수용하여 약사불藥師佛의 좌우 협시夾侍·脇侍인 일광보살·월광보살로 삼았다. 가사에 일월 문양을 새기는 것도 해와 달의 광명이 불교의 지혜와 자비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첩貼’이라 하면 수판을 따로 제작하여 붙이는 것을 뜻하지만, 바탕 직물에 직접 수를 놓기도 한다.

까마귀와 토끼가 짝을 이루어 일월 상징을 나타내게 된 내력은 『산해경山海經』 『회남자淮南子』 『초사楚辭』 등에 전한다. 이에 따르면, 신화시대에 활을 잘 쏘는 예羿가 아홉 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죄로 아내 향아姮娥와 함께 인간계로



일월광첩 | 지름7 | 조선 | 서울역사박물관

추방되었다. 예는 서왕모에게서 불사약을 구해 왔지만, 항아가 몰래 불사약을 먹고 승천하려다 실패하여 달에 머물게 된다. 항아는 달에서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몸이 쪼그라들어 두꺼비 또는 토끼로 변신하였고, 토끼가 된 항아는 불사약을 만들기 위해 약방아를 찧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예가 쏘아 떨어뜨린 태양은 금빛의 세 발 까마귀였기에 해를 금오金烏나 삼족오三足烏라 하고, 달 속에 옥토끼가 산다고 하여 달을 옥토玉兔라 부르게 되었다.

토끼가 달에서 살게 된 유래는 인도와 중국 등 동아시아에 다양한 내용의 민담으로 널리 퍼져 있다. 부처님의 전생을 다룬 '본생담本生譚'에는 토끼가 수행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한 존재로 등장하며, 이러한 공덕을 영원히 남기고자 달에 토끼의 형상을 새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1158~1210)의 가사에 삼족오와 토끼를 원 속에 각각 수놓은 자료가 전하여, 이른 시기부터 일월 상징이 가사의 주요 장식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판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일월광첩의 형태는 조선시대부터 나타나며, 17세기에 이르면 일월 상징물 외에 산과 구름 문양 등을 표현하여 흉배胸背와 비슷한 구성이 등장하였다. 이는 1624년에 인조가 벽암대사碧巖大師(1575~1660)에게 하사한 가사 등에서 살필 수 있는데, 흉배 도안에 착안하여 불교사상을 담은 문양을 배치한 것으로 짐작된다. 흉배는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일월광첩은 가사의 구조에 맞추어 세로로 긴 장방형으로 제작되었다.

조선 중기에는 일월과 까마귀·토끼를 따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해와 달 속에 까마귀와 토끼가 들어가는 구성으로 정착하고, 이전까지의 사각 구성에서 원형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에 조성된 대각

국사大覺國師(1055~1101)의 25조 가사를 보면 125편에 이르는 조각마다 석가모니불·미륵보살·화엄경·가섭존자 등과 같이 삼보三寶의 명칭을 수놓았다. 아울러 약사불·일광보살·월광보살을 차례로 배치하면서 일광보살·월광보살 자리에는 일광첩과 월광첩을 두었다. 같은 형태의 가사 구성을 불화로 그려 봉안한 사례도 전하여, 가사가 신앙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의 구성은 크게 1단·2단·3단으로 구분된다. 1단 구성은 근대 이후에 성행한 것으로 일월을 나타내는 원 속에 까마귀·토끼가 자리하며, 때로 범자문梵字文이 들어가기도 한다. 2단 구성은 대각국사 가사처럼 일월 상징문과 연화문으로 구성되는데, 하단에는 향수해香水海·수미산須彌山·연화대가 자리하고, 상단에는 채운을 배경으로 해와 달 속에 까마귀·토끼가 자리한다.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가상의 산이며 향수해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로,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한 것이다. 3단 구성은 조선 후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2단의 구성에 범자문을 가운데 둔 형태이다. 일월광첩의 부착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지금은 가사를 착용하였을 때 척수골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일월광첩은 가사를 신성시하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문양 내용과 첩의 형태로 부착하는 양상은 우리나라의 전통 흥가사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조선 중·후기에는 2·3단 구성의 문양을 체계화하면서 향수해·수미산·일월과 함께 가사의 네 모퉁이에 사천왕첩으로 '天'과 '王'을 부착하는 등 가사 전체가 불교 우주관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중기 이후 가사의 유형과 변천(강선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흥가사의 형태와 부착물에 대한 고찰(심상현, 한국의 원형을 찾아서-불교의례, 열화당, 20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구미래(具美來)

일월수 다리니주머니

불교에서 불화나 번기幡旗에 걸쳐 장식하는 수주머니.

내용

일월수 다리니주머니 한 쌍은 두 개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지만, 왼쪽 주머니 상단의 해무늬日緋와 오른쪽 주머니 상단의 달무늬月緋로 서로 구분된다. 일월수 다리니주머니는 위에 고리와 석씨매듭 장식이 있고, 중간에는 연화등蓮花燈 모양의 수주머니가 있으며, 아래에는 세 가닥의 낙영落纒 장식이 있다. 이는 매듭·주체·술로 이루어진 노리개의 기본 구성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 19세기 | 문화재청

주체 부분인 연화등 모양에는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연화 위에 피는 것으로 비유한 <연화화생도蓮花化生圖>가 표현되어 있다. 수는 오색 끈사를 사용하여 자련수·평수·자릿수·이음수·씨앗수와 장식 덧수 기법 등이 활용되었고, 가장자리는 연은사燃銀絲가 둘러져 있으나 대부분 박락剝落되어 속심으로 사용된 곱게 꼰 견사絹紗가 노출된 상태이다. 다라니주머니에 수놓아진 <연화화생도>에는 아래 받침에 연잎을 두고 그 가운데에 피어난 연꽃 속에서 동자가 연꽃 줄기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상단의 연꽃 가운데에는 해와 달무늬를 수놓았는데, 하늘의 상징인 해에는 새무늬(삼족오)를, '만복기원'의 상징인 달에는 방아

짚는 토끼무늬를 수놓아 '중생구원衆生救援'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동자 좌우에는 연꽃과 씨방이 표현된 긴 가지를 배치하였고, 그 사이에는 발원자의 이름·성·생년을 알 수 있는 한자를 수놓았다. 그중 해무늬 주머니에는 상궁尙宮, 청신녀기유생김씨淸信女己酉生金氏, 허공화극락지대원虛空華極樂地大願이라고 적었다. 또 달무늬 주머니에는 상궁尙宮, 청신녀기유생류씨淸信女己酉生柳氏, 묘진화극락지대원妙眞華極樂地大願이라고 적었다. 이를 통해 허공화라는 기유생 김씨와 묘진화라는 기유생 류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발원문임을 알 수 있다. 또 해무늬 주머니 뒷면에는 한글 먹글씨로 '망건명(살아 계신 아버지) 갑술생경지 김시, 곤명(살아 계신 어머니) 갑술생 광시 국낙지대원'이라고 적고, 달무늬 주머니 뒷면에는 '건명(살아 계신 아버지) 병자생뉴시, 만곤명(돌아가신 어머니) 을유생제주고시, 만건명(죽은 남동생) 임자생문화뉴시 국낙지대원'이라고 적어 발원자의 부모와 형제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간절함을 표현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일월수 다라니주머니는 왕실의 상궁 김씨와 류씨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적어 부처님께 올린 한 쌍의 불교식 주머니이다. 제작 시기는 발원문에 보이는 기유생이 1789년으로 해석된 연구를 바탕으로 대략 19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월수 다라니주머니의 크기는 끈과 낙영을 포함해 전체 길이는 57cm, 수주머니는 길이 20cm에 너비는 약 13cm이다. 주머니 부분은 다채로운 색상의 견사를 꼬아 정교하게 수를 놓았으며, 상단의 만개한 연꽃 속의 해와 달에

는 새와 토끼를 넣어 불교에서 말하는 '만복기원'과 '중생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민속문화재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금속 장식지의 과학적 분석(박성희 외, 보존과학회지3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2), 이렇게 좋은 자수(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 2001), 일월수 다라니주머니의 조형성과 발원 기록을 통한 시기 감정(안보연·전은진·오선희, 복식71-3, 한국복식학회, 2021), 국가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필자 정미숙(鄭美淑)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세 마리 토끼가 연꽃 모양 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의 청자 향로.

내용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청자 향로가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는 음각·양각·투각·상감·첨화·상형 등 모든 장식 기법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졌으며, 12세기 절정기 청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는 고려청자, 더 나아가서 고려시대의 우수한 공예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이 향로는 투각透刻된 구형 뚜껑과 연꽃 모양 몸체 그리고 세 마리의 토끼가 받치고 있는 판형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상형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조형물로 승화되었다. 뚜껑 전면에 칠보七寶 무늬를 투각하고 문양의 교차 지점에는 작은 점을 백상감白象嵌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몸통은 틀로 찍어낸 꽃잎들을 하나하나 붙여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만들고, 꽃잎에는 가늘게 잎맥을 표현하여 섬세함을 부여하였다.

특히 향로 받침을 떠받치고 있는 앙증맞은 토끼 세 마리는 향로의 조형미를 배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록 작은 상형물이지만 토끼의 눈에 검은 철화 점을 찍어 영특한 눈매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청자 토끼는 생명력을 얻었다.

고려시대에 토끼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서왕모西王母와 관련된 도교적 소재로 불화佛化나 동경銅鏡 등에도 등장하지만, 불교적 요소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례로 일본 반나지鑿阿寺가 소장하고 있는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에서 세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지름12 전체높이15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지보살勢至菩薩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연화보주蓮花寶珠의 형태는 이 청자 향로에 투각된 구형 뚜껑이나 연꽃 모양 화사火舍 구성과 유사하다. 청자 토끼 세 마리가 불교의 연화보주를 수호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 그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는 고려청자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고려 상형청자 연구(백은경,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청자 사자장식 향로와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강경남,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필자 강경남(姜京男)

토끼고기

토끼를 도축하여 얻은 살코기.

내용 포유동물이며 토끼과에 속하는 토끼는 주로 해발 500m 이하의 야산에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 지역에 분포하는 흔한 동물 가운데 하나이고, 삼국시대 부터 사육하였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법적으로 가축의 범위에 속한다. 토끼를 이용한 요리법은 일찍이 발달한 것으로 보 이는데, 1460년(세조 6) 어의御醫인 전순의全循義가 집필한 『식료찬요食療纂要』에 토끼탕을 육류 요리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토끼고기는 성질이 차고 평하며 맛이 맵고 독이 없는 약재로, 갈증을 치료하고 비장脾臟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얇은 복숭아색을 띠는 토끼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세밀하며, 지방은 적고, 맛은 담백하다. 고기에 탄력이 있어 씹는 느낌이 좋고, 결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소시지의 결착제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토끼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끼탕이다. 조리법은 우선 토끼고기를 먹기 좋게 토막 내어 갖은양념에 미리 재워 놓는다. 냄비 바닥에 찢 무를 깔고 양념해 놓은 토끼고기를 넣은 후 육수를 부어 끓인 뒤에 대파, 미나리, 쑥갓, 부추 등의 채소를 넣고 다시 끓인다. 취향에 따라 토끼 간이나 고사리, 춘장, 젓갈 등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들깨가루,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 맛을 내기도 한다. 토끼고기는 닭고기와 달리 기름기가 없어 담백한 맛이 난다.

토끼탕 외에 토끼고기구이와 토끼고기전골 요리도 빼놓을 수 없다. 토끼고

기구이는 토끼고기를 잘 손질하여 찢 뒤에 식으면 각을 뜨고 잔칼질을 하고서 양념하여 재어 두었다가 굽는 요리이다. 또한 토끼고기전골은 토끼고기의 살만 발라 굽게 채 찢 미나리, 당근, 양파, 버섯 등을 넣고 토끼뼈로 만든 육수를 부어 먹는 요리이다.

전통적으로 토끼고기는 동지冬至 후 셋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에 많이 먹는 시절 음식이기도 하다. 납일에는 납향臘享이라 하여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사직에 공물供物로 바치고 대제大祭를 지냈는데, 사맹식四孟朔과 더불어 오대제향五大祭享이라 불렀다. 이날 종묘사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민가에서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참새고기·돼지고기·토끼고기·사슴고기·오리고기·꿩고기 등을 먹었다. 납일은 수렵을 해금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특히 고기 맛이 좋은 시기이다.

최근 토끼고기의 영양소를 닭고기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끼고기의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보다 약간 낮지만, 피부 건강을 돕는 콜라겐 함량과 혈관 건강에 유익한 다가불포화지방산PUFA은 토끼고기가 닭고기보다 높으며, 특히 불포화지방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토끼고기가 닭고기의 4.6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근래 들어 토끼고기의 우수성이 검증되고 있으나 오늘날 토끼고기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비해 널리 알려진 음식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산업화로 변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소·돼지·닭에 밀려 토끼 사육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토끼고기 요리는 농촌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설화와 속담이나 고전문학 작품인 『별주부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토끼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친숙한 동물로 묘사되거나 달 속에서 방아를 찧는 신성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납일에 왕실이나 민가에서 제를 모신 뒤에 토끼고기를 먹었으며, 그 요리법이 문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토끼고기를 이용한 조리법이 발달하였고, 다른 고기와는 차별화된 토끼고기의 효능이 알려져 보양식으로 널리 식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食療撰要, 영양학사전(체법석 외, 아카데미서적, 1998), 왕실의 식이요법(전순의·윤숙자·김종덕, 지구문화, 2012), 토끼고기의 영양성분 및 품질특성 평가(이정아 외,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37-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22),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서해숙(徐海淑)

토끼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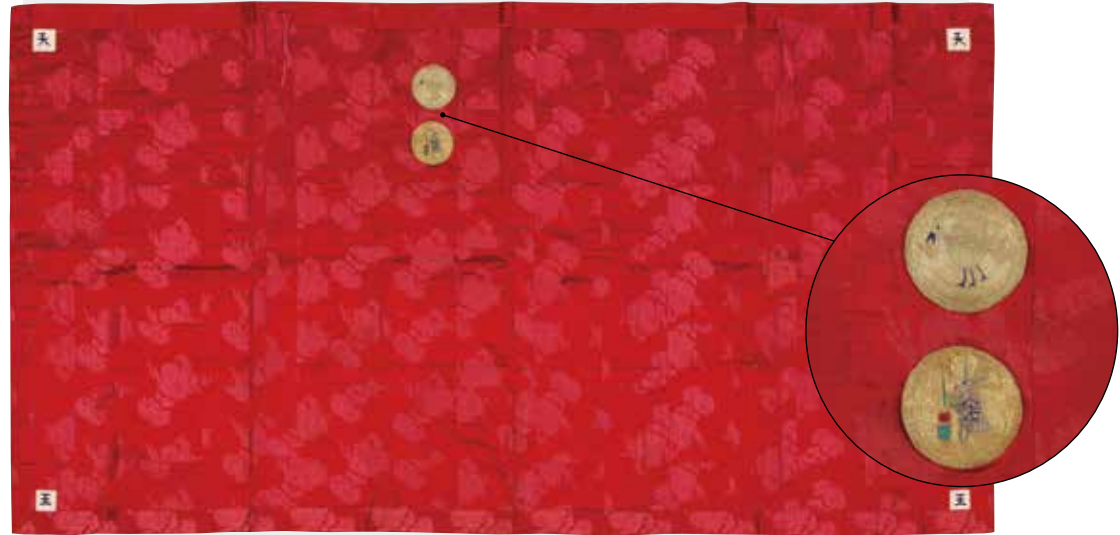
토끼를 소재로 도안한 무늬.

내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토끼무늬를 사용하였는지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벽화에 표현된 해와 달에는 각각 동물무늬가 있는데 해에는 새(삼족오)가, 달에는 두꺼비 또는 토끼와 두꺼비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토끼와 두꺼비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는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2호분에는 두꺼비가 네 다리를 펼친 정면으로, 토끼는 두 다리로서 있는 듯 측면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무늬는 통일신라시대의 수막새에서도 확인되는데 계수나무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토끼가, 오른쪽에는 두꺼비가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선 모습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동경銅鏡에서도 토끼가 약방아를 짊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같은 달 토끼와 두꺼비의 표현은 중국 설화에 전하는 후예(后羿)와 향아(嫦娥)의 이야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아는 서왕모의 불사약을 훔쳐 달로 달아나 그 죄로 두꺼비가 되었다는 전설 속 선녀이다. 달 속 두꺼비는 향아이며, 토끼는 달에서 서왕모를 위해 불사의 약을 짓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원히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달토끼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의미로 무늬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토끼무늬는 중생구원(衆生救援)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주로 불교의 장식물에서 확인된다. 불교에서 토끼는 자신의 몸을 시주한 희생이나 보시와 중생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토끼가 죽어가는 노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에 던져 공양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노인의 모습을 빌렸던 제석천은 토끼의 행동을 가상하게 여겨 토끼를 달로 보냈고, 이후 토끼는 달 속에서 중생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불교에서 토끼를 무늬로 사용한 배경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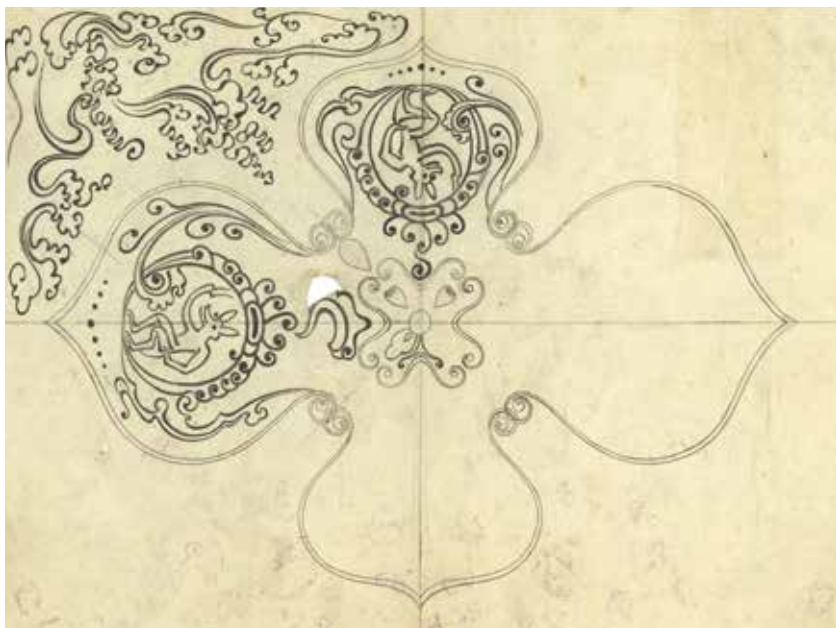
직물에 토끼무늬가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자료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토끼무늬 직물은 당나라 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그 역사는 좀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로 중국 금나라와 원나라 시기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금나라 관복의 직금(直金) 흉배에 표현된 토끼무늬를 보면 흉배 중앙에 매가 토끼를 쫓는 장면이 있다. 그 아래에는 괴석과 영지, 중앙에는 풀과 꽃나무, 위로는 구름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사냥을 중시한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내몽골자치구에서 출토된 원나라 여자 복식에 수놓인 토끼무늬는 풀과 구름 사이에 엮드려 뒤



가사 | 가로174 세로95 | 국립민속박물관



월기 | 가로113 세로162 대각선205 | 대한제국 | 국립고궁박물관



토끼무늬 | 광복 이후 | 원주시역사박물관

를 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꽃·새·영지·사슴·학·봉황·쌍어 등 자연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장생과 풍요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토끼무늬 직물은 주로 불교와 연관성이 높다. 1302년의 금동아미타불 복장 주머니와 직물편에서 토끼무늬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주황색 바탕에 토끼와 불로초인 영지버섯을 금실로 직조하였고, 또 다른 갈색 직물에는 토끼와 꽃송이 무늬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토끼는 중생구원의 의미를, 영지와 꽃송이는 장생과 풍요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토끼무늬 직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만력제 萬曆帝(1563~1620)의 무덤인 정릉에서 출토된 직금직물에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모습으로 표현된 토끼무늬가 있으며, 비너·귀걸이 등에서도 약방아 찼는 토끼나 영지와 함께 표현된 토끼장식 등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직물에서 토끼무늬가 다시 등장한 것은 18세기 이후로 불교용품인 가사와 복장낭 腹藏囊에서 확인된다.

선암사에 소장된 삼보명자수가사는 홍황색 비단에 불·보살의 존명과 경전 이름을 수놓았고, 중간 상단에는 별도의 해무늬와 달무늬가 수놓아져 있다. 해무늬에는 삼죽오가, 달무늬에는 방아 찼는 토끼 모습이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불교의 장식물에 사용된 일월수 다라니주머니가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이 소장

중인 일월수 다라니주머니는 한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연화화생도〉를 수놓았다. 하지만 해에는 새무늬(삼죽오)가, 달에는 방아 찼는 토끼 모습이 담겨 서로 구분된다. 이렇게 가사와 주머니에 표현된 해 속의 새는 ‘천계의 사자使者’의 의미로, 달 속 토끼는 ‘중생구원’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황제의 면복冕服에 사용된 해무늬와 달무늬에도 토끼의 모습이 나온다. 면복은 혼례와 같은 큰 행사나 제사 때 착용하는 대례복으로 황제나 왕, 왕세자, 왕세손의 법복이다. 조선시대가 왕의 시대였다면 대한제국 시기는 짧게나마 황제의 시대였다.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의복 역시 황제에 준하여 바뀌었다. 면복은 면류관冕旒冠과 검은색 장복章服을 착용하는데, 왕의 면류관은 눈을 가리도록 늘이는 구슬장식이 아홉 줄이고 황제는 열두 줄이다. 또 장복에는 왕과 황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무늬로 그려 넣는데, 왕은 무늬가 아홉 개인 반면 황제는 열두 개의 무늬를 넣어 십이류면 십이장복이 된다. 이 열두 개의 장문 중 하나가 양어깨에 배치되는 해무늬와 달무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무늬와 달무늬가 있는 황제의 면복은 남아 있지 않으나 순종황제 면복 착용 사진과 고종황제로 추정되는 〈태상황제 사십구세 어용초본 Ⅱ〉(1902)에서 양어깨에 표현된 해무늬와 달무늬가 확인된다. 해와 달의 새·토끼무늬는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면복 십이장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제국 황제의 의장기 중 하나인 월기月旗의 토끼무늬와 일기日旗의 새무늬를 통해 황제의 면복에 사용되었을 십이장복의 새·토끼무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황제의 면복에 사용되는 해무늬와 달무늬는 하늘, 즉 천자의 의미와 구휼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무늬는 표현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중 토끼무늬의 경우 도교에서는 장생불사 長生不死, 불교에서는 중생구원의 의미가 있으며, 민가에서는 달 속 토끼가 떡방아를 찼고 있다고 믿어 풍요의 상징으로도 여겨왔다. 또 십이지 중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의 의미가 있으며, 계절로는 봄을 상징 한다. 해와 달은 하늘의 상징이자 음양의 의미로 인간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달은 신비로움의 대상이자 인간의 만복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여겨 왔다. 이 때문에 토끼 역시 달과 동일한 상징적 의미로 무늬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三才圖會, 고구려 고분 벽화(전호태, 연합뉴스, 2006), 대한제국 황제복식(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2018), 면복(최연우, 문학동네, 2015), 자화상(예술의 전당, 2020), 한국 자수 이천년(심연옥·금다운, 크리빗, 2020), 한국전통문양 주식회사(임영주, 예원, 1998),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6), 服飾中華七千年藝術巨作下(黃能福·陳娟娟·黃鋼, 清华大学出版社, 2018), 定陵出土文物圖典卷一(北京市昌平區十三陵特區辦事處, 北京出版社, 2006).

필자 정미숙(鄭美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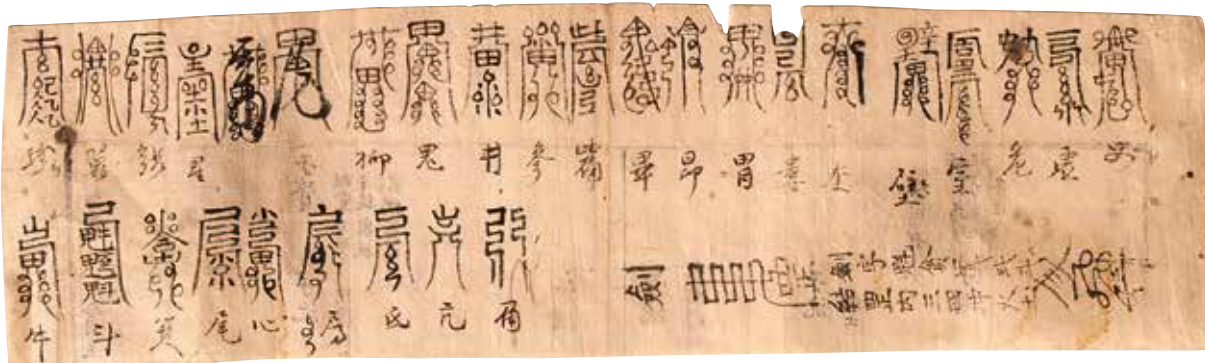
토끼부적

토끼 모양을 상징하는 주술적 글자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 재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부적.

내용 부적은 사악한 기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림 또는 문자를 종이에 그리거나 목판으로 찍어낸 주술적 도구이다. 글자부적은 글자를 단독으로 쓰거나 여러 글자를 조합하여 쓴 부적으로, 자의字意와 글자 형태로써 귀신에게 주술적 위력을 발휘한다. 그림부적은 구상적具象的·반구상적 그림이 그려진 부적으로, 그려진 대상이 갖고 있는 표상表象이 주술력의 원천이 된다. 토끼부적은 아들 잉태와 출산, 부부애와 부부화합 재산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기원하며 토끼 모양을 상징하는 주술적 글자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찍어낸 것이다. 또한 묘생 卯生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묘방 卯方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수호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에서는 토끼부적에 여성의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부부애를 더하여 부부화합을 이루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달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는 토끼의 모습과 토끼의 윗입술 모양이 여성의 외음부外陰部와 비슷하고 달의 만월滿月 주기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인도·일본 등지에서도 바닷조개·굴·진주는 여성 외음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것들을 부적이나 장신구로 몸에 지니면 여성의 수태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액운厄運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토끼는 몸은 작지만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다. 그래서 토끼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며, 재물과 하는 일이 늘어나는 번성도 상징한다. 따라서 물질적 이득과 재물이 더 늘어나기를 염원하는 경우에도 토끼부적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예로 달(月)을 의미하는 태음부太陰符의 토끼부가 있다. 재물을 얻거나 취업을 하거나 하는 일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토끼가 지닌 표상을 주술적으



별자리부 중 토끼 | 가회민화박물관

로 나타낸 것이다.

십이지는 우리나라에 유래된 이래 열두 방위에도 각기 배정되는데, 십이지의 열두 동물은 자신이 주관하는 방향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수호신의 역할도 한다. 토끼(卯)의 방위는 정동방으로, 김유신묘의 호석의 십이지신상 중 토끼상처럼 묘신卯神은 정동방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동양천문의 28수宿 중에서 각角·항亢·저저·방房·심心·미尾·기箕는 동방 7수로 청룡에 속하는데, 방수房宿는 토끼가 상징동물이다. 묘卯의 방위가 정동방正東方이기 때문이다. 방수 별자리 부적 옆에는 별과 토끼가 그려져 있는데, ‘하늘(별)―땅(토끼)―사람’의 관계를 천지인 삼재三才일치 사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또한 묘생卯生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할 때도 토끼부적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복두칠성은 사람이 태어난 해의 본명성本命星을 주관한다고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생년인 십이지의 띠를 복두칠성의 일곱 별 각각에 배당하여 본명성으로 삼았는데, 문곡성文曲星은 토끼·닭(酉)띠생을 수호하는 별로 간주되어 문곡부文曲符가 그려진 것과 같다.

특징 및 의의

달 속 계수나무의 토끼가 찧는 방아는 부부애를 은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토끼의 생물학적 특징을 더하여 수태와 출산, 부부화합, 재물이 증식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주술적으로 표상된 것이다. 그리고 십이지신의 수호신과 본명성 관념으로 토끼부적은 묘방을 수호하고 묘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술적 도구의 역할도 한다.

참고문헌 귀신 그리고 부적의 주술성과 상징성(김만태, 종교와 그림, 민속원, 2008), 부적에 나타난 복두칠성의 조형성 연구(김만태, 한국무속학15, 한국무속학회, 2007), 이미지와 상징(Mircea Eliade, 이재실 역, 까치, 2005), 한국 문화상징사전1(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996), 한국의 벽사부적(김영자, 대원사, 2008), 한국의 부적(김민기, 보림사, 1987).

필자 김만태(金萬泰)

토끼털

토끼의 털을 벗기거나 깎아 내어 가공한 복식 소재의 한 종류.

역사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꼬리가 긴 토끼가 있었다고 전한다.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 식화고食貨考에 ‘백토피白兔皮’를 공물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신당서新唐書』 흑수말갈조黑水靺鞨條에는 ‘물길勿吉에서는 흰 토끼가

많이 생산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라도와 강원도 토산으로 토피가 진상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토끼털은 문헌에 토피兔皮로 기록되어 있다. 피부는 털이 붙은 가죽을 통째로 벗긴 것으로, 토피는 토끼털을 포함한 가죽을 의미한다. 토끼털은 토모兔毛나 토호兔毫로도 불린다.

토끼털을 사용한 유물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털배자가 있으며, 배자褙子 안감으로 갈색과 검은색 털이 섞인 토끼털을 썼다.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양단洋緞 겉감에 황갈색 토끼털 안감을 한 털배자를 비롯하여 황갈색 토끼털을 두른 털토시와 순백색 토끼털을 댄 털토시 등이 있다. 미국 피바디박물관에도 토끼털을 사용한 이염耳掩이 남아 있다. 현전하는 토끼털 배자와 토시는 대부분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토끼털은 의복의 재료 외에 고급 붓을 제작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계거鷄距는 붓의 이칭으로, 백거이는 <계거필부鷄距筆賦>에서 '털 중에 가장 굳센 것은 토끼털'이라고 하였다. 이응희의 『옥담시집玉潭詩集』에도 '(붓을) 토끼털로 만들었으니 품질이 좋아서(兔毫將美質)'라는 구절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양토장려회' 등 토끼사육이 권장되면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토끼털이 생산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1951년 『경향신문』이나 1953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도도 차원에서 토끼사육을 홍보하거나 심지어 동부전선의 육군부대에서 토끼를 150마리 길렀다는 내용이 있다. 1970년대까지도 일반 가정집에서 부업으로 토끼털을 생산하는 일이 인기여서, 토끼사육법이나 토끼털 다루는 기술이 생활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토끼처럼 초식성인 작은 동물의 털은 육식 동물의 모피에 비해 약하지만 부드럽다. 토끼털은 밝은 노란색을 비롯하여 회색과 흰색 등 다양하다. 대개 털의 직경은 67.5 μ m이며, 길이는 2~3cm 정도이다. 토끼털은 모근에서 털끝 쪽으로 갈수록 털의 직경이 굵어진다. 토끼털의 스케일scale(비늘)은 털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일의 가장자리가 일정하고 매끄러우며, 스케일의 간격은 모근 쪽에서 넓게 나타나다가 털끝으로 갈수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메둘라medulla(모수질)는 속이 비어 있는 모발의 중심부로, 토끼털의 메둘라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 메둘라의 형태 관찰만으로 토끼털임을 식별할 수 있다.

토끼털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었던 앙고라 토끼의 털은 가볍고 따뜻하며 감촉이 좋으면서 순백색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앙고라 토끼털의 메둘라에는 몇 개의 기포가 연결되어 있어 양모에 비해 가볍고 보온력도 더



배자 | 품50 등길이3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아동용 토끼털 옷 | 품23 길이34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풍차 | 너비36 길이38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좋게 느껴지고, 면섬유보다 6배 정도 흡습성이 높아서 40% 정도의 습기를 흡수해도 습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앙고라 토끼의 털은 스케일이 적어 방적에 어려움이 있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털이 잘 빠지기도 하며, 정전기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70%의 토끼털에 양모·실크·면 등을 혼방하여 사용한다. 앙고라 토끼의 털은 75일에 한 번씩 깎을 수 있으며, 1년에 토끼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토끼털은 600~1,000g 정도이다.

참고문헌 과학수사 증거물로서 동물털과 동물섬유의 모수질 유형에 따른 식별(윤영욱·전수현·최미정, 과학수사학회지 15-1, 한국과학수사학회, 2021), 양모강좌(공석봉, 교문사, 1989), 한국고대복식(박선희, 지식산업사, 2002), 한국산 포유동물 털의 외부형태 관찰에 대한 연구(정상용,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의 모직물과 피물에 관한 연구(박순지,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쓸모있는 앙고라 토끼 사육(대한뉴스, 1962.5.5.)
필자 안보연(安寶蓮)

토사자

兔絲子

매꽃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기생식물 새삼의 씨앗.

내용 토사자를 맺는 식물의 이름은 금사초金絲草, 새삼, 실새삼 등으로 일컬어진다. 새삼의 줄기는 실 같고 황백색이며, 꽃은 양성으로 백색이며 뭉쳐나 둥근 형태를 이룬다. 종자는 보통 4립이며 담갈색의 달걀 모양이다. 가을철에 열매가 잘 익었을 때 식물체를 베어 햇볕에 말려 씨를 털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약재로 사용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성질이 미지근하고 맛은 맵고 달며 독이 없는 것으로 쓰여 있다.

토사자는 약재로서 여러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정액과 골수를 채워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며, 소변을 본 뒤에도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입맛이 쓰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증상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고의서古醫書나 한의학 처방에서는 보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토사자는 정기의 품성을 받아 씨가 달리는데, 위기衛氣를 보하고 근육과 맥박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새삼은 곳곳에서 자라는데 콩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뿌리가 없고 다른 식물의 기운을 받고 자란다. 가는 덩굴식물로 누런색이다. 음력 6~7월에 씨가 여무는데, 매우 작아서 누에의 알과 같다. 음력 9월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짓뭉어 가루를 만들어 약으로 쓴다.

특징 및 의의 한의학에서는 오미자·구기자·복분자·사상자·토사자를 ‘오자五子’라고 부르는데,



토사자 | 2022 | 박경용

‘자子’는 식물의 열매를 지칭한다. 씨앗을 토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허리를 다친 토끼가 새삼을 뜯어먹고 나왔다고 해서 토끼 ‘토兔’가 들어간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씨앗 원형을 물에 끓여 우려내거나 혹은 이를 찌거나 볶은 다음 가루 내어 차로도 이용한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本草綱目, 동의보감(신용욱·신전휘, 백초, 2013), 한국한의학연구원 본초감별도감(herba.kr/boncho).
필자 박경용(朴敬庸)

토해

兔醢

토끼고기와 소금·밥을 섞어 발효시킨 것으로 제례 음식의 일종.

내용 토해는 깨끗하게 손질한 토끼고기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제사 모시기 직전에 소금간을 한 쌀밥과 합하여 버무린 뒤에 하루 동안 삭힌 것으로, 종묘제례宗廟祭禮·사직단제례社稷壇祭禮·영녕전제례永寧殿祭禮·대보단제례大報壇祭禮·경모궁제례景慕宮祭禮·석전제례釋奠祭禮·삼각산절제三角山節祭·선잠절제先蠶節祭·우사절제雩祀節祭·기우제祈雨祭·선농절제先農節祭 등 조선시대 당시 왕실 주도로 거행되었던 제례에 올린 제물이다.

이는 『예기禮記』와 『의례儀禮』에 기술된 제례법을 따른 것으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가 주관하여 석전을 거행하는 의식인 왕세자석전문선왕의王世子釋奠文宣王儀의 기록과 조선시대 동교東郊 선농단先農壇에서 풍년을 빌기 위하여 농업신인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에게 바쳤던 제사인 선농제先農祭에 관한 기록(『성종실록成宗實錄』 6년 1월 25일)을 보면, “첫째 줄에는 구저韭菹를 앞에 놓고, 탐해醢醢·청저靑菹·녹해鹿醢는 다음에 놓으며,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를 앞에 놓고, 토해兔醢와 순저筍菹는 다음에 놓으며,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를 앞에 놓고, 비석脾析과 돈박豚拍은 다음에 놓는다”라고 하였다. 토해는 반드시 올리는 제물이며, 그 위치까지 정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당시에는 거울에 공납받은 토끼를 소금에 절여 놓는데, 제기 1두당 1근씩 봉진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토해는 국가제례에 봉진하는 제물로, 고례古禮에 따라 엄격하게 격식을 갖추고서 모셨음을 옛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엄정한 발효식품의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禮記, 儀禮, 朝鮮王朝實錄,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6).
필자 서해숙(徐海淑)

호응박토도

豪鷹搏兔圖

날쌔고 사나운 매가 토끼를 포획한 매우 긴박한 장면을 담은 그림.

내용 인류의 수렵狩獵 역사는 무척 길다. 농경農耕으로 정착하며 가축을 기르기 전 문명단계에서 수렵은 모든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양상이다. 특히 길들인 매를 이용하여 토끼 등 길짐승이나 꿩 등 조류를 포획하는 매사냥(웅렵鷹獵)은 한자문화권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냥 방식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도 삼국시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매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하였다. 고려 때인 1273년에는 매사냥과 사육을 위한 국가기관인 응방鷹坊을 설치하였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매사냥 그림은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 꿩과 까치 등 조류로 매가 새를 노리거나 포획한 모습 또는 토끼를 포획한 장면으로 크게 나뉘는데, 호응박토도豪鷹搏兔圖는 후자에 속한다. 전자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물까치를 포획한 매>를 꼽을 수 있는데,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미공개 회화 특별전’을 통해 처음

공개된 작품이다. 비단에 진채眞彩를 사용한 17세기 궁중 화원의 그림으로 사료된다.

호응박토도의 대표작으로는 심사정沈師正의 두 대작을 들 수 있다. 심사정이 타계하기 1년 전인 1768년 그림과 또 다른 1점은 속도감 있는 활달하고 웅혼한 필치로, 화가의 제발題跋에서도 밝혔듯이 명나라 궁정화가 임량林良의 영향을 받았다. 화면 중심인 폭포 주변 바위에는 매에게 포획된 토끼가, 상단엔 소나무 주변에서 부산한 동작을 취하는 놀란 까치들이, 하단엔 이와 무관한 듯이 꿩 한 쌍이 등장한다. 떨어지는 물소리며 긴장된 극적인 장면이 잘 드러난다. 한편 매에게 잡힌 토끼 그림은 그림 내용처럼 긴박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통념으로 소장가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토끼를 잡아 찬 매 | 가로35 세로42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호응박토도’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림에 자주 나타나는 독립된 주제로 오랜 전통을 지닌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림은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토끼가 꿩 등 조류에게 포획당한 장면을 주제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산수와 인물 및 화조에서 사실적인 기법이 크게 진작된 18세기 조선에서 활발히 활동한 심사정, 최북 등 직업화가와 화원의 작품이 있다. 아울러 호렵도胡獵圖를 비롯해 정형화된 대작 병풍 등의 세부에서도 살필 수 있다. 조선 말에서 근대로 이어져 민화에서도 나타난다.

참고문헌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세상, 2001), 공민왕 전칭작들에 대한 고찰(이원복, 동양미술사학17, 동양미술사학회, 2015), 다정한 벗 든든한 수호신(이원복, 보림출판사, 2007), 두성령 이암의 영묘화(이원복, 고고학지17,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1), 십이지신 토끼(이어령 외, 생각의 나무, 2010), 열두 띠 이야기(김선풍 외, 집문당, 1995), 조선시대의 응도고(이원복, 서동13~17, 동방연서회, 1989~1990), 중국문화 중국정신(C.A.S Williams, 이용찬 외 역, 대원사, 1987),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의 수렵도(이원복, 고고미술사론1,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0),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이원복(李源福)

부록

토끼 문화재
Rabbit: Cultural Heritages

우리말 속 토끼
Rabbit: Oral Tradition

토끼 이야기
Rabbit: Tales

토끼 소식
Rabbit: News

색인
Index

필자
Author

토끼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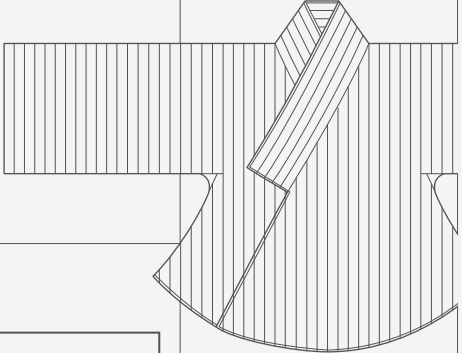








Rabbit: Cultural Heritages

토끼 관련 박물관 소장품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고성탈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김해한림박물관
남가람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목인박물관 목석원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원주시역사박물관
청량산박물관
하회세계탈박물관
한국근대박물관
한국민화박물관
한국민화박물관

| | | |
|--|---|--|
| <p>문화예술 p.196</p>  | <p>의생활 p.212</p>  | |
| <p>산업/생업 p.210</p>  | <p>식생활 p.216</p>  | |
| <p>주생활 p.217</p>  | <p>교통/통신 p.219</p>  | <p>종교신앙 p.220</p>  |
| <p>사회생활 p.223</p>  |  |  |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

白磁 博山形蓋 香爐
백자
지름8.1cm 높이8.5cm
문화재청



토기 장식 인장

印章
나무
지름4.9cm 높이3.3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1111



토기 문양 선추

扇墜
나무
지름4cm 두께 0.9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2579



토기 문양 봉인

封印
나무
지름4.7cm 높이4.3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75687



문양판

나무
너비6.8cm 길이7cm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 010201



옥제토기모양장식

玉製卵狀裝飾
옥
너비2.5cm 높이2.4cm
국립대구박물관 | 안동 32



토기와 거북이

나무
목인박물관 목석원 | 한국목인 1314



십이지 묘-토끼 탈

卯
짚
하회세계탈박물관 | 구입 147



토기무늬 나전 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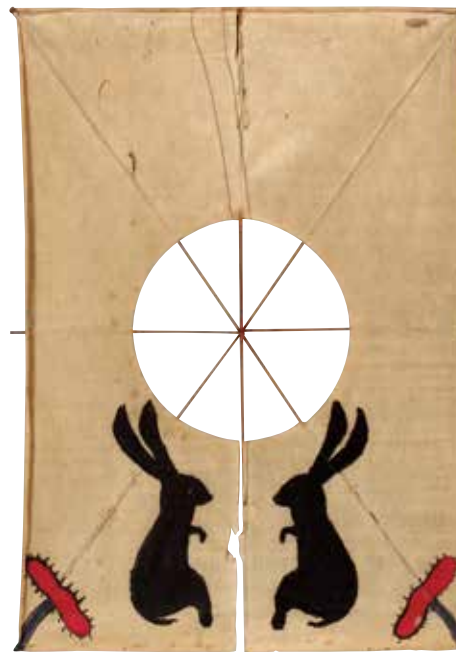
螺鈿草本
종이
가로28cm 세로2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56861



12지탈(토끼)
나무
가로21cm 세로33cm 두께8cm
고성탈박물관 | 고성탈 9

토기 장식품

금속
너비4.8cm 길이8.5cm 높이13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66691



쌍토끼연

종이, 나무
가로40cm 세로57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08600



황조롱이와 토끼
鷹圖
장승업
사직
가로60cm 세로189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75834



응시쌍토도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1156



근역화취-마군후 쌍토도
權域畫叢-馬君厚 雙兔圖
마군후
종이
가로22.8cm 세로26.6cm
서울대학교 박물관 | 역 643-54



매화쌍토도
한국민화박물관
화조도 31127



화조쌍토도
한국민화박물관
화조도 31052



토끼를 잡은 매
豪鷹搏兔圖
심사정
종이
가로53.6cm
세로115.1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5718



토끼를 잡아 찬 매
筆豪鷹搏兔圖
최북
종이
가로35.4cm 세로41.7cm
국립중앙박물관 | 동원 2543



문자도 8폭 병풍 부분

文字圖八幅屏風

종이

전체가로288cm 세로59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8617



문자도 8폭 병풍 부분

文字圖八幅屏風

종이

가로32.3cm 세로97.8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3617



토끼 그림

김현경

종이

가로51.5cm 세로60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5010



토도·송하관월도

兔圖

종이

가로32.6cm 세로54.8cm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 1386



영모도

翎毛圖

종이

가로82cm 세로120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9693



화조도 8폭 병풍 부분

花鳥圖八幅屏風

종이

가로308cm 세로122.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93355



어락도 2폭 부분

漁樂圖

종이

전체가로30cm 세로52.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18609



송응도 부분

松鷹圖

종이

가로60cm 세로194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90334



호렵도 부분

胡獵圖

종이

가로29.7cm 세로108.3cm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 016079



영수도

靈獸圖

종이

가로33.1cm 세로104.9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29116



화조영모도 10폭 병풍 부분

花鳥翎毛圖 十幅屏風

사직

가로38cm 세로153.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90327



화조영모도 10폭 부분

花鳥翎毛圖

사직

가로31cm 세로120.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0666

토끼
김화경
종이
가로69.8cm 세로55cm
남가람박물관 | 회화 11



월하백도
月下白圖
存齋
종이
가로29.8cm
세로36.4cm
국립중앙박물관
동원 2428



화조도 8쪽 병풍 부분
花鳥圖八幅屏風
종이
전체가로364cm 세로181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17380

산수도 10쪽 병풍 부분
山水圖十幅屏風
종이
가로31.5cm 세로95.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24184

방아 짙는 토끼
종이
가로32cm 세로82cm
삼척시립박물관 | 삼척시립 2408

토끼 민화
종이
가로33cm 세로75cm
삼척시립박물관 | 삼척시립 2409

절구 빙는 토끼
종이
가로25cm 세로33cm
원주시역사박물관
원평 4182



응토도
종이
가로31cm 세로67cm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 2318



화조영모도 10쪽 병풍 부분
花鳥翎毛圖十幅屏風
종이
전체가로452cm 세로94.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47238





멧토끼
청량산박물관 | 청량산박물관 1624

토끼 그림
조현동
사직
가로40.5cm
세로47.5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5008



토끼 그림
종이
가로78cm 세로37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55472



토끼 그림
박태일
종이
가로45.5cm 세로35.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5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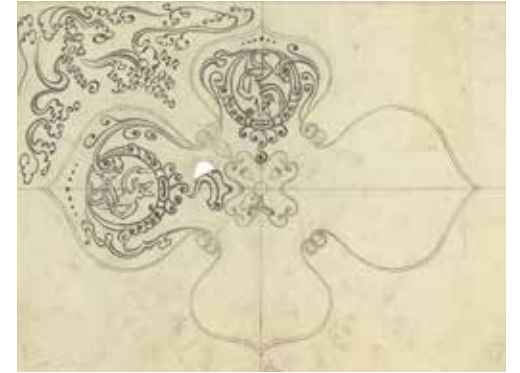
범과 토끼 삽화
종이
가로17.3cm
세로10.5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5448



피 많은 토끼 삽화
종이
가로17.3cm
세로11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5451



말방울 삽화
종이
가로17.3cm
세로11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5442



토끼무늬
종이
가로40cm 세로27.5cm
원주지역사박물관 | 일사 1045

토끼 그림
김백석
종이
가로51cm 세로60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5009



혁필화
革筆畫
종이
가로22cm 세로94.7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20665

토끼전
종이
가로20.3cm 세로30cm
국립중앙박물관 | 구 4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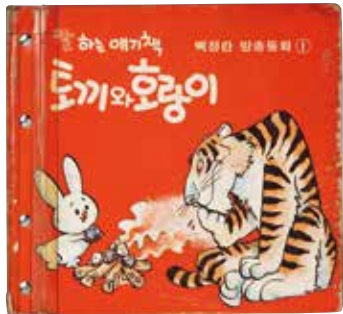
별주부전
籀主簿傳
종이
가로19.2cm 세로30.3cm
국립한글박물관 | 한구 9376



주부전
主簿傳
종이
가로27.5cm 세로32.5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75224



**말하는 얘기책
토끼와 호랑이**
종이
가로21.5cm
세로21.5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9347



토끼·토끼(2)
종이
한국만화박물관
단행본 2662



옥토끼 어린이 동화집
종이
가로12.8cm 세로18.7cm
국립한글박물관 | 한구 13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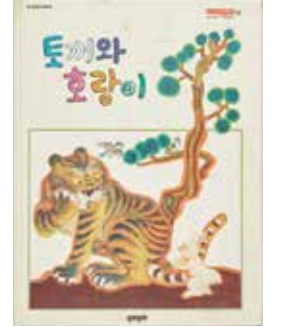
토끼와 시계와 회심곡
토끼와 時計와 回心曲
종이
한국근대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10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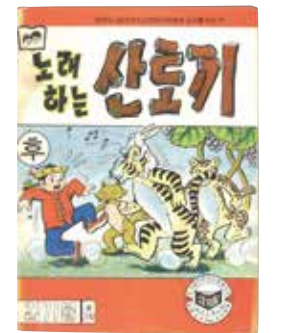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노래속의 동극<제8집> 토끼와 거북
합성수지
가로31.5cm 세로31.6cm 지름30.1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박 9089



토끼와 호랑이
종이
가로26.9cm 세로35.5cm
높이0.9cm
김해한림박물관
사회생활 753



노래하는 산토끼(후)
종이
한국만화박물관
단행본 745



토끼와 원숭이
종이
한국만화박물관
단행본 6472



토끼왕국과 사냥개 바푸
종이
한국만화박물관 | 원화 3161

실험양토법

實驗養兔法

종이

가로 13.8cm 세로 12.8cm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국립수목원 150205



토끼요리 리플렛

종이

가로 11cm 세로 20.1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40905



4H 토끼가족 가공법

가로 14.8cm 세로 20.9cm

종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40868



토끼 유년대 교범

종이

가로 12.7cm 세로 18.6cm

두께 0.9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박 19450



외래 개량종 토끼 사육 장려 포스터

종이

가로 34.4cm 세로 48.3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입 2187



양봉 및 양토법

養蜂及養兔法

종이

가로 15.2cm 세로 20.2cm

두께 0.3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입 6601



알기 쉬운 토끼·산양 기르기

종이

가로 12.8cm 세로 18.5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55462



토끼 기르기와 이용법

종이

가로 15cm 세로 21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20575



실과 과목 교과서

종이

가로 14.7cm 세로 21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54321



국어생활 5학년 교과서

종이

가로 12.5cm 세로 18.5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54232



세발창날

금속

길이 30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17146



토끼땃

나무

가로 66cm 세로 7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04722



가사
 袷褙
 사직
 길이93cm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 009838



가사장식
 袷褙裝飾
 사직
 지름7.6cm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 009696



가사장식
 袷褙裝飾
 사직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17185



가사장식
 袷褙裝飾
 사직
 지름7.3cm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 009697



토끼모양 노리개장식
 佩物裝飾
 금속
 길이3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0640



패철선추
 佩鐵扇錘
 나무
 길이43.7cm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 009408



토끼털 목도리
 털
 너비7cm 길이81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8341



토끼털 토시
 사직
 길이2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17047



토끼털 토시
 사직
 길이44cm 너비20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91617



아동용 토끼털 옷
 사직
 품23cm 길이34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38216



토끼털 배자
 사직
 품34cm 등길이24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75609



토끼털 배자
 사직
 품50cm 등길이39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50436



토끼털 풍차
 사직
 지름18cm 길이36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5150



토끼털 남바위
 사직
 길이43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57816



토끼털 풍차
 사직
 너비36cm 길이38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82896



토끼털 풍차
 사직
 길이37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1925



토끼문접시

도자기
입지름 10.6cm
바닥지름 5.8cm
높이 2cm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5277



녹색유토끼문접시

도자기
입지름 9.4cm
바닥지름 4.8cm
높이 1.8cm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5289



토끼문접시

도자기
지름 8.5cm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9053



산토끼 수통

금속
지름 18cm 높이 8cm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 3405



닭·토끼·물고기 모양 설탕 엿 들

금속
너비 18.8cm 길이 5cm 두께 1.3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입 7531



토끼 문양 떡살

나무
너비 5.5cm 길이 42.5cm 두께 2.8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85259



달과 토끼무늬 수막새

蟾兔文圓瓦當
토제
지름 12.5cm 두께 2.1cm
국립중앙박물관
증 3434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靑磁 透刻七寶文蓋 香爐
도자기
지름 11.5cm 높이 15.3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2990



수막새

圓瓦當
토제
국립중앙박물관
K번 100



토끼 문양 베갯모판

나무
지름 15cm 높이 2.1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62595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白磁 鐵砂卵形硯滴
도자기
바닥지름 9.3cm 높이 6cm
국립중앙박물관 | 수정 291



동제명문릉형경

銅製銘文菱形鏡
금속
지름 19.4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5049



토끼 문양 다듬잇돌

돌
너비 46.3cm 길이 18.5cm 높이 10.8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93344



토끼문 일월연
 돌
 가로12.4cm 세로21.7cm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 1356



토끼 장식 화반
 花般
 나무
 길이51.7cm 높이19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24482



토끼 가죽 망태기
 사직
 가로45cm
 세로28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5438



잡유 토끼모양 함
 雜糶兔形盒
 도자기
 지름10cm 높이8.3cm
 국립중앙박물관 | 동원 1657



십이지 문양 재떨이
 금속
 너비18cm 높이2.2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43275



자개 삼층농
 三層籠
 나무, 패갑
 가로107cm 세로53cm 높이193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40498



교통/통신

토끼의 간 우표
 종이
 가로9cm 세로6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94319



토끼의 간 우표
 종이
 가로9cm 세로6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94320



토끼의 간 우표
 종이
 가로9cm 세로6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94321



토끼의 간 우표
 종이
 가로9cm 세로6cm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94322



1975년 연하우표
 종이
 가로2.7cm 세로3.7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고 6711



1975년 연하우표
 종이
 가로9cm 세로6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박 1720



1987년 연하우표
 종이
 가로2.6cm 세로3.6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고 6712



1999년 연하우표
 종이
 가로2.7cm 세로3.6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고 6713





종교신앙

청동십이지상-토끼

靑銅十二支卯像

금속

높이8.2cm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 7532



납석 십이지 토끼

蠟石製卯像

돌

높이40.8cm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14628



십이지신상-토끼

十二支神像-卯

도자기

너비11.5cm 길이10cm 높이4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84280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십이지신 토끼

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十二支神 卯像

돌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번호 00062588



경주 경덕왕릉 방형분

십이지신 토끼

慶州 景德王陵 十二支神卯像

돌

국립민속박물관 |

아카이브번호 00062564



십이지신상-토끼

十二支神像-卯

너비5.5cm 높이17cm

돌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56390



십이지신상-토끼

十二支神像-卯

나무

너비61cm 높이99cm

국립민속박물관

참고자료 002100

원원사지 동탑 기단석

십이지신상 탁본-토끼

종이

가로45cm 세로82cm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기증 439-4



진덕여왕릉 십이지신상 탁본-토끼

眞德女王陵 十二支神像 拓本-卯

종이

가로46cm 세로62cm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기증 4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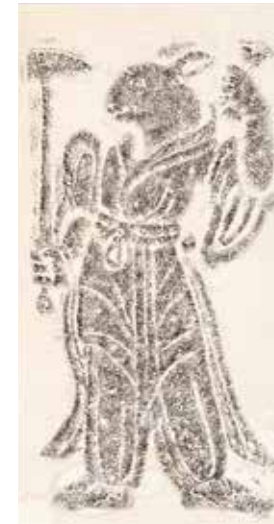
김유신묘 십이지 토끼신상

金庾信墓十二支卯神像

종이

가로49cm 세로94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51252



십이지 도판-토끼

十二支 陶板-卯

도자기

가로16.2cm 세로21.7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2752



묘신 안저라대장
 卯神 安底羅大將
 종이
 가로70cm 세로136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09718



십이지신 그림-토끼
 종이
 가로3.8cm 세로3.5cm
 국립민속박물관 | 아카이브번호 00067081



십이지신 목판-토끼
 나무
 가로36.2cm 세로17.8cm 두께4.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028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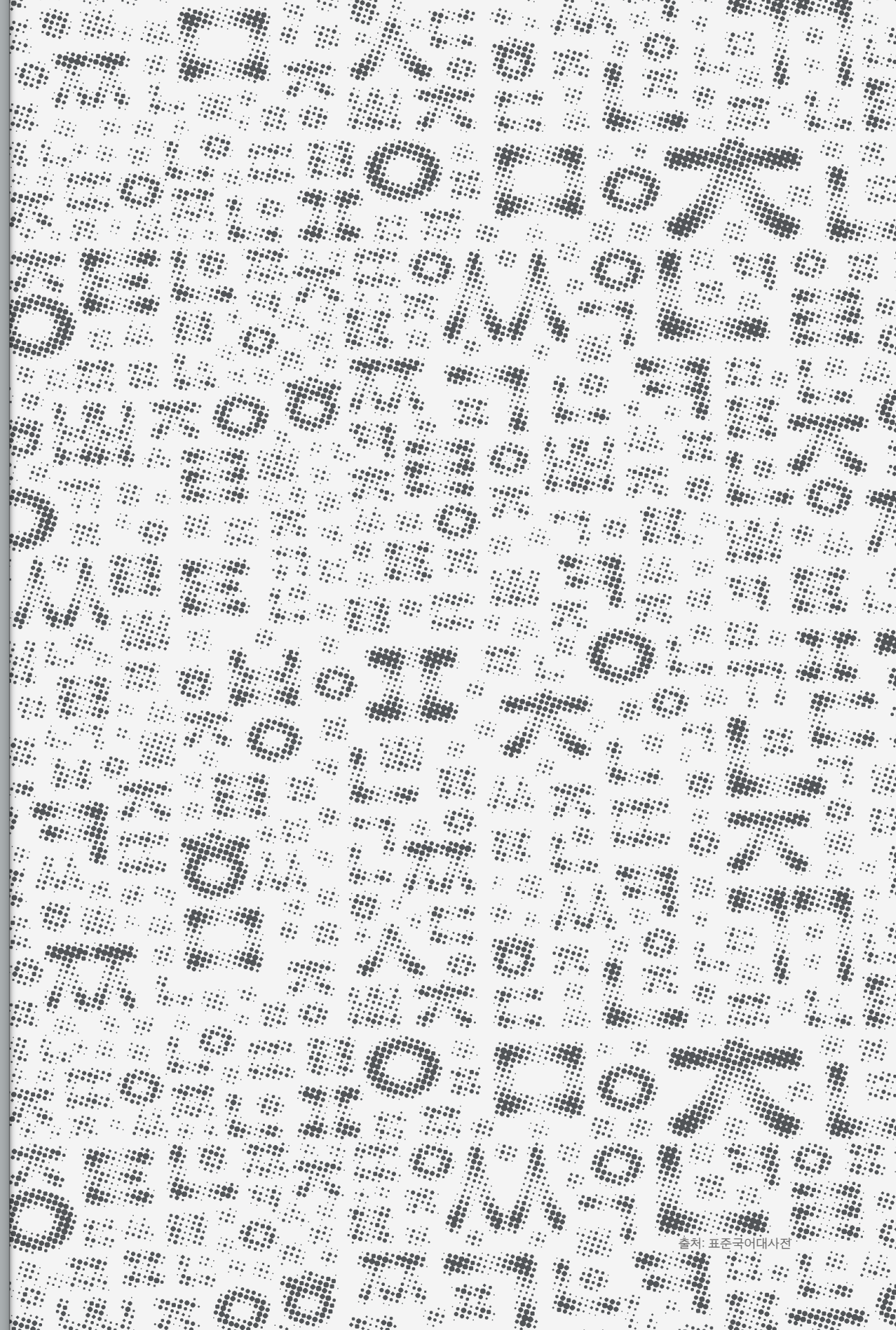
월기
 月旗
 사직
 가로113cm 세로162cm
 국립고궁박물관 | 창덕 26924



정묘기
 丁卯旗
 사직
 가로180.8cm 세로206.2cm
 국립고궁박물관 | 창덕 26834

우리말 속 토끼

Rabbit: Oral Tradition



ㄱ 가는 토끼 잡으려다가 잡은 토끼 놓친다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교활한 토끼는 굴이 셋이다
피 많은 토끼가 굴 셋을 연결해서 비상시에 이용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비상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뜻.

그물에 걸린 고기[새/토끼] 신세
이미 잡혀 움푹달랠 못 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그물에 든 고기[새]요 쓰아 놓은 범이라.

ㄴ 노루 잡는 사람에 토끼가 보이나
큰일을 꾀하는 사람에게 하찮고 사소한 일은 보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놀란 토끼 눈을 하다
뜻밖이거나 놀라 눈을 크게 뜨다.

놀란 토끼 뛰듯 한다
놀란 토끼가 도망치듯이, 악을 쓰고 도망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놀란 토끼 벼랑바위 쳐다보듯
말도 못 하고 눈만 꺾벅거리며 쳐다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놀란 토끼 벼랑바위 쳐다보듯 한다
무슨 일을 하다가 애만 먹고 절망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놀란 토끼의 눈이다
겁에 질린 눈초리를 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눈 먹는 토끼 다르고, 얼음 먹는 토끼 다르다
사소한 경험의 차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식견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

눈 먹던 토끼 얼음 먹던 토끼가 제각각
눈을 먹고 살던 토끼와 얼음을 먹고 살던 토끼가 다르다는 뜻으로, 사람은 자기가 겪어 온 환경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눈 집어 먹은 토끼 다르고 얼음 집어 먹은 토끼 다르다.

눈먼 토끼 뛰듯 한다
무슨 일을 계획도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눈 온 산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
겨울 산에 눈이 오면 양달 토끼는 건너편 응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굶고만 있지만, 응달 토끼는 건너편 양달의 눈이 녹는 것을 보고 먹이를 찾게 되어 살듯이,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활동력이 더 강하다는 말.

눈 집어 먹은 토끼 다르고 얼음 집어 먹은 토끼 다르다
눈을 먹고 살던 토끼와 얼음을 먹고 살던 토끼가 다르다는 뜻으로, 사람은 자기가 겪어 온 환경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눈 먹던 토끼 얼음 먹던 토끼가 제각각.

ㄷ 달는 사슴보고 얻는 토끼 잃는다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다가는 도리어 손해만 보게 된다는 말.

달는 사슴을 보고 얻은 토끼를 잃는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달는 사슴을 보고 얻은 토끼를 잃는다.

달아나는 토끼 잡으려다가 잡은 토끼 놓친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일을 자꾸 벌여만 놓다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못쓰게 만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ㄹ 바다에 가서 토끼 찾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산에서 물고기 잡기.

바다에 가서 토끼 찾는다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헛일만 하였다는 뜻.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특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 없는 산에서는 토끼가 왕 노릇 한다

주인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뜻.

▲ 사자 없는 산에 토끼가 왕[대장] 노릇 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자 없는 산에서는 토끼가 선생 노릇 한다

책임자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는 뜻.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 잃는다

남의 것을 욕심내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친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차지한 것까지 잃어버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선불 맞은 토끼다

총에 설맞은 토끼가 도망치듯이, 악을 쓰고 도망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성질 급한 토끼가 먼저 죽는다

무슨 일이나 성급하게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뜻.

세전 토끼(라)

태어나서 첫 번째 설을 쇠기 전의 어린 토끼는 늘 같은 길로만 다닌다는 뜻으로, 융통성이 전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세전: 설을 쇠기 전)

세전 토끼다

눈 오기 전에 늘 같은 길만 다니는 토끼처럼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어스렁토끼 재를 넘는다

(북한) 어슬렁어슬렁 굼뜨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재빠르게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우가 죽으니까 토끼가 슬퍼한다

같은 부류의 슬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동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사) 난초 불붙으니 혜초 탄식한다, 토끼 죽으니 여우 슬퍼한다.

여우가 죽은 데 토끼가 슬퍼하듯 한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동정하게 된다는 뜻.

이리 죽은 데 토끼

(북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적은 분량을 이르는 말.

✕ 장마 토끼 날씨 개기 기다리듯 한다

토끼는 물 묻은 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장마 때는 굶주리며 날씨가 좋아지지만 기다린다는 뜻. 소원하는 것을 몹시 기다린다는 뜻.

■ 토끼 새끼가 나이 먹어서 희다더냐

머리가 남보다 흰 것을 두고 나이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후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된 것이라는 뜻.

토끼 같은 자식

토끼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말.

토끼 꼬리만 하다

토끼 꼬리처럼 짧은 물체의 길이를 비유하는 말.

토끼 뒷에 여우가 걸린다

남의 것을 욕심내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토끼 도망치듯 한다

토끼가 도망치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줄곧 도망친다는 뜻.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가는 한 가지 일도 못하게 된다는 뜻.

토끼 두 마리를 쫓다가는 다 놓친다

무슨 일을 한꺼번에 욕심내서 하다가는 그 일을 모두 망치게 된다는 뜻.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다가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뜻.

토끼 보고 환도還刀 빼기다

작은 일을 하는 데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한다는 뜻.

토끼 북한산에 다녀온 셈이다

내용도 모르고 그저 건성으로 다녀왔다는 뜻.

토끼 사냥에 호랑이 가죽 쓴 여우가 날뛴다

양심을 가졌거나 야심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방해한다는 뜻.

토끼 입에 콩가루 먹은 것 같다

무엇을 먹은 흔적을 입가에 남기고 있다는 말.

토끼 입에 콩가루 묻은 것 같다

무엇을 먹은 흔적이 입가에 남아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

토끼 죽으니 여우 슬퍼한다

같은 부류의 슬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동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토끼 죽은 데 여우가 슬퍼한다

동료가 당한 슬픔을 함께 슬퍼한다는 뜻. 동료가 죽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

토끼가 용궁에 가도 살길은 있다

옛날이야기에서 토끼가 거북에게 속아서 바닷속 용궁에 잡혀갔어도 꾀를 내어 살아났듯이, 궁지에 빠진 사람도 실망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남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 놀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침착하지 못하고 경솔한 사람은 제풀에 놀라서 겁을 먹는다는 뜻.

토끼는 굴을 셋 판다

무슨 일에서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를 세워 두어야 한다는 말.
토명삼굴(兔營三窟)

토끼는 잠자다 잡힌다

잠이 많으면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뜻. 잠이 많은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말.

토끼도 위급하면 사람을 문다

약한 사람이라도 궁지에 몰리면 강자에게 대항하게 된다는 뜻.

토끼도 자꾸 때리면 문다

토끼와 같이 순한 사람도 괴롭히면 나중에 덤벼든다는 뜻.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

사람을 쓰다가 이용 가치가 없게 되면 내쫓게 된다는 뜻.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를 보고 그물 멘다

시기를 놓치고 하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는 뜻.

토끼를 보고 매를 날려도 늦지 않다

토끼도 빠르지만 매는 더 빠르기 때문에 토끼를 본 뒤에 매를 날려도 토끼를 잡을 수 있듯이, 약자는 강자 앞에서는 맥을 못 쓴다는 뜻.
견토방음(見兔放鷹)

토끼를 잡고 나면 덧도 잇고 간다

요긴하게 쓰던 물건도 쓰고 난 후에는 버리게 된다는 뜻.

토끼를 잡고 나면 울무를 버린다

요긴하게 쓰던 물건도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게 된다는 뜻.

토끼의 뿔이고 거북의 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 남들이 믿지 않을 소리를 고집한다는 뜻.
토각귀모(兔角龜毛)

토끼잡이다

잠을 오래 자지 않고 잠깐씩 자다 깨다 한다는 뜻.

ㅎ 한라산 토끼 모양

놀라서 눈이 동그해진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라산 토끼상이다

놀란 토끼처럼 눈이 동그해진 모양을 비유하는 말.

한 번에 두 토끼는 못 쫓는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

함정에 빠진 토끼

(북한)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에 처하여서 마지막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특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없는 동산에 토끼가 선생 노릇 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특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토끼를 잡는다

시작할 때는 크게 마음먹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초라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신

| | | |
|--|--|--|
| <p>못 토끼가 하늘에 오르면 높은 지위에 오른다</p> | <p>여러 토끼가 나무에 오르면 귀한 자리를 얻는다</p> | <p>임신 중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된다</p>  |
| <p>토끼 새끼 날 때 사람이 보면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다</p> | <p>토끼가 나무에 오르면 귀인을 만나 크게 도움을 받는다</p>  | <p>토끼고기를 임신 중에 먹으면 아이가 언청이가 된다</p> |
| <p>토끼날 여자가 먼저 집에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p>  | <p>토끼날 일하지 않는다</p> | <p>토끼날 칼질하면 안 된다</p> |
| <p>토끼날에 남의 집에서 소변보면 재수가 안 붙는다</p> | <p>토끼날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재수 없다</p> | <p>토끼날에 여자가 먼저 문을 열면 재수 없다</p>  |
| <p>토끼날은 남자가 남의 집에 먼저 가야 운수가 대통한다</p>  | <p>토끼날은 여자가 남의 집에 못 간다</p> | <p>토끼의 왼쪽 다리를 가지고 다니면 좋다</p> |

출처: 한국민간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고사성어

| | | |
|---|-------------------|--|
| ㄱ | 견분장방획 犬見奔獐放獲兔 | 달아나는 노루 보다가 잡은 토끼 놓친다는 속담의 한역(漢譯)으로, 큰 것에 욕심을 내다가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린다는 말. |
| | 견토방구 見兔放狗 | 토끼를 발견한 후에 사냥개를 놓아서 잡게 하여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사태의 진전을 관망한 후에 응하여도 좋다는 말. |
| | 견토지쟁 犬兔之爭 |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의 싸움에 제삼자가 이익을 보을 이르는 말. |
| | 곡무호선생 谷無虎先生兔 | 범 없는 골짜기에 토끼가 왕 노릇을 한다는 속담. |
| | 교토사이주구괭 狡兔死而走狗烹 |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날랜 사냥개가 삶긴다. 흔히 '토사구괭(兔死狗烹), 교토사양구괭(狡兔死良狗烹)'이라고 함. |
| | 교토삼굴 狡兔三窟 |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숨을 굴을 파 놓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교묘하게 잘 숨어 재난을 피함을 이르는 말. |
| | 교토삼혈 狡兔三穴 | 교활한 토끼는 굴을 셋을 가지고 있다. 재난을 잘 피하거나 자신을 잘 지키는 데 빈틈이 없음. 무슨 일에서나 안전을 위하여 미리 여러 가지로 방도를 세워 두어야 한다는 말. |
| | 교토지첩 狡兔之捷 | 교활한 토끼의 민첩함. |
| | 귀모토각 龜毛兔角 |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이라는 뜻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르는 말. |
| | 금오옥토 金烏玉兔 | 해와 달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해 속에 까마귀가 있고 달 속에 옥토끼가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
| ㄷ | 득토망제 得兔忘蹄 | 토끼를 잡고 나면 울가미를 잊어버림. 바라던 바를 달성하고는 그에 소용되었던 것을 잊어버림을 이르는 말. |
| | 득토이망제 得兔而忘蹄 | 토끼를 잡으면 울무는 필요 없게 됨. 학문을 성취하면 책이 필요 없게 됨을 비유하는 말. |
| ㄹ | 만인축토일인획지 萬人逐兔一人獲之 | 많은 사람이 토끼를 몰지만 토끼를 잡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임을 이르는 말. |
| ㅂ | 박삭미리 撲朔迷離 | 토끼의 암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수토끼는 앞발을 잘 비비고 암토끼는 눈을 잘 감지만, 둘이 함께 달려갈 때는 암수를 분별하기 어렵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사물이나 상황이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
| | 백토어사 白兔御史 | 당나라 왕홍의(王弘義)의 고사. |
| | 분장고방획 分獐顧放獲兔 | 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다가 도리어 실패함. |
| | 비토용문 飛兔龍文 | 비토(飛兔)와 용문(龍文)은 모두 옛날 준마(駿馬)의 이름. 뛰어난 자제(子弟)를 비유하는 말. |
| ㅅ | 삼수도수 三獸渡水 | 수행(修行)의 알고 깊음을 토끼와 말과 코끼리가 항하(恒河)를 건너는 데 비유하는 말. |

출처: 토끼의 생태와 관련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98), 토끼띠의 민속과 상징(김이숙, 중앙민속학6,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4), 우리말 섹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 | |
|------------------|--|
| 삼수도하三獸渡河 |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이 수행하는 것을 토끼·말·코끼리가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같은 교리를 듣고도 타고난 바탕에 따라 깨달음의 깊이가 다름을 이르는 말. |
| 수주대토守株待兔 |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 ○ 연목토이鳶目兔耳 | 잘 보이는 눈과 잘 들리는 귀를 이르는 말. |
| 염필륜지楮筆倫紙 | 진국 몽염(蒙恬)은 토끼털로 처음 붓을 만들었고, 후한(後漢) 채륜(蔡倫)은 처음 종이를 만들었음. |
| 오토鳥兔 | 태양(까마귀)과 달(토끼)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태양 속에는 세 발이 돌친 까마귀가 살고 달 속에는 토끼가 산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
| 오토충충鳥兔忽忽 | 까마귀와 토끼가 바쁘다는 뜻으로, 세월(歲月)의 흐름이 빠름을 이르는 말. |
| 옥토은섬玉兔銀蟾 | 옥토끼와 은뚜꺼비. 달에 있다는 토끼와뚜꺼비를 이르는 말. |
| ㄱ 전부지공田夫之功 | 양자의 다름에 영똥한 제삼자가 이득을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전 중국에 한자로(韓子廬)라는 매우 빠른 개가 동곽준(東郭隼)이라는 재빠른 토끼를 뒤쫓았다가 마침내 둘 다 지쳐서 죽고 말았는데, 때마침 이를 발견한 전부(田夫)가 힘들이지 않고 둘 다 얻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 전제筌蹄 |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울가미는 뜻으로, 목적을 위한 방편(方便)을 이르는 말. |
| 조등刁蹬 | 간사한 꾀를 써서 물건의 시세를 오르게 함을 이르는 말. 독수리가 토끼를 쫓아서 그의 힘이 지치기를 기다려 잡는다는 데서 나온 말. |
| 주장낙토走獐落兔 | 노루를 쫓다가 생각지도 아니한 토끼가 걸려들었다는 뜻으로, 뜻밖의 이익이 생김을 이르는 말. |
| ㄷ 천향옥토天香玉兔 | 동양화에서 계화(桂花)에 달을 곁들인 그림을 이르는 말. |
| 추이토부득일토追二兔不得一兔 |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는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한다는 말. |
| 축록자불고토逐鹿者不顧兔 |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큰일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축미지구불고토逐麋之狗不顧兔 | 고라니를 쫓는 개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돌보지 않음을 이르는 말. |
| 축이토자부득일토逐二兔者不得一兔 | 한꺼번에 토끼 두 마리를 잡으려고 쫓으면 한 마리도 못 잡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 |
| ㄹ 탈토지세脫兔之勢 | 우리를 빠져나가 달아나는 토끼의 기세라는 뜻으로, 매우 빠르고 날랜 기세를 이르는 말. |

| | |
|------------|---|
| 토각귀모兔角龜毛 | 토끼의 뿔과 거북이의 털이라는 뜻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이르는 말. |
| 토규연맥兔葵燕麥 | 새삼과 귀리를 이르는 말. |
| 토기골락兔起鶻落 | 토끼가 내닫고 송골매가 떨어진다. 글씨의 필세(筆勢)가 썩씩하고 굳센을 이르는 말. |
| 토기부거兔起烏舉 | 토끼가 달리고 물오리가 날아오른다. 몹시 빠름을 비유하는 말. |
| 토끼눈 | 어떤 이유로 빨갭게 되거나 동그랗게 커진 눈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토끼이빨 | 앞니가 크거나 튀어나온 경우와 빠드렁니를 토끼의 이빨에 비유하는 말. |
| 토라치리兔羅稚羅 | 토끼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꿩이 걸린다. 소인이 계고(計考)를 써서 죄를 벗어나고 군자(君子)가 도리어 화를 입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
| 토사구팽兔死狗烹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
| 토사부여리兔絲附如蘿 | 새삼 덩굴이 여라(담쟁이덩굴)에 감겼다. 부부간의 애정이 얽히고설킨. 부부의 인연(因緣)을 이르는 말. |
| 토사호비兔死狐悲 |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의 불행을 슬퍼함을 이르는 말. |
| 토영삼굴兔營三窟 |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 개의 굴을 파 놓아둔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짜 놓음을 이르는 말. |
| 토원후불평兔怨猴不平 | 궁합에서 서로 꺼리는 원진살의 하나. 토끼띠는 원숭이띠를 꺼린다는 말. |
| 토주부거兔走烏舉 | 토끼가 달아나듯, 물오리가 날듯. 아주 빠른 것을 이르는 말. |
| 토주오비兔走鳥飛 | 토끼가 달리고 까마귀가 난다는 뜻으로, 세월(歲月)의 빠름을 이르는 말. |
| 툃날구기兔날拘忌 | 음력 정월 첫 토끼날에 남의 여자가 자기 집에 와서 오줌을 누면 언짢다고 하여 여자의 출입을 꺼리는 일. |
| ㅎ 호사토비狐死兔悲 | 여우의 죽음에 토끼가 슬피 운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의 불행을 슬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호사토읍狐死兔泣 | 여우의 죽음에 토끼가 슬피 운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의 불행을 슬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호토불유마狐兔不乳馬 | 여우나 토끼는 말을 낳지 못한다는 말. |

토끼 이야기



Rabbit: Tales

지역별 토끼 설화

| 강원도 | |
|---|---|
| <p>피로 호랑이 잡아먹고 할머니 놀린 토끼</p> <p>피를 부려 호랑이를 잡아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놀린 토끼 이야기.</p> | <p>명판 토끼의 지혜</p> <p>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자, 지나가던 토끼가 재판을 열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호랑이를 응징하는 이야기.</p> |
| <p>바람기 많은 부인 음부에 그려 놓은 토끼 화상</p> <p>바람기 많은 부인을 둔 서방이 집을 오래 비우기 전, 아내의 음부에 토끼를 그려두었는데, 돌아와 보니 토끼는 사라졌고 시구가 적혀있었다는 이야기.</p> | <p>앞니 빠진 갈가지/이 빠진 아이 놀리는 소리</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앞니 빠진 수만새/뒷골로 가지마라/뒷골에 가면/토끼 똥이 약이다</p> |
| <p>앞니 빠진 갈가지/이 빠진 아이 놀리는 소리</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앞니 빠진 수만새기/우리 집에 오지마라/토끼새끼 놀렐라</p> | <p>충신 황정승</p> <p>황정승이 왕가와 관련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이야기로, 가랑잎을 두건처럼 쓴 토끼들이 황정승과 송죽의 앞을 막아서서 무언가 원통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도 등장.</p> |
| <p>토끼에 속은 호랑이</p> <p>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사람이 호랑이에게 되레 잡아먹힐 위기에 빠진 것을 토끼의 피로 굴에 다시 호랑이를 빠뜨려 응징하는 이야기.</p> | <p>호랑이 꼬리는 끝이 희고, 토끼 꼬리는 짧은 이유</p> <p>당나귀의 피에 겁을 먹은 호랑이와 토끼가 서로의 꼬리를 한데 묶고 달아나다 토끼 꼬리가 끊어져 짧아졌다는 이야기.</p> |
| 경기도 | |
| <p>고무줄 하면서 부르는 노래</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어젯밤에 나는요 거북선 타고/저 밝은 달나라로 구경 가지요/개수나무 울 밑에서 하얀 토끼가/풍당풍당 떡방아를 찧고 있어요</p> | <p>방울 단 호랑이</p> <p>어리석은 행동으로 호랑이 꼬리는 길어지고, 토끼의 꼬리는 짧아졌다는 이야기.</p> |
| <p>백포수 이야기(아버지 원수 갚기)</p> <p>포수가 산속 어느 집에서 처녀를 먹으려고 오는 호랑이를 퇴치하는 이야기. 토끼는 호랑이를 따라와서 점을 치는 역할로 등장.</p> | <p>산토끼</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산토끼 토끼야/어대를 가느냐/깡충깡충 뛰면서/어대를 가느냐</p> |
| <p>은혜 갠 토끼와 구렁이</p> <p>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토끼와 구렁이가 자신들을 구해준 노부부에게 은혜를 갠 이야기.</p> | <p>토끼 오르고 내리기</p> <p>토끼가 뒷발은 길고 앞발은 짧아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고생한다는 이야기.</p> |
| <p>토끼와 거북이의 경주</p> <p>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는 게으름을 피웠지만,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어 승리했다는 이야기.</p> | <p>토끼의 간</p> <p>토끼 간을 먹으면 산다는 말에 간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며 도망친 토끼 이야기.</p> |

| <p>호랑이 꼬리</p> <p>토끼의 꼬리가 짧아지고 호랑이의 꼬리가 길어지게 된 내력의 이야기.</p> | <p>호랑이, 원숭이, 토끼의 점괘</p> <p>명포수가 호랑이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갠 이야기. 원숭이와 토끼는 호랑이의 조력자로 점을 치는 역할로 등장.</p> |
|---|---|
| 경상도 | |
| <p>꽃감과 호랑이와 토끼</p> <p>소를 잡아먹으러 온 범이 아기 어르는 소리를 듣고 꽃감을 무서워하게 되고, 마침 등 위로 떨어진 소도둑을 꽃감으로 착각하여 달아난다. 달아난 범이 우연히 만난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자 토끼가 피를 부려 꿀탕 먹이는 이야기.</p> | <p>굴섬, 비토섬 전설</p> <p>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토끼가 나는 형상을 띄어 비토(飛兔)섬이라고 함. 별주부전에서 밤에 자라 등을 타고 나온 토끼가 달빛에 섬(월동도)이 비친 것을 보고 도착한 줄 알고 뛰어내려 바다에 빠져 죽어 토끼섬이 되고, 토끼 간을 가져가지 못해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은 자라는 거북섬이 되었다는 이야기.</p> |
| <p>귀신도깨비를 처치한 포수</p> <p>포수가 산속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귀신도깨비에게 부모를 잃은 처녀를 만나 도깨비를 처치하고 함께 결혼하는 이야기. 도깨비 세 마리가 토끼를 데려다가 점을 치는 일화도 등장.</p> | <p>피 많은 토끼</p> <p>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할 때, 지나가던 소, 소나무, 토끼에게 의견을 묻고 그중 토끼가 피를 부려 호랑이를 응징하는 이야기.</p> |
| <p>피 많은 토끼</p> <p>노부부가 잡아 온 토끼에게 속아 토끼 대신 자기 자식을 먹게 되고 토끼를 잡으려다 결국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p> | <p>피 많은 토끼</p> <p>토끼와 범이 썩떡을 주워 서로 먹으려고 다투다 피를 낸 토끼가 썩떡을 모두 먹는다는 이야기.</p> |
| <p>피 많은 토끼의 복수</p> <p>토끼를 잡아먹으려던 영감이 토끼의 꼬미 빠져 자기 아이를 먹었다는 이야기.</p> | <p>피 많은 토끼의 재판</p> <p>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스님을 잡아먹으려 하자, 토끼가 재판을 통해 호랑이를 다시 함정에 가두는 이야기.</p> |
| <p>피로 호랑이를 잡은 공양주</p> <p>공양주 보살의 피로 사람을 잡아먹던 호랑이는 화재로 죽고, 호랑이에게 점을 쳐서 전달하던 토끼는 자기 점 대롱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p> | <p>피를 써서 죽을 고비를 넘긴 토끼</p> <p>산 밑에 토끼 피해를 많이 보는 녹두밭에서 어느 날 부부가 토끼를 잡아다 솥에 넣었는데, 토끼가 몰래 빠져나와 아기를 대신 넣고 자신은 아기인 척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야기.</p> |
| <p>피조배기 토끼</p> <p>토끼가 피를 부려 자신의 간을 빼가려는 용궁에서 탈출하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나무꾼에게서도 도망치는 이야기.</p> | <p>나뭇꾼과 선녀</p> <p>나무꾼이 토끼의 말을 듣고 행동하여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p> |
| <p>달 타령</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이태백에 놀던 달아/계수나무 한 나무/토끼 한 마리/똥대도 아니 달고/서쪽 나라로</p> | <p>두꺼비 배가 부른 연유</p> <p>여우, 토끼, 두꺼비가 떡 두 시루를 걸고 내기를 하는 이야기.</p> |
| <p>두꺼비와 토끼</p> <p>토끼와 두꺼비가 떡을 서로 더 먹으려고 피를 부리다가 결국 두꺼비가 떡을 차지한 이야기.</p> | <p>두꺼비와 토끼와 거북이의 나이 자랑</p> <p>피 많은 토끼와 음흉한 거북이가 수단이 좋은 두꺼비에게 당하는 이야기.</p> |

| | |
|---|---|
| <p>둔덕골 호랑이와 물밭골 토끼</p> <p>둔덕골 호랑이가 물밭골 토끼를 시켜 가재를 먹으려다 자갈을 먹고 죽고, 토끼는 호랑이고기를 팔아 부자가 된 이야기.</p> | <p>명의 유의태</p> <p>명포수 유의태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로, 토끼가 호랑이에게 점을 쳐주는 내용이 등장.</p> |
| <p>범 잡아 재난 막고 토정비결 얻는 이야기</p> <p>선달그믐날 절에서 스님들이 미리 범과 토끼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하여 범과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로, 토끼가 토정비결 책을 이용해 점을 치는 내용이 등장.</p> | <p>범과 토끼</p> <p>토끼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속여 해치우는 이야기.</p> |
| <p>범과 토끼</p> <p>소금 장수가 산골의 어느 노인의 집에서 목계 되었는데, 알고 보니 둔갑한 호랑이라 놀라게 해 쫓아내고, 호랑이는 마침 찾아온 토끼와 꼬리를 묶고 달아나다가 토끼 꼬리가 잘려 짧아졌다는 이야기.</p> | <p>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섬 전설</p> <p>웅궁에서 나와 월등도 앞에서 서두르던 토끼가 물에 빠져 죽어 토끼섬이 되고, 죽은 토끼 때문에 걱정하던 거북이 화기로 죽어 거북섬이 되었다는 이야기.</p> |
| <p>비토섬 전설</p> <p>비토섬의 형상이 날아가는 토끼의 모양을 하였음. 별주부전에서 간을 가지러 거북을 타고 나온 토끼가 월등도를 보고 서두르다가 물에 빠져 죽어 토끼섬이 되고, 간을 얻지 못한 거북도 자결하여 거북섬이 되고, 토끼의 아내가 만삭인 상태에서 신랑이 사라져 목을 길게 빼고 죽은 곳이 목섬이 되었다는 이야기.</p> | <p>선비 살린 토끼의 지혜</p> <p>웅덩이에 빠져있던 호랑이를 구해준 나그네가 되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여 나무, 바위, 토끼에게 각각 의견을 묻고, 토끼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났다는 이야기.</p> |
| <p>숫장이의 지략</p> <p>숫장이가 꾀를 부려 토끼를 속이고 호랑이 고기를 얻는 이야기.</p> | <p>정승 딸에게 장가간 숫쟁이 총각</p> <p>숫쟁이가 잡아 온 토끼를 먹지 않고 놓아주자 토끼가 큰돈과 배를 주어 은혜를 갚고, 숫쟁이는 그 배를 이용하여 정승의 딸에게 장가간 이야기.</p> |
| <p>토끼 노래</p> <p>용왕이 배가 아파 토끼를 잡아 오라고 하는 대목.</p> | <p>토끼 이름의 유래</p> <p>모함에 빠진 아버지 문왕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아들 백억고가 토끼가 되었다는 이야기.</p> |
| <p>토끼 이야기</p> <p>노부부는 자신의 발을 망친 토끼를 잡고, 그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인간을 골탕 먹이며, 화가 난 노인이 다시 토끼에게 보복하는 이야기.</p> | <p>토끼 잡으려다 아이 잡은 이야기</p> <p>노부부가 잡아 온 토끼에게 속아 토끼 대신 자기 자식을 먹게 되고 토끼를 잡으려다 결국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p> |
| <p>토끼 타령</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토끼 화상을 그린다/토끼 화상을 그렸소/화공을 불러라</p> | <p>토끼가 피를 부려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p> <p>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자 오히려 토끼가 피를 내어 웅덩이에 호랑이 꼬리를 담그면 많은 짐승이 와서 죽는다고 호랑이를 속여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p> |
| <p>토끼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p> <p>토끼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물리치고 나라에 상납하여 상을 받은 이야기.</p> | <p>토끼를 구해 주고 얻은 금덩이</p> <p>한 뱃짐장수가 여우에게 쫓기는 토끼를 숨겨 살려준 뒤 토끼가 알려준 골짜기에서 금덩이를 얻었다는 이야기.</p> |

| | |
|--|---|
| <p>토끼에게 당한 녹두 침지</p> <p>녹두 침지가 녹두를 뜯어 먹는 토끼를 잡아, 고아 먹으려다가 토끼에게 속아 자식과 집을 잃는 이야기.</p> | <p>토끼에게 도움받은 효자</p> <p>토끼에게 도움받은 효자 이야기.</p> |
| <p>토끼와 거북</p> <p>웅궁에서 토끼 간을 구하려 간 거북과 기지를 발휘해 돌아온 토끼 이야기.</p> | <p>토끼와 호랑이</p> <p>토끼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속여 해치우고, 할머니를 놀리는 이야기.</p> |
| <p>토끼의 도움으로 가난을 벗어난 효자</p> <p>가난하게 살던 한 청년이 겨울에 나무하러 갔다가 토끼가 나무를 물어다 줬는데, 가져와 심으니 무럭무럭 자라 그것을 타고 천상 세계에 도착함. 그곳에서 청년의 효심을 칭찬하며 상을 줘서 가난을 해결했다는 이야기.</p> | <p>토끼의 점술서(占術書) 얻은 소금 장수</p> <p>고려 때 소금 장수가 빈집에서 하루 목고자 했는데, 지나가던 토끼와 범이 들어와 돌을 놀라게 해 쫓아내고 토끼의 점술서를 얻어 일류 점쟁이가 되었다는 이야기.</p> |
| <p>토끼타령</p> <p>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리는 내용.</p> | <p>토끼타령</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별주부전에서 토끼 화상을 그리는 내용) -토끼 화상을/그린다</p> |
| <p>토끼풀이</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토끼 화상을/그린다</p> | <p>토촌마을 근처에 있는 달구산 이야기</p> <p>달구산(월구산) 옆 토촌마을 이름은 토끼 토(兔)에 마을 촌(村)이라는 내용.</p> |
| <p>퇴계 선생과 그 부인</p> <p>퇴계 선생을 낫 퇴계 밤 토끼라고 부인이 놀렸다는 이야기.</p> | <p>푸른 하늘 은하수-고무줄뛰기 노래</p> <p>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p> |
| <p>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연유</p> <p>한 포수가 영감으로 둔갑한 호랑이를 속여 쫓아내고, 도망간 호랑이가 토끼와 꼬리를 묶고 달아나다가 토끼 꼬리가 끊어져 짧아졌다는 이야기.</p> | <p>호랑이 꼬리는 길고, 토끼 꼬리는 짧은 이유</p> <p>호랑이와 토끼가 서로의 꼬리를 묶고 산에 올랐다가 무서운 것을 만나 도망치다 토끼 꼬리가 끊어져 짧아졌다는 이야기.</p> |
| <p>호랑이는 놀러먹는 토끼</p> <p>호랑이가 친구가 없어 토끼와 친구 하며 놀았는데, 토끼가 오히려 호랑이를 만만하게 생각하여 놀리고 무시했다는 이야기.</p> | <p>호랑이를 쫓고 염소 살린 토끼</p> <p>염소가 토끼의 도움으로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호랑이를 쫓아내는 이야기.</p> |
| <p>호랑이와 도둑</p> <p>토끼와 호랑이의 꼬리 형상 유래담.</p> | <p>호랑이와 이비</p> <p>호랑이와 꽃감과 비슷한 내용으로, 토끼는 개울 건너에 여자가 있으니 보러 가자고 호랑이를 꼬드기는 이야기.</p> |
| <p>호랑이와 토끼</p> <p>토끼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온 호랑이를 속여 해치우는 이야기.</p> | <p>효자 도운 토끼</p> <p>추석에 늙은 부모님 봉양할 거리가 없어 걱정하던 차에 어디선가 나타난 토끼의 도움을 얻어 부모님 봉양을 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p> |

| 대구 | |
|---|--|
| 토끼 잡아 봉변 당한 노부부 | |
| 노부부가 잡아 온 토끼에게 속아 토끼 대신 자기 딸을 먹고, 토끼를 잡으려다 집이 모두 불타버렸다는 이야기. | |
| 부산 | |
| 약삭빠른 토끼 | 토끼 화상 노래 |
| 피가 많은 토끼가 다양한 방법으로 영감을 골탕 먹인다는 이야기. | 토끼의 화상을 그리는 내용. |
| 토끼의 피에 넘어가 아기를 삶아먹은 노부부 이야기 | |
| 장사를 망치는 토끼를 잡아먹으려던 노부부가 토끼에게 속아 아기를 토끼로 착각하여 잡아먹게 되고, 토끼는 그 모습을 비아냥거리며 산으로 도망친다는 이야기. | |
| 전라도 | |
| 갈동의 지명 유래 | 강강술래 |
| 골짜기 이름이 칠월인 이유에 대한 지명 유래담. 고개 너머에 옥토망월형인 큰 산이 있고,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토끼가 먹음만한 밥이 있다 해서 토끼가 먹는 쉼, 칠월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갈동이라고 함. | 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토끼로 짝이 내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천년이나 살고지고 |
| 피 많은 토끼 | 남성 귀두의 유래 |
| 토끼가 피를 부려 옹공에 잡혀갔다 탈출하고 그물에 잡혔다가 도망치고 독수리에게 잡혔다가 벗어난다는 이야기. | 나무꾼이 토끼가 준 부채로 피를 부리다가 되려 골탕을 먹는 이야기. 토끼는 원래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으로, 좋은 일을 한 번 베풀어야 도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등장. |
| 도깨비에게 속아 함정에 빠진 호랑이 | 두꺼비, 여우 그리고 토끼의 내기 |
| 도깨비(퇴갱이=토끼)에게 속아 함정에 빠진 호랑이 이야기. 토끼가 피를 부려 호랑이를 골리는 내용. | 두꺼비, 토끼, 여우가 떡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는 이야기. |
| 두꺼비에게 속은 호랑이와 토끼 | 상여소리(1) |
| 한겨울에 호랑이, 두꺼비, 토끼가 떡을 서로 차지하려고 내기를 벌인 끝에 피를 부린 두꺼비가 모든 떡을 다 먹게 된다는 이야기. | 토끼를 언급하는 가사. -백오청산/놀던 토끼/동해 유수/흐르는 물에/수중 구경/ 나왔다가/별주부 따라/수궁가네 |
| 수궁가 중 토끼 화상 | 용왕바위와 토끼바위 |
| 수궁가의 대목 중 토끼 화상을 그리는 내용. | 마을의 액운을 없애기 위해 용왕바위가 있는 곳에 토끼바위를 마주 보게 세워두었다는 지역 설화. |
| 지혜로 호랑이를 잡은 토끼 | 토끼 타령 |
| 토끼가 피를 부려 호랑이를 골탕 먹고 해치우는 이야기. | 토끼의 화상을 그리는 내용. |
| 토끼 타령 | 토끼 타령 中 새 타령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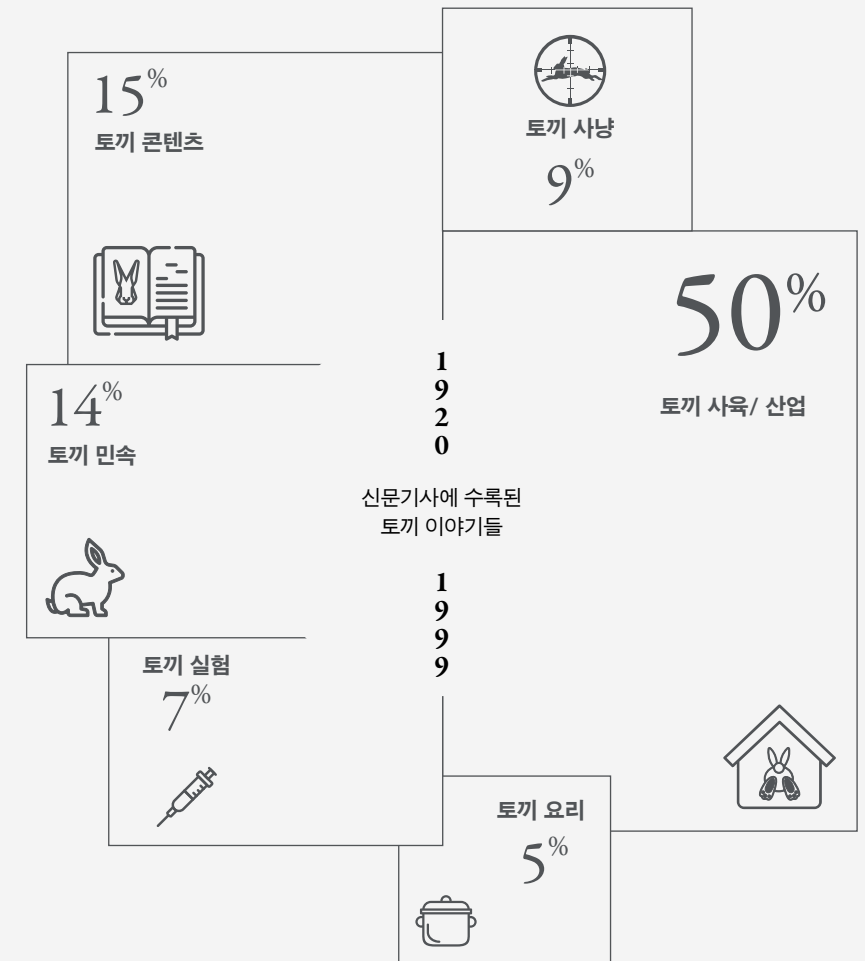
| 토끼 화상 | 토끼 화상 |
|--|--|
| 토끼의 화상을 그리는 내용. | 토끼의 화상을 그리는 내용. |
| 토끼 화상 | 토끼 화상 |
| 수궁가의 대목 중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 | - |
| 토끼 화상 | 토끼와 거북이 |
| - | 토끼와 두꺼비가 인절미를 두고 내기하는 이야기. (두꺼비를 거북이로 오기함) |
| 토끼와 호랑이 | 호랑이 동생 |
| 토끼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피를 부려 해치우는 이야기. |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숫장이가 피를 부려 호랑이를 쫓아내고, 길을 막는 토끼도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야기. |
| 충청도 | |
| 꼬리 잘린 호랑이 | 닷 돈짜리와 토끼눈갈 |
| 호랑이와 토끼가 수달피의 피에 빠져 공지를 묶고 달아나다 토끼 공지가 잘려 짧아지고 호랑이 공지는 길어졌다는 이야기. | 별명이 닷돈짜리인 사람의 아들이 눈이 툭 튀어나와 있어 별명이 토끼눈갈이라는 내용. |
| 토끼 간으로 치료한 홍역 | 토끼 죽이고 잃은 자식 |
| 홍역을 앓는 딸에게 산토끼의 간을 삶아 그 물을 먹이니 딸이 나았다는 이야기. | 산에서 튀어나온 토끼를 잡아먹은 후 낳은 아이가 토끼처럼 행동하다가 어릴 때 죽었다는 이야기. |
| 토끼, 늑대, 거북이의 지혜 겨루기 | 토끼섬과 무학대사 |
| 토끼, 늑대, 거북이가 고깃덩이를 독차지하려고 내기를 하여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 | 토끼섬의 주지와 무학대사의 도술에 관한 이야기. |
| 토끼의 도움으로 주인 아가씨를 언다. | 호랑이 잡아먹은 토끼의 피 |
| 토끼의 도움으로 아내를 얻은 이야기. |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속여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
| 호랑이 잡은 토끼의 피(1), (2) | 호랑이를 속인 토끼 |
| (1) 행인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다가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고, 몇몇 동물들에게 재판받던 중 토끼의 피로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 (2) 토끼가 호랑이에게 불에 달군 돌맹이를 먹여 잡았다는 이야기. | 토끼가 피를 내어 자신을 먹으려는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 |
| 제주도 | |
| 토끼선생 | |
| 얼굴이 토끼와 비슷하여 이름 붙여진 토끼선생이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는 이야기. | |

토끼 소식

Rabbit: News

연도별 토끼 소식

- ◆ 1920년대에는 토끼 사냥에 관한 일화가 많음
- ◆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양토 강습회, 토끼 사육 방법에 관한 기사를 통해 토끼 사육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1950년대에는 실험 대상이 된 토끼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 ◆ 1960년대에는 토끼털 수요 증가와 함께 문화, 산업, 경제생활 주제에서 앙고라 토끼가 빈번하게 다뤄짐
- ◆ 1970년대에는 토끼 요리법이 자주 소개됨
- ◆ 1990년대에는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창작과 제품 마케팅, 브랜딩의 소재로 토끼가 많이 활용됨



1920 眼球移植成功(안구이식성공)

토끼 안구 이식 실험 성공
조선일보 | 1924.11.01

學窓散話(학창산화) 兔(토)

토끼의 특성
동아일보 | 1925.02.02

도끼 치는법소개(一(일)) 京城府崇仁洞朝鮮養兔
獎勵會(경성부승인동조선양토장려회)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25.05.30

毛皮(모피)와肉用(육용)을兼(겸)한家兔飼養
(가토사양)의新試驗(신시험)

가정에서의 토끼 사육
조선일보 | 1926.01.01

死兔(사토)로樵夫慘死(초부참사)

호랑이 뒹에 걸린 토끼를 빼내려다 사망
조선일보 | 1926.02.26

養兔(양토)에 對(대)하야

토끼 기르는 방법
동아일보 | 1926.04.21

토끼기르는법

토끼 기르는 방법
동아일보 | 1926.05.01

토끼盜賊被捉(도적피착)

토끼 도난 사건 범인 체포
조선일보 | 1926.05.21

樵夫誤射(초부오사) 일인립부가

토끼 사냥하던 일본인이 치료비 물어
동아일보
1926.10.19

日本人(일본인)산양군 獵銃(엽총)으로樵童射傷
(초동사상)

토끼 사냥하던 일본인의 총에 맞은 소년
동아일보 | 1927.12.17

1930 家兔飼養(가토사양)의獎勵(장려) (十(십))
兩方面(양방면)으로利得(이득)이있다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0.08.28

假醫拘留(가의구류)

토끼 가족을 녹용이라 속이다
동아일보 | 1930.10.20

鎭川(진천)에서는 家兔(가토)가凍死(동사)

진천에서 가토 동사
동아일보 | 1930.11.05

産業化(산업화)해가는 토끼飼養法(사양법)
(二(이))

토끼 기르는 방법
동아일보 | 1931.04.12

利益(이익)만흔 안코라兔(토)

안고라 토끼 사육의 장점
조선일보 | 1931.06.09

機張(기장)에養兔村(양토촌)

마을 경제를 위해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2.12.17

娑婆八日(사파팔일)에所得(소득)이凍傷(동상)

生(생)을斷念(단념)한自棄(자기)의熟睡(숙수)

토끼잡이 하던 소년 6명이 탈옥수 제보
동아일보 | 1933.01.26

忠州副業講習會(충주부업강습회)

토끼 사육법 알려주는 강습회 성황
동아일보 | 1933.11.15

世界的新産業(세계적신산업) 안고라兔(토)의
採毛養兔事業(채모양토사업) (一(일))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동아일보
1934.01.24

안고라兔(토)의 採毛(채모)와 販路等(판로등)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동아일보 | 1934.03.04

平南(평남)의養兔(양토) 昨年中(작년중)의
實績(실적)

작년 평남의 양토 실적
조선일보 | 1934.03.06

안고라兔飼育法(토사육법) 初心者(초심자)의
注意(주의)몇가지 (上(상))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동아일보 | 1934.03.28

不二農村(불이농촌)에서 안고라兔飼育(토사육)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동아일보 | 1934.08.04

안고라兔(토) 飼育(사육)의 指針(지침)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동아일보 | 1934.12.31

養兔(양토)의知識(지식) 飼養法(사양법),販賣法
(판매법),規格等(규격등) 陸軍被服廠買上規則
(육군피복창매상규칙)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35.01.29

兔毛皮(토모피) 揉法(유법)

토끼털 손질법
조선일보 | 1935.02.07

양◇고◇라◇兔(토) 年七倍(연칠배)로增殖(증식)

안고라 토끼의 증식
조선일보 | 1935.04.24

토끼새끼 죽은새끼보고시피 흠친고양이

죽은 새끼가 그리워 토끼새끼를 흘쳐 키운 고양이
동아일보 | 1935.06.16

軍部(군부)가要求(요구)하는 兔毛皮(토모피)는
어떤것

군에서 요구하는 토끼모피
조선일보 | 1936.11.17

山兔肉(산토육)에中毒(중독) 全家族四人死傷
(전가족사인사상)

토끼고기 먹은 일가족 사상
조선일보 | 1935.12.27

風致林(풍치림)의兔賊(토적) 學生團(학생단)이
獵逐(엽축)

나무의 싹과 뿌리 값아 먹는 토끼 때
조선일보 | 1936.03.24

道廳員(도청원)토끼狩獵(수렵)

경기도청 직원 500명이 토끼 사냥 나서
조선일보 | 1936.04.03

안고라兔(토)의 飼料(사료)와給餌法(급이법) ❶
注意(주의)할點(점)몇가지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조선일보 | 1936.05.26

안고라兔(토)의 飼料(사료)와給餌法(급이법) ❷
注意(주의)할點(점)몇가지

안고라 토끼 사육 방법
조선일보 | 1936.05.27

仁川府內(인천부내)에능대

인천 토끼 사육장에 능대 출몰
조선일보 | 1936.12.23

갯닥하면 속기쉬운

토끼고기를 닭고기로 속여 팔아
조선일보 | 1937.01.13

“토끼모리”

학생들의 토끼 물이
조선일보 | 1937.01.24

蘇萊青年團(소래청년단)토끼산양

토끼 사냥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
조선일보 | 1937.03.05

가지가지로보이는 달속의그림자 계수나무인가
옥토끼인가

달 속 토끼 그림자
동아일보 | 1937.10.31

어린애들도 기를수잇는옥토끼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37.11.11

겨울이오면토끼털이 왜하야케되는가

겨울에 토끼털이 하얗게 변하는 이유
동아일보 | 1937.12.05

明年度養兔界(명년도양토끼) 一千萬頭實現
(일천만두실현)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7.12.19

양의털대신에 토끼가죽이등장

전쟁으로 토끼 가죽 수요 급증
조선일보 | 1938.01.11

양고라兔毛(토모)의 優良毛增産(우양모증산)

양고라 토끼 털의 우양모 증산
동아일보 | 1938.01.30

朝鮮聲樂會總動員(조선 성악회총동원) 토끼타령
上演(상연)

토끼타령 공연
조선일보 | 1938.02.28

반비칸 토끼고기산적

토끼고기 산적 소개
조선일보 | 1938.03.11

高興郡(고흥군)에서 兔增産(토증산)을
計劃(계획)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8.04.18

양골라兔(토)을 飼養(사양)해보시오

부업으로 양고라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8.05.20

養兔副業(양토부업)으로 百萬圓(백만원)을
釀出(각출)

토끼 사육 착수
조선일보 | 1938.05.26

産業參謀(산업참모) 戰時體制下(전시체제하)에
最適(최적)한養兔法(양토법)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38.07.29

皮革(피혁)의不足(부족)으로 兔皮(토피)의
需要激增(수요격증)

피혁 부족으로 토피 수요 급증
조선일보 | 1938.08.12

百萬頭(백만두)를目標(목표)로 家兔增産計
劃樹立(가토증산계획수립)

가토 증산 계획 수립
동아일보 | 1938.08.23

養兔增産計畫(양토증산계획)에伴(반)하야
種兔斡旋配給(종토알선배급)

양토 증산 계획
조선일보 | 1938.08.30

닭이 장에 토끼를

닭과 토끼를 함께 장에 넣고 키워야
동아일보 | 1938.09.04

닭고기맛나는 토끼고기요리

토끼고기요리 소개
조선일보 | 1938.09.09

簡單(간단)하고兔體(토체)에異狀(이상)없는
양고라兔(토)의新採毛法(신채모법)

양고라 토끼 채모 방법
동아일보 | 1938.09.21

스테이불대신에*양꼬라*토끼의털

양고라 토끼털이 좋은 이유
조선일보 | 1938.09.21

需要激增(수요격증)에對應(대응)코져 京畿道
養兔積極獎勵(경기도양토적극장려)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8.09.27

明年(명년)에四萬頭目標(사만두목표)로 養兔增産
獎勵(양토증식장려)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8.09.28

養兔(양토)의發病(발병)은 어머케 豫防(예방)할가

토끼 질병 예방 방안
조선일보 | 1938.10.11

養兔(양토)의脅威(협위)인 渴死지움症(증)

토끼 사육의 위협,渴死지움
조선일보 | 1938.10.27

넬리쓰이게된 양고라토끼털

양고라 토끼털의 장단점
조선일보 | 1938.11.11

“月宮(월궁)의使者(사자)- 토끼先生(선생)나옵니다”

기묘년 맞이 월궁의 사자 토끼 소개
동아일보 | 1939.01.01

우리신년호 토끼는귀염동이

토끼에 대한 몇 가지 상식
동아일보 | 1939.01.01

養兔(양토)의排尿(배뇨)도 此際活用(차제활용)하다

토끼 배뇨 활용
동아일보 | 1939.01.26

豚兔講習會(돈토강습)

돼지, 토끼 키우는 방법
조선일보 | 1939.02.07

今年家兔(금년가토)는어머케할까?

양토시 주의사항
동아일보 | 1939.02.11

採毛要項(채모요항)

양고라 토끼 채모 방법
동아일보 | 1939.02.11

兔尿(토뇨)의利用(이용)

토끼 배뇨 활용
조선일보 | 1939.02.21

全南養兔增産計畫(전남양토증산계획)

전라남도 양토 증산 계획
조선일보 | 1939.03.17

學校(학교)·農家(농가)를動員(동원)하야

養兔(양토)를獎勵(장려)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9.03.18

副産物(부산물)을活用(활용)하는 多角的養兔法
(다각적양토법)

부산물을 활용하는 여러가지 양토법
조선일보 | 1939.03.26

務安郡安佐面(무안군안좌면) 養兔積極獎勵
(양토적극장려)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9.04.06

兔肉(토육)의料理法(요리법)몇가지

토끼 고기 요리
동아일보 | 1939.04.13

養兔組合結成(양토조합결성)

양토 조합 결성
동아일보 | 1939.05.04

養兔講習會(양토강습회)

강원도 양토 강습회 개최 계획
조선일보 | 1939.05.10

養兔(양토)를積極獎勵(적극장려)코져
各道(각도)에講習會開催(강습회개최)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1939.05.12

朝鮮産兔(조선산토)의飼育獎勵(사육장려)
被服資源確保(피복자원확보)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9.05.13

道主催(도주최)로安東(안동)에서 十個郡聯合(십개군연합)으로 養兔講習會開催(양토강습회개최)

양토 강습회 개최
조선일보 | 1939.05.20

朝鮮(조선)은養兔國(양토국)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9.05.23

家兔(가토)의胃腸病發生(위장병발생) 水分(수분)의過多(과다)가原因(원인)

토끼 위장병 발생 원인
동아일보 | 1939.05.24

五個年計畫下(오개년계획하)에 養兔積極增産(양토적극증산)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9.05.25

鐵原養兔積極獎勵(철원양토적극장려)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39.06.23

養兔講演會(양토강연회)

양토 강습회 개최
조선일보 | 1939.07.23

夏節養兔管理要項(하절양토관리요항)

여름 양토 주의사항
동아일보 | 1939.08.03

養兔(양토)를增産計劃(증산계획) 京畿道(경기도)의 旱害對策(한해대책)

경기도 양토증산계획 구체안 협의
동아일보 | 1939.08.19

旱害(한해)의對策(대책)으로 養兔增産(양토증산)을 計畫(계획)

경기도 양토증산계획 구체안 협의
조선일보 | 1939.08.19

旱害地絶好副業(한해지절호부업) 養兔(양토)를 積極獎勵(적극장려)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9.08.20

仁川各小學校(인천각소학교)에養兔(양토)를 積極獎勵(적극장려)

인천각소학교에서 양토 적극 장려
조선일보 | 1939.08.30

토끼의增殖獎勵(증식장려)

김포군 토끼 증식 장려 강습회 개최
조선일보 | 1939.09.05

토끼의積極增殖(적극증식)

김포군 토끼 증식 계획 수립
동아일보 | 1939.09.06

慶南北畜産講習會(경남북축산강습회) 鎭海(진해)에서開催(개최)

토끼와 양 등 생산사육 관련 축산 강습회 개최
동아일보 | 1939.09.25

家畜專門窃盜(가축전문절도)

토끼와 개를 전문으로 절취하다가 잡힌 절도범
동아일보 | 1939.09.26

金泉大德面(김천대덕면)에서 養兔品評會開催(양토품평회개최)

양토 품평회 개최
동아일보 | 1939.09.27

金泉郡八個洞里(김천군팔개동리)는 “양고라” 兔飼養殖村(토사양식촌)

양고라 토끼 사육장
동아일보 | 1939.10.03

養兔(양토)을獎勵(장려)

토끼 사육 장려
동아일보 | 1939.10.04

토끼사냥한皮革(피혁) 軍(군)에獻納(헌납)을 準備(준비)

토끼 가죽을 군에 헌납
조선일보 | 1939.12.22

兔公送年辭(토공송년사)

기묘년 토끼 송년사
조선일보 | 1939.12.31

1940 皮革販賣統制強化(피혁판매통제강화)

토끼 가죽 판매를 규제하는 총독부
조선일보 | 1940.03.08

토끼增産計劃(증산계획) 四日(사일)부터講習會(강습회)

전국 각지에서 토끼 증산 계획
동아일보 | 1949.06.26

養兔增産計劃(양토증산계획) 講習會(강습회)를 開催(개최)

전국 각지에서 토끼 증산 계획
경향신문 | 1949.06.26

토끼기르는 법 (上(상))

토끼 기르는 방법
동아일보 | 1949.07.30

토끼기르는 법 (下(하))

토끼 기르는 방법
동아일보 | 1949.07.31

1950 軍用毛皮蒐集(군용모피수집)

농림부, 토끼와 개의 모피 군용으로 수집
조선일보 | 1950.01.31

毛皮(모피) 〇集協力(집협력)하라

서울시, 토끼와 개의 모피 수집
경향신문 | 1950.02.28

토끼의 눈과 귀

토끼의 눈과 귀
조선일보 | 1953.07.15

토끼500마리等(등) 美國(미국)서

釜山到着(부산도착)

미국에서 보내온 토끼 500마리
조선일보 | 1954.04.13

『토끼』의抗毒素使用(항독소사용) 植物病菌退治(식물병균퇴치)에有效(유효)

토끼의 항독소, 식물병균퇴치에 효과
동아일보 | 1956.06.16

토끼生捕(생포)로短距離演習(단거리연습)

토끼로 올림픽 훈련하는 미 육상선수
동아일보 | 1956.11.21

토끼잡으려다 少女(소녀)갈려卽死(즉사)

토끼 잡으려 굴린 바위에 깔려 소녀 사망
동아일보 | 1957.02.24

냥을토끼의性判定實驗成功(성판정실험성공)

미국에서 토끼 성별 예측 실험 성공
경향신문 | 1957.09.19

性判定實驗成功(성판정실험성공)

미국에서 토끼 성별 예측 실험 성공
조선일보 | 1957.09.19

『인공위성』에토끼 미국의 일주부가 제의

미국에서 인공위성에 토끼 태울 것을 건의
경향신문 | 1957.10.22

토끼그물에잡힌『호랑이』

토끼그물에 걸린 새끼 호랑이 생포
경향신문 | 1957.12.11

『호랑이』를生捕(생포) 토끼網(망)에걸려들어

토끼그물에 걸린 새끼 호랑이 생포
동아일보
1957.12.11

토끼 代身(대신)걸린 법

토끼그물에 걸린 새끼 호랑이 생포
조선일보 | 1957.12.11

토끼 기르기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58.07.20

토끼 기르기

토끼 기르는 방법
경향신문 | 1958.12.02

宇宙(우주)개·토끼生還(생환) 蘇(소)『로켓』發射成功(발사성공)

소련 로켓이 토끼를 태우고 무사 귀환
동아일보 | 1959.07.07

개와토끼生還(생환) 蘇公式發表(소공식발표)

소련 로켓이 토끼를 태우고 무사 귀환
조선일보 | 1959.07.07

단번에새끼 23마리「집토끼」한마리가分娩(분만)

프랑스에서 토끼 23마리 동시에 태어나
동아일보 | 1959.08.25

토끼도喫煙(억연)한다

뉴질랜드 빨강토끼의 흡연
조선일보 | 1960.04.19

蘇(소)『로켓트』發射(발사) 토끼·개 두마리
生還(생환)

소련 로켓이 토끼와 개 태우고 무사 귀환
동아일보 | 1960.07.06

農藝(농예)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61.05.19

各部隊(각부대)서토끼飼育(사육)

장병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토끼 사육
조선일보 | 1961.06.08

토끼기르기運動(운동) 一軍司(일군사)에서
展開(전개)

군사령부에서 예하전부대 대상 토끼 기르기 권장
경향신문 | 1961.06.10

토끼飼育獎勵(사육장려)

충남도지사의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61.07.11

濠洲(호주)에첫 輸出(수출) 토끼가죽三萬枚
(삼만매)

호주에 토끼 가죽을 첫 수출 하다
경향신문 | 1961.10.05

「一人一養兔(일인일양토)」文教部(문교부)서
計劃樹立(계획수립)

학생 한 명당 토끼 한 마리 사육 독려
경향신문 | 1961.10.12

토끼기르기運動(운동)

학생 한 명당 토끼 한 마리 사육 독려
동아일보 | 1961.10.12

새해부터“一人一兔(일인일토)”

학생 한 명당 토끼 한 마리 사육 독려
조선일보 | 1961.10.12

어린 토끼 기르기

어린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61.10.13

우선토끼기르기돕고

부락간 토끼 사육 부조
경향신문 | 1961.12.07

양토끼를 獎勵(장려) 面內(면내)에 50마리
分配(분배)

양토끼 50마리 무상 분배
경향신문 | 1961.12.09

젓소(千頭(천두))·토끼(5千(천)마리)導入(도입)

젓소 천 마리, 토끼 오천 마리 농가에 분양
동아일보 | 1962.01.10

옷과토끼 百(백)마리

취문고 학생들의 옷과 토끼 백 마리 기부
경향신문 | 1962.01.14

養兔熱(양토열)····高調(고조)

농가 양토열 고조
조선일보 | 1962.02.10

小資本經營(소자본경영) 希望設計(희망설계)

토끼

토상개량의 확대
경향신문 | 1962.03.18

養兔場(양토장)을마련

한국미창의 토끼 사육장 마련
조선일보 | 1962.03.29

「양골라」토끼 購入方法(구입방법)은?

양골라 토끼 구입방법
경향신문 | 1962.04.11

農事案內(농사안내) 畜產(축산) (4) 토끼기르기

토끼 기르는 방법
동아일보 | 1962.04.12

토끼와鐘(종)기증

용담리 부락에 토끼 백 마리와 종 한 개 기증
경향신문 | 1962.05.20

實務者指針書(실무자지침서)『最新養兔法
(최신양토법)』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62.06.15

貴族(귀족)토끼『양골라』輸入(수입)

러시아계 양골라 토끼 수입
동아일보 | 1962.08.05

토끼기르기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62.08.19

장편극『토끼전』「새들극단」첫공연

장편극 토끼전 첫 공연
조선일보 | 1962.09.02

이야기바탕은「별주부전」 어린이극「토끼전」
국립극장에서

어린이극「토끼전」국립극장에서 공연
조선일보 | 1962.09.08

토끼를 굴속에서 기른다는데?

굴 속에서 토끼 기르는 방법
경향신문 | 1962.09.17

軍納(군납)토끼買入(매입) 언제하나

군납 토끼 매입
경향신문 | 1962.09.24

토끼고기 軍納實現(군납실현)

토끼 고기의 군납 실현
경향신문 | 1962.10.06

토끼고기軍納(군납)과 處理施設(처리시설)

토끼 고기의 군납과 처리 시설 현황
경향신문 | 1962.10.10

내년봄부터토끼「봄」?

토끼 고기와 가족 판로 확대
경향신문 | 1962.10.15

兔皮工場(토피공장)못짓도록

가토피육처리공장 관련 다름 법정으로 번져
경향신문 | 1962.10.22

「토끼」고기軍納(군납)

농림부, 각 시도에 토끼고기 군납 시달
경향신문 | 1962.10.24

토끼를購入(구입)

화성군, 매월 32만 마리 토끼 구매 결정
경향신문 | 1962.10.26

「킬로」當(당)62원토끼고기軍納(군납)

토끼 고기의 군납
경향신문 | 1962.12.29

나는「토끼」입니다

계묘년 기념 토끼 기사
동아일보 | 1963.01.01

엄마토끼아기토끼

새끼를 돌보는 토끼
동아일보 | 1963.01.01

토끼와 함께 飛躍(비약)을

높은 번식률로 살림 돕는 토끼
경향신문 | 1963.01.01

토끼해의 전설

토끼해의 전설
경향신문 | 1963.01.01

토끼와 科學(과학)

실험동물로 토끼가 애용되는 이유
경향신문 | 1963.01.03

金(김)유신묘(慶州(경주))의 병석12支神像
(지신상) 가운데의 彫像(상)—7世紀頃(세기경)

12지신상 가운데 묘상
경향신문 | 1963.01.03

神秘(신비)스런「토끼」의 世界(세계) 恩津國民校 長(은진국민교장) 金泰吉(김태길) 氏(씨)의 體驗記(체험기)

토끼 사육 체험기
경향신문 | 1963.01.07

정말實現(실현)되나 토끼고기軍納(군납)

토끼 고기의 군납
경향신문 | 1963.01.21

仔兔(자토)의 分離飼育(분리사육)과 人工給乳(인공급유)는 어떻게

토끼의 번식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경향신문 | 1963.01.21

토끼고기軍納組合(군납조합) 昌原郡(창원군)

축협을指定(지정)

토끼고기군납조합으로 지정된 창원군 축협
경향신문 | 1963.02.15

토끼 잡으려다 사람만 셋死傷(사상)

다이너마이트로 토끼 잡으려다 폭발
경향신문 | 1963.04.18

體重(체중)3貫(관)의토끼

번식률이 강하고 타종보다 3배 이상 큰 로프 토끼
경향신문 | 1963.05.14

토끼 기르기 애완(愛玩)에서 산업(産業)으로

토끼 기르는 방법
조선일보 | 1963.06.02

토끼百餘(백여)마리잡아 먹은살갱이를生捕

(생포) 昌慶苑(창경원)에寄贈(기증)

동물원에 토끼 잡아먹은 살갱이 기증
동아일보 | 1964.02.10

옷벗겨간「토끼잡이」

스웨터 훌쳐 달아난 토끼 사냥꾼
조선일보 | 1964.04.30

第(제)2回(회) 東亞演劇賞(동아연극상)참가

民衆劇場(민중극장),『토끼와 포수』갖고

토끼와 포수 공연
동아일보 | 1965.09.02

「토끼와 포수」公演(공연)

토끼와 포수 공연
조선일보 | 1965.09.02

재치있는創作劇(창작극) 아쉬운人生觀照(인생관

조) 民衆劇場(민중극장)의『토끼와砲手(포수)』

토끼와 포수 공연
경향신문 | 1965.09.09

2千(천)『양고라』兔公(토공) 韓國歸化(한국귀화)

토끼털로 외화벌이 기대
동아일보 | 1965.12.08

토끼고기輸入計劃(수입계획)

프랑스 토끼고기 수입 계획
매일경제 | 1966.03.24

토끼고기가더좋다 고양이도독에提議(제의)

토끼 고기로 도독 회유
경향신문 | 1966.09.19

토끼털

값 싸고 실용적인 토끼털
매일경제 | 1966.11.21

愛煙家(애연가)토끼씨

실험 위해 탐배를 피우는 토끼
동아일보 | 1967.01.31

國務會議(국무회의) 課稅對象除外(과세대상

제외) 양고라토끼털등

과세대상제외 양고라 토끼털
매일경제 | 1967.02.01

果實加工品(과실가공품)등免稅(면세) 物品

稅法改定(물품세법개정)의결

과세대상제외 양고라 토끼털
동아일보 | 1967.02.01

양고라털등에免稅(면세) 物品稅法施行改正

(물품세법시행개정)

과세대상제외 양고라 토끼털
경향신문 | 1967.02.01

이털리 토끼털

양고라 토끼털 수입 난항 예측
매일경제 | 1967.02.09

양고라協(협)서 호소 兔毛輸出(토모수출) 잘 되도록

한국 양고라 협회 토끼털 수출 지원 호소
매일경제 | 1967.04.08

토끼털買入價引上(매입가인상) 1級品(급품)2천8백원

농가부 장려로 양고라 토끼털 값 대폭 상승
매일경제 | 1967.10.18

「양고라」털 성수기 맞아 오를 기세

양고라 토끼털 성수기
매일경제 | 1967.11.21

손해본 양고라飼育(사육)

양고라 토끼 사육 농가 손해
경향신문 | 1967.11.23

美(미)토끼사냥大會(대회)서 몽둥이만使用(사용)토록

미국 토끼 사냥 대회
매일경제 | 1967.12.07

토끼12마리검쳐

토끼사냥
매일경제 | 1967.12.26

농협 「양고라」털5만kg(kg)수매 자금1억確保(확보)

농협중앙회, 양고라 토끼털 수집 위한 금액 확보
매일경제 | 1968.05.30

토끼도3마리

토끼사냥
매일경제 | 1969.02.11

양고라털收買價(수매가) kg當(kg당)3백원인상

양고라 토끼털 수매가 인상
매일경제 | 1969.08.13

단결과 따미의 양고라 福(복)에 문힌 토끼 마을

토끼로 생계유지하는 모범 농촌
경향신문 | 1970.02.07

1970

판소리「水宮歌(수궁가)」獨唱會(독창회) 갖는 人間文化財(인간문화재) 朴初月(박초월) 여사

판소리 수궁가 공연
조선일보 | 1970.11.01

토끼몰이 團東(단속)

치안국, 토끼몰이에 대한 단속
경향신문 | 1971.09.03

판소리「水宮歌(수궁가)」完唱(완창)

명창 박동진, 판소리 수궁가 완창
동아일보 | 1971.10.26

토끼고기 통조림 첫輸出(수출)

토끼고기 통조림 첫 수출
매일경제 | 1972.04.22

토끼를特攻隊(특공대)로이용

크메르에서 토끼를 특공대로 이용
조선일보 | 1972.09.26

토끼털로 僞裝輸出(위장수출) 免稅(면세)밍크빼내

億臺脫稅(억대탈세)

토끼털로 위장해 억대 탈세
동아일보 | 1972.10.07

原資材(원자재)밍크 토끼털로 僞裝(위장)수출

토끼털로 위장해 관세 포탈
경향신문 | 1972.10.07

「토끼소녀」로 이름바꾼「바니걸즈」

토끼소녀로 개명한 인기 듀엣 가수
경향신문 | 1974.02.16

판소리「水宮歌(수궁가)」唱劇(창극)으로 編劇(편극)

22日(일)부터 國立劇場(국립극장)서 公演(공연)

판소리 수궁가 공연
동아일보 | 1974.03.19

새마을所得(소득)늘고 수출증대에寄與(기여) 脚光

(각광)받는 養兔(양토)사업

토끼 사육 사업
매일경제 | 1974.06.21

내년은 토끼해 智慧(지혜)의 化身(화신)

을묘년 기념 토끼 기사
경향신문 | 1974.12.30

토끼의生理(생리) 性味(성미)

토끼의 특성
매일경제 | 1975.01.01

토끼해 풀이

을묘년 기념 토끼 기사
조선일보 | 1975.01.01

說話(설화)에 얽힌 영특 토끼

을묘년 기념 토끼 기사
매일경제 | 1975.01.01

토끼家族(가족) 4천마리

국내 최대 규모 토끼 사육장
매일경제 | 1975.01.01

토끼의 피

토끼의 특성
경향신문 | 1975.01.08

美都波(미도파) 화랑서 李朝(이조) 토끼그림 展示會(전시회)

토끼 그림 전시회
경향신문 | 1975.01.08

李朝(이조)토끼그림展示(전시) 14일까지美都波(미도파)

토끼 그림 전시회
매일경제 | 1975.01.09

李朝(이조)토끼그림展示(전시)

토끼 그림 전시회
조선일보 | 1975.01.09

解說(해설) 畜産政策(축산정책) 전면개편—
草食性家畜(초식성가축)중심으로 轉換(전환)

초식성가축 중심으로 전환, 토끼 사육 강조
매일경제 | 1975.01.30

토끼고기 食生活(식생활)개선 에한뭇

토끼고기 섭취 권장
매일경제 | 1975.02.26

연탄가스除去(제거)연구중 中毒死(중독사)

실험용 토끼 죽지 않아 방심했다 참변
경향신문 | 1975.03.13

國校(국교)서토끼길러年(연)2百萬(백만)원

학교에서의 토끼 기르기
조선일보 | 1975.04.09

토끼飼育(사육)농가 選定(선정) 79년부터
本格(본격)수출

토끼 사육 규모 확대
경향신문 | 1975.05.21

토끼飼育(사육)을 80年(연)까지 3倍(배)로
늘리기로

토끼 사육 규모 확대
동아일보 | 1975.05.22

6萬(만)원짜리 種兔(종토)수입 佛産(불산) 2百
(백)50마리·輸出用(수출용)

프랑스 토끼 수입
경향신문 | 1975.06.04

토끼優良種(우량종)수입 農水産部(농수산부)
계획

농수산부 양토 사업 개발 목적 토끼 우량종 수입
동아일보 | 1975.06.04

「토끼와 砲手(포수)」

민중극장 토끼와 포수 공연
조선일보 | 1975.06.08

극단民衆(민중)극장,「토끼와포수」공연

명동예술극장에서 토끼와 포수 공연
경향신문 | 1975.06.09

토끼고기 料理(요리)

요리연구가의 토끼고기 요리
매일경제 | 1975.06.09

극단「前衛舞臺(전위무대)」서도 「토끼와 포수」
釜山(부산)공연

부산에서 토끼와 포수 공연
동아일보 | 1975.06.12

단백질 들썩---토끼고기

토끼 고기
매일경제 | 1975.07.09

「토끼와 포수」公演(공연)

토끼와 포수 공연
조선일보 | 1975.08.02

토끼飼育(사육)권장 농협서 가족收買(수매)

농협중앙회, 토끼 가족 수매
매일경제 | 1975.10.04

토끼 도살에서 박피까지 탈구로 고통없이 잡고
가족은 그늘에 말려야

농협중앙회, 토끼 가족 수매
경향신문 | 1975.10.06

농협중앙회 토끼飼育(사육) 적극장려

토끼 사육 확대 보급
매일경제 | 1975.11.07

12곳에 種兔場(종토장)설치 全國(전국)농가
段階(단계)참여

농협, 전국 12곳에 종토장 설치
경향신문 | 1975.11.07

토끼·사슴수입억제 品質改良(품질개량)에만 허용

토끼 수입 억제
매일경제 | 1975.11.14

토끼·사슴輸入抑制(수입억제) 下半期輸出入公告
(하반기수출입공고)

토끼 수입 억제
동아일보 | 1975.11.25

토끼사슴輸入(수입)억제 種子(종자)보급용은
除外(제외)

토끼 수입 억제
매일경제 | 1975.11.26

귀덮개 만들려고 토끼흠쳐

주거 침입해 토끼 흠친 소년
경향신문 | 1975.12.25

토끼고기專門(전문)요리점에 免稅(면세)·자금
支援(지원)검토

농수산부, 토끼고기요리점에 면세 및 자금 지원 검토
경향신문 | 1976.01.31

9.10일YMCA 토끼고기料理(요리)강습

토끼 고기 요리 강습
매일경제 | 1976.02.05

토끼등 料理(요리)강습

토끼 고기 요리 강습
경향신문 | 1976.02.05

토끼털室內靴(실내화) 덤핑

미국에 토끼털 덤핑 수출
매일경제 | 1976.04.16

토끼로 還生(환생)위해 自殺(자살)

소설에 심취한 영국 소년 투신
조선일보 | 1976.06.03

감자·토끼고기 料理(요리)

토끼 고기 요리 소개
매일경제 | 1976.06.24

토끼고기料理(요리)강습

토끼 고기 요리 강습
조선일보 | 1976.10.02

토끼,양고기料理(요리)강습회

토끼 고기 요리 강습
경향신문 | 1976.10.18

“토끼고기는有望(유망)한食品(식품)”——
佛料理家(불요리가)「티에보」씨招請講座(초청강좌)

토끼 고기 요리 강습
동아일보 | 1976.10.25

국립唱劇團(창극단)「水宮歌(수궁가)」

국립창극단 수궁가
조선일보 | 1976.10.28

사라진「南山(남산)토끼」

사라진 남산 토끼 50마리
조선일보 | 1976.10.30

桂樹(계수)나무밑 방아짚는 토끼새긴 銀製鏡型
(은제경형)장식리揚(인양)

신안 앞바다에서 토끼 새겨진 유물 인양
조선일보 | 1976.11.24

토끼고기料理(요리) 새로운 단백질供給源(공급원)

토끼 고기 요리 소개
동아일보 | 1977.01.25

「토끼와 포수」

토끼와 포수 공연
조선일보 | 1977.06.17

담백한 맛---토끼고기

토끼 고기 요리 소개
경향신문 | 1978.02.21

日(일)에 토끼大量(대량)수출

매월 토끼 대량 일본에 수출
경향신문 | 1978.02.23

토끼毛皮(모피)수매값 5%올려

토끼 모피 수매값 상승
경향신문 | 1978.05.23

렉스종 토끼 集團(집단)사육 고급 毛皮輸出
(모피수출) 본격화

렉스종 토끼 집단 사육
경향신문 | 1978.10.25

토끼뒀에 표범 한마리 생포

토끼 뒀에 걸린 표범 생포
조선일보 | 1979.11.14

1980 마당극「토선생…」

마당극 토선생 공연
조선일보 | 1980.05.27

렉스 토끼 飼育(사육) 인기

토끼 사육 인기
조선일보 | 1980.07.18

토끼로 재미보는 漁閑期(어한기)

어촌에서 토끼 사육으로 고소득
경향신문 | 1980.12.08

養兔協同組合(양토협동조합)서 모피收買(수매)
---上品(상품)1장에 8千(천)~1萬(만)원까지

양토협동조합 모피 수매
경향신문 | 1980.12.20

렉스토끼 사육분 한쌍 12~14만원

렉스토끼 사육 유행
매일경제 | 1981.03.21

4개業所(업소)적발 등록금 등치는射倖(사행)

「토끼놀이」일제단속

슬롯머신 도박 '토끼놀이' 유행
동아일보 | 1981.07.30

토끼놀이 일제단속 오락실4곳적발

슬롯머신 도박 '토끼놀이' 유행
조선일보 | 1981.07.31

「렉스」토끼분양 韓國(한국)의 토끼王(왕)「렉스」

토끼 사육 朴和錫(박화석)씨

렉스토끼 사육 유행
동아일보 | 1981.11.27

創作(창작)희극「토끼와 포수」11~15일

토끼와 포수 공연
조선일보 | 1981.12.09

토끼는 부자다

책 토끼는 부자다 출간
경향신문 | 1982.01.12

토끼와포수 再公演(재공연)

토끼와 포수 공연
경향신문 | 1982.02.03

토끼毛皮(모피)제품 輸出(수출)신장세 꺾여

토끼 모피 제품 수출량 감소
매일경제 | 1982.05.28

城南市(성남시) 주택가에도 늑대소등 새벽에

토끼두마리 잡아먹어

토끼 두마리 늑대에 잡아먹혀
조선일보 | 1982.06.13

「만능선수」라야 할 88五輪(오륜) 심벌마크

호랑이·토끼 막관 격돌

88올림픽 마스코트 경합
동아일보 | 1982.12.10

파도 타는 토끼의 묘기

TV 프로그램 속 토끼의 묘기
조선일보 | 1983.01.18

토끼사육「現代化(현대화)」로 재미 金浦(김포)

「한국종토 양육장」實鍾文(빈종문)씨

토끼 사육 현대화 사례 소개
동아일보 | 1983.07.25

大型(대형)토끼·개·면양 나온다

유전공학 기술 발달로 대형 토끼 개량 가능해져
동아일보 | 1983.12.17

호랑이모습 한반도「토끼」묘사는 잘못

한반도 지형 토끼 묘사는 그릇돼
조선일보 | 1984.12.07

農協(농협)마스코트 토끼로

농민단체 마스코트가 된 토끼
경향신문 | 1984.12.07

닭-오리-토끼 기르기운동

토끼 기르기 운동
조선일보 | 1985.07.07

토끼 160여마리 떼죽음

토끼가 피를 토하며 떼죽음
경향신문 | 1986.07.25

丁卯年(정묘년) 토끼이야기 지혜·재치·平和
(평화)의 상징

정묘년 기념 토끼 기사
매일경제 | 1987.01.01

多産(다산)의토끼는 풍요의 상징

정묘년 기념 토끼 기사
동아일보 | 1987.01.01

토끼혜...좋은일 많았다

정묘년 기념 토끼 기사
조선일보 | 1987.01.01

귀 종긋 눈 또렷... 平和(평화)의 동물 토끼

정묘년 기념 토끼 기사
동아일보 | 1987.01.01

古典(고전)속「토끼」성격분석

고전 속 토끼
조선일보 | 1987.01.01

사람잡은 사냥 산돼지誤認(오인) 발사 國校生
(국교생)맞아 숨겨

토끼 사냥 갔던 소년, 엽총에 맞아 사망
동아일보 | 1987.01.06

“토끼福(복) 올겐 몽땅 내차지” 충북清原郡
(청원군)의 대량사육가 趙炳尹(조병윤)씨

정묘년 기념 토끼 기사
매일경제 | 1987.01.10

「토끼와 포수」公演(공연)

토끼와 포수 공연
경향신문 | 1987.01.15

正常(정상)4배 食用(식용)토끼 遺傳(유전)공학
이용 飼育(사육)

초대형 토끼 개량 성공
경향신문 | 1987.03.19

超大型(초대형) 토끼 나왔다

초대형 토끼 개량 성공
조선일보 | 1987.03.19

國立唱劇團(국립창극단) 25돌기념 완관「토끼
타령」공연

토끼타령 공연
경향신문 | 1987.03.19

토끼·양털製品(제품) 본격 출하

토끼, 양털 이용한 방한 제품 출하
매일경제 | 1987.11.13

다양해진 모피패션---값싼 토끼·양털옷人氣(인기)
향수 직접뿌리면 손상---보관할땐 장뇌넣어
다양해진 토끼, 양털옷 패션
경향신문 | 1987.12.22

留置場(유치장)옥상의「토끼王國(왕국)」
유치장 옥상의 20여 마리의 토끼
경향신문 | 1988.03.17

어린이 별주부전公演(공연)
별주부전 공연
경향신문 | 1988.03.23

“토끼털輸入(수입) 규제토록”
토끼털 생산업자들의 수입 규제 요청
경향신문 | 1988.04.05

토끼털輸入(수입) 138% 급증 倒産(도산)우려
피해조사신청
한국양모조합 토끼털 수입 관련 피해조사 신청
매일경제 | 1988.04.05

토끼털 輸入(수입)규제 요청
토끼털 생산업자들의 수입 규제 요청
동아일보 | 1988.04.05

中共(중공)-칠레 양고라토끼털 국내산업 被害
(피해)조사 신청
국내 토끼 사육업자들의 토끼털 수입 관련 피해조사 신청
조선일보 | 1988.04.06

양고라 토끼털 輸入(수입) 산업 피해조사 개시
정부, 토끼털 수입 관련 피해 조사 결정
조선일보 | 1988.05.01

양고라 토끼털輸入(수입) 국내産業(산업) 被害
(피해)조사
정부, 토끼털 수입 관련 피해 조사 결정
동아일보 | 1988.05.02

輸入(수입) 양고라토끼털 産業(산업)피해조사 결정
정부, 토끼털 수입 관련 피해 조사 결정
경향신문 | 1988.05.02

토끼털 輸入(수입) 급증
토끼털 수입 급증
매일경제 | 1988.08.08

토끼털輸入(수입) 급증
토끼털 수입 급증
매일경제 | 1988.10.14

양고라토끼털 輸入(수입) 국내産業(산업)
피해크다
양고라 토끼털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 많아
매일경제 | 1988.10.29

양고라 토끼털 수입제한
양고라 토끼털 수입제한 전망
한겨레 | 1988.10.29

첫 산업被害(피해) 판정
토끼털 수입 규제 첫 산업 피해 판정
경향신문 | 1988.10.29

中国産(중국산) 토끼털 수입규제 수입품에
첫 산업피해 판정
토끼털 수입 규제 첫 산업 피해 판정
조선일보 | 1988.10.29

양고라 토끼털輸入(수입) 규제여부 1월결정
商工部(상공부)무역위
양고라 토끼털 수입 규제 검토
동아일보 | 1988.12.28

양고라毛皮(모피)산업 첫 救濟(구제)조치
輸入(수입)규제·보조금지급등 검토
양고라 토끼털 수입 규제 검토
경향신문 | 1988.12.28

토끼 호흡기병'스낫플스'백신 개발
토끼 호흡기병 백신 개발 성공
한겨레 | 1989.03.11

中語劇(중어극)「토끼와 포수」 오늘 梨花女大(이
화여대)서 공연
토끼와 포수 공연
조선일보 | 1989.09.12

1990

藥物(약물)실험 토끼 6천마리 식당에 1년간 공급
실험용 토끼를 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
조선일보 | 1989.12.17

실험용 토끼 음식점에 팔아
실험용 토끼를 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
한겨레 | 1989.12.17

藥物(약물)실험 토끼 食用(식용)으로
실험용 토끼를 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
경향신문 | 1989.12.18

실험용 토끼고기 음식점 대량팔아
실험용 토끼를 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
동아일보 | 1989.12.18

병균 시험한 토끼 음식점에 팔다니
실험용 토끼를 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
조선일보 | 1989.12.22

토끼털 생산農家(농가) 지원 部処(부처)간 이견
으로 차질
토끼털 생산 농가 지원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
매일경제 | 1990.01.10

서울양고라삼유
양고라 토끼털 이용해 섬유신소재 개발
매일경제 | 1990.02.23

3천원 토끼털 코트 外製(외제)밍크로 팔아
토끼털 코트를 고급 코트로 속여 팔아
조선일보 | 1990.06.11

畜協(축협) 토끼고기 무더기輸入(수입) 대책부심
무분별한 중국산 토끼고기 수입
매일경제 | 1990.12.06

市販(시판)햄은 칠면조·토끼고기「햄」소비자모임
국산 52개제품 성분조사
토끼고기가 들어간 시판햄
경향신문 | 1991.01.17

야생 집토끼 퇴치 바이러스살포 검토 뉴질랜드
토끼 퇴치 바이러스 살포 검토
한겨레 | 1991.03.01

세계적의학자「동물 천국」英國(영국) 토끼학대 곤욕
의학자 토끼 학대 논란
동아일보 | 1991.03.06

청소년-학생에「토끼기르기」독려
토끼 사육 장려
조선일보 | 1991.04.29

칠면조·토끼고기 수입급증
칠면조·토끼고기 수입급증
경향신문 | 1991.05.12

“골목길「토끼몰이」식 강경진압”
백골단의 강경진압
경향신문 | 1991.05.27

「양념 토끼고기」시판나서
양념 토끼고기 시판 시작
매일경제 | 1991.06.06

토끼몰이·직격탄 재등장
토끼몰이 사건, 경찰의 강경진압
한겨레 | 1991.06.18

‘토끼와 자라’어린이뮤지컬 무대 올라
토끼와 자라 공연
한겨레 | 1991.07.12

살아있는 실험용 토끼 “폐기물아니다”판결
실험용 토끼는 폐기물이 아니라 판결
경향신문 | 1992.02.21

淸溪山(청계산)에 토끼 방사
산토끼 100마리 방사
매일경제 | 1992.06.20

유전공학으로 야생 토끼 불임 유도
야생 토끼 불임 유도
한겨레 | 1992.08.27

최루가스 사라진 캠퍼스 산토끼·다람쥐 돌아왔다
시국 상처 씻고 생태계 회복
경향신문 | 1993.06.07

토끼가 새가족 구하고 죽어 英(영) 아파트
불나자 주인깨워
토끼가 일가족 구해
동아일보 | 1993.08.29

英(영)아파트 애완용 토끼 불나자 3가족 살려내
토끼가 일가족 구해
경향신문 | 1993.08.29

「두마리 토끼」가수-텔런트 겸업
다재다능 엔터테이너의 등장
조선일보 | 1993.08.31

人命(인명)구한 토끼 시상 “불났다 알리고 숨겨”
일가족 구한 토끼 사망
동아일보 | 1993.09.01

화제알리고 죽은토끼 英(영)동물協(협)서 死後
(사후)시상
일가족 구한 토끼 사후 시상
경향신문 | 1993.09.01

주인9명 구한 토끼에 賞(상)
일가족 구한 토끼 사후 시상
조선일보 | 1993.09.01

소말리아 어린이에 「산토끼 토끼야…」
한국 동요 배우는 소말리아 어린이들
조선일보 | 1993.09.06

올해의유행어 “兔死狗烹(토사구팽)”압권
새 정부 출범과 변화의 소용돌이
조선일보 | 1993.12.15

YS경제 첫째 「토끼」1마리 잡아
성장과 물가 대신, 흑자 기록
조선일보 | 1993.12.31

파란토끼 토토시리즈
웅진출판, 파란토끼 토토시리즈 출간
경향신문 | 1994.02.24

동물원서 토끼학살 獨(독)청년2명 최고량
동물원에서 토끼 학살 일어나
동아일보 | 1994.06.11

北韓(북한) 수달피 토끼 3마리 국내 반입
수달과 토끼의 교배종, 수달피 극비 입수
동아일보 | 1994.07.24

물에빠진 애완용 토끼 濠(호)소년 인공호흡 회생
애완용 토끼 인공호흡으로 회생
경향신문 | 1994.08.10

동화책과는 토끼오리
벅스바니 만화 소개
조선일보 | 1994.08.10

창극으로 꾸민 수궁가 11일 국립극장 무대 올려
수궁가 공연
경향신문 | 1995.03.09

토끼세계가 전해주는 우화적 가치 워터십 다운의
토끼
워터십 다운의 토끼 출간
조선일보 | 1995.08.25

「빨간 아기토끼」
비극적 결말의 서양식 전래동화
동아일보 | 1996.02.06

“인삼 정력에 좋다”3개월 복용 토끼「2배 효과」
실험 대상 토끼
동아일보 | 1996.04.25

한총련'토끼몰이 강경진압'속셈 땀가
군사정부 토끼몰이 사건
한겨레 | 1996.08.20

등산객 청계·우면산 도토리 “씩씩이” 다람쥐 토끼
겨울나기 “걱정”
등산객이 토끼 먹이인 도토리 다 주워가
동아일보 | 1996.09.18

한강변「토끼굴」상습정체
한강 변의 상습 정체 지역 ‘토끼굴’
동아일보 | 1996.10.01

고대소설'별주부전' 중·일·영어로 대역
다언어 교재에 실린 토끼의 간 이야기
경향신문 | 1996.11.12

‘버니’인형 모델 이색패션쇼
토끼 인형 이색 패션쇼
경향신문 | 1996.11.27

개장에 넣어 키운 토끼 개로「변신」
개장에서 키운 토끼, 개와 비슷해져
동아일보 | 1996.12.20

「피터 래빗」국내 첫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토끼 캐릭터
동아일보 | 1997.01.04

‘토끼 죽이기’ 생물학전 본격화
토끼 수 증가로 피해 극심한 호주
한겨레 | 1997.01.06

佛(불) 드골공항 토끼와의 전쟁 선포
파리 드골공항 활주로 누비는 토끼들
동아일보 | 1997.01.31

‘영원한 1등은 없다’ 토끼와 거북이의 광고경주
1, 2위 브랜드의 역전 현상
조선일보 | 1997.03.29

토끼 들짐승 겨울나기
토끼의 겨울나기
한겨레 | 1997.04.15

꼬마 도깨비와 눈 토끼
영화 꼬마 도깨비와 눈 토끼 소개
조선일보 | 1997.07.05

‘토끼몰이’감사에 실망
감사원의 토끼몰이식 감사에 실망
조선일보 | 1997.07.23

산토끼-꿩 노는 곳 짙은 솔향에 세속 잊어
산토끼와 꿩이 쉬어가는 김포 장릉
조선일보 | 1997.08.15

여우 꾀에 넘어간 토끼
여우 꾀에 넘어간 토끼 프로그램 소개
조선일보 | 1997.08.18

토끼몰이하듯 보급자리 부쉬놓고…
토끼몰이식 철거에 주민 항의
한겨레 | 1997.08.22

개·토끼·구렁이도 보험에 영국은 애완동물들의 낙원
토끼 보험 상품 출시
한겨레 | 1997.11.01

말썽꾸러기 토끼‘브루노’와 함께 바른 생활 배운다
토끼 브루노와 함께 배우는 바른생활 출간
조선일보 | 1997.11.18

꼬마토끼 해피(K2 2일 오후 1시)
꼬마 토끼 해피 프로그램 소개
한겨레 | 1998.01.01

“잘나가는 토끼보다 오래가는 거북이가…”이유있는’
승진기피’
IMF 한파 속 직장 내 생존 전략
경향신문 | 1998.01.09

설피신고 토끼몰고 달집태우고 불깡통 돌리고…
가족과 떠나는‘옛놀이여행’
토끼몰이, 쥐불놀이 등 옛놀이 소개
경향신문 | 1998.02.04

고양이 가문에 입양된 토끼
고양이, 새끼 토끼를 기르다
동아일보 | 1998.05.07

남산에 고라니·토끼 뛰는다
서울시 생태계 복원계획
한겨레 | 1998.08.06

아이스크림‘토끼’출시
롯데에서 ‘토끼’ 아이스크림 출시
매일경제 | 1998.09.30

동사무소 토끼장 동네명물 됐다
토끼를 키우는 동사무소
조선일보 | 1998.11.19

당근 먹고 죽은 토끼 당근 탔? 토끼 탔? 사람 탔?
당근 먹고 죽은 토끼전 개막
경향신문 | 1998.11.19

토사구팽
토사구팽의 유래
조선일보 | 1998.12.12

공사소음 토끼 폐사 5,500만원 배상결정 중앙환
경분쟁조정위
토끼 폐사 벌금형 결정
동아일보 | 1998.12.14

애완용 미니토끼 ‘불티’
IMF 이후 불티나게 팔리는 애완용 토끼
조선일보 | 1998.12.14

내년 토끼해 애완토끼 인기, 토끼고기는
육먹을까 걱정
토끼 호감도 상승에 불안에 떠는 육용 토끼 업계
한겨레 | 1998.12.17

그리운 토끼몰이 “그래,다시 해보자”
죽천 마을의 보리밭 토끼몰이
한겨레 | 1998.12.17

◇몸무게 10kg 「수퍼토끼」
도쿄에서 열린 토끼 전시회 개막식에 등장한 수퍼토끼
조선일보 | 1998.12.28

토끼띠 주부 당근1kg 공짜
토끼띠 기념 행사 진행
한겨레 | 1998.12.29

토끼띠 고객에 당근 사은품
토끼띠 기념 행사 진행
매일경제 | 1998.12.31

새해첫날 애완토끼 선물
토끼띠 기념 행사 진행
한겨레 | 1998.12.31

영리하지만 교만 겁많고 성질급해 속담속의 토끼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매일경제 | 1999.01.01

띠보따리토끼야 반갑다!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매일경제 | 1999.01.01

토끼해 깃든 애기 딸 낳으면 미녀 아들 예술 소질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매일경제 | 1999.01.01

기묘년 특집 토끼띠 3인방의 포부 아니벌써
36살‘황혼에 띈다’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한겨레 | 1999.01.01

상담원 손주희씨의 새해소망 “노숙자들도
토끼처럼 도약을”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경향신문 | 1999.01.01

토끼는‘꽤많은 동물’…다산—금일의 상징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동아일보 | 1999.01.01

이야기 속의 토끼 언제나 쫓기는 역할 도시의
소시민 닮아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조선일보 | 1999.01.01

토끼 꽤많고 사랑스런 ‘순백의 靈物(영물)’
한국의 토끼
경향신문 | 1999.01.01

달나라서 방아찝고 용궁서 지혜대결
민화와 문학 속 토끼
매일경제 | 1999.01.01

“토끼해 토끼처럼 힘찬 도약의 꿈”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조선일보 | 1999.01.03

“용궁(死地(사지))끌려간 토끼 지혜·용기로
탈출” DJ‘별주부전’으로 토끼해 열었다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경향신문 | 1999.01.03

백화점의 ‘토끼 마케팅’
토끼 마케팅 열풍
동아일보 | 1999.01.04

“올해는 토끼해” ‘토끼사이트’만나보세요
기묘년 기념 토끼 기사
동아일보 | 1999.01.07

‘강충강충’우리는 토끼야
아동용 책 발간
한겨레 | 1999.01.12

◇복지시설로 이사온 토끼
삼성 에버랜드, 복지시설에 토끼 기증
조선일보 | 1999.01.15

문화유산 속 토끼 전시회
국립민속박물관, ‘토끼, 달에서 21세기로’ 전시 개최
조선일보 | 1999.01.19

토끼, 달에서 21세기—12띠동물展(전)
국립민속박물관, ‘토끼, 달에서 21세기로’ 전시 개최
경향신문 | 1999.01.22

“출랑토끼 되지 말고 토끼지혜로 구조조정”
陳稔(진념)위원장‘토끼論(논)’
경기 상황 토끼에 비유
경향신문 | 1999.01.22

토끼 소재로 한 인형극
토끼 소재로 한 인형극 소개
조선일보 | 1999.02.13

1999년생 환영 못받는‘세기말 아이’
토끼띠 해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들
경향신문 | 1999.02.22

토끼잡이등 이색행사로 고객유혹 판촉전략
토끼 마케팅 열풍
매일경제 | 1999.03.15

“토끼고기는 21세기 영양공급원”
미래 영양공급원인 토끼
한겨레 | 1999.03.25

“임신기간 짧은 토끼가 미래 식량공급원”
유엔식량농업기구
미래 영양공급원인 토끼
조선일보 | 1999.03.25

미래식량은 토끼 FAO,사육법 보급
미래 영양공급원 토끼, FAO 토끼 사육법 보급
매일경제 | 1999.03.25

토끼 30마리 무상분양
토끼 무상 분양
경향신문 | 1999.04.16

연골·뼈 개발 쥐에 이식 코·귀 인공으로 만든다
토끼의 연골세포를 이식해 사람의 귀와 코로 사용될 연골을
체내에서 만든 실험쥐
동아일보 | 1999.05.26

인공연골 국내 첫 제조 화학研(연) 李海邦
(이해방)박사팀
토끼의 연골세포를 이식해 사람의 귀와 코로 사용될 연골을
체내에서 만든 실험쥐
조선일보 | 1999.05.26

세계 패선계 다시 모피로
밍크, 토끼털 등으로 만든 패선 소품 유행
조선일보 | 1999.09.29

작고 예쁜 햄스터·토끼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작은 동물 더욱 세심히 보살펴야
한겨레 | 1999.10.18

올 겨울 패선소품‘복고마람’
토끼털, 여우털, 양털 등으로 만든 패선 소품 유행
경향신문 | 1999.11.01

천년의 마지막 겨울‘모피로 감싼다’ ■올 겨울코트
모피인기 디자인도 다양
토끼털 겨울 코트 인기
경향신문 | 1999.11.08

남원서 온 창극‘수궁가’
수궁가 공연
조선일보 | 1999.11.11

얇미운 토끼‘수궁가’로 토끼해 마감
수궁가 공연
조선일보 | 1999.12.21

색인

Index

지역

ㄱ

| | |
|------|--|
| 간 | 038, 075, 076, 105, 118, 123, 138, 139, 140, 145, 146, 156 |
| 갈까마귀 | 090 |
| 거북이 | 075, 076, 078, 085, 122, 129, 166 |
| 계수나무 | 037, 038, 043, 051, 059, 064, 089, 163, 168, 180, 184, 185 |
| 곰 | 066, 074, 075, 084 |
| 구토설화 | 156 |
| 까마귀 | 049, 098, 120, 163, 166, 173 |
| 까치 | 077, 078, 191 |
| 꼬리 | 017, 022, 025, 065, 078, 079, 115, 116, 117, 158, 159, 169 |
| 꿩 | 059, 066, 074, 078, 102, 112, 115, 116, 138, 139, 142, 167 |

더글

ㄷ

| | |
|-----|---|
| 다산 | 041 |
| 달 | 037, 038, 048, 049, 050, 051, 052, 053, 055, 059, 060, 119, 120, 141, 163, 164, 168, 170, 173, 180, 184 |
| 달토끼 | 039, 165, 171, 180 |
| 독수리 | 074, 108, 136, 137 |
| 동요 | 088, 094, 096, 113, 114, 163 |
| 두꺼비 | 037, 038, 048, 049, 050, 051, 060, 084, 098, 120, 141, 164, 168, 169, 172, 174, 180 |
| 떡방아 | 037, 051, 057, 163, 173 |
| 똥 | 021, 023, 025, 030, 138 |

미음

ㄴ

| | |
|-----|-------------------------|
| 매 | 027, 163, 180, 190, 191 |
| 멧토끼 | 024 |

| | |
|------|---|
| 비음 | |
| 뉘 | |
| 별주부 | 072, 100, 118, 133, 135, 137, 144, 145, 148, 149, 151, 152, 154, 155, 179 |
| 본생경 | 140, 141, 142 |
| 본생담 | 055, 076, 174 |
| 불교 | 101, 165, 170, 173, 175, 177, 180, 182, 183 |
| 불로장생 | 038, 039, 052, 053, 123, 163, 168 |
| 불사약 | 037, 049, 050, 051, 055, 060, 180 |

시옷

ㅅ

| | |
|----------|---|
| 산토끼 | 024, 057, 067, 071, 084, 094 |
| 삼국사기 | 027, 028, 065, 075, 123, 138, 142, 156 |
| 삼족오 | 120, 166, 174, 180, 182, 183 |
| 서식지 | 022 |
| 선녀 | 121, 122 |
| 수궁가 | 066, 100, 106, 111, 119, 133, 136, 146, 148, 151, 154 |
| 신증동국여지승람 | 064, 086, 123 |
| 십이지 | 040, 042, 043, 044, 045, 056, 183, 185 |

필자

이음

ㅇ

| | |
|-------|--|
| 여우 | 017, 024, 028, 070, 078, 098, 140, 154, 155, 159 |
| 옥토끼 | 037, 038, 048, 050, 051, 052, 064, 165, 168, 174 |
| 옥황상제 | 121, 122, 124, 125 |
| 용궁 | 059, 066, 072, 075, 076, 092, 106, 138, 166 |
| 용왕 | 039, 059, 072, 075, 076, 102, 106, 111, 117, 125, 126, 135, 136, 137, 138, 139, 140, 145, 146, 155 |
| 우화 | 075, 105, 119, 129, 130, 144, 155 |
| 원숭이 | 076, 085, 130, 131, 132, 140, 141 |
| 이슴 우화 | 129, 172 |

지읒

ㅈ

| | |
|-----|---|
| 자라 | 065, 075, 102, 106, 135, 138, 139, 140, 146, 156, 167 |
| 장수 | 037, 039, 045, 047, 051, 126, 163, 168 |
| 정동방 | 042, 058, 185 |
| 지략담 | 077, 101, 103, 145, 146, 159 |
| 지명 | 121, 122, 123, 126, 150, 151 |

티음

ㅌ

| | |
|------|-----------------------------------|
| 토끼고기 | 165, 178, 189 |
| 토끼똥 | 102, 146 |
| 토천 | 060, 064, 086, 123, 124 |
| 트릭스터 | 077, 078, 079, 093, 113, 144, 159 |

피음

ㅍ

| | |
|----|--|
| 풍요 | 037, 040, 041, 045, 052, 059, 120, 123, 126, 182, 183, 184 |
|----|--|

히음

ㅎ

| | |
|-----|--|
| 항아 | 037, 049, 050, 055, 060, 064, 141, 168, 173, 180 |
| 호랑이 | 044, 048, 049, 056, 059, 064, 070, 071, 077, 078, 079, 081, 092, 098, 108, 115, 116, 142, 144, 149, 157, 158, 159, 163, 167, 173 |

필자

| | |
|------------------|---------|
| 강경남(姜京男) | 국립중앙박물관 |
|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 169 |
|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 177 |
| 구미래(具美來) | 불교민속연구소 |
| 월광보살 | 053 |
| 일월광첩 | 173 |
| 토끼의 보시행 | 140 |
| 권도경(權都京) | 우석대학교 |
| 문경 토끼비리 | 086 |
| 토끼바위 | 121 |
| 토동 | 150 |
| 김광언(金光彦) | 인하대학교 |
| 토끼사냥 | 027 |
| 김기호(金基鎬) | 영남대학교 |
| 꼬리 잘린 호랑이 | 079 |
| 아이를 솔에 넣고 도망친 토끼 | 112 |
| 토끼의 재판 | 142 |
| 돌떡 먹는 호랑이 | 081 |
| 불을 무서워하게 된 호랑이 | 092 |
| 김동건(金東建) | 경희대학교 |
| 상좌다름 | 097 |
| 수궁가 | 100 |
| 토별문답 | 151 |
| 토사호비 | 154 |
| 구토지설 | 075 |
| 토끼전 | 144 |

| | |
|-----------------|------------|
| 김만태(金萬泰)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 묘시 | 042 |
| 묘신 | 042 |
| 옥도망월형 | 051 |
| 토끼꿈 | 056 |
| 토끼띠 | 058 |
| 토끼부적 | 184 |
| 토끼자리 | 030 |
| 김석배(金奭培) | 금오공과대학교 |
| 범피중류 | 090 |
| 김선자(金善子) | 연세대학교 |
| 옥토끼 | 048 |
| 김이숙(金利淑) | 중앙대학교 |
| 상묘일 | 046 |
| 김혜정(金惠貞) | 경인교육대학교 |
| 수궁가 | 106 |
| 토끼타령 | 146 |
| 나수호(那秀昊) | 한국외국어대학교 |
| 토끼의 간 | 138 |
| 류수열(柳洙烈) | 한양대학교 |
| 토끼화상 | 148 |
| 토끼옥설 | 133 |
| 박경용(朴敬庸) | 대구대학교 |
| 토끼풀 | 032 |
| 토사자 | 188 |
| 박인하(朴仁河) | 서울웹툰아카데미 |
| 토끼와 원숭이 | 130 |
| 백진우(白晉宇) | 전주대학교 |
| 토의간 | 155 |

| | |
|-------------------------|-------------|
| 서문홍(西門洪) | 국립생물자원관 |
| 토끼의 생태와 자연 | 017 |
| 굴토끼 | 022 |
| 멧토끼 | 024 |
| 우는토끼 | 025 |
| 서해숙(徐海淑) | 전남대학교 |
| 삼묘일 보기 | 044 |
| 토끼고기 | 178 |
| 토해 | 189 |
| 안보연(安寶蓮) | 국립문화재연구원 |
| 토끼털 | 185 |
| 오세길(安世吉) | 동의과학대학교 |
| 숙담 속 토끼 | 069 |
| 이규호(李揆昊) | 동남보건대학교 |
| 토끼 배 가르는 대목 | 117 |
| 수궁풍류 | 111 |
| 이기형(李起衡) | 경희대학교 |
| 고국산천 | 072 |
| 토끼위기 | 136 |
| 이원복(李源福) | (사역사·여성·미래) |
| 수월관음도 | 170 |
| 쌍토도 | 172 |
| 호응박토도 | 190 |
| 이현정(李炫靜) | 제주대학교 |
| 토끼선생 | 124 |
| 토끼섬 | 126 |
| 이홍우(李洪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 077 |
|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 157 |
| 동물 나이 자랑 | 084 |

| | |
|-----------------|-----------|
| 정미숙(鄭美淑) | 실학박물관 |
| 일월수 다라니주머니 | 175 |
| 토끼무늬 | 180 |
| 정진헌(鄭震憲) | 건국대학교 |
| 반달 | 088 |
| 산토끼 | 094 |
| 산토끼 | 096 |
| 옹달샘 | 113 |
| 조선영(曹善映) | 국립무형유산원 |
|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 115 |
| 토끼 눈이 빨갛게 된 유래 | 116 |
| 토끼와 거북이 | 129 |
| 조효임(曹孝姪) | 서울교육대학교 |
| 동물 그리는 노래 | 083 |
| 천진기(千鎭基) | 전 국립민속박물관 |
| 장수와 풍요의 토끼 | 037 |
| 토끼가 깃든 물건 | 163 |
| 달과 토끼 무늬 수막새 | 168 |
| 털날 | 056 |
| 최원오(崔元午) | 광주교육대학교 |
| 문학 속의 토끼 | 064 |
| 곰을 범한 토끼 | 074 |
| 표인주(表仁柱) | 전남대학교 |
| 토끼굴 | 119 |
| 토끼봉 | 123 |

자문

감수

강경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권태호 국립민속박물관

김명자 안동대학교

설성경 연세대학교

엄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세길 동의과학대학교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

이원복 (사)역사·여성·미래

최은수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

최원오 광주교육대학교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Rabbit